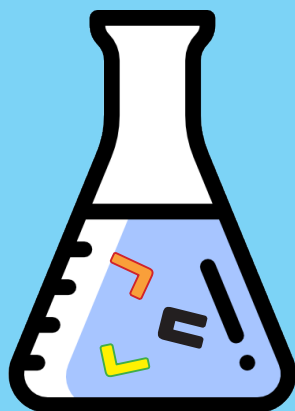


모든 시험에 대비 가능한 국어 **문법** 개념서

국어 문법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국어 문법의 정수 4.0

- ✓ **문법의 모든 것을 담은 기본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할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심화된 내용까지 한번에
- ✓ **혼자서도 공부 가능한 쉬운 설명**
옆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이 쉽고 친절한
설명

힘들고 외로운 공부
이제부터 함께 가요!

국어
문법의
정수 4.0

이름 : _____

학교 : _____

학년/반/번호 : _____

연락처 : _____

E-MAIL : _____

"한 권에 문법을 모든 것을 담은 그런 교재는 없을까??"

『문법의 정수』 위와 같은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단순히 내용만 간략하게 담아 놓은 것이 아니라 문법의 모든 개념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정수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알아야 하는 국어 문법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중점에 두고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법의 정수』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학생 친구들은 공부하는 데 참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등...

그런데 국어라는 교과 중에서도 한 부분인 문법에 또 돈을 들인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학생 친구들의 부담을 덜고자 좋은 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료라고 해서 "별거 없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문법의 정수』는 오로지 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 친구들이 제 교재를 볼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의 학생 친구가 이 책을 본다 하더라도 이 교재가 그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

앞으로 문법의 정수는 1.0, 1.1, 1.2...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학생 친구들을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공부
이제부터 함께 가요!!!

①문법의 모든 것을 담은 기본서입니다.

학생 친구들이 『문법의 정수』 한 권만 가지고 있어도 안심을 할 수 있게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모두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최신 모의고사·수능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보다 더 심화된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②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옆에서 일대일로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학생 친구들은 교재만 가지고도 혼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간략한 정리나 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리하여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암기가 아닌 이해를 추구합니다.

국어 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왜 그렇지?'와 같은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④점점 발전해가는 책입니다.

『문법의 정수』는 처음에 1.0버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새로운 파트가 추가되거나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1.1, 1.2, 1.3 ... 이렇게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10.3 이렇게 업데이트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

⑤학생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교재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

학생 친구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최대한 교재 수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학생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저자 소개 - 이한결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꾸준히 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내세울 경력은 없지만

누구보다도 국어와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sol8250>

〈문법의 정수4.0〉을 마무리하며

<문법의 정수>를 처음 배포한 후로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괜한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하며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시며 댓글을 남겨 주신 분들이 있어 이렇게 또 새로운 버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번 4.0버전에는 드디어 중세 국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중세 국어에 대해 언제 만들어지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야 그 첫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세 국어의 기초와 음운 파트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형태와 문장 파트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한 4.0버전은 새롭게 출간된 문법 개론서를 참고하여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는데요, 특히 음운론 파트에 있어 꽤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좋게 내부 디자인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책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초심이었습니다. 책의 분량이 늘어나고 참고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시중에 나오는 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맞춰져 가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 까다로운 부분에서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에 고민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법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은, 친절한 책을 제공하자라는 초심을 계속 생각하며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이 교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1년 올해도 함께 가요!

2021년 2월
이한결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블로그 댓글이나 메일로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 남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정될 때마다 성심성의껏 검토해 주시는 남해제일고 김혜지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1 음운

1. 음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11
1) 음성과 음운	011
2) 최소 대립쌍과 변이음	012
2. 음운 체계	020
1) 자음	020
2) 모음	024
3) 운소	026
3. 음절	028
4. 음운 변동	029
1) 음운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29
2) 음운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	030
(1) 교체	030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030
② 비음화	032
③ 'ㄹ'의 비음화	034
④ 유음화	035
⑤ 된소리되기	036
⑥ 구개음화	037
⑦ 반모음화	041
⑧ 'ㅣ' 모음 역행 동화	042
⑨ 조음 위치 동화	043
(2) 탈락	044
① 자음군 단순화	044
② 'ㅎ' 탈락	044
③ 'ㄹ' 탈락	049
④ 모음 탈락	050
⑤ 반모음 'ㅇ' 탈락	051
(3) 축약	052
① 유기음화	052
② 모음 축약	053
(4) 첨가	054
① 반모음 첨가	054
② 'ㄴ' 첨가	055
③ 사잇소리 현상	056
5. 기출 문제 확인하기	068

2 형태

1. 형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071
1) 형태소와 기타 개념들	071
(1) 형태소	071
(2) 형태/이형태/교체/기본형	073
2) 단어	076
2. 품사	080
1) 품사 분류	080
2) 체언	082
(1) 명사	082
(2) 대명사	085
(3) 수사	088
3) 관계언 (조사)	089
4) 용언	098
(1) 동사	099
(2) 형용사	100
(3) 용언의 활용	102
(4) 어미	106
(5) 보조 용언	105
5) 수식언	112
(1) 관형사	112
(2) 부사	114
6) 독립언 (감탄사)	116
3. 단어의 형성	130
1) 단어 형성의 기본적 이해	130
(1) 단어 형성 방식에 따른 단어의 유형	130
(2) 단어 형성의 재료	132
① 어근과 접사	132
② 접사의 종류	132
2) 파생어	134
(1) 접두 파생어	135
(2) 접미 파생어	136
3) 합성어	140
(1) 품사별 합성어	140
(2) 대등/종속/융합 합성어	141
(3)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	142
5. 기출 문제 확인하기	150

3 문장

1. 문장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53
1) 문장 성분	153
2) 주어	156
3) 서술어	157
4) 목적어	159
5) 보어	161
6) 관형어	161
7) 부사어	162
8) 독립어	163
2. 문장의 유형	166
1) 평서문	166
2) 의문문	167
3) 명령문	168
4) 청유문	169
5) 감탄문	169
3. 문장의 구성	171
1) 이어진 문장	172
(1)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172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173
2) 안은 문장	176
(1) 명사절	176
(2) 관형사절	177
(3) 서술절	179
(4) 인용절	179
(5) 부사절	182
4. 높임 표현	187
1) 주체 높임	189
2) 객체 높임	191
3) 상대 높임	192
5. 시간 표현과 동작상	196
1) 시간 표현	196
(1) 시간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	196
(2) 과거 시제	197
(3) 현재 시제	200
(4) 미래 시제	201
(5)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201
2) 동작상	202

6. 부정 표현	207
1) 부정 표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07
2) 부정문의 종류	208
(1) '안' 부정문	208
(2) '못' 부정문	210
(3) '말다' 부정문	212
3) 부정문의 증의성	212
7.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215
1) 피동 표현	216
(1) 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	216
(2) 피동문의 형식	218
① 파생적 피동	218
② 통사적 피동	219
(3) 피동문의 제약	220
2) 사동 표현	221
(1) 사동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	221
(2) 사동문의 형식	222
① 파생적 사동	222
② 통사적 사동	223
③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	224
(3) 사동문의 제약	225
3) 피동문, 사동문 뜯어 보기	226
8. 기출 문제 확인하기	232

4 중세 국어

1. 중세 국어의 기초	236
2. 음운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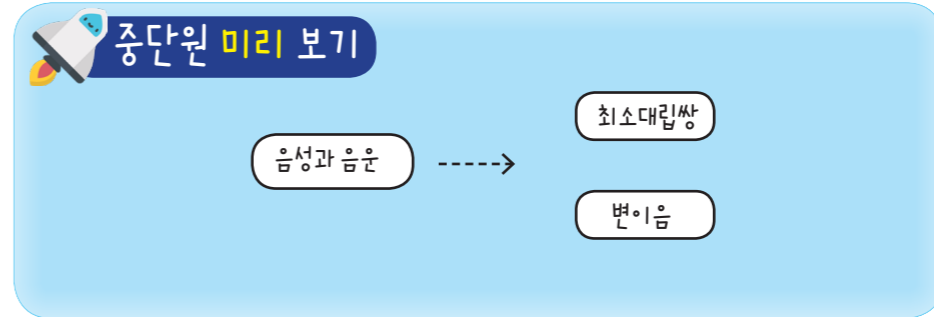
PART 1

음운

1. 음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음운 체계
3. 음절
4. 음운 변동
5. 기출 문제 확인하기

음운론은 문법 공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내용입니다. 학생 친구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또 그만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음운론을 마냥 공식처럼 암기하지는 않았나요~? 음운론은 암기를 해야 하는 파트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음운론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해서 음운론을 완전 정복해보도록 합시다!!!

1. 음운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음운이 뭘까요?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기본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모든 파트에서 '기본'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텐데요!
 뭐든지 기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친구들을 보면 음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비음 동화나 구개음화 등과 같은 음운 현상부터 공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는 덧셈, 뺄셈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다고요 ㅎㅎ
 이번에는 기본부터 시작해서 음운에 대해 제대로 알고 넘어갑시다!!

1)음성과 음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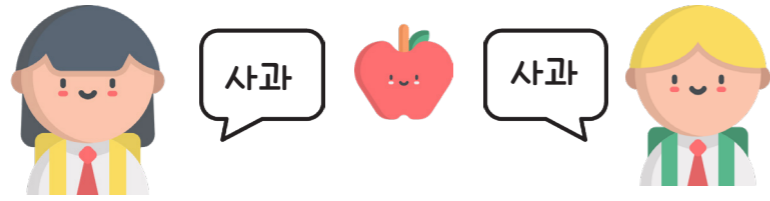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말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같은 말소리도 듣고 다른 말소리도 들죠. 이러한 말소리를 이제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단어나 문장을 말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말소리는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같다**고 할 수도 있고 **같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학생은 모두 '사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같은 단어를 말했어도 음성학적으로 세세히 따지면 목소리의 굵기나 높낮이, 크기, 억양 등이 다르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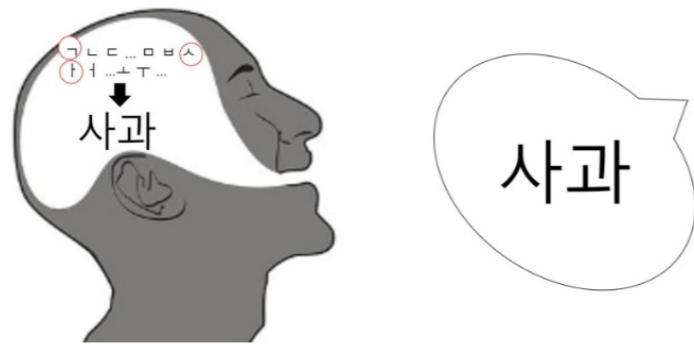
그리고 또한 같은 사람이 '사과'를 두 번 말했다고 해도 역시나 두 번의 '사과'라는 물리적인 말소리는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말한 '사과'라는 발화를 녹음해서 다시 재생하지 않는 이상 이전에 발화한 '사과'와 완전히 똑같은 말소리를 내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소리에서 **물리적인 차원**의 소리를 '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에서 말소리를 내는 것은 모두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말하는 것이 모두 음성이라고 했으니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음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위의 '사과'라는 말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과'라는 두 개의 말소리를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물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의해 발화된 '사과'라는 말을 같은 소리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과'라는 조금씩 다른 말소리를 듣고도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머릿속에 자음, 모음과 같은 글자들과 그러한 글자들의 소리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금씩 다른 '사과'라는 말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는 이를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리들의 목록과 비교해서 그 중에 한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리의 차원 중에서 위에서 설명한 물리적 차원의 소리인 음성과 달리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 즉 **심리적·추상적 차원**의 소리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음운은 음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1) '음운'은 '음소'와 '운소'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앞 글자를 합쳐 '음운'이라고 합니다. '운소' 대해서는 다시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 **음운은 직접 실현되지 않고 구체적인 음성들로 실현**됩니다. ²⁾'사과'라는 말소리를 내었다는 것은 머릿속에 저장된 'ㅅ, ㅏ, ㄱ, ㅏ, ㅏ'라는 음운을 구체적인 음성들로 발음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음운은 뜻을 변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할 테지만 '고기[kogi]'에서 앞뒤의 'ㄱ'은 엄밀히 따지면 그 소리가 다릅니다. 즉, 음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음 기호에서도 차이가 나죠? 그러나 이 둘의 차이로 단어의 뜻이 구별되는 경우는 우리말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다 'ㄱ'으로 인식할 뿐입니다. 따라서 [k], [g]는 별개의 음성일 뿐이지 같은 음운입니다. 반면 '사과', '다과'에서 보면 'ㅅ'과 'ㄷ'으로 인해 단어의 뜻이 달라지고 있으니 이 둘은 음운이 됩니다.

셋째, **화자는 음운의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사과'라는 말 대신 '다과'라고 말을 하면 그 의미의 차이를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의 차이는 쉽게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고기[kogi]'에서 'ㄱ'의 음성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이는 단어의 의미 변별과 무관한 음성적 차이기 때문에 화자들이 잘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음운의 수는 유한**합니다. 우리말에서 보면 자음과 모음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발음할 때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다양한 음성으로 실현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운	음성
단어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음	단어의 뜻을 구분하지 못함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음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음
심리적·추상적 단위임	물리적·구체적인 단위임
그 수가 유한함	그 수가 무한함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결국 결국 음운은 ㄱ, ㄴ, ㄷ과 같은 자음과 ㅏ, ㅑ, ㅓ, ㅕ과 같은 모음 등이 갖는 소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면 쉽게 자음이나 모음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은 그런 자음이나 모음 등이 실현되었을 때의 소리로 음운과 대응되어서 뜻을 변별하지 않을 때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2)³⁾최소대립쌍과 변이음

음운은 '최소대립쌍', '변이음'이라는 개념과 함께 설명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⁴⁾모든 음운들은 **최소대립쌍**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대립쌍이란 뭘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불 - 물

위 두 단어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어떤 차이에 의해서 달라졌을까요? 바로 단어의 초성인 'ㅂ', 'ㅍ'에 의해서 그 뜻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최소대립쌍

2) 여기서는 말소리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지만, 결국 음운이 음성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소리를 음성으로 보고 그 안에서 뜻을 변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음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말소리
 — 음성 : 물리적/구체적
 — 음운 : 심리적/추상적

고기[kogi]
 바보[pabo]

'고기'는 'ㄱ, ㅓ, ㅣ', '바보'는 'ㅂ, ㅏ, ㅓ'의 음운으로 구성되어 있네. 두 단어 모두 같은 음운인 'ㄱ', 'ㅂ'이 음성만 다르게 실현되었어!!!

3) 최소대립쌍을 다른 말로 최소변별쌍이라고도 합니다.

4) 'ㅇ'과 'ㅎ'은 서로 다른 음소임에도 불구하고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없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은 '하나의 소리 차이로 인해 의미가 서로 다른 단어쌍'을 말합니다.

5) 최소대립쌍은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소리만 다르고 나머지 조건은 모두 같아야 합니다.

음운은 위와 같은 ⁵최소대립쌍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음운이 단어의 의미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운을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살핀 것처럼 음성과 달리 음운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최소대립쌍은 물리적으로 다른 소리가 있을 때 그 둘이 별개의 음운인지 판단할 때 쓰입니다. '불'과 '물'에서처럼 'ㅂ'과 'ㅁ'이라는 소리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졌다면 당연히 그 둘은 서로 다른 음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기[kogi]'의 [k]와 [g]은 이러한 최소대립쌍을 설정할 수조차 없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서 다루고 있는 '변이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18년 수능 11번 문제에서는 지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최소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음운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말의 음운을 추출하여 그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

더 알아보기 최소대립쌍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최소 대립쌍을 설정할 때는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적 대등성이라는 말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 - 아기

위 두 단어의 음운의 개수는 각각 2개(ㅏ, ㅣ), 3개(ㅏ, ㄱ, ㅣ)로 양적 대등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소대립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질적 대등성이라는 말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반모음은 반모음끼리 최소대립쌍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이 - 옷

'오이'의 'ㅣ'와 '옷'의 'ㅍ'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때 서로 모음과 자음으로 다르기 때문에 질적 대등성을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운들은 '변이음'이라는 것을 갖기도 합니다. 자, 아래의 단어를 발음해 볼까요?

고기[kogi]

여러분은 '고'의 'ㄱ'과 '기'의 'ㄱ'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옆에 제가 발음기호에도 적어놓은 것처럼 사실 서로 **물리적**으로는 다른 소리입니다.

앞의 'ㄱ'은 성대의 떨림이 없는 소리라고 해서 **무성음[k]**이고,

뒤의 'ㄱ'은 성대의 떨림이 있는 소리라고 해서 **유성음[g]**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개의 소리를 서로 다른 소리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ㄱ'이라고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두 개의 말소리가 음성적으로는 다를지라도 머릿속에 저장된 음운에서는 같은 음운인 'ㄱ'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ㄱ'이 서로 다른 음운으로 인식되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소리는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소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ㄱ'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만, 뒤의 'ㄱ'은 절대 단어의 첫머리에는 올 수 없으며 모음과 모음 사이, 혹은 유성 자음과 모음 사이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소리가 나타나는 음성 환경이 전혀 겹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들 소리가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음성 환경에 나타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 두 소리의 다름에 의해 뜻이 달라지는 단어쌍 즉,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⁷그렇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소리는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없기에 서로 다른 음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기'의 각기 다른 소리 'ㄱ'을 어떻게 봐야하는 걸까요? 이는 하나의 음운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그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음운에 속하면서 음성적으로는 다르게 실현된 소리들을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음운을 그것이 실제로 실현되는 여러 소리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바구니에 담긴 여러 색의 공들을 떠올려 보세요. 'ㄱ'이라는 음운을 소리낼 때 바구니에서 환경에 맞는 공을 꺼내서 쓰는 것이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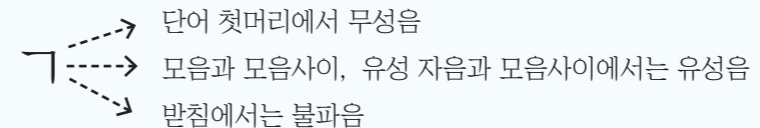
6) 상보적 분포를 배타적 분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7) 다르게 말하면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있어야 서로 다른 음운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즉, 서로 다른 음운이라는 말은 최소대립쌍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며, 동시에 같은 환경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 알아보기 상보적 분포 / 배타적 분포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그것들이 실현되는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⁸'ㄱ'의 경우 이러한 변이음들의 분포 환경을 갖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는 변이음들의 분포 환경을 모두 더한 것이 음운 'ㄱ'의 분포 환경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상보적 분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보'라는 말은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ㄱ'의 변이음들의 분포 환경은 절대 겹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배타적 분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보적 분포'와 '배타적 분포'를 비슷한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나온 유성음, 무성음, 불파음 등은 뒤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8) 'ㄱ' 이외에도 하나의 음운이 여러 변이음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ㄱ, ㄷ, ㅂ, ㅈ, ㅉ, ㅅ, ㅆ, ㄴ, ㄹ, ㅎ은 모두 여러 변이음을 갖습니다. 뒤에서 음운 현상을 다룰 때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선 변이음을 '슈퍼맨' 영화로 재미있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파이더맨' 영화로 해보겠습니다 :)



<스파이더맨 홈커밍>

영화에서 '피터 파커'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 학 여학생을 짝 사랑하기도 하죠. 그런데 빨간색 쭈쭈이 수트를 입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슈퍼 히어로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피터 파커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결코 한 곳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평범한 학생인 피터 파커로 다니다가,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어김없이 사라져 가면을 쓰고 스파이더맨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처럼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이 한 곳에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이 둘이 한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즉, **평범한 학생**과 슈퍼 히어로 **스파이더맨**은 **피터 파커**라는 한 사람의 **변이음**인 것입니다.



<(좌)연합뉴스/(우)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틸컷>

더 알아보기 영어와 비교해 보기

문법 교과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활동

지도 방안
지문은 외국인인 한국어 배우 때 구분이 어려워하는 음운과 한국 사람이 외국어를 배울 때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음운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이 활동을 통해 각 언어의 음운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성음과 유성음
'무성음'은 발음할 때 목청을 진동시키지 않고 내는 소리. 유성음은 목청이 떨려 울리는 소리를 말한다.

구분	설명
성격	사실적 객관적 예시적
주제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각 구별하지 못하는 자음
특징	외국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자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

P 수업 PPT

1 다음 글을 읽고, 우리말 자음의 특징을 탐구해 보자.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풀[pull], 풀[pʰull], 뿔[pʰul]'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람이 '불, 풀, 뿔'이라고 하면, 영어 화자들은 대개 '풀, 풀, 풀'이라고 따라 한다. 한국 사람은 'ㅍ, ㅍ, ㅍ'의 세 소리를 명확하게 서로 다른 소리로 구분하지만, 영어 화자들이 이 소리들을 구분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ㄷ, ㅌ, ㅌ'이나 'ㅅ, ㅆ, ㅆ'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라고 하는데, 한국어의 자음은 이렇게 세 가지 소리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외국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말의 자음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pː], [bː], [tː], [dː], [ʃː], [vː]와 같은 영어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한국 사람은 말을 할 때 '바보[pabo]'에서 첫 번째 'ㅂ'은 무성음 [p]로, 두 번째 'ㅂ'은 유성음 [b]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를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또 한국 사람은 '다리[tari]'의 중간 소리 'ㄹ'과 '달[tal]'의 마지막 소리 'ㄹ'을 [r]과 [l]로 각각 다르게 발음하면서도 두 소리를 다른 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 한국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영어의 자음
- 국립국어원 <우리말의 이모저모>

(1)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설명해 보자.

[예시문] 한국어 화자는 'ㅂ'과 'ㅍ'을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지만, 영어 화자는 이 둘을 다른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미래엔 언어와 매체 교과서 >

우리는 앞에서 고기에서의 [k]와 [g]를 같은 음운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음운들 간의 관계는 다른 언어에서도 그럴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ㅂ'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리[puri] / 고비[kobi]
peach - beach

16 문법의 정수 | PART 1 음운

17

'ㅂ'의 소리는 환경에 따라 [p]와 [b]으로 다르게 실현되지만 이는 국어에서 같은 'ㅂ'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 두 소리가 'p', 'b'라는 각기 다른 글자로 존재하며 당연히 최소대립쌍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위의 '부리-고비'에서 'ㅂ'은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나지만 하나의 음운으로 여겨지는데 비해 'peach-beach'에서는 'p-b'로 서로 다른 음운으로 구분됩니다. 그 증거로 'peach-beach'가 최소대립쌍을 이루고 있는데요.

밭[pa] / 팔[pʰa] / 빨[pʰa]

또한 우리말에서는 'ㅂ, ㅍ, ㅃ'과 같이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각기 다른 글자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것들을 하나의 소리로 인식합니다. 이들 모두를 그냥 'p'으로 사용하죠. 위 교과서를 보면 외국인이 '밭'을 말해야 하는데 'ㅂ'과 'ㅍ'을 구분하지 못하고 '팔'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과 다른 언어들의 음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여기 나오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역시 뒤에서 다룰 것입니다 :)

철수 [철수]
3개의 다른 소리네?
ㅂ, ㅍ, ㅃ이잖아!

제인 [제인]
다 똑같은 'p'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거지?

ㅂ ㅍ ㅃ
[p] [pʰ] [pʰ]

더 알아보기 'ㅇ'과 'ㅎ'은 최소대립쌍이 안된다고?

앞에서 서로 다른 음운이라면 최소대립쌍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ㅇ'과 'ㅎ'은 서로 다른 음운이지만 최소대립쌍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음운임에도 불구하고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서 'ㅇ'은 음절 종성에서만 실현됩니다. 아시다시피 음절 초성에 적히는 'ㅇ'은 그냥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표시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ㅎ'은 음절 종성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음절 초성에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좋다'와 같이 'ㅎ'이 음절 종성에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 것이 바로 글자와 그것이 나타내는 소리값입니다. 앞으로 계속 음운에 대해 여러가지를 배우게 될텐데요, 간혹 이를 그냥 단순히 'ㅅ, ㅁ'와 같은 도형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배운 음운인 자음, 모음은 각각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문자라는 형식으로 표현할 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을 잘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좋다'에서 'ㅎ'이라는 소리는 표기상 음절 종성에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h]라는 발음 기호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h]라는 소리는 음절 종성에 오게 될 경우 탈락하거나 다른 자음과 축약되거나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어 버립니다. '좋다'에서도 실제로는 [조타]로 발음이 되죠. 결국 [h] 즉, 우리가 'ㅎ'이라고 쓰는 이 음운은 음절 종성에는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ㅇ'과 'ㅎ'은 서로 다른 환경에 존재하기 때문에 최소대립쌍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죠? 보통 같은 음운의 변이음들끼리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데, 'ㅇ'과 'ㅎ'은 분명 서로 다른 음운인데도 불구하고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한눈에 보기

음운	음성
단어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음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음	단어의 뜻을 구분하지 못함 그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음
심리적·추상적 단위임 그 수가 유한함	물리적·구체적인 단위임 그 수가 무한함

말소리

- 음성: 구체적/물리적
- 음운: 추상적/심리적

특징 ①

최소대립쌍 (최소변별쌍)을 이룰 수 있음

하나의 말소리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쌍, 다른 조건들은 모두 동일해야 함!!!

ex) **뭉** **물**

특징 ②

변이음을 갖는 경우가 많음

한 음소에 속하면서 음성적으로는 다르게 실현된 소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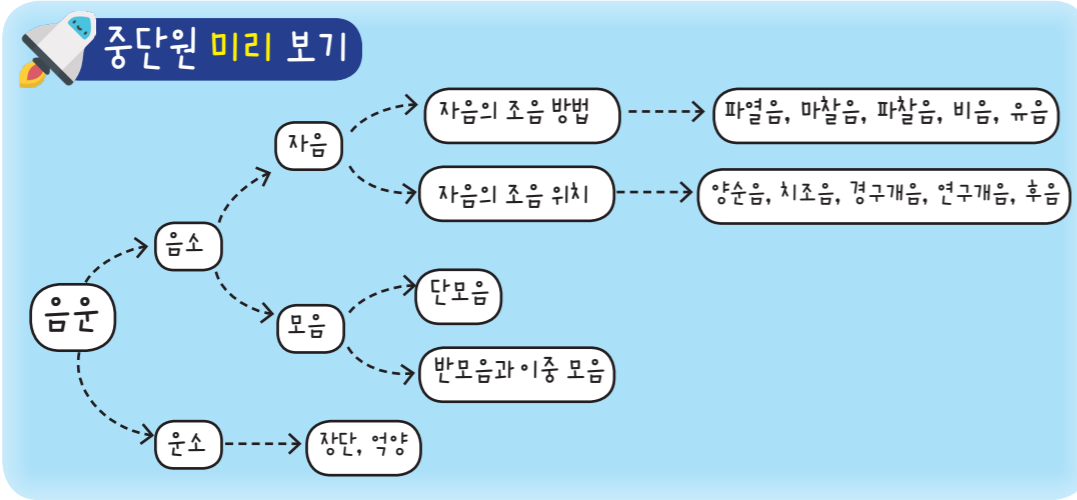
ex)

-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무성음 [k]
- 모음과 모음사이에서는 유성음 [g]
- 받침에서는 불파음 [kʰ]

정의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

2. 음운 체계



음운이라는 용어는 '음소'와 '운소'에서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음소와 운소는 더 작은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먼저 음소인 자음, 모음에 대해 살펴본 후 운소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자음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에 방해 받습니다. 공깃길(구강)이 막히거나 극도로 좁아져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자음에 따라서는 이러한 방해 받는 위치나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때 공기가 방해 받는 위치를 **조음 위치**, 공기의 방해가 일어나는 방식을 **조음 방법**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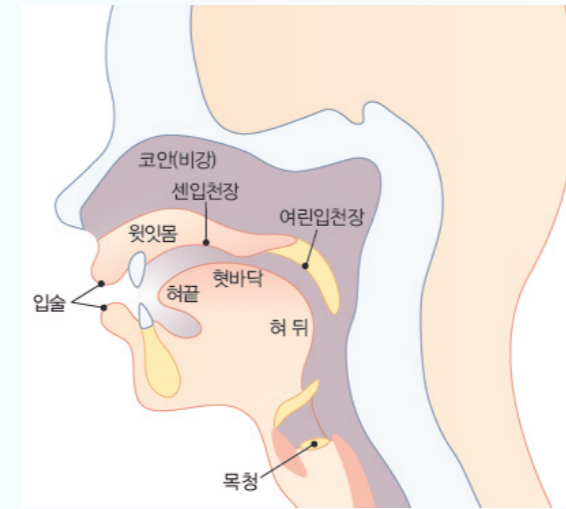
자음은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서로 대립 관계를 보입니다.

아래 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표입니다. 지금부터 이 표를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ㅃ	ㄸ		ㄲ	
		경음	ㅍ	ㅌ		ㅋ	
	마찰음	평음		ㅅ			ʰㅎ
		경음		ㅆ			
		유기음			ㅈ		
파찰음	평음				ㅊ		
	유기음				ㅌ		
	경음				ㅍ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1) 'ㅎ'을 유기음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평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공깃길과 말소리가 나는 과정, 발음 기관



<2015 개정 미래엔 언어와 매체 교과서 >

말소리가 나려면 먼저 폐에서 공기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 나온 공기는 목청을 거쳐면서 비로소 말소리가 됩니다. 목청을 거친 말소리는 혀, 입천장, 윗잇몸, 입술 등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자음, 모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공깃길이란 목청을 통과한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거치는 통로를 말합니다. 자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깃길에서 공기의 방해가 일어나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2) 목청은 성대라고도 하며 후두라는 기관의 한 부분입니다. 후두는 목 바로 아래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을 말합니다. 또한 목청은 두 쪽으로 나뉘어 수평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어 그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는 틈이 생기게 되는데 이 틈을 '성문'이라고 합니다.

(1) 자음의 조음 방법 (공기가 방해 받는 방식)

① 파열음

파열음은 공깃길의 어느 한 부분에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막혔던 공기를 순간적으로 터뜨리듯이 내는 소리입니다. 폭탄이 '폭파'하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바'를 발음해 볼까요? 우리가 '바'를 발음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먼저 입술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입 안의 압력이 높아질 정도로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소리를 밖으로 내기 위해 입을 엽니다. 이때 공기가 터져나가면서 [바]라는 소리가 납니다.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입술 닫기-입술 닫기 유지하기-입술 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폐쇄-지속-개방'의 세 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파열음에는 'ㅂ/ㅃ/ㅍ, ㄷ/ㄸ/ㅌ, ㄱ/ㅋ/ㆁ'이 있습니다. 'ㅂ'이 입술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았다면 'ㄷ'과 'ㄱ'은 각각 '혀끝-윗잇몸', '혀바닥 뒷부분-여린입천장'에서 공기가 방해를 받으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파열음은 2) 'ㅂ/ㅃ/ㅍ'과 같이 평음(예사소리), 유기음(거센소리), 경음(된소리)으로 나뉩니다.



2) 평음, 유기음, 경음의 세 계열을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합니다. 유기음은 소리를 내는 순간 강한 공기의 흐름이 동반되는 소리이고, 경음은 소리를 내는 순간 성문에 힘을 주어 공기의 양이 매우 적은 상태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입으로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면서 확실하게 이해합시다 :)

②마찰음

마찰음은 **공기길이 매우 좁아지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은 상태에서 좁은 틈으로 공기가 마찰을 일으키면서 발음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사'를 발음해 볼까요? 혀끝이 윗잇몸에 근접하지만 완전히 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아진 틈 사이로 공기가 새어 나오면서 [사]를 발음하게 됩니다.

마찰음에는 'ㅅ/ㅆ, ㅎ'이 있습니다.

③파찰음

파찰음이라는 명칭은 파열음의 '파'와 마찰음의 '찰'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런 명칭답게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모두 보입니다.

파찰음은 공기를 폐쇄시켰다가 공기를 개방합니다. 여기까지는 파열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파열음은 공기를 한꺼번에 터뜨리듯이 개방을 하지만 파찰음은 통로를 조금만 열어 공기가 나오는 속도를 더디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마찰이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또 마찰음과 비슷합니다. 즉 파찰음은 처음에 '폐쇄-지속'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파열음과 동일하고 나중에 공기가 마찰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마찰음과 동일합니다.

'자'를 발음해 봅시다. 소리를 내려고 하면 먼저 혀의 가운데 부분이 경구개쪽에 붙으면서 '폐쇄-지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려고 하면 혀가 떨어지면서 그 사이로 공기가 마찰이 되면서 나오게 됩니다. 파열음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방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것에 주의하면서 발음해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열음에는 'ㅈ/ㅊ/ㅍ'이 있습니다.

④비음

비음은 소리 내는 모습이 파열음과 비슷합니다. '폐쇄-지속-개방'의 단계를 거치고, 조음 위치도 같습니다. 그러나 파열음과 다른 점은 **개방 단계에서 코로 통하는 공기길을 열어 공기가 코 안으로 흐른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코를 막고 '그', '느'를 발음해 보세요. '느'를 발음할 때는 '그'를 발음할 때와 달리 코가 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음에는 'ㄴ, ㄹ, ㅇ'이 있습니다.

⑤유음

유음은 **혀의 측면으로 공기가 흐르거나 혀끝이 윗잇몸에 잠깐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우리말에서 유음은 'ㄹ'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과 '나라'를 발음해 볼까요? '물'에서는 혀가 윗잇몸에 붙은 후 공기가 혀의 측면으로 흐르게 되고, '나라'의 '라'에서는 혀끝이 윗잇몸을 건드린 후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³유음은 다른 자음과 달리 자음적인 속성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다. 위 설명을 보더라도 공기의 흐름에 방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으로 인해 유음은 음운 현상에서 모음과 함께 묶이기도 합니다.

3) '배우 + 으면 → [배우면]', '날 + 으면 → [날면]'과 같이 매개모음 'ㅡ' 탈락의 경우 자음 뒤에서는 'ㅡ'가 탈락하지 않지만 모음이나 'ㄹ' 뒤에서는 'ㅡ'가 탈락하게 됩니다.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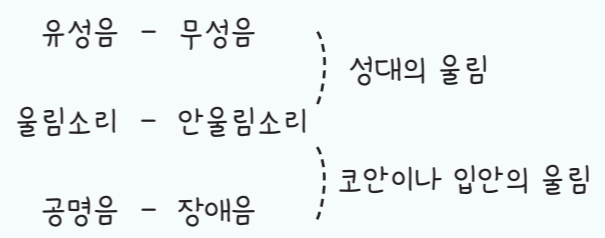
혓갈리는 용어 정리
- 장애음/공명음, 울림소리/안울림소리, 유성음/무성음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울림소리, 안울림소리, 장애음, 공명음, 유성음, 무성음 등과 같은 말을 보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장애음과 공명음은 자음을 소리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 정도가 큼니다. 그래서 이들을 장애음이라 합니다. 반면 유음이나 비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코안이나 입안의 울림이 크며 항상 성대의 울림을 동반합니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비음과 유음을 공명음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유성음과 무성음은 성대의 울림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일단 모든 모음은 성대가 울리기 때문에 유성음입니다. 그리고 자음 중에서는 공명음이 유성음에 해당됩니다. 공명음은 코안이나 입안의 울림 뿐만 아니라 성대의 울림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음 중에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성대의 울림이 없기 때문에 무성음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울림'이 성대의 울림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코나 입안의 울림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개념에 해당되고, 후자는 공명음과 장애음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2) 자음의 조음 위치 (공기가 방해를 받는 위치)

① 양순음

양순음은 두 입술을 맞대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양순음에는 'ㅂ, ㅃ, ㅍ, ㅍ'이 있습니다.

② 치조음

치조음은 혀끝을 치조(잇몸)에 닿게 하거나 가까이 해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치조음에는 'ㄷ, ㅌ, ㅊ, ㅅ, ㅆ, ㅈ, ㅊ, ㅊ, ㄴ, ㄹ'이 있습니다.

③ 경구개음

경구개음은 혀바닥의 앞부분을 경구개(센입천장)에 대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경구개음에는 'ㄷ, ㅌ, ㅊ'이 있습니다.

④ 연구개음

연구개음은 혀바닥의 뒷부분을 연구개(여린입천장)에 대서 발음하는 소리입니다. 연구개음에는 'ㄱ, ㅋ, ㆁ, ㅇ'이 있습니다.

⑤ 후음

후음은 후두의 목청 사이인 성문을 이용하여 내는 소리입니다. 근접한 성대 사이로 공기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납니다.

후음에는 'ㅎ'이 있습니다.

2) 모음

모음은 자음과 두 가지 측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발음 측면에서 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거의 방해를 받지 않고 실현됩니다. 자음은 크든 작든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소리가 났던 것과는 다릅니다.⁵ 그리고 쓰임새 측면에서 보면 모음은 홀로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음의 경우에는 홀로 발음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모음이 필요하죠.

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지의 여부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구분됩니다. 단모음과 달리 이중모음은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뀝니다.

또한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음소의 개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단모음이 하나의 음소로 구성된 반면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2개의 음소로 구성**됩니다.

19p에 있는 발음기관 그림을 다시 보면서 조음 위치를 확인하세요. :)

4) 'ㅎ'은 성문에서 마찰이 일어나며 나는 소리라고는 하지만 'ㅎ'이 나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그 마찰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자음과 다르게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아 그만큼 자음으로서의 성질이 약하다고 봅니다. 이후에 음운 현상에서 다르게 되겠지만 'ㅎ'은 다른 자음과 결합되거나 쉽게 탈락하기도 합니다.

5) 모음은 홀로 발음할 수 있다고 해서 홀소리라고 합니다. 반면 자음은 다른 모음과 함께 쓰여야 해서 닿소리라고 부르죠.

(1) 단모음

단모음은 ⁶혀의 높이, ⁷혀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그 소릿값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단모음 체계를 나타낸 것 입니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ㅍ	ㅡ	ㅓ
중모음	ㅑ	ㅕ	ㅗ	ㅜ
저모음	ㅓ		ㅛ	

혀의 최고점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눕니다. 혀의 높이는 입이 벌어지는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⁸혀의 높이가 높을수록 입은 적게 벌어지고 혀의 높이가 낮을수록 입은 많이 벌어집니다.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눕니다. 전설모음의 경우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놓이는 데 보통 경구개 부근이 됩니다. 반면 후설모음의 경우에는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놓이는 데 연구개 부근과 가깝게 위치합니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도 나뉘는데,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면 원순모음, 그렇지 않으면 평순모음이 됩니다.

(2) 반모음과 이중 모음

① 반모음

반모음 ㅟ	반모음 ㅢ/ㅣ
y	w

우리말에 반모음은 y, w가 있습니다. ¹⁰y는 모음 'ㅣ'와 w는 모음 'ㅑ/ㅕ'와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반모음은 단모음의 고모음보다 **혀가 입천장에 더 가깝에 근접**합니다. 'ㅣ'와 'ㅑ'를 발음해보면 'ㅣ'를 발음할 때 보다 'ㅑ'를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더 높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 모음을 발음한다는 것은 반모음과 단모음을 한번에 소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반모음은 아주 짧은 순간 발음이 됩니다. 예를 들어 'ㅑ'를 발음해 보세요. 처음에 아주 짧은 순간 'ㅣ'모음을 발음하는 자세를 취했다가 재빨리 'ㅑ' 모음을 발음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단모음을 발음하기 전에 미끄러지듯이 짧게 나는 소리라고 해서 반모음을 ¹¹활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의 성격을 갖고, 단모음과 달리 단독으로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반모음을 반자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혀의 높이나 혀의 전후 위치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각 발음에서의 혀의 가장 높은 지점의 위치가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보면 됩니다.

7) 'ㅑ', 'ㅕ'를 단모음으로 정확히 발음하는 방법은 입술 모양을 둥그랗게 오므리고 각각 'ㅣ', 'ㅑ'를 발음하는 것입니다.

8) 혀에 인위적으로 힘을 주지 않는다면 입을 벌렸을 때 혀는 턱의 움직임에 따라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ㅡ, ㅣ, ㅓ를 순차적으로 발음해 보세요. 입이 점차 벌어지면서 혀가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9) 교재에 따라서는 반모음 y를 j로 적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j의 경우는 y를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한 것입니다.

10) 반모음 y는 전설, 평순의 특징을 반모음 w는 후설, 원순의 특징을 보입니다.

11) 활주로에서의 '활'과 같은 의미입니다. 미끄러지듯 달리는 비행기를 떠올려 보세요 :)

12) 이중 모음에는 '니'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니'의 성격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는 '단모음 + y'로 구성된 이중모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②¹²이중 모음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중 모음은 1개의 음운이 아니라 2개의 음운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모음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y계 이중 모음 : ㅟ ㅢ ㅟㅢ ㅢㅟ ㅢㅢ
w계 이중모음 : ㅜ ㅝ ㅜㅝ ㅝㅜ ㅝㅝ

표준발음법에서는 단모음 'ㅜ, ㅝ'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ㅜ'는 [we]로 발음하여 'ㅟ'와 같아지고, 'ㅝ'는 [wi]로 발음됩니다.

3)운소

지금까지 음운 체계에서 음소인 자음과 모음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는 운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음운은 최소대립쌍을 이루며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운소도 음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의미를 변별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엄밀히 따졌을 때는 운소가 장단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양이나 강약 등이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데 쓰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장단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억양에 대해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 장음화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음운 변동을 배울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¹³장단

장단은 소리의 길고 짧음을 말하는 것으로 국어에서 유일하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운소입니다. 최소대립쌍을 확인해 볼까요?

눈:(雪) - 눈(眼), 밤:(粟) - 밤(夜), 말:(言) - 말(馬)

위의 단어들에서는 소리의 길고 짧음에 의해서 단어의 뜻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장단이 음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장단의 실현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장단은 원칙상 단어의 첫머리에만 올 수 있습니다. 원래 장음이었던 [눈:]과 같은 단어도 '함박눈'과 같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면 더이상 장음으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장단은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어의 장단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장음을 단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져 장단이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면 언젠가 장단도 운소에서 빠지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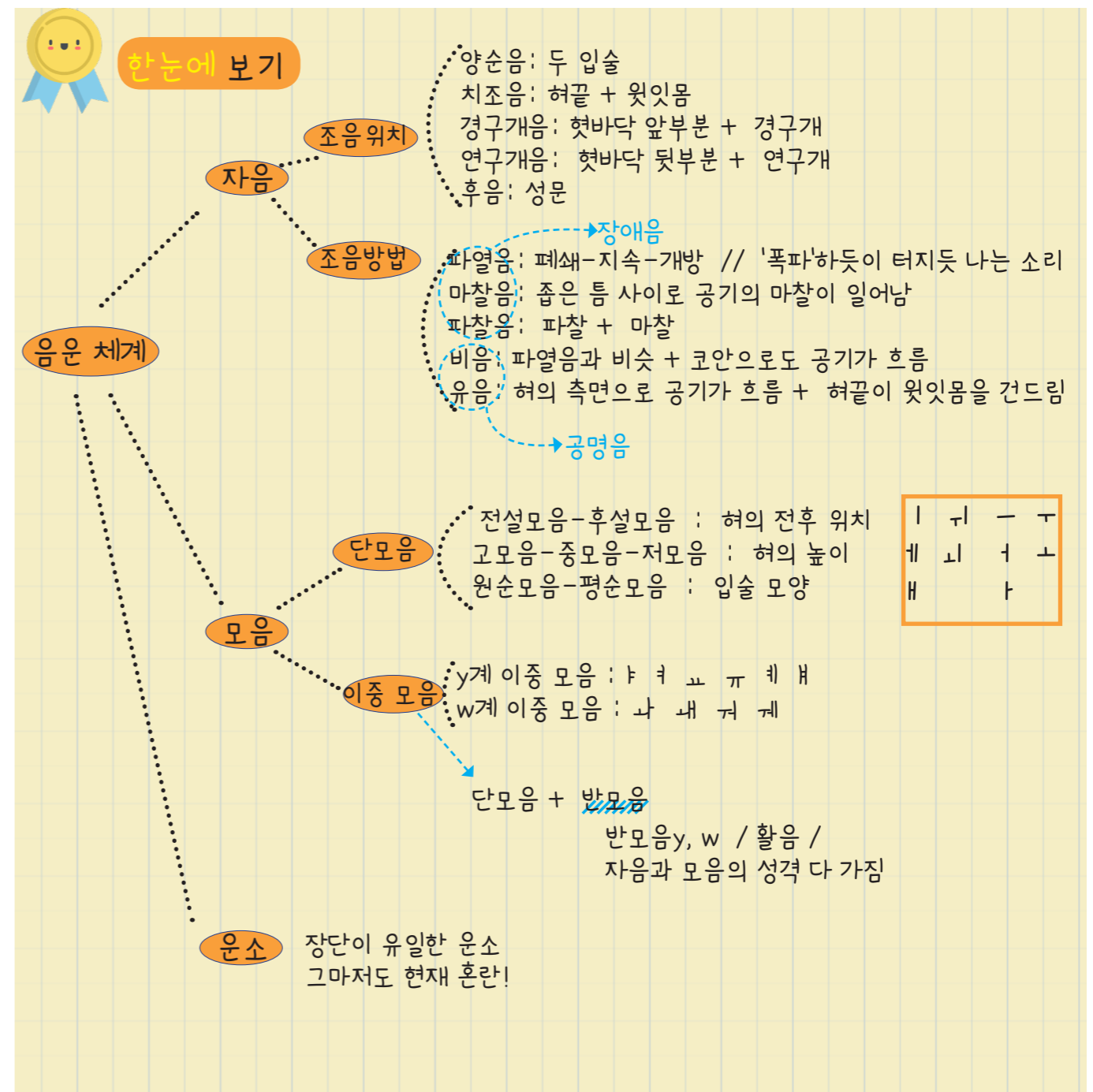
(2)억양

13) 음운은 단어의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인데 억양은 단어보다 큰 단위에서 실현된다고 했으니, 억양이 운소가 아닌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

¹³억양은 단어보다 큰 단위인 문장에 얽혀 실현되는 소리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억양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지는 못하므로 운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문장의 종류를 구별하거나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할 뿐입니다. 이 내용은 음운론의 단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음소와 운소를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둘은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음소는 그 소리를 하나하나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는 'ㄱ, ㅍ, ㄱ, ㅛ'로 분리할 수 있죠. 그런데 운소인 장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소리의 길이 자체를 분리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음소는 분리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분절 음운이라 하고 운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비분절 음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 음절

이번에는 음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절이라는 개념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히 알고 가야할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음절이란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입니다. 다른 말로 **소리마디**라고도 해서 **실제의 발음**을 토대로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을 한번 소리나는 대로 적어봅시다.

[철수가 바블 멩는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어떤 글자나 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었을 때의 한 글자가 바로 음절이 됩니다. 즉, '밥을'이라고 했을 때 이를 음절로 나타낸다고 하면 '바, 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절의 구성 요소는 초성, 중성, 종성입니다. ¹ 중성에는 모음이 오게되는데 모음은 혼자만으로도 음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모음', '자음 + 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이 있습니다.

모음	아
자음 + 모음	가
모음 + 자음	압
자음 + 모음 + 자음	갑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위에서 제시한 문장 '철수가 밥을 먹는다'에서 '밥'의 'ㅂ'은 음절의 어디에 놓이게 될까요?

정답은 초성입니다. 음절은 소리마디로 실제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밥'의 'ㅂ'은 다음 음절로 연음이 되기 때문에 다음 음절의 초성에 놓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기와 음절 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간혹 'ㄱ', 'ㄷ'와 같이 자음들도 혼자서 발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자음만 발음하는 게 아니라 모음을 같이 붙여서 발음하는 것이죠? 'ㄱ', 'ㄷ'라고 발음하니까요.

4. 음운 변동



드디어 음운론의 꽃인 음운 변동을 배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모두 이 음운 변동을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만큼 이어질 설명도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단순히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음운 변동들을 배우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가볼까요?!

1) 음운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음운론적 제약

'음운론적 제약'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앞서 배운 음소나 음절 등과 같은 음운론적 단위들의 구조 및 그 단위들의 배열에 대한 제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마음대로 모든 말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밥'을 발음해 볼까요? 아주 천천히 역지로 글자 그대로 발음하려고 하면 [국밥]이라고 발음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ㄱ, ㄷ, ㅂ'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올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고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꺽꺽]이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사용하다 보면 여러 제약을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음운론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¹ 그리고 이러한 음운론적 제약을 어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설명할 음운 변동들에서 '음운론적 제약'이라는 말이 나올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대로 발음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필수적 / 수의적

음운 변동에는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를 필수적이라고 하고, 후자를 수의적이라고 합니다. 필수적인 경우가 위에서 본 '국밥[꺽꺽]'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의적인 경우는 반모음화, 반모음첨가 등이 있습니다.

(3) 공시적 / 통시적

음운 변동을 배울 때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반면 통시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시적이라는 말은 현대 국어에서 나

18년 3월 고3 모의고사 [11~12]번 문제의 지문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다. "국어에는 발음을 자연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자음 두 개를 연달아 발음하는 것이 어려워 발생하는 음운 변동들이 있다." 이 말이 음운론적 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1) 모든 음운 현상이 음운론적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발음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음운 변동'이라는 말 안에는 공식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음운 현상에 대해 다룹니다. 통시적인 것까지 아우르는 말은 '음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주세요. :)

타나는 음운 현상을 다루는 데에 쓰일 것이고, 통시적이라는 말은 현대 이전의 중세나 근대 국어로부터의 역사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데에 쓰일 것입니다. 뒤쪽에 나올 구개음화를 다룰 때 이 개념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음운 변동의 구체적인 양상

◆교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ㄹ'의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반모음화 -'ㅣ'모음 역행 동화 -위치 동화	◆탈락 -자음군 단순화 -'ㅎ'탈락 -'ㄹ'탈락 -모음 탈락 · 'ㄹ'탈락 · 'ㄷ/ㅌ'뒤 동일 모음 탈락 · 'ㄱ/ㅋ'뒤 'ㄷ' 탈락 -반모음 y 탈락	◆축약 -유기음화 -모음 축약 ◆첨가 -반모음 첨가 -'ㄴ'첨가 -사잇소리 현상
--	--	--

(1) 교체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 우리말은 음절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오는 경우 7개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1 ㅍ ⇒ ㅂ
ex) 잎 → [입], 엇고 → [업꼬]
- 2 ㅌ, ㅍ, ㅍ, ㅌ, ㅌ, ㅎ ⇒ ㄷ
ex) 발 → [반], 옷 → [온], 있다 → 인다 → [인따], 낫 → [난], 꽃 → [꼇], 히읃 → [히읃]
- 3 ㄱ, ㅋ ⇒ ㄱ
ex) 부엌 → [부억], 밖 → [박]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명칭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말 그대로 **음절의 종성**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입니다. 그러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 변동의 양상을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음화나 된소리되기는 그 명칭에서부터 변동의 양상이 드러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것이 일어나는 위치에 대한 정보밖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평파열음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⁴음운 변동이 일어나서 교체되어 나타나는 자음이 'ㅂ, ㄷ, ㄱ'인데 이것들은 모두 파열음이고 그 중에서도 평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파열음화라는 것이죠.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앞서 음절에 대해 배웠던 것처럼 음절을 말할 때는 실제 소리나는 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자음이 음절의 종성에 오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뒤에 아무런 글자도 오지 않는 경우, 즉 단독으로 발음할 때
ex) 꽃[꼇], 잎[입]
- (㉡)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때
ex) 꽃도[꼇또], 꽃집[꼇집]
- (㉢)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ex) 꽃 안에 → (꼇안에) → [꼬다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 있네요? 다음 파트에서나 배울 개념인 ⁵실질 형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보통은 모음이 오면 표기상 받침에 있는 자음은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밥을'이 [바블]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모음이 조사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꽃 안에'의 '안'처럼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오면 일차적으로 음절이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받침에 있는 자음이 연음이 되지 못하고 일단 음절 종성에 놓입니다. 따라서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겪고, 그 후에야 연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꽃 안에'는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꼇 안에'가 되고 그 후에 연음이 되어서 [꼬다네]로 발음이 됩니다.

5) 실질 형태소는 '꽃, 차, 안, 밖' 등과 같이 실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 접사 등과 같이 실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말합니다.

음절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되는 이유

음절 종성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의 자음만 발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음운론적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개만 발음되는 이유는 우리말에서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면 공기의 개방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앞에서 파열음을 다룰 때 '폐쇄-지속-개방'이라고 해서 배웠으니 천천히 살펴봅시다.

우선 'ㅂ'과 'ㄷ'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다물었던 입술을 열면서 막혀있던 공기를 개방하는 단계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도 마찬가지로 혀끝과 윗잇몸을 닿게 하여 공기를 막았던 상태에서 혀끝을 떼면서 공기를 개방해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자음들도 이러한 개방이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음절 종성에서는 이러한 개방 단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자음들이 종성에 올 경우에는 발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7개의 자음은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걸까요?

위 7개의 자음 중에 'ㅂ, ㄷ, ㄱ'과 'ㄴ, ㄹ, ㅁ, ㅇ'을 따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파열음인 'ㅂ, ㄷ, ㄱ'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는 이유

먼저 'ㅂ, ㄷ, ㄱ'의 경우에는 음절 종성에서도 발음될 수 있는 **변이음**을 갖기 때문에 음절 종성에서도 발음될 수 있습니다. 변이음이란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르게 실현되는 소리라고 했었죠? 'ㅂ, ㄷ, ㄱ'의 경우에는 음절 종성에서 개방 단계 없이도 소리가 나는 변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개방 단계가 없는 소리 자체를 변이음으로 갖고 있어서 음절 종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이라고 발음해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기의 개방이 생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ㅂ'이나 'ㄷ'도 마

우리가 배우게 될 음운 변동들입니다. 꽤 많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천천히 따라오시다 보면 금방 다 끝낼 수 있을 거예요. :)

3)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4)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교체가 일어나서 바뀌는 자음은 'ㅂ, ㄷ, ㄱ'입니다. 'ㄴ, ㄹ, ㅁ, ㅇ'의 경우는 종성에서 그대로 발음이 되어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찬가지입니다. 반면 다른 자음들은 이러한 변이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음들은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지 못하고 발음이 가능한 'ㄴ, ㄷ, 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음과 유음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되는 이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다른 자음들은 이리저리 교체되기 바쁘는데, 이 와중에 아주 여유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음과 유음인 'ㄴ, ㄷ, ㄱ, ㅇ'이 그렇습니다. 비음과 유음은 다른 자음들이 이것들로 교체되는 일도 없고, 음절 종성에 오더라도 그냥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비음이나 유음은 어떻게 음절 종성에서 발음이 될까요? 이것들도 'ㄴ, ㄷ, ㄱ'과 같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변이음을 갖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아니고, 이것들은 **개방 단계가 없이도 공기가 흘러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음은 코로, 유음은 혀의 양 옆으로 공기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맘', '말'을 발음해 볼까요? [맘]이라고 할 때는 분명 입은 두 입술로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 통하는 길은 열려 그곳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말]의 경우를 보면 혀끝이 윗잇몸에 닿지만 혀의 양 측면으로 공기가 계속 흐르게 되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비음이나 유음은 개방 단계가 없더라도 공기가 계속 흐를 수 있어서 음절 종성에 오더라도 소리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앞에서 변이음을 설명할 때 스파이더맨을 예로 들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음절 종성이라는 환경을 맹독 가스가 퍼진 전쟁터라고 볼게요.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스파이더맨이 입은 풀풀이 타이즈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자음들은 이러한 타이즈가 없어요. 반면 'ㄴ, ㄷ, ㄱ'은 풀풀이 타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절 종성에 왔을 때 탈락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체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풀풀이 타이즈만 입으면 돼요. 즉, 조금 다르게 발음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한편 'ㄴ, ㄷ, ㄱ'은 이런 풀풀이 타이즈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네 자체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어요. 그래서 음절 종성에 왔을 때 풀풀이 타이즈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②비음화

■ **장애음이 비음에 의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text{ㄱ/ㄷ/ㅂ} + \text{ㅁ/ㄴ} \Rightarrow \text{ㅇ/ㄴ/ㅁ}$
 ex) 국민[궁민], 믿는[민는], 밥만[밤만]

후행하는 자음의 조음 방법에 닮아가는 현상

⁶비음화는 선행하는 자음 'ㄱ, ㄷ, ㅂ'가 후행하는 자음 'ㅁ, ㄴ'의 **조음 방법**에 닮아가는 **동화 현상**입니다. 왼쪽 자음 체계표를 다시 볼까요? 'ㄴ, ㄷ, ㄱ'을 찾아 보세요. 그것들이 조음 위치는 그대로 두고 조음 방법만 비음으로 바꾸게 되면 각각 'ㄴ, ㄴ, ㅇ'으로 교체됩니다. 비음화뿐만 아니라 이어서 배울 유음화도 조음 방법이 닮아

6) 앞말 종성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장애음 중에서도 'ㄱ, ㄷ, ㅂ'이 올 수밖에 없으며, 음절 초성에는 'ㅇ'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환경을 보입니다.

가는 현상입니다.

음운론적 제약으로 나타나는 현상

(㉞) 밥 먹어 → [밤머거], → 옷 널어 → [온너러],
 떡 만들어 → [땡만드러]

비음화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동화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음운론적 제약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비음 앞에는 장애음이 올 수 없다는 것이 그 제약이죠. 이러한 비음화는 예외 없이 적용되며 (㉞)처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강력한 현상입니다.

뒤이어 배울 'ㄴ'의 비음화나 유음화도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알아보기 동화 현상

동화 현상이란 한 음운이 다른 음운에 닮아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동화 현상은 두 음운이 인접했을 때 발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동화 현상에서 동화를 시키는 음을 **동화주**라고 하고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음을 **피동화주**라고 합니다. 왼쪽 박스에서 초록색 글씨 'ㄱ, ㄷ, ㅂ'는 피동화주, 빨간색 글씨 'ㅁ, ㄴ'은 동화주입니다.

동화 현상은 몇 개의 기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먼저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순서에 따라 **순행 동화**와 **역행 동화**로 나뉩니다. 순행 동화는 동화주가 피동화주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말하고 역행 동화는 피동화주가 동화주보다 앞에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같아지는 정도에 따라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 나뉩니다. 완전 동화는 유음화처럼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같은 글자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불완전 동화는 특징만 일부 닮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궁민]'은 같은 글자로 바뀌지는 않고 조음 방법만 비슷해졌으므로 불완전 동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거리에 따라 **직접 동화**와 **간접 동화**로 나뉩니다. 직접동화는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바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음화는 직접 동화입니다. 간접 동화는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다른 글자가 끼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뒤에서 배울 'ㅣ'모음 역행 동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동화 현상: 서로 다른 두 음이 인접할 경우 발음의 편의를 위해 두 음을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
- 동화를 시키는 음 → 동화주 / 동화를 입는 음 → 피동화주
- 동화의 하위 구분
 -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순서**에 따라 : 순행 동화 / 역행 동화
 - 동화주와 피동화주가 **같아지는 정도**에 따라 : 완전 동화 / 불완전 동화
 - 동화주와 피동화주의 **거리**에 따라 : 직접 동화 / 간접 동화

③ 'ㄹ'의 비음화

■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 ① **ㄹ/ㅇ + ㄹ ⇒ ㄴ**
ex) 침략[침낙], 종로[종노]
- ② **ㄱ/ㄷ/ㅂ + ㄹ ⇒ ㄴ**
ex) 독립 → 독닙 → [동닙], 몇리 → 면리 → 면니 → [면니], 압력 → 압녁 → [암녁]
- ㉓ **ㄴ + ㄹ ⇒ ㄴ**
ex) 음운론[음운논], 결단력[결탄녁]

'ㄹ'의 비음화는 비음화에 포함하여 다루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비음화와는 구분되는 점이 있다는 면에서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이전에 다룬 비음화는 동화 현상으로 비음 동화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ㄹ'의 비음화는 **동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①, ㉓만 놓고 보면 동화주 'ㄹ, ㅇ, ㄴ'이 비음이기 때문에 동화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②를 함께 고려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⁷ ②를 보면 동화주가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인 'ㄱ, ㄷ, ㅂ'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①, ㉓만 두고 이 현상을 동화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ㄹ'의 비음화는 일반적인 비음화와 달리 피동화주가 'ㄹ'하나뿐이고 동화주가 평파열음을 포함해서 더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앞에 오는 동화주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비음화가 적용되기 전에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앞에 오는 동화주는 많아야 7가지뿐입니다. 박스를 보면 7가지 중에 'ㄹ'을 제외하고 모두 동화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을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ㄹ'의 비음화는 다소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비음화라고 했을 때에는 이전에 다룬 비음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알아보기 '독립[동닙]'이 상호 동화?

상호 동화는 가까이 있는 두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변하게 되는 동화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ㄹ'의 비음화에서 ②같은 부류를 상호 동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위에서 다루었던 이 현상은 애초에 동화 현상이 아닙니다.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인 'ㄱ, ㄷ, ㅂ'에 영향을 받아 'ㄹ'이 비음이 된 것을 동화라고 보기엔 무기가 있기 때문이죠.

둘째로, 'ㄱ, ㄷ, ㅂ'이 'ㅇ, ㄴ, ㄹ'으로 바뀌는 것은 'ㄹ'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ㄹ'이 변한 'ㄴ'에 의해 동화된 것입니다. 즉 먼저 'ㄹ'의 비음화가 일어난 후 다시 일반적인 비음화 현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ㄱ, ㄷ, ㅂ'과 'ㄹ'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점에 근거해서 이 현상은 상호 동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유음화

■ 'ㄴ'이 'ㄹ'에 의해 'ㄹ'으로 바뀌는 현상

- ① **순행적 유음화 ; ㄹ + ㄴ ⇒ ㄹ**
ex) 칼날[칼랄], 물놀이[물로리]
종이를 날리다[종이를랄리다]
*예외: ㉞어간 말음이 ㄹ이고 어미가 ㄴ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ㄹ이 탈락됨
ex) 울- + -니 → 우니
㉟합성어나 파생어에서도 ㄹ이 탈락되기도 함
ex) 솔 + 나무 → 소나무
- ② **역행적 유음화 ; ㄴ + ㄹ ⇒ ㄹ**
ex) 신라[실라], 난로[날로]

순행적 유음화 - 예외가 존재

유음화 ①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음화나 유음화의 경우 박스에 적어 놓은 대로 자음이 놓이게 되면 예외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음화 ①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예외가 존재합니다.

- (가) 울- + -니 → 우니, 알- + -는 → 아는
- (나) 달- + -는 → [달른], 앞- + -는 → [알른], 훑- + -는 → [훑른]
- (다) 솔 + 나무 → 소나무, 하늘 + 님 → 하느님 ; 불 + 나방 → 불나방[불라방]

(가)와 같이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유음화 대신 반드시 **유음 탈락**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나)의 'ㄹ, ㄹ'과 같은 겹자음에서만 유음화가 나타납니다.

또한 (다)와 같이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에도 유음화가 아닌 유음 탈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미 만들어진 단어에서 나타날 뿐, 최근에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에서는 '불나방[불라방]'과 같이 유음화가 주로 적용됩니다.

유음화 ② vs 'ㄹ'의 비음화 ㉓

이 두 현상은 같은 환경에 적용되는 현상으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음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분리가능성'**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어의 내부를 둘로 쉽게 나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음운론', '결단력' 등은 '음운', '결단'이라는 단어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내부를 둘로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반면 '신라', '난로'의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굳어져 있어, 둘로 나뉘었을 때 모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전자의 경우에는 비음화가, 후자의 경우에는 유음화가 주로 적용됩니다.

⁸표준발음법 20항에서는 '음운론[음운논]'과 같이 발음되는 단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란[의:견난], 임진란[임:진난], 생산량[생산냥], 결단력[결탄녁], 공권력[공편녁], 동원령[동:원녕], 상견례[상견녜], 횡단로[횡단노], 이원론[이:원논], 입원료[이:원뇨], 구근류[구근뉴]

8) 비음화가 적용되느냐 유음화가 적용되느냐 하는 것은 명확히 정해진 규칙이라기보다는 경향성을 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분리가능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죠. 표준 발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된소리되기

■ 평음이 특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 ex) 입고[입꼬], 민대[민따], 국밥[국빡]
 - 어떤 예외도 없는 가장 대표적인 된소리되기 현상
 - 'ㅂ, ㄷ, ㄱ'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오면 반드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남

② 비음 뒤의 경음화

- ex) 안더래[안떠라], 감대[감따]
 - 용언 어간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됨
 - '용언 어간'이나 '어미'와 같은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

③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 ex) 먹을 것[겅], 갈 데[떼], 만날 사람[싸람], 할수록[할쑤록], 할걸[할겅], 할밖에[할빠께]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만 일어난다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
 - '-ㄹ수록, ㄹ걸, ㄹ밖에'와 같이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경우에도 일어남

④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

- ex) 골수骨髓[골쑤], 물질物質[물질], 발달發達[발딸]
 - 'ㄹ'로 끝나는 한자어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일어남
 - '한자어'라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

비음운론적 조건

위 박스를 보면 '비음운론적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운론적인 조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자음과 모음이나, 음절의 구조 등을 말합니다. 즉 어떤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자음이나, 모음, 음절의 구조 등과 같은 것들로 설명이 된다면 그 음운 현상은 음운론적인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박스에서 ①은 ['ㅂ, ㄷ, ㄱ' 뒤 'ㄱ, ㄷ, ㅂ, ㅅ, ㅈ']라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조건**에 의한 음운 현상입니다. 반면 이러한 자음이나 모음 등과 같은 조건만 갖추어진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필요한 경우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한 음운 현상입니다. 9) 예를 들어 ②는 비음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온다는 음운론적인 조건 외에 '용언 어간', '어미'와 같은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위 박스에서 ①을 제외 나머지는 모두 이러한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된소리되기 ①

이 규칙은 음운론적 제약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음운론적인 조건만 갖추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강력한 규칙입니다.

② 된소리되기 ②

이 규칙은 어간 끝이 비음으로 끝나고 그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규칙입니다. 10) 용언 어간, '어미'와 같은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기다'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여기서 '기'는 어미가 아니라 접사이기 때문에 그냥 [안기다]로 발음되니 주의하세요!

18년 3월 고3 모의고사 [11~12]번 문제의 지문에서 비음운론적 조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비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뿐만 아니라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다는 것과 같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까지 알아야 한다."

여기서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이 바로 비음운론적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9) 단순히 비음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오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잔디'에서처럼요! '용언 어간 - 어미'라는 비음운론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 특이하게 '줄 + 남- + -기 → [줄럼끼]처럼 어간 뒤에 파생 접미사가 붙은 경우에 경음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11) 우리말에서 그냥 'ㄴ' 뒤에 'ㄷ'이 올 경우 된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잔디'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된소리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용언 어간, 어미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이 규칙은 비음운론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1) 이는 이 현상이 음운론적 제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된소리되기 현상에서는 ①만 음운론적 제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③ 된소리되기 ③

②와 마찬가지로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한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라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할수록'과 같이 하나의 어미로 굳어져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납니다.

④ 된소리되기 ④

역시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은 '한자어'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한자어에서 'ㄹ'뒤의 'ㄷ, ㅅ, ㅈ'만 변동의 대상이 됩니다.

⑥구개음화

■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구개음화는 다른 음운 변동과 다르게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12) 그래서 구개음화는 따로 목차를 새로 구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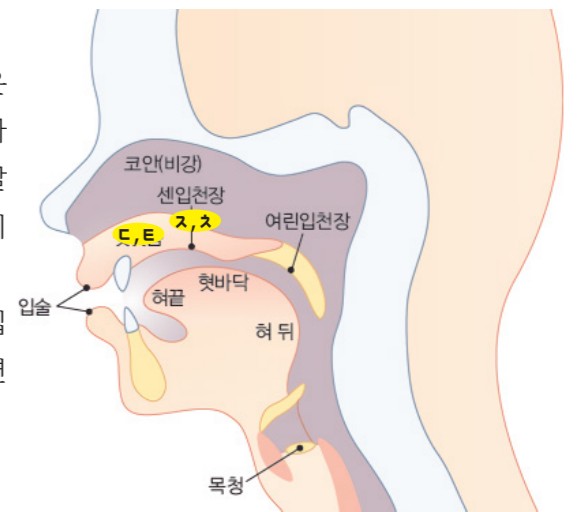
(a)성격

■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동화 현상

구개음화는 **동화 현상**입니다. 앞에서 비음화, 유음화라는 동화 현상에 대해 배웠었죠? 동화 현상은 발음을 보다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가 인접한 다른 소리와 같거나 비슷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구개음화도 마찬가지로입니다. 'ㄷ, ㅌ'으로 발음하는 것보다 'ㅈ, ㅊ'으로 발음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앞에서 모음 'ㅣ'는 고모음이고, 반모음 y는 고모음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즉, 'ㅣ'와 반모음 y는 입천장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이 모음들과 다른 자음이 함께 발음될 때, 그 자음이 입천장과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라면 발음하기 더 편할 것입니다. 혀를 많이 안 움직여도 되기 때문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 'ㄷ, ㅌ'보다는 'ㅈ, ㅊ'을 발음할 때 혀가 더 입천장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ㄷ, ㅌ'이 'ㅣ'나 반모음 y를 만나게 되면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ㅈ, ㅊ'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015 개정 미래엔 언어와 매체 교과서 >

12)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성격
- (b)조건
- (c)종류
 - ㉠ ㄱ-구개음화
 - ㉡ ㅎ-구개음화
- (d)음소적 구개음화와 음성적 구개음화
- (e)구개음화의 역사

(b)조건

-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남
- 모음 'ㅣ'나 반모음 y가 **13 문법 형태소**여야 함

형태소 경계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합니다.

(㉠) 굳이(굳 + 이), 같이(같 + 이), 콩밭이다(콩밭 + 이다)

이처럼 'ㄷ, ㅌ'과 'ㅣ'가 만나는 것이 서로 다른 형태소 경계에 놓여 있을 때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형태소 경계가 아닌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그것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ㄷ, ㅌ'이 'ㅣ'나 반모음 y를 만날 때를 말합니다.

(㉡) 잔디, 마디, 견디다

이 단어들을 보면 '잔디', '마디'는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ㄷ'이 'ㅣ'와 만나고 있고, '견디다'는 어간 '견디-'라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 'ㄷ'이 'ㅣ'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법 형태소

문법 형태소여야 한다는 것은 다음의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 나는 **발이랑** 논이랑 다 보고 싶다.
- (㉣) 나는 **발이랑**을 걸었다.

(㉢)에서 '이랑'은 체인을 연결해 주는 접속 조사입니다. 접속 조사도 조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문법 형태소입니다. 따라서 (㉢)에서 '발이랑'은 구개음화가 나타나 [바치랑]으로 발음됩니다.

반면 (㉣)에서 '이랑'은 '갈아 놓은 발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실질 형태소입니다.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발음은 '발이랑 → 발니랑 (ㄴ첨가) → 받니랑(음절의 끝소리 규칙) → [받니랑](비음화)' 이렇게 나게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조사 말고도 다른 문법 형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경우에도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 벼훅이[벼훅치] - '이'가 접사
- (㉥) ¹⁴굳히다[구티다>구치다] - '히'가 접사
- (㉦) 밭이다[바치다] - '이다'가 서술격 조사

(c)종류

우리는 흔히 구개음화라고 하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구개음화가 더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구개음화를 'ㄷ-구개음화'라고 하고 새롭게 설명할 구개음화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라고 합니다.

13) 문법 형태소는 29p에서 작은 글씨로 설명한 형식 형태소와 같은 말입니다. 접사나 조사, 어미 등을 말하죠.

14) '굳히다'에서는 먼저 'ㄷ'이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이 되고, 이후에 'ㅣ'모음을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 ㄱ-구개음화

- 'ㄱ, ㅋ, ㆁ'이 **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ㅈ, ㅊ, ㆁ'으로 바뀌는 현상

이 현상은 일반적인 'ㄷ-구개음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ㄱ-구개음화'는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적용됩니다.
- 'ㄱ-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만 일어납니다.
- 'ㄱ-구개음화'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상도 방언이나 전라도 방언에서만 어느정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꽤 많은 차이가 나죠?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름>지름, 기미>지미, 겨드랑>저드랑, 꺾다>찌다

아마 경상도, 전라도 쪽에 사는 친구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겠네요 :)

㉡ ㅎ-구개음화

- 'ㅎ'이 **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 'ㅅ'으로 바뀌는 현상

정의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ㅅ'은 구개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ㅅ'은 아주 예전에 구개음이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더 흘러 지금의 치조음이 된 것이죠. 'ㅎ-구개음화'는 'ㅅ'이 구개음일 때 나타났는데, 이후 'ㅅ'이 치조음으로 바뀌면서 교체되어 나오는 음이 구개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힘>심, 형님>성님, 흉악하다>송악하다

'성님'이나 '심' 이런 말은드라마에서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ㅎ-구개음화'도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나타나며, 형태소 내부에서만 적용되고,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d)음소적 구개음화와 음성적 구개음화

음소와 음성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주 자세하게 배웠었죠? **음소적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와 같이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음성적 구개음화**는 음소에는 변화가 없고 변이음 차원에서 음성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자음 체계표를 볼까요? 'ㄷ, ㅌ, ㅌ'은 음소적 구개음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조음 위치인 'ㅅ, ㅆ, ㄴ, ㄹ'에서는 어떨까요? 이것들도 치조음이기 때문에 혀의 위치가 경구개 쪽에서 나면 더 발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에서는 음성적 구개음화가 일어납니다. 치조음이지만 모음 'ㅣ'나 반모음 y앞에서는 경구개음으로 발음됩니다. 즉, 경구개음을 변이음으로 갖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 ㅅ/ㅆ : 신발, 어머니는 집에 계셔, 씩름
- (㉪) ㄴ : 시늬, 뉘
- (㉫) ㄹ : 흘렸, 달렸

위 단어들을 한번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혀가 평소보다 더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	ㅈ		ㄱ	
	유기음	ㅃ	ㅊ		ㅋ	
	경음	ㅍ	ㅌ		ㆁ	
마찰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ㅌ		
근면음	비음	ㅁ			ㅇ	
	유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e) 구개음화의 역사

'소'를 발음할 때보다 '신발'을 발음할 때 혀가 뒤쪽에 위치합니다.

구개음화는 그 역사가 중요한 음운 현상입니다. 시기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조금씩 달랐고, 그러한 모습이 현대 국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여기서는 이에 대해 쉽게 말로 풀어나갈테니 편하게 봐주세요.

우리말에서 구개음화는 17세기 말 ~ 18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구개음화는 현대의 구개음화와는 달리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ㄱ-구개음화'처럼요.

(ㄱ) 텃디>천지, 똥다>좋다, 부터>부처

이렇게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는 단어의 모양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대 국어에서 '굳이'를 [구지]로 발음할 뿐 글자의 본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도 그리고 현대 국어처럼 형태소 경계에서도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흘러 19세기 중반이 넘어가면서 **더이상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미 그동안 구개음화가 진행되면서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졌긴 했지만요. 왜냐하면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면서 'ㅣ, y' 앞의 'ㄷ, ㅌ'가 'ㅈ, ㅊ'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정말 'ㄷ, ㅌ'과 모음 'ㅣ'나 반모음 y가 만나는 단어가 없나요? 아닙니다.

(ㄷ) 잔디, 마디, 어디, 디디다, 견디다

이렇게 실제로 꽤 많은 예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들은 어떻게 'ㄷ'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던 18세기 당시에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 단어들의 옛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ㄷ) 잔되, 무되, 어되, 드되다, 견되다

이처럼 'ㄷ' 뒤에 모음 'ㅣ'나 반모음 y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적용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세기 중후반, 그러니까 이미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가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이 단어들에서 단모음화가 나타나 'ㄷ'가 'ㅣ'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는 나타나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ㄷ'이 'ㅣ' 앞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문법이 딱딱하고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

⑦ 반모음화

■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 ①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ㅣ'가 y로 교체
ex) 기+ 어라 → [겨:라], 끼+ 어서 → [껴:서], 견디+ 어 → [견뎌], 버티+ 어 → [버티]
 녹이+ 어 → [노겨], 먹이+ 어 → [머겨], 업히+ 어 → [어퍼], 굴리+ 어 → [굴려]
- ② 'ㄴ/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ㄴ/ㄷ'가 w로 교체
ex) 오+ 아서 → [와서], 보+ 아라 → [봐:라], 나누+ 어 → [나눠], 싸우+ 어 → [싸워]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이유

단모음과 단모음을 연속적으로 발음하는 것은 '자음-모음-자음-모음...'식의 발음보다 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여러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반모음화도 이러한 회피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됨으로써 '반모음 + 단모음'의 배열을 만들어 '모음 + 모음'의 배열을 회피하는 것이죠. 반모음은 반자음으로도 불리는 만큼 자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¹⁵ 이렇게 모음끼리 배열되는 것을 모음 충돌이라고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모음 충돌 회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15)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는 반모음 화뿐만 아니라 다른 음운 변동들도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반모음화는 수의적 성격

반모음화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2음절 어간의 경우 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만, 1음절 어간의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ㄱ) 기 + 어라 → [기어라~겨:라~기여라], 보 + 아라 → [보아라~봐:라~보와라]
- (ㄴ) 오 + 아라 → [와라], ¹⁶지/치/찌 + 어도 → [저도/쳐도/찌도] → [저도/쳐도/찌도]

¹⁷(ㄱ)는 반모음화가 수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보시면 [기어라]와 같이 그냥 발음되기도 하고 [기여라]와 같이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ㄴ)는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오-, 지-, 치-, 찌-'를 제외한 다른 1음절 어간의 경우는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 이 4개의 예는 암기하고 있어도 좋을 듯합니다.

16) 경구개음 뒤에서는 반모음 y가 탈락하므로 [저도/쳐도/찌도]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경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이유는 두 소리의 조음 위치가 비슷하여 그 성질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17) 현실 발음과 달리 표준 발음법에서는 반모음 첨가에 대해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 참고해 주세요.

반모음화로 인해 나타나는 장음화

위에 제시한 예시들을 보면 몇몇 경우에서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반모음화가 적용되는 경우 음절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장음화가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또는 줄어들기 전의 2음절의 길이가 줄어든 1음절에 그대로 유지되면서 장음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도 하죠. 이러한 현상을 **보상적 장음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장음화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 수의적으로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에만 적용
- 2음절 이상의 어간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위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오다, 지다, 치다, 찌다'와 같이 반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장음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반모음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예에서는 장음화가 나타나죠. 일종의 협상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재미있습니다. '기다'로 예를 들어 보면, '기다' 입장에서는 반모음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반모음화를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길게 발음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

그리고 앞에서 운소에 대해 설명할 때 장음은 단어의 첫머리에서 실현됩니다. 어간이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반모음화가 어두가 아닌 2음절 이하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보상적 장음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견디 + 어 → [견더]'에서 보면 줄어드는 음절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죠? 따라서 장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㉘ 'ㅣ' 모음 역행 동화

■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 'ㅓ, ㅕ, ㅗ, ㅛ, ㅜ, ㅠ'가 후행 음절의 모음 'ㅣ'나 반모음 y에 의해 각각 전설모음 'ㅣ, ㅑ, ㅓ, ㅕ, ㅗ'로 바뀌는 현상

ex) 풀이대[끼리다], 먹이다[메기다], 가랑이[가랭이], 구경[귀경], 도련님[되련님]

특정한 조건이 필요

(㉘) 아버지>애비, 어머니>에미, 아기>애기, 방이>뱅이
(㉙) 도련님>되련님

'ㅣ' 모음 역행 동화는 (㉘)의 'ㅓ, ㅕ, ㅗ, ㅛ' 등과 같은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이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놓일 때 일어납니다. 그러나 (㉙)와 같이 'ㄹ'이 오는 경우에 일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동화 현상

'ㅣ' 모음 역행 동화는 명칭에서도 드러나지만 동화 현상으로 발음을 더 쉽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화주인 모음 'ㅣ'와 반모음 y는 모두 전설모음입니다. 이러한 전설모음에 의해 후설모음이 같은 전설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왼쪽 단모음 체계표를 보면 후설모음이 혀의 높이와 입술 모양은 변화 없이 혀의 전후 위치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전설 모음으로 바뀌게 되면 혀의 움직임이 줄어 발음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먹이다[메기다]'를 보면 원래는 'ㅓ → ㅣ'로 혀가 앞뒤로 움직여야 했지만 'ㅓ → ㅣ'가 되면서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이 현상을 앞서 분류한 동화 현상의 세부 기준에 따라 살펴볼까요? 동화주가 피동화주의 뒤에서 영향을 미치므로 역행 동화입니다. 그리고 피동화주가 동화주와 완전히 같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불완전 동화입니다. 또한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다른 자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동화입니다. 이전에 다뤘던 동화 현상들이 직접 동화였던 것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된 형태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적용되어 굳어진 몇개의 단어만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ㅑ	ㅓ	ㅕ
중모음	ㅓ	ㅕ	ㅗ	ㅛ
저모음	ㅗ	ㅛ	ㅜ	ㅠ

로 삼을 뿐입니다. 또한 지금 그 현상이 모든 지역과 세대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도 않죠. 앞으로도 그 세력을 더 잃어갈 전망이다. 아래는 표준어로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㉚) 남비>냄비, 올챙이>올챙이, 굽병이>굽벙이, 그려기>기러기

㉙ 조음 위치 동화

■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현상

① 양순음화

치조음 + 양순음 ⇒ 양순음
ㄴ ㅁ 신문[심문]
ㄴ ㅂ 산불[삼불]
ㄷ ㅂ 꽃밭→(꽃밭)→[꽃뽕]

② 연구개음화

치조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ㄴ ㄱ 한강[항강]
ㄷ ㄱ 손가락[속가락]
양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ㅁ ㄱ 감기[강기]
ㅂ ㄱ 밥그릇[박끄른]

조음 위치	조음 방법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유기음	ㅍ	ㅌ		ㅋ	
	경음	ㅃ	ㅆ		ㄲ	
장모음	평음		ㅅ			ㅎ
	경음		ㅆ			
파찰음	평음			ㅈ		
	유기음			ㅊ		
	경음			ㅉ		
고음역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현상

앞서 배운 비음화나 유음화는 조음 방법을 닮아가는 동화 현상이었다면 조음 위치 동화는 말 그대로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동화 현상입니다. '신문[심문]'을 예로 보면, 치조음인 'ㄴ'이 조음 방법은 그대로 하고 조음 위치만 양순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음 체계표를 볼까요? 'ㄴ'과 'ㅁ'을 찾아서 선을 그어보면 가로로 선이 그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음화나 유음화에서는 조음 방법만 바뀌었으니 세로로 선이 그어졌었겠죠?

치조음인 '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위치 동화

다른 치조음인 'ㄴ, ㄷ'에서는 조음 위치 동화가 나타나지만 같은 치조음인 'ㄹ'에서는 조음 위치 동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음 위치에서는 유음의 조음 방식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ㄹ'이 조음 위치 동화를 겪을 수 있으려면 다른 조음 위치에서도 유음이라는 조음 방식으로 발음되는 자음이 있어야 하니까요. 오른쪽 자음 체계표를 다시 볼까요? 'ㄹ'이 속한 가로칸들을 보면 어떤 글자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적인 현상

위치 동화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수의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위치 동화가 일어난 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8)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19) '리, 래' 등과 같이 2개 이상의 자음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것들을 자음군이라고 합니다.

(2) 18) 탈락

① 19) 자음군 단순화

■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① 리, 래, 래 ⇒ 앞의 자음이 탈락

ex) 닭 → [닥], 밭 + 지 → [박지]
 삶 + 다 → [삼따], 삶 + 만 → [삼만]
 읊 + 고 → [읍꼬]

② 나머지 겹자음 ⇒ 뒤의 자음이 탈락

ex) 녀 → [노], 외곶 → [외곶],
 훔 + 고 → [훔꼬], 뉘 + 고 → [뉘꼬],
 꿩 + 는 → [꿩른], 없 + 다 → [업따],
 앓 + 는 → [안느], 앓 + 니 → [안니]

음절의 끝소리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음군 단순화가 과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함께 다뤄졌던 것 아시나요? 자음군 단순화도 음절의 끝소리 즉, 음절 종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마찬가지로 '자음이 음절 종성에 오는 세 가지의 경우'에 자음군이 오게 되면 반드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가 나타나는 이유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종성에서 2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예외가 있으니 주의

위의 박스는 자음군 단순화를 쉽게 암기하기 위해 제가 분류한 것입니다. 20)만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①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뒤의 자음이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①, ②에 각각 예외 한 가지씩을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 ①의 예외 - '리'

- 어간이 '리'로 끝날 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뒤의 자음이 탈락함
 ex) 읽 + 고 → [일꼬], 말 + 게 → [말께] ; 읽 + 다 → [익따], 말 + 다 → [막따]
 - 이 예외는 위와 같이 용언의 활용에서만 일어나고 '체언-조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음
 ex) 흙 + 과 → [흑과]

■ ②의 예외 - '뵤-', '뵤죽하다, 뵤적하다, 뵤등글다'

- 어간이 '뵤-'인 경우에는 앞의 자음이 탈락함
 ex) 뵤 + 다 → [뵤따] ; 뵤 + 다 → [뵤따]
 - '뵤죽하다, 뵤적하다, 뵤등글다'의 경우에도 앞의 자음이 탈락함
 ex) [뵤쭈카다], [뵤쩌카다], [뵤똥글다]

'리'은 원래 앞의 자음 'ㄹ'이 탈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뒤에 있는 자음 'ㄱ'이 탈락하게 됩니다. '리'의 'ㄱ'이 같은 'ㄱ'을 보고 도망쳤다고 생각하세요. :)

'뵤다'의 경우에는 '래'이 왔기 때문에 뒤의 자음 'ㄴ'이 탈락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앞의 자음 'ㄹ'이 탈락합니다. 야구 중계를 볼 때 캐스터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

면 주자가 홈에 들어올 때 '00선수가 홈을 [뵤습니다]!!!'라고 하는 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특이한 자음군 단순화

(ㄱ) 울 + 은 → [운], 울 + 을까 → [올까], 울 + 읊시다 → [읍시다]

이 현상은 뒤에서 배울 'ㄹ'탈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간 말 'ㄹ' 뒤에서는 '은, 을까'처럼 'ㄹ'를 가진 어미들의 'ㄹ'이 탈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일시적으로 자음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하나의 자음이 탈락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자음군은 왼쪽에서 다룬 우리말의 일반적인 자음군과 달리 도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음군 단순화에 포함하지 않고 뒤에서 다룰 'ㄹ'탈락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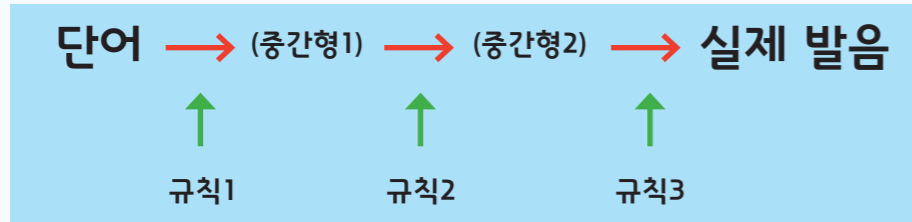
기억이 안난다면 29p를 다시 확인하고 오세요. :)

20) 저는 ①을 '닭을 삶을 때 시를 읊는다'라고 해서 외우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만의 암기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

더 알아보기 음운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 - 된소리되기가 먼저일까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일까

'굵고'의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나타날까요 아니면 된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날까요?
 학생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일단 여기서는 가장 타당한 설명 방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변동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실현되는 발음



어떤 단어가 실제로 발음되기까지는 여러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조음 위치 동화에서 '꽃말 → (꽃말) → [꼰말]'의 경우는 중간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경에 적용되는 규칙이 2개 이상일 때 어떤 규칙을 먼저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음운 규칙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서든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아래 단어에 적용될 수 있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㉞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읽다 → (익다) → [익따]

㉟ 된소리되기 → 자음군 단순화

읽다 → (읽따) (ㄱ뒤에서 된소리되기) → [익따]

'읽다'의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먼저 적용하든 올바른 발음이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읽고

㉞ 자음군 단순화 → 된소리되기

읽고 → (일고) → * [일꼬]

*는 비문

㉟ 된소리되기 → 자음군 단순화

읽고 → (읽꼬) (ㄱ뒤에서 된소리되기) → [일꼬]

'리'로 끝나는 어간은 어미가 'ㄱ'으로 시작하는 경우 뒤에 있는 'ㄱ'이 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㉞와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될 경우 'ㄱ'만 남아 된소리되기의 환경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ㄱ'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한자어에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올 때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날 환경이 아니므로 그냥 [일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게 되면 올바른 발음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두 규칙 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운 규칙들은 일정한 적용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다른 경우에도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읽고'에서와 같이 순서를 잘못 적용할 경우 올바른 발음형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운 규칙의 적용 순서

1. 유기음화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 4. 자음군 단순화 → 5. 비음화, 유음화 (평파열음화)

3. 된소리되기

일렬로 써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뭔가 더 잘 눈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연습을 해볼까요? '읽다'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읽다 → (할ㄷ다) → (할ㄷ따) → [할따]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이 'ㄷ'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그 'ㄷ'으로 인해 경음화가 나타나죠. 마지막으로 'ㄷ'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이해되지요?

그리고 아래 박스를 볼까요?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굵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에서 올바른 발음형이 도출되지 못한 음운 규칙 순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의 2017년에 출간된 ebs 수능 완성에서는 음운 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항의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의 예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굵 + 고 → [글고] → [글꼬]', '읽 + 지 → [일치]'의 음운 현상에서 '읽지'의 경우 'ㅎ'과 'ㅈ'이 'ㅊ'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굵고'의 경우 자음이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16년 6월 고3 모의고사 13번 문항 해설

㉞은 'ㄹ', ㉟의 'ㄱ, ㅂ' 뒤에서 먼저 된소리되기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만약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서 '읽고, 넓다'가 '일고, 널고'로 바뀐다면 어간의 'ㄹ'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꼬], [널따]로 발음될 수가 없다.
 2017년 ebs 수능 완성 해설

또 다른 견해

위의 설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도 존재는 합니다. 이 견해에서는 위의 설명 방식은 도출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할ㄷ다', '할ㄷ따'를 상정해야만 하고, /ㄷ/이 탈락하는 시점도 인위적으로 '할ㄷ따' 이후로 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운 변동들의 순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마지막에서는 현재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는 설명은 위의 설명 방식이라고 하며, 명확한 설명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견해도 있음을 인지하시고 위 설명 방식을 참고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ㅎ' 탈락

21) 이때 형식 형태소는 어미나 접미사가 될 수 있습니다.

■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²¹형식 형태소가 올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ex) 낯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얇은[아는], 싫어도[시러도]

연음되지 않고 'ㅎ'이 탈락

본래 받침에 자음이 오고 다음에 모음이 오게 되면 연음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먹은[머근]' 처럼요. 그러나 'ㅎ' 탈락의 경우에는 'ㅎ'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ㅎ'이 다른 자음과 달리 자음으로서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음이었으면 그냥 연음되었을 환경에서 자신의 소릿값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와 비교

'ㅎ' 탈락은 자음군 단순화와 자주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로 종종 출제하곤 하죠. 왜냐하면 겹자음에서 'ㅎ'이 탈락하는 경우 'ㅎ' 탈락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둘은 변동의 환경이나 성격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분명히 다른 음운 현상입니다.

(가) 자음군 단순화

않 + 는 → [안는]

(나) 'ㅎ'탈락

않 + 은 → [아는]

일단 두 현상 모두 음운이 하나 탈락한다는 점에서는 '탈락'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ㅎ'이 탈락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가)의 경우에는 'ㅎ'이 음절의 끝소리 즉, 음절 종성에 위치합니다. ²²따라서 이 경우에는 절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ㅎ'이 음절 종성에 위치할 수 없으니까요. 반면에 (나)의 경우에는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와야합니다. 정반대죠? 또한 (가)의 경우에는 음절 종성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고 (나)는 본래는 그냥 연음이 되어야 하는데 'ㅎ'의 특성상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가요? 'ㅎ'이 탈락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너무나도 다른 현상이죠?

		'ㅎ' 탈락	자음군 단순화
공통점		음운 변동에서 '탈락'에 속함	
차이점	환경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단독, 자음 앞,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일어나는 이유	'ㅎ'의 특성 때문	음절 종성에 2개의 자음이 소리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 때문

22) 앞에서 배운 것 기억하시나요? 자음이 음절 종성에 오게 되는 세 가지의 경우를 배웠었죠? 기억이 안난다면 다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

③ 'ㄹ' 탈락

■ 유음이 조음 위치가 비슷한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① 용언 어간 'ㄹ'이 'ㄴ,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ex) 알 + 는 → [아는], 날 + 는 → [나는], 살 + 느냐 → [사느냐]

²³알 + 으시는 → [아시는], 알 + 으니 → [아니]

②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ㄹ'이 'ㄴ, ㅅ, ㄷ, ㅈ' 앞에서 탈락

ex) 술 + 나무 → [소나무], 활 + 살 → [화살], 달 + 달 → [다달], 바늘 + 질 → [바느질]

23) 어미가 '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먼저 'ㄹ' 뒤에서 'ㄴ' 탈락이 일어난 후에 ㄹ이 'ㄴ, ㅅ'과 만나게 되어 'ㄹ' 탈락이 일어납니다. 'ㄴ' 탈락은 바로 뒤에서 배웁니다!

조음 위치가 비슷한 자음 앞에서 탈락

'ㄹ'과 'ㄴ, ㅅ'이 모두 치조음으로 조음 위치가 비슷한데, 그 결과 'ㄹ'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활발하게 나타나지만 합성어나 파생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특이한 'ㄹ'탈락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ㄹ' 탈락에는 조금 특이한 환경을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 살 + 읊고 → [사읊꼬], 살 + 으니 → [사으니], 살 + 오 → [사오]

보시면 'ㄹ'이 모음 앞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전혀 'ㄹ'이 탈락할 환경이 아닌데 말이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세 국어와 관련이 됩니다.

중세 국어에는 'ㄹ'이라는 자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ㄴ'과 비슷한 글자로 [z] 정도의 발음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ㄹ'앞에서도 'ㄹ'이 탈락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읊', '으'는 과거에 '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ㄹ'이 탈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ㄹ'이 소멸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이전의 활용 형태만 굳어져 쓰이면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관점에서 보기에 '읊', '으'로만 쓰이니 마치 모음 앞에서 'ㄹ'이 탈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합성어,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ㄹ' 탈락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ㄹ' 탈락은 용언에서 나타나는 것보다 적용 환경이 더 넓습니다. 'ㄴ, ㅅ'뿐만 아니라 'ㄷ, 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현재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ㄹ' 탈락이 적용될 환경임에도 '돌도끼, 활시위'와 같이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달소리, 물지기' 같이 가상의 단어를 만들 때도 'ㄹ' 탈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4) 모음 탈락은 반모음화와 같이 모음끼리 충돌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④²⁴ 모음 탈락

(a) 'ㅡ' 탈락

■ 'ㅡ'가 다양한 환경에서 탈락하는 현상

- ① **어간 말의 'ㅡ'가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ex) 크 + 어서 → [커서], 슬프 + 어도 → [슬퍼도], 치르 + 어라 → [치러라]
- ② **어미의 'ㅡ'가 어간 말 모음이나 'ㄹ' 뒤에서 탈락 (매개모음 탈락)**
ex) 가 + 으니 → [가니], 보 + 은 → [본], 배우 + 으면 → [배우면], 날 + 으면 → [날면]
- ③ **부사격 조사 '으로'가 모음이나 'ㄹ' 뒤에서 탈락**
ex) 머리 + 으로 → [머리로], 달 + 으로 → [달로]

위 'ㅡ'탈락의 세 가지 현상은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①에서 모음이 탈락할 때, 왜 하필 어간의 'ㅡ'가 탈락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ㅡ'가 가장 약한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ㅡ'를 '약모음'이라고도 한답니다. ①은 '카드 + 이다 → [카드이다/카드다]와 같이 체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②는 흔히 말하는 매개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매개모음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삽입되는 모음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날- + 으면'입니다. TV를 보면 정말 가끔 '날으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ㅡ'탈락 규칙에 따라 '날-'의 'ㄹ'뒤에서 매개모음이 탈락하기 때문에 '날면'이라고 써야 합니다.

③은 부사격 조사에서 'ㅡ'가 탈락하는 현상입니다. 조사의 'ㅡ'가 탈락하는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물 + 은 → [그물은], 물 + 을 → [물을]'과 같이 조사 '은, 을'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b) 'ㅏ/ㅑ' 뒤 동일 모음 탈락

■ ²⁵'ㅏ/ㅑ'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ㅏ/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 ex) 가 + 아서 → [가서], 서 + 어도 → [서도], 삼가 + 아 → [삼가], 건너 + 어서 → [건너서]
만나 + 았 + 고 → [만날꼬], 건너 + 았 + 고 → [건넌꼬]

²⁶어간이 'ㅏ'로 끝나면 'ㅏ'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고, 어간이 'ㅑ'로 끝나면 'ㅑ'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데, 이때 모음 하나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어간 모음과 어미 모음 중 어느 것이 탈락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뉩니다. 대체로 어간의 모음이 탈락한다고 보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25) 'ㅏ + 어라 → [퍼라]'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ㅑ'는 'y + ㅑ'로 구성된 이중 모음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ㅑ와 ㅑ가 만나면서 동일 모음이 탈락하는 것이죠.

26) 이를 '모음조화'라고 합니다. 모음조화는 같은 성질을 지닌 모음들끼리 어울려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죠.

(c) 'ㄱ/ㅋ' 뒤 'ㄱ' 탈락

■ 'ㄱ/ㅋ'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ㄱ'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ㄱ'가 탈락하는 현상

- ex) 개 + 어서 → [개:서], 깨 + 어서 → [깨:서], 매 + 았 + 다 → [맬:따],
지내 + 어라 → [지내라], 건네 + 았 + 다 → [건넬따]

이 현상은 다른 모음 탈락과 달리 필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수의적인 현상이죠. '매었다'의 경우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는 않은 [매얼따], 'ㄱ' 탈락이 일어난 [맬:따], 뒤에서 배우게 될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매열따], 이렇게 세 가지의 발음이 가능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 'ㄱ' 탈락이 아니라 'ㄱ'가 'ㄱ/ㅋ'로 동화된 후 그로 인해 같은 모음이 연속되어 장음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축약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ㄱ/ㅋ'뒤 'ㄱ'탈락은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음운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⑤ 반모음 y 탈락

■ 경구개음 'ㅈ, ㅊ, ㅉ'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현상

- ex) 지 + 어 → (저) → [저], 다치 + 어 → (다쳐) → [다쳐], 찌 + 어 → (찌) → [찌]

반모음 y는 경구개 근처에서 발음이 되는데, 이와 조음 위치가 비슷한 경구개음 'ㅈ, ㅊ, ㅉ'와 결합되면 그 성질이 중복되어 반모음 y가 탈락하게 됩니다.

현대 국어에서 경구개음과 반모음 y가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치음이었던 'ㅈ, ㅊ, ㅉ'이 경구개음으로 조음 위치가 바뀌게 되면서 그 뒤에 오는 반모음 y가 탈락이 되었고 그렇게 탈락된 형태로 형태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 (가) 초>초, 자랑>자랑, 죽>죽
- (나) 부터>부처>부처, 동다>종다>종다

(가)를 보면 형태소 내부에서 반모음 y가 'ㅈ, ㅊ'뒤에서 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개음화로 인해 'ㄷ, ㅌ'가 'ㅈ, ㅊ'로 변한 후에 그 'ㅈ, ㅊ'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했습니다. 결국 현대 국어에서는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만 'ㅈ, ㅊ, ㅉ + y'의 배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배열은 앞서도 배운 반모음화에서 나타나게 되죠.

27)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3) 27 축약

①유기음화

'ㅎ' 뒤에 'ㅂ'이 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ㅂ'은 빼고 적었습니다.

■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ㅋ, ㅌ, ㅍ, ㅊ'으로 합쳐져 발음되는 현상

① ㅎ + ㄱ/ㄷ/ㅈ ⇒ ㅋ/ㅌ/ㅊ

ex) 놓고[노코], 많고[만코], 종던[조턴], 달치[달치]

② ㄱ/ㄷ/ㅂ/ㅈ + ㅎ ⇒ ㅋ/ㅌ/ㅍ/ㅊ

ex) 국화[구과], 말형[마형], 입학[이팍],

먹히다[머키다], 굳히다[구티다>구치다], 좁히다[조피다], 맞히다[마치다],

밝히다[발키다], 넓히다[널피다], 얹히다[안치다]

앞에서 자음을 배울 때 파열음이나 파찰음의 경우 '평음(예사소리), 격음(거센소리), 경음(된소리)'의 삼지적 상관속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때 '격음(거센소리)'이 바로 유기음입니다.

유기음에 대해 좀더 알아보까요. 유기음은 한자로 '有氣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有'는 '있다'의 의미고, '音'은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기음은 '氣를 가진 소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氣'는 강한 공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ㄱ, ㅋ, ㆁ'라고 발음해 볼까요? 이 때 'ㄱ'을 발음할 때가 공기가 가장 강하게 입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입에 휴지를 대고 발음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강하게 터져나올 때 거친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거센소리' 혹은 '격(격할 격)음'이라고 합니다.

'ㅎ'의 경우 음성학적으로 거센소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ㄱ, ㄷ, ㅂ, ㅈ' 등의 예사소리와 결합될 경우 하나로 합쳐져 거센소리가 되는 것이죠. 'ㅎ'이 다른 자음과 달리 조음 위치가 뚜렷하지 않아 자음성이 약한 것도 축약이 일어나는 데 한몫 했지만요.

ㅣ 'ㅎ'이 앞에 오는 경우

유기음화는 'ㅎ'이 'ㄱ, ㄷ, ㅂ, ㅈ'의 앞이나 뒤에 오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①은 'ㅎ'이 앞에 오는 경우입니다. 'ㅎ'이 'ㄱ, ㄷ, ㅂ, ㅈ' 앞에 오는 경우는 용언의 활용에서 밖에 없으므로 이 현상은 용언의 활용에서만 일어납니다.

ㅣ 'ㅎ'이 뒤에 오는 경우

이 현상은 ①보다는 좀더 넓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체언 + 조사'의 관계나 단어 사이에서는 유기음화 대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㉞) 달하고 → [달하고>다카고] ○ [달카고] x

cf. '하고': 접속 조사 → "배하고 감하고"

(㉟) 낮 한 때 → [날한때>나탄때] ○ [나찬때] x

(㉞)에서 '하고'는 접속 조사입니다. 따라서 먼저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ㄱ'이 탈락한 후에 유기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제 발음을 해보면 공부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달카고]라고는 하지 않으니까요. (㉟)에서는 단어

사이에서 유기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ㅈ'이 'ㄷ'으로 바뀐 후에야 'ㅎ'과 유기음화가 되고 있죠.

더 알아보기 '농소[노쏘]'는 축약???

〈표준발음법 제12항〉

"ㅎ(ㄷ, ㅌ) 뒤에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을 [ㅉ]으로 발음한다."

ex) 당소[다 : 쏘], 땅소[만 : 쏘], 싹소[실쏘]

표준 발음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치 축약이 일어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ㅎ'과 'ㅈ'이 결합하여 [ㅉ]이 된 것처럼요.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ㅎ'이 다른 예사소리와 결합하면 거센소리가 되는데 'ㅈ'에서만 된소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ㅈ'의 경우 원래부터 거센소리가 없기 때문에 된소리로 바뀌었다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ㅎ'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거쳐 'ㄷ'이 된 후, 이 'ㄷ'으로 인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이후에 'ㅉ' 앞에서 'ㄷ'이 탈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농소 → 논소 → 논쏘 → [노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앞에서 배운 된소리되기 ①에 해당됩니다. 'ㅉ' 앞에서 'ㄷ'이 탈락하는 것은 우리말에서 이 둘의 발음을 연달아 할 경우 'ㄷ' 발음이 어렵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위의 설명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현상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운 현상의 결과만 제대로 기억해 두시고 위 내용은 참고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11번에서는 '당소', '종소'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설에서 자세히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축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②모음 축약

■ 연속하는 모음이 축약되는 현상

ex) 사이>새, 아이>애

보이다>뵈다, 누이다>뉘다, 뜨이다>띄다

✦ 반모음화로 인한 음절의 축약 (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 피 + 어서 → [퍼서], 보 + 아라 → [봐:라]

ㅣ 공시적인 성격이 아님

위에서 다루고 있는 모음 축약은 중세 때부터 현대로 이어지면서 변화된 것으로 현대 국어에서 공시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대다수의 교과서에서 이를 거의 다루지는 않고 있으며,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만 해도 충분할 듯싶네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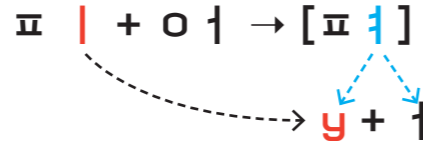
28) 교육과정에서는 축약을 아예 '음절 축약 현상'이라고 명시를 해놨으므로 음절의 축약도 축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해 주세요 :)

29) '되어[돼]', '하여[해]'도 음절의 축약에 속하는 예시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운의 축약과 음절의 축약

²⁸학교 문법에서는 두 음절이 줄어들어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것도 축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음운 변동에서의 축약은 **음운의 축약**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는 엄밀히 따졌을 때 축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²⁹이러한 **음절의 축약**이 나타나는 경우는 앞서 살폈던 반모음화가 이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경우를 음운의 축약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봐야 합니다. '피 + 어 → [피어]'의 경우 단모음 'ㅣ'와 'ㅣ'가 'ㅍ'로 축약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음운으로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들은 축약이라기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4)³⁰첨가

①반모음 첨가

■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반모음 y나 w가 첨가되는현상**

- ① **어간이 전설 모음 'ㅣ, ㅗ, ㅛ, ㅜ, ㅠ'로 끝나고 어미가 'ㅏ/ㅑ'로 시작할 때 반모음 y가 첨가**
ex) 피 + 어서 → [피여서], 글히 + 어서 → [글키여서], 세 + 어 → [세여], 개 + 어 → [개여], 뉘 + 어 → [뉘여], 뛰 + 었 + 고 → [뛰엿고], 되 + 어서 → [되여서]
- ② **어간이 후설 원순 모음 'ㅓ/ㅕ'로 끝나면 어미가 'ㅏ/ㅑ'로 시작할 때 반모음 w가 첨가**
ex) 보 + 아라 → [보와라], 꾸 + 어도 → [꾸워도]

이 현상도 모음이 연달아 나타날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나타납니다. '모음 + 모음'의 관계를 '모음 + 반모음 + 모음'으로 바꿔 모음 간의 충돌을 막고 있습니다.

반모음 첨가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수의적 현상입니다. '피어서'의 경우 그대로 발음하는 [피어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피여서], 반모음화가 일어난 [피어] 등으로 발음될 수 있습니다.

³¹그리고 반모음 첨가는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듯이 대부분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음에서는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편 반모음 첨가에서도 이중 모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음운 변동의 유형이 교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피어서[피여서]'를 예로 들면 단모음 'ㅣ'가 이중 모음 'ㅑ'로 교체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중 모음을 하나의 음운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체보다는 첨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30) 첨가는 새로운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첨가될 때는 앞의 단모음과 성격이 비슷한 반모음이 첨가가 됩니다! y는 전설 모음들과 w는 'ㅓ/ㅕ'와 비슷하죠 :)

31) y가 첨가되는 경우 일부 단어에 한해 첨가된 것도 허용하고, w가 첨가된 경우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ㄴ' 첨가

■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y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이 첨가되는 현상**

- ①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ex) 솜 + 이불 → [솜니불], 색 + 연필 → 색년필 → [생년필], 물 + 약 → 물낙 → [물락]
- ②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ex) 한 + 여름 → [한녀름], 신 + 여성 → [신녀성], 영업 + 용 → [영업농]
헛 + 일 → 헛닐 → 헛닐 → [헛닐], 흙 + 이불 → 흙니불 → 혼니불 → [혼니불]
- ③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우**
ex) 옷 입다 → 옷 낚따 → 온넙따 → [온넙따], 할 + 일 → 할닐 → [할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

'ㄴ' 첨가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ㄴ' 첨가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예) 첫인사[처딘사], 국경일[국경일], 한국인[한구긴]

뒷말이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음

형식 형태소는 접사나 어미 등을 말합니다. 'ㄴ' 첨가는 뒷말이 이러한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의 예에서 '영업용'의 '-용'의 경우 접미사이지만 한자어 접미사로 일반적인 접미사보다는 어느정도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ㄴ'첨가가 일어납니다. 참고로 '국경일', '한국인'의 '일', '인'도 한자어 접미사이지만 여기서는 'ㄴ' 첨가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예) 높이[노피], 먹이[머기], 먹이다[머기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남

③과 같이 두 단어를 한번에 이어 발음하는 경우에도 'ㄴ' 첨가는 일어납니다.

③사잇소리 현상

사잇소리 현상은 음운론 파트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 책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교과서에서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설명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구요.

사잇소리 현상은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렇게까지 깊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근에 출제된 모의고사 기출과 교육과정, 교과서를 토대로 사잇소리 현상을 정리했습니다. 사잇소리 현상에서만큼은 다른 문법 책 내용을 참고하기보다는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 헛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 봅시다.

■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변하거나, 'ㄴ'소리가 덧나거나, 'ㄴㄴ'소리가 덧나는 현상

①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앞말은 울림소리)

㉠앞말이 울림소리 중 모음인 경우 →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음

ex) 초 + 불 → [초뿔/총뿔], 내 + 가 → [내까/넌까]

㉡앞말이 울림소리 중 울림자음인 경우 →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음

ex) 산 + 길 → [산길], 그름 + 달 → [그름달]

②'ㄴ'이 덧나는 경우 (앞말은 모음, 뒷말은 ㄴ, ㄹ) →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음

ex) 코 + 날 → [콘날], 내 + 물 → [낸물]

③'ㄴㄴ'이 덧나는 경우 (앞말은 모음, 뒷말은 모음 'ㅣ'나 반모음 y)

→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음

ex) 나무 + 잎 → [나무닙], 나라 + 일 → [나라닙]

합성 명사에서 나타나는 사잇소리 현상

명사와 명사가 결합될 때 뒷말이 된소리로 변하거나 'ㄴ' 소리가 덧나거나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면 사이시옷 'ㅅ'을 적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기에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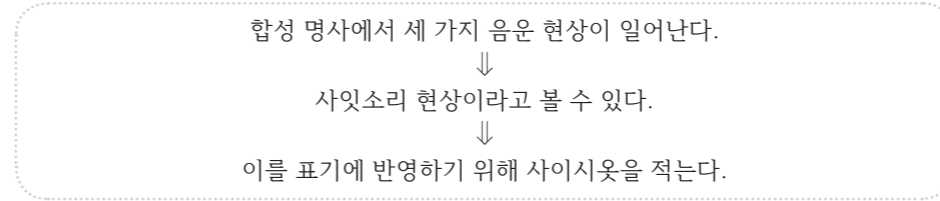
사잇소리 현상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앞말은 울림 소리로 끝납니다. 울림 소리가 모음인지 울림 자음 'ㄴ, ㄹ, ㄹ, ㄹ, ㅇ'인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촛불'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초'와 '불'이 합성될 때 뒷말이 [뿔]로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산길'은 앞말이 울림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뒷말이 [길]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 사이시옷을 적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사이시옷을 적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ㄴ, ㄹ'앞에서 'ㄴ'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콧날'은 '코'와 '날'이 합성될 때 'ㄴ'이 덧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적어 '콧날'로 표기합니다.

세 번째는 '**ㄴㄴ'이 덧나는 경우**입니다.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 결합을 할 때 'ㄴㄴ'이 덧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말 받침에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이렇게 사잇소리 현상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잇소리 현상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단순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사잇소리 현상은 충분합니다.

사잇소리 현상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남

사잇소리 현상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비바람', '소가죽' 등과 같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임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잇소리 현상을 사잇소리 규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에서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더라~"하는 일종의 경향성을 가질 뿐이죠.

가끔 앞에서 배운 된소리되기와 사잇소리 현상에서의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를 헛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으로는 바로 이런 **규칙성**에 있습니다.

된소리되기는 조건만 갖춰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국밥'과 같이 'ㄱ' 뒤에 'ㅂ'이 오면 어김없이 된소리되기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잇소리 현상은 그렇지 않죠. 또한 환경도 다릅니다.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환경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과 겹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을 확실하게 알아두면 구분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ㅅ'은 형식적인 표기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경우 사이시옷 'ㅅ'을 적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 'ㅅ'과는 다릅니다. 사이시옷은 단순히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형식적인 표시일 뿐이지, 자음 'ㅅ'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원칙적인 발음은 [초뿔]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이시옷을 자음 'ㅅ'으로 보고 '촛불'을 [총뿔]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표준발음법에서도 [초뿔]을 원칙으로 하되 [총뿔]도 허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이시옷 표기

사이시옷은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를 나타내기 위해 적는 형식적인 표기입니다. 이러한 사이시옷을 적는 데는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합성어**에서 **소리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적습니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적어주는 표기입니다. 따라서 합성어가 아닌 경우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의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햇님'이라고 자주 쓰는 표현은 실제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님'은 접사이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발음도 [해님]이 아니라 [해님]입니다.

둘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적습니다. 사이시옷은 앞말의 종성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말 종성이 비어있어야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습니다. '산길'이나 '숨이불'과 같이 앞말 종성이 비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합성명사를 이룰 때 구성요소 중에서 **최소 하나의 명사는 고유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습니다.

사이시옷 표기 O: 방앗간(- - 間), 수도물(水道 -) 'ㄴ'은 고유어 표시
사이시옷 표기 X: 마구간(馬廐間), 수도세(水道稅)

또한 외래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사이시옷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보랏빛(- - -), 장밋빛(薔薇 -)'은 사이시옷이 표기되어 있지만, '핑크빛(pink -)'은 고유어 '빛'이 외래어 '핑크'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발음이 [핑크뽀]로 된소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³²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자어+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6개의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적고 있습니다.

㉞셋방, 숫자, 횡수, 꽃간, 찻간, 튀간

! 'ㄴ'첨가와 비교

우리는 앞에서 'ㄴ'첨가를 따로 배웠습니다. 이 'ㄴ'첨가는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숨이불'류의 'ㄴ' 첨가에 대해서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ㄴ' 첨가는 합성어뿐 아니라 파생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일어났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합성어에서만 나타나는 'ㄴ' 첨가를 따로 떼서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사잇소리 현상은 합성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단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답변에서는 'ㄴ'첨가를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³³ 또한 문법 개론서에서도 이 두 현상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다른 현상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친구들은 일단 이 'ㄴ'첨가에 대해 이러한 논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모의고사를 보면 아예 이러한 'ㄴ'첨가에 대해서는 빼놓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현상에 대해, 사잇소리 현상이냐 아니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에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언젠가 한번 나와서 확실히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하여 혼동되는 부분

간혹 '콧물'이나 '나뭇잎'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㉞ 코 + 물 → 콧물 → 콘물 → [콘물]
㉞ 나무 + 잎 → 나뭇잎 → 나뭇닙 → 나뭇닙 → [나뭇닙]

이런 설명 방식은 실제 '스'이라는 소리가 첨가되었다고 보고 하나씩 음운 변동의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책에 따라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가요.

그러나 사잇소리 현상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지도 않을뿐더러 이러한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듯이 사잇소리 현상은 단순하고 확실하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콧물'의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코'와 '물'이 합쳐질 때 'ㄴ'소리가 덧나네? 이런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하지. 그리고 이를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 사이시옷을 적는거야."

또한 '나뭇잎'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잎'이 결합할 때 'ㄴ'이 덧나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스'이 'ㄷ'이 되고 비음화를 거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확실하게 개념이 자리 잡았나요? 박스에 담겨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알아둬도 어떤 문제든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2) 여기서 제시하는 6개를 제외하고 '한자어+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틀리는 표현인 '개수'도 '한자어+한자어'이기 때문에 '갯수'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

비록 교육과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여러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이를 사잇소리로 담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토대로 '숨이불'류의 'ㄴ' 첨가를 사잇소리에선 뺐습니다.

33) 차이점은 'ㄴ'이 첨가되는 위치가 다르고 'ㄴ'이 첨가되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고체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 우리말은 음절 종성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될 수 있기 때문에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오는 경우 7개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는 자음이 'ㅂ, ㄷ, ㄱ'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① ㅍ ⇒ ㅂ

ex) 잎 → [입], 엇고 → 업고 → [업꼬]

② ㅌ, ㅍ, ㅍ, ㅌ, ㅌ ⇒ ㄷ

ex) 밭 → [밭], 옷 → [옵], 있다 → 인다 → [인따], 낫 → [낫], 꽃 → [꼇], 히읃 → [히읃]

③ ㅋ, ㆁ ⇒ ㄱ

ex) 부엌 → [부억], 밖 → [박]

※ 음절 종성에 자음이 오는 경우

1. 뒤에 아무런 글자도 오지 않는 경우, 즉 단독으로 발음할 때
ex) 꽃[꼇], 잎[입]

2.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때
ex) 꽃도[꼇도], 꽃집[꼇집]

3.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ex) 꽃 안에 → [꼇안에] → [꼬다네]

음절 종성에서도 발음될 수 있는 변이음을 가짐

비음화

■ 장애음이 비음에 의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ㄱ/ㄷ/ㅂ + ㅁ/ㄴ ⇒ ㅇ/ㄴ/ㅁ

ex) 국민[궁민], 믿는[민는], 밥만[밤만]

'ㄹ'의 비음화

■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ㄹ'이 'ㄴ'으로 바뀌는 현상

① ㅁ/ㅇ + ㄹ ⇒ ㄴ

ex) 침략[침낙], 종로[종노]

② ㄱ/ㄷ/ㅂ + ㄹ ⇒ ㄴ

ex) 독립 → 독립 → [동닙], 면리 → 면리 → 면니 → [면니], 압력 → 압력 → [암녁]

③ ㄴ + ㄹ ⇒ ㄴ

ex) 음운론[음운논], 결단력[결탄녁]

유음화

■ 유음화 : 'ㄴ'이 'ㄹ'에 의해 'ㄹ'으로 바뀌는 현상

① ㄹ + ㄴ ⇒ ㄹ

ex) 칼날[칼랄]

※예외: ㉠어간 말음이 ㄹ이고 어미가 ㄴ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ㄹ이 탈락됨

ex) 울- + -니 → 우니

② ㄴ + ㄹ ⇒ ㄹ

ex) 신라[실라], 난로[날로]

분리가능성~!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도 'ㄹ'이 탈락되기도 함

ex) 솔 + 나무 → 소나무

된소리되기

■ 평음이 특정한 환경에서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

① 평파열음 뒤의 경음화

ex) 입고[입꼬], 민다[민따], 국밥[국뽵]

- 어떤 예외도 없는 가장 대표적인 된소리되기 현상

- 'ㅂ, ㄷ, ㄱ' 뒤에 'ㄱ, ㄷ, ㅂ, ㅅ, ㅈ'가 오면 반드시 된소리되기가 일어남

② 비음 뒤의 경음화

ex) 안더라[안떠라], 감다[감따]

- 용언 어간 'ㄴ, ㅁ'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됨

- '용언 어간'이나 '어미'와 같은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

③ 관형사형 어미 뒤의 경음화

ex) 먹을 것[깁], 갈 데[떼], 만날 사람[싸람], 할수록[할쑤록], 할걸[할깁], 할밖에[할빠께]

-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에서만 일어난다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

- '-ㄹ수록, ㄹ걸, ㄹ밖에'와 같이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경우에도 일어남

④ 한자어에서 유음 뒤의 경음화

ex) 골수骨髓[골쑤], 물질物質[물질], 발달發達[발뽵]

- 'ㄹ'로 끝나는 한자어와 'ㄷ, ㅅ, ㅈ'으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할 때 일어남

- '한자어'라는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필요

구개음화

자음이 모음의 조음 위치에 닿아감

■ 종류

1. ㄷ-구개음화 : 'ㄷ, ㅌ'이 'ㄹ, ㄱ' 앞에서 'ㄷ, ㅌ'으로 바뀜

※조건 -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남

- 'ㄹ, ㄱ'가 문법 형태소여야 함

2. ㄱ-구개음화 : 'ㄱ, ㅋ, ㆁ'이 'ㄹ, ㄱ' 앞에서 'ㄱ, ㅋ, ㆁ'으로 바뀜

3. ㅎ-구개음화 : 'ㅎ'이 'ㄹ, ㄱ' 앞에서 'ㅅ'으로 바뀜

형태소 내부 + 단어의 첫머리 + 표준어로 인정X

■ 음성적 구개음화 / 음소적 구개음화

1. 음소적 구개음화 : 음소가 바뀜 / ㄷ, ㄱ, ㅎ-구개음화가 이에 속함

2. 음성적 구개음화 : 음소의 변화는 없이 변이음 차원에서 음성만 바뀜

- ㅅ, ㅆ, ㄴ, ㄹ에서 나타남

■ 구개음화의 역사

- 구개음화는 17세기 말 ~ 18세기 초에 일어났음

- 그 당시에는 형태소의 경계뿐 아니라 형태소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났음

-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단어의 형태가 바뀌었음

- 19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 따라서 그 당시에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었던 단어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후에 단모음화되면서

'ㄷ, ㅌ + ㄹ'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됨

ex) 잔디, 마디

반모음화

모음 충돌 회피 현상 / 수의적 현상 / 보상적 장음화가 나타나기도 함
 '오-, 지-, 치-, 찌-'에서는 필수적으로 일어남

■ 단모음이 다른 단모음 앞에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반모음으로 바뀌는 현상

① 'l'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l'가 y로 교체

ex) 기+여라 → [겨:라], 끼+어서 → [껴:서], 견디+어 → [견더], 버티+어 → [버터]
 녹이+어 → [노겨], 먹이+어 → [머겨], 업히+어 → [어퍼], 굴리+어 → [글려]

② 'ㄴ/ㄷ'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ㄴ/ㄷ'가 w로 교체

ex) 오+아서 → [와서], 보+아라 → [봐:라], 나누+어 → [나눠], 싸우+어 → [싸워]

'l' 모음 역행 동화

동화 현상 / 현재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X / 표준 발음X

■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 'ㄴ, ㄷ, ㄱ'이 후행 음절의 모음 'l'나 반모음 y에 의해 각각 전설모음 'l, ㅕ, ㅖ, ㅗ, ㅛ'로 바뀌는 현상

ex) 끓이다[끼리다], 먹이다[메기다], 가랑이[가랭이], 구경[귀경], 도련님[되련님]

※ 조건 - 양순음이나 연구개음이 동화주와 피동화주 사이에 있어야 함
 - 예외적으로 'ㄹ'이 오는 경우에도 일어나기도 함

위치 동화

조음 위치를 닮아가는 동화 현상

■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현상

① 양순음화

치조음 + 양순음 ⇒ 양순음

ㄴ ㅁ 신문[심문]
 ㄴ ㅂ 산불[삼불]
 ㄷ ㅂ 꽃밭→(곧밭)→[곱뻐]

② 연구개음화

치조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ㄴ ㄱ 한강[항강]
 ㄷ ㄱ 순가락[숙까락]
 양순음 + 연구개음 ⇒ 연구개음
 ㅁ ㄱ 감기[강기]
 ㅂ ㄱ 밥그릇[박끄륻]

탈락

자음군 단순화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에서 일어남

① ㄹ, ㅂ, ㅈ ⇒ 앞의 자음이 탈락

ex) 닭 → [닥], 밥+지 → [박찌]
 삼+다 → [삼따], 삼+만 → [삼만]
 읊+고 → [읍꼬]

예외 ~!
 'ㄹ'

- 어간이 'ㄹ'로 끝날 때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뒤의 자음이 탈락함

ex) 읊+고 → [일꼬], 맑+게 → [말께] ;
 읊+다 → [익따], 맑+다 → [막따]

- 이 예외는 위와 같이 용언의 활용에서만 일어나고 '체언-조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음

ex) 흙+과 → [흑과]

② 나머지 겹자음 ⇒ 뒤의 자음이 탈락

ex) 낫 → [낙], 외곶 → [외굴],
 훔+고 → [훈꼬], 넓+고 → [널꼬],
 꿀+는 → [꿀른], 없+다 → [업따],
 앓+는 → [안는], 앓+니 → [안니]

예외 ~!

'ㅃ-', 'ㄴ'ㅃ'족하다, ㄴ'ㅃ'적하다, ㄴ'ㅃ'등글다'

- 어간이 'ㅃ-'인 경우에는 앞의 자음이 탈락함

ex) ㅃ+다 → [ㅃ따] ; ㄴ+다 → [ㄴ따]

- 'ㄴ'ㅃ'족하다, ㄴ'ㅃ'적하다, ㄴ'ㅃ'등글다'의 경우에도 앞의 자음이 탈락함

ex) [ㄴ'ㅃ'쭈카다], [ㄴ'ㅃ'쩌카다], [ㄴ'ㅃ'똥글다]

'ㅎ' 탈락

■ 'ㅎ'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

ex) 낯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앓은[아는], 싫어도[시러도]

■ 자음군 단순화와 비교

		'ㅎ' 탈락	자음군 단순화
공통점		음운 변동에서 '탈락'에 속함	
차이점	환경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	단독, 자음 앞,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일어나는 이유	'ㅎ'의 특성 때문	음절 종성에 2개의 자음이 소리날 수 없다는 음운론적 제약 때문

'ㄹ' 탈락

■ 유음이 조음 위치가 비슷한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① 용언 어간 'ㄹ'이 'ㄴ, 시'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ex) 알 + 는 → [아는], 날 + 는 → [나는], 살 + 느냐 → [사느냐], 알 + 시는 → [아시는]

② 합성어나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ㄹ'이 'ㄴ, 스, 드, 지' 앞에서 탈락

ex) 술 + 나무 → [소나무], 활 + 살 → [화살], 달 + 달 → [다달], 바늘 + 질 → [바느질]

■ 특이한 경우

- '옴' '오' 앞에서도 'ㄹ'이 탈락 → '옴', '오'는 과거에 'ㄹ'을 가지고 있었음

현재 활발히 일어나는 현상X

모음 탈락

모음 충돌 회피 현상

■ 'ㄹ'이 다양한 환경에서 탈락하는 현상

① 어간 말의 'ㄹ'이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

ex) 크 + 어서 → [커서], 슬프 + 어도 → [슬퍼도], 치르 + 어라 → [치러라]

② 어미의 'ㄹ'이 어간 말 모음이나 'ㄹ' 뒤에서 탈락 (매개모음 탈락)

ex) 가 + 으니 → [가니], 보 + 으 → [본], 배우 + 으면 → [배우면],
날 + 으면 → [날면]

③ 부사격 조사 '으로'가 모음이나 'ㄹ' 뒤에서 탈락

ex) 머리 + 으로 → [머리로], 달 + 으로 → [달로]

동일 모음 탈락

■ 'ㄱ/기'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ㄱ/기'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

ex) 가 + 아서 → [가서], 서 + 어도 → [서도], 삼가 + 아 → [삼가],
건너 + 어서 → [건너서], 만나 + 앓 + 고 → [만남꼬],
건너 + 앓 + 고 → [건넌꼬]

'ㄱ/ㅅ' 뒤 'ㄱ' 탈락

■ 'ㄱ/ㅅ'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ㄱ'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ㄱ'이 탈락하는 현상

ex) 개 + 어서 → [개:서], 깨 + 어서 → [깨:서], 매 + 앓 + 다 → [매:파],
지내 + 어라 → [지내랴], 건네 + 앓 + 다 → [건넌파]

반모음 탈락

■ 경구개음 'ㅈ, ㅊ, ㅊ' 뒤에서 반모음 y가 탈락하는 현상

ex) 지 + 어 → (저) → [저], 다치 + 어 → (다쳐) → [다쳐], 찌 + 어 → (찌) → [찌]

축약

유기음화

■ 'ㄱ, ㄷ, ㅂ, ㅈ'이 'ㅎ'을 만나 'ㅋ, ㅌ, ㅍ, ㅊ'으로 합쳐져 발음되는 현상

① ㅎ + ㄱ/ㄷ/ㅂ ⇒ ㅋ/ㅌ/ㅍ

ex) 놓고[노코], 많고[만코], 종던[조턴], 답지[달치]

② ㄱ/ㄷ/ㅂ/ㅈ + ㅎ ⇒ ㅋ/ㅌ/ㅍ/ㅊ

ex) 국화[구과], 만형[마형], 입학[이팍]
먹히다[머키다], 굳히다[구티다] > 구치다, 좁히다[조피다], 맞히다[마치다]
밝히다[발키다], 넓히다[널피다], 앉히다[안치다]

→ '체언 + 조사', 단어 사이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남

모음 축약

■ 연속하는 모음이 축약되는 현상

ex) 사이>새, 아이>애
보이다>뵈다, 누이다>뉘다, 뜨이다>뜨다

공시적인 현상X



✦ 음절의 축약과 음운의 축약

- 학교 문법에서는 '기어[겨:]'와 같이 반모음화로 인해 나타나는 음절의 축약도 모음 축약으로 다룸~~!

- 엄밀히 따지면 축약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첨가

반모음 첨가

→ 모음 충돌 회피 현상 /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X / 대부분이 표준 발음이 아님

■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반모음 y나 w가 첨가되는현상

- ① 어간이 전설 모음 'i, e, ɛ, ɜ, ɔ'로 끝나고 어미가 'h/'로 시작할 때 반모음 y가 첨가
ex) 피 + 어서 → [피여서], 글히 + 어서 → [글키여서], 세 + 어 → [세여], 개 + 어 → [개여],
뉘 + 어 → [뉘여], 뛰 + 었 + 고 → [뛰엿고], 되 + 어서 → [되여서]
- ② 어간이 후설 원순 모음 'ɔ/ʊ'로 끝나면 어미가 'h/'로 시작할 때 반모음 w가 첨가
ex) 보 + 아라 → [보와라], 꾸 + 어도 → [꾸워도]

'ㄴ' 첨가

→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X / 뒷말이 형식 형태소인 경우에 일어나지X

■ 파생어나 합성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i'나 y로 시작할 때 그 사이에 'ㄴ'이 첨가되는 현상

- ① 합성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ex) 숨 + 이불 → [숨니불], 색 + 연필 → 색년필 → [생년필], 물 + 약 → 물낙 → [물락]
- ② 파생어에서 나타나는 경우
ex) 한 + 여름 → [한녀름], 신 + 여성 → [신녀성], 영업 + 용 → [영업농]
헛 + 일 → 헛닐 → 헛닐 → [헛닐], 흘 + 이불 → 흘니불 → 혼니불 → [혼니불]
- ③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우
ex) 옷 입다 → 옷 닙따 → 온닙따 → [온닙따], 할 + 일 → 할닐 → [할릴]

사잇소리 현상

■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룰 때 뒷말이 된소리로 변하거나, 'ㄴ'소리가 덧나거나, 'ㄴㄴ'소리가 덧나는 현상

①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 (앞말은 울림소리)

㉠ 앞말이 울림소리 중 모음인 경우 → 사이시옷 적을 수 있음
ex) 초 + 불 → [초뿔/츄뿔], 내 + 가 → [내까/냉까]

㉡ 앞말이 울림소리 중 울림 자음인 경우 → 받침이 있으므로 사이시옷을 적을 수 없음
ex) 산 + 길 → [산길], 그믐 + 달 → [그믐달]

② 'ㄴ'이 덧나는 경우

㉠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ㅁ으로 시작하는 경우 → 사이시옷 적을 수 있음
ex) 코 + 날 → [콘날], 내 + 물 → [낸물]

③ 'ㄴㄴ'이 덧나는 경우 (앞말은 모음, 뒷말은 모음 'i'나 반모음 y) →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음

ex) 나무 + 잎 → [나문닙], 나라 + 일 → [나란닐]



- 1.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을 적을 공간이 있어야 함
- 2. 구성 요소 중 최소 하나는 고유어여야 함 + 외래어와 결합될 때도 표기X
※예외 - '한자어 + 한자어'의 경우 다음 단어들에서는 사이시옷을 표기
'셋방, 숫자, 횡수, 곳간, 찻간, 튀간'

+ 음운 변동들 간의 적용 순서

- 1. 유기음화
- 2. 음절의 끝소리 규칙 → 4. 자음군 단순화 → 5. 비음화, 유음화 (평파열음화)
- 3. 된소리되기

5. 기출 문제 확인하기



여기서는 모의고사에서 나온 음운론 문제들 중 일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한 모의고사는 최근 4개년 고3 모의고사입니다.

기출 문제를 담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실제 문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답에 대한 해설은 각 모의고사 해설지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해설보다는 문제마다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미 풀어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 보세요.

더 자세한 해설이나 다른 기출 문제 해설이 필요한 학생 친구들은 아래 블로그에서 기출 문제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https://blog.naver.com/sol8250>

17년 수능 11번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흡일 → [흥닐]
- ㉡ 닳는 → [달른]
- ㉢ 발아구 → [발라구]

- ① ㉠ ~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이 문제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은 'ㄴ'첨가,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등이었습니다.

어떤 음운 변동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풀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겠죠?

㉠ '흡일'에서 간혹 "'ㄴ'첨가가 먼저 일어나요?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일어나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할 때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먼저 음절이 분단되어서 자음이 음절 종성에 놓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리'이 음절 종성에서 자음군 단순화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에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ㄴ'이 첨가가 됩니다. 두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음운 규칙들 간의 순서는 앞에서 다룬 것들 사이에서만 고려하면 됩니다.

18년 7월 고3 13번

<보기>는 표준 발음법 중 '된소리되기'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ㄹ, ㄴ, ㄹ, ㄴ, ㄹ, ㄴ, ㄹ, 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어간 받침 'ㄹ,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국밥'과 '(계란을) 삶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② '꽃다발'과 '(그릇을) 핥지만'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③ '(시를) 읊조리다'와 '(죽을) 먹을지언정'에서의 된소리 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④ '(바닥에) 앉을수록'과 '(몸을) 기댈 곳'에서의 된소리 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살살이) 훑다'와 '(내가) 떠날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표준 발음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된소리되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기 ㉠의 '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앉다'의 경우 '앉다 →

안ㄷ다 → 안ㄷ따 → [안따]'와 같이 발음됩니다. 즉 된소리로 일어나는 이유는 ㄷ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표준 발음법에서도 '더 알아보기'라고 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설명입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ㄴ' 뒤에서의 경음화와 'ㄴ' 뒤에서의 경음화는 차이가 있다. 'ㄴ' 뒤의 경음화는 실제로는 'ㄷ'에 의한 경음화이다. 겹받침의 일부인 'ㅈ'이 탈락하기 전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그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ㄴ' 뒤에서의 경음화는 제23항에서 규정하는 'ㄱ, ㄷ, ㅅ' 뒤의 경음화와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다만 'ㄴ'이 표면적으로는 음절 종성에서 [ㄴ]으로 발음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이 조항에서는 'ㄴ' 뒤의 경음화와 'ㄴ' 뒤의 경음화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선지 ㉢ '먹을지언정'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하나로 굳어진 'ㄹ지언정'이 사용된 것이므로 된소리되기 일어난다.

19년 3월 고3 11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ㅅ'으로 교체되고,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ㄹ'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ㅅ'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ㅅ'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 ① '한뫼[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② '놓기[노키]'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끓지[끓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은 음운론적 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문법 개론서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시되는 내용들이 전공 서적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난이도도 점차 심화되고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설명할 때 자음은 음절 종성에서 기류의 개방 과정이 생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류의 개방 과정에서 그 소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자음들은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찰음이나 파찰음은 기류가 흐르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며, 된소리나 거센소리는 기류의 개방 과정에서 음성적 특징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이들 소리가 음절 종성에 오면 음절 종성에서도 발음될 수 있는 변이음을 가진 'ㄱ, ㄷ, ㅅ'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할 때는 이에 대해 이것보다는 좀더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년 10월 고3 11번

<보기>의 ㉠ ~ ㉣을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발음을 하며 발에 ㉡<받기>꼴을 보았다.
- ㉢ 술한 시련을 이겨 내 승리를 ㉣ 굳혔다.

- ① ㉠에서는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 ② ㉠에서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ㅌ'이 연음된다.
- ③ ㉡와 ㉢에서는 모두 음운 변동의 결과 전체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다.
- ④ ㉡와 ㉢에서는 모두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와 ㉢에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 먼저 일어난 후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문제는 짧지만 여러 음운 변동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아마 제시된 단어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에서는 ㄴ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에서는 유기음화가,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유기음화가, ㉣에서는 유기음화, 구개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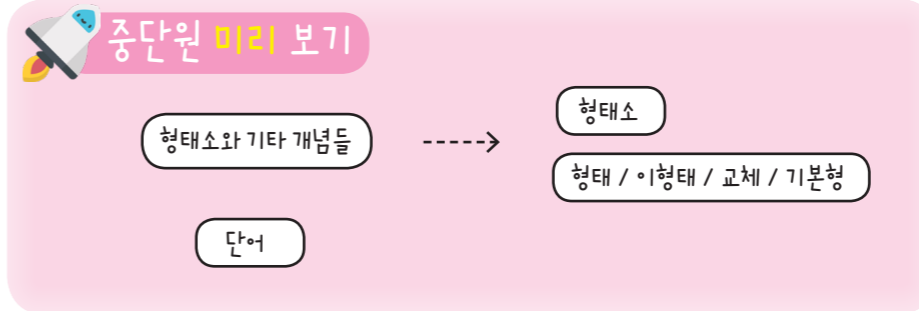
PART 2

형태

1. 형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품사
3. 단어의 형성
4. 기출 문제 확인하기

드디어 형태 파트에 들어왔습니다. 음운 파트 다음에 형태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순서는 모든 문법 교재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점점 더 배우는 단위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운 파트에서는 'ㄱ, ㄴ, ㄷ' 등과 같은 하나하나의 소리들과 그것들의 변동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형태 파트에서는 이러한 소리들이 결합한 형태소라는 단위와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단어에 대해 배우죠. 그렇다면 이 다음 파트인 문장 파트는 뭘 배우게 될까요? 바로 단어들이 결합한 문장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흐름이 보이시나요?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면서 본격적으로 형태 파트, 시작해 볼까요?!

1. 형태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형태소와 기타 개념들



형태 파트에서는 형태소와 단어, 이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크게 형태소가 결합하여 파생어, 합성어 등의 단어가 되는 부분과 단어의 품사에 대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단 먼저 형태소와 그 주변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단어, 품사, 합성어, 파생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운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도 기본적인 개념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가봅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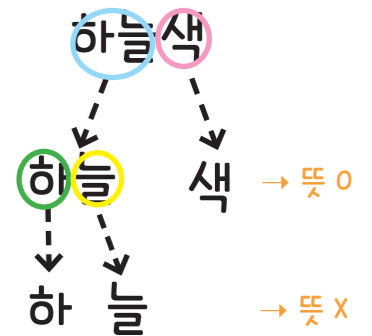
(1) 형태소

형태소의 개념

형태 파트에서 다루는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형태소입니다. 여기서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하늘색

위의 단어 '하늘색'은 '연한 파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색'은 '하늘'과 '색'이라는 뜻을 가진 단위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색' 자체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하늘색'이 하나의 형태소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늘'은 '하'와 '늘'로 쪼갤 수는 있지만 '하'와 '늘'은 뜻을 가지지 않으므로 '하늘'이 하나의 형태소가 됩니다. '색'의 경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가 됩니다. 이렇게 '하늘색'은 '하늘'과 '색'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형태소의 하위 분류

형태소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몇 개의 하위 요소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형태소가 가진 의미가 실질적인 개념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개념이 있으면 **실질 형태소**, 그렇지 않으면 **형식 형태소**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라는 것은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을 의미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확 와닿지 않을 때에는 실질 형태소와 반대되는 형식 형태소의 개념을 살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문장을 볼까요?

철수가 밥을 먹다.

여기서 '가', '을', '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철수'나 '밥'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어나 목적어를 나타내거나 문장의 종결을 표시하는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를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하여 **형식 형태소**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형식', '형식적이다'라고 하면 외부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어떤 양식 등을 의미 하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물건을 포장하는 것에 비유하면 물건을 싸고 있는 포장지에 해당됩니다. 실질 형태소는 그 안의 물건이고요. 이처럼 형식 형태소는 분명 어떤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문법적인 것일 때**의 형태소를 말합니다. 반대로 실질 형태소는 그 의미가 실질적인 것일 때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형태소가 자립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 그렇지 않으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¹여기서 자립성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될 수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로 들어던 문장을 다시 볼까요? '철수', '밥'은 '철수 왔어?', '밥 먹었어.'처럼 띄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을', '먹', '다'는 띄어쓰기의 단위가 될 수 없죠. ²따라서 '철수', '밥'은 자립 형태소, '가', '을', '먹-', '-다'는 의존 형태소가 됩니다.

더 알아보기 형태소 종류 구분해 보기

아직 진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형태 파트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품사나 접사 등에 대해 형태소 종류를 미리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실질 | 체언(명사/대명사/수사), 용언 어간, 수식언(관형사/부사), 독립언(감탄사)
 형식 | 용언 어미, 관계언(조사), 접사

자립 | 체언(명사/대명사/수사), 수식언(관형사/부사), 독립언(감탄사)
 의존 | 용언 어간, 용언 어미, 관계언(조사), 접사

실질 형태소는 대부분 자립 형태소이지만,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에 속합니다. '먹다'에서 '먹-'을 단독으로 띄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실질 형태소: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 등 실질적인 의미

형식 형태소:
조사나 접사, 어미가 갖는 문법적인 의미

1) 띄어쓰기의 단위라는 자립성에 대한 기준은 뒤에서 관형사나 의존 명사를 자립 형태소로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존 형태소를 표기할 때는 '먹-'과 같이 붙임표(-)를 표시합니다. 조사인 '가', '을'도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를 표시해주는 것이 맞지만 조사에서는 관습적으로 '-'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품사 자격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에 속합니다. 용언의 경우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분류를 따로따로 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암기해도 좋지만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해당 내용이 나올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형태 / 이형태 / 교체 / 기본형

우리는 음운 파트에서 음운에 대해 배울 때 말소리를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으로 나눴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음운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실현된 것을 음성이라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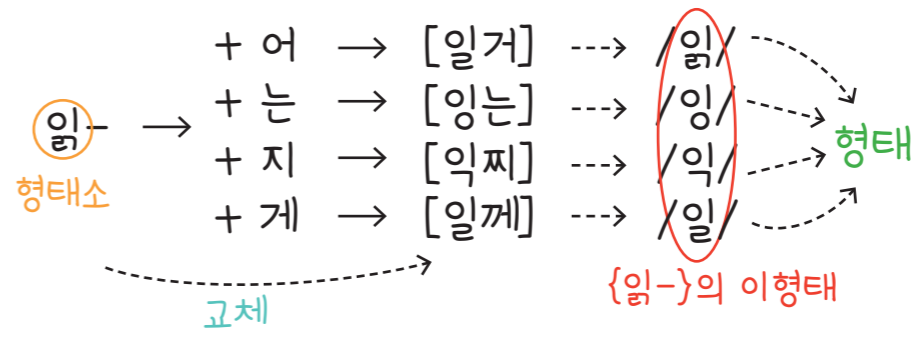
형태소도 이와 비슷하게 구분을 합니다. 보통 형태소라고 하면 **추상적인 의미**의 측면을 말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음성으로 실현된 것**을 형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의 형태소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읽-}	2. {이}
읽어[일거] → /읽/	사람이 → /이/
읽는[잉는] → /잉/	철수가 → /가/
읽지[익찌] → /익/	
읽게[일께] → /일/	

'신문을 읽다', '문법의 정수 교재를 읽다'할 때 '읽-'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태소는 뒤에 어떤 음운이 오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음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³'읽어'에는 아무런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형태 변화가 없지만, '읽는'과 '읽지', '읽게'에서는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등이 일어나면서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의 경우에는 음운 현상과는 상관 없이 형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처럼 자음 뒤에서는 '이'로 나타나고 '철수가'처럼 모음 뒤에서는 '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 때, 이렇게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체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각각 **'형태'**라고 합니다. 또한 한 형태소가 여러 형태를 가질 때 그 형태들을 **4)'이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형태들은 **5)상보적(배타적)** 분포를 이룹니다. 이렇게 보면 음운과 정말 비슷하죠? 음운도 추상적 개념이었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나는 변이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보였으니까요.

조금 복잡하신가요? 아래 그림으로 다시 정리해 볼까요?



3) '읽어'의 발음이 [일거]라고 해서 형태소 {읽-}의 모양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가'이 연음된 것은 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

4) '형태'와 '이형태'가 실제로 가리키는 대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형태'의 경우에는 형태소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단순히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형태'의 경우에는 그것의 형태소와의 관계까지 고려한 것을 말합니다. 문분의 '읽는'에서 단순히 /잉/ 자체를 가리킬 때는 형태라고 하지만 형태소 {읽-}과의 관계에서는 {읽-}의 이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 헷갈려 하는 학생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5) 상보적(배타적) 분포는 출현 환경이 서로 겹치지 않는 것이었죠? {읽-}에서도 보면 각각의 형태들이 출현하는 환경이 전혀 겹치지 않고 있습니다. 음운의 변이음이나 형태소의 이형태나 모두 이러한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의미 형태소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형태를 구분했지만, 많은 경우 이 둘을 포괄하여 그냥 형태소로 부르기도 합니다. :)

'읽-'이라는 형태소는 여러 환경에 따라 /읽/, /잉/, /익/, /일/이라는 형태로 교체됩니다. 이러한 형태들은 모두 '읽-'의 이형태들이며, 이것들은 서로 각각 다른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읽/은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잉/은 뒤에 비음이 오는 경우에, /익/은 뒤에 'ㄱ'을 제외한 자음이 오는 경우에, /일/은 'ㄱ'이 오는 경우에 나타납니다.

한편 이형태들 중에서는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정한 기본형은 사전에 표제어로 실립니다. 기본형을 정할 때는 **보통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정했을 때 나머지 이형태들을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위의 예에서 보면 {읽-}의 경우에는 '읽'을 기본형으로 했을 때 나머지 형태를 자음군 단순화나 비음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형태인 '잉'이나 '익', '일'을 기본형으로 하면 나머지 형태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렵죠.

위에서 든 또 다른 예인 {이}와 같이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정하거나 둘 다 기본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통계적으로 빈도가 많은 것을 기본형을 정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먼저 쓰인 형태를 기본형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은 형태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이형태의 교체의 양상

여기서 다룬 내용은 이형태 교체의 양상입니다. 조금 깊은 내용이지만,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다루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살펴볼까요?

이형태 교체의 양상은 그 기준에 따라 3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

- 자동적 교체: 음운론적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교체
ex) 숲 → [쑤], 국민 → [궁민]
- 비자동적 교체: 음운론적 제약과 상관 없이 나타나는 교체
ex) 이 ~ 가, 을 ~ 를, 안다 → [안따]

음운 파트에서 배웠듯이 우리말에는 음운론적 제약이 존재하고 그러한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나타나는 음운 규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음운 규칙에 의해 나타나는 교체가 자동적 교체입니다. 위에 나온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비음화뿐 아니라 다른 음운 규칙도 그것이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라면 자동적 교체가 됩니다.

반면 비자동적 교체는 음운론적 제약과 관련이 없습니다.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교체되는 것은 어떤 음운론적 제약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된소리되기

에서도 1번 규칙을 제외하고서는 음운론적 제약과 관련이 없다고 했으니 '안다'도 비자동적 교체가 됩니다. '산도'처럼 'ㄴ' 뒤에 'ㄷ'이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② 규칙적 교체와 불규칙적 교체

- 규칙적 교체: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 교체
ex) 잡는 → [잡는], 안다 → [안따]
- 불규칙적 교체: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한 교체
ex) (감기가) 낫다 → 나았다, (밥을) 짓다 → 지었다
(손을) 씻다 → 씻었다, (해가) 솟다 → 솟았다

음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음운 현상을 보이는 부류나 그 환경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화했다는 것은 규칙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규칙으로 나타나는 교체는 규칙적 교체가 됩니다. 규칙적 교체를 보이는 것들은 그 교체의 양상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비음화라는 음운 규칙만 알고 있으면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화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위에 다룬 비음화나 경음화는 그 현상을 일반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 규칙적 교체입니다.

반대로 불규칙적 교체는 이러한 일반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교체가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ㅅ' 불규칙, 'ㅂ' 불규칙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에서처럼 같은 'ㅅ'으로 끝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용언에 따라 'ㅅ'이 탈락하기도 하고 탈락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운 규칙으로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교체가 불규칙적 교체입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

③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와 비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음운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교체
ex) 이 ~ 가, 을 ~ 를, 앓 ~ 었, 읽 ~ 잉 ~ 익 ~ 일
- 비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 음운 환경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교체
ex) 보았다, 먹었다 → 하였다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는 음운 환경에 따라 교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읽-}이나 주격 조사 {이}는 모두 음운적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교체입니다. {읽-}은 뒤에 어떤 음운 환경이 놓이냐에 따라 /읽 ~ 잉 ~ 익 ~ 일/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에 자음이 오는지 모음이 오는지에 따라 /이 ~ 가/로 나타났습니다. 목적격 조사인 '을/를'도 주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음이나 모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았-'은 앞에 오는 모음이 음성 모음인지 양성 모음인지에 따라 이형태가 교체되죠. 이렇게 어떤 형태소의 교체가 음운 환경에 따라 일어날 때, 이를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라고 합니다.

반면 비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는 음운 환경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교체를 말합니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았-'은 음운적 조건에 의해 교체가 되는 형태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형태소가 '하-'라는 형태소 뒤에서는 '-였-'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음운적 조건과는 관련이 없이 특정한 형태 뒤에서 나타나는 교체이죠.

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를 보이는 이형태를 음운론적 이형태, 비음운적 조건에 의한 교체를 보이는 이형태를 비음운론적 이형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2019년 4월 고3 모의고사 11번]에서 출제된 적 있으니 문제로 다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문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 단어

이제 형태소에서 좀 더 나아가 더 큰 단위인 단어에 대해 살펴볼까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소는 그 자체로 단어가 되거나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하나의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 (㉠) 집, 산, 높다
- (㉡) 덧신, 가위질
- (㉢) 집안, 짚신, 높푸르다

형태소 하나로 된 단어를 **단일어**, 형태소 두 개 이상으로 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는 실질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입니다. ⁶⁾'높다'는 어간 '높-', 어미 '-다'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되었지만 이를 복합어로 보지는 않습니다. 복합어는 (㉡)와 같이 접사라는 형식 형태소가 어근이라는 실질 형태소에 붙거나, (㉢)와 같이 두 개의 어근이 결합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어의 짜임이나 단어의 형성에 대한 것은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 단위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위가 단어이고, 사전에 표제어로 올리는 기본 단위도 단어입니다. 단어는 이처럼 널리 쓰이는 문법 단위이지만 그 정의를 엄격하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논의는 제외하고 학교 문법 수준에서 말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 15개정 언어와 매체 교과서 중에서
비상: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천재: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중 가장 작은 단위

두 개의 교과서에서 나온 설명 중에서 공통된 것은 '자립'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단어를 정의할 때 이러한 자립성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여기서 자립성은 앞에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설명할 때 말했던 띄어쓰기의 단위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존 형태소들은 기본적으로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사만은 단어로 인정**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는 반드시 앞말에 붙여서 써야 하기 때문에 자립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도 단어로 처리하고 있죠. (㉠)의 비상 교과서에서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라는 설명은 이러한 조사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할 수 있는 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최소 자립 단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 어미는 단어의 형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높다, 높았다, 높겠다, 높았었다, 높습니다' 등등 어간 뒤에 많은 어미들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모두 하나의 단어에 불과합니다. 동사나 형용사는 관습적으로 어미 '-다'를 붙인 형태를 사전에 표제어로 올립니다.

더 알아보기 조사는 왜 단어로 처리한 것일까?

어미도 조사와 같이 형식 형태소이고 앞말에 붙여서 써야만 하는데 왜 조사만 단어로 처리한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조사와 어미가 붙는 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조사가 붙는 체언은 자립성이 있는 말입니다. 반면 어미가 붙는 어간은 자립성이 없죠.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자립성이 있는 체언에 붙는 조사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립성을 갖는다고 보고 어미와 달리 단어로 처리한 것입니다. 쉽게 납득이 되는 내용은 아니죠? :)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더 알아보기 어절

문법 교재를 보면 '어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마디로, 쉽게 말해서 띄어서 쓸 때 각각의 마디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단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단어에는 띄어서 쓸 수 없는 조사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라고 했을 때 이는 1어절이지만 단어로는 2개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어절, 단어, 형태소를 하나의 문장에 대입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들에 복숭아꽃이 가득 피었다.



어절: 들에 / 복숭아꽃이 / 가득 / 피었다

단어: 들 / 에 / 복숭아꽃 / 이 / 가득 / 피었다

형태소: 들 / 에 / 복숭아 / 꽃 / 이 / 가득 / 피 / 었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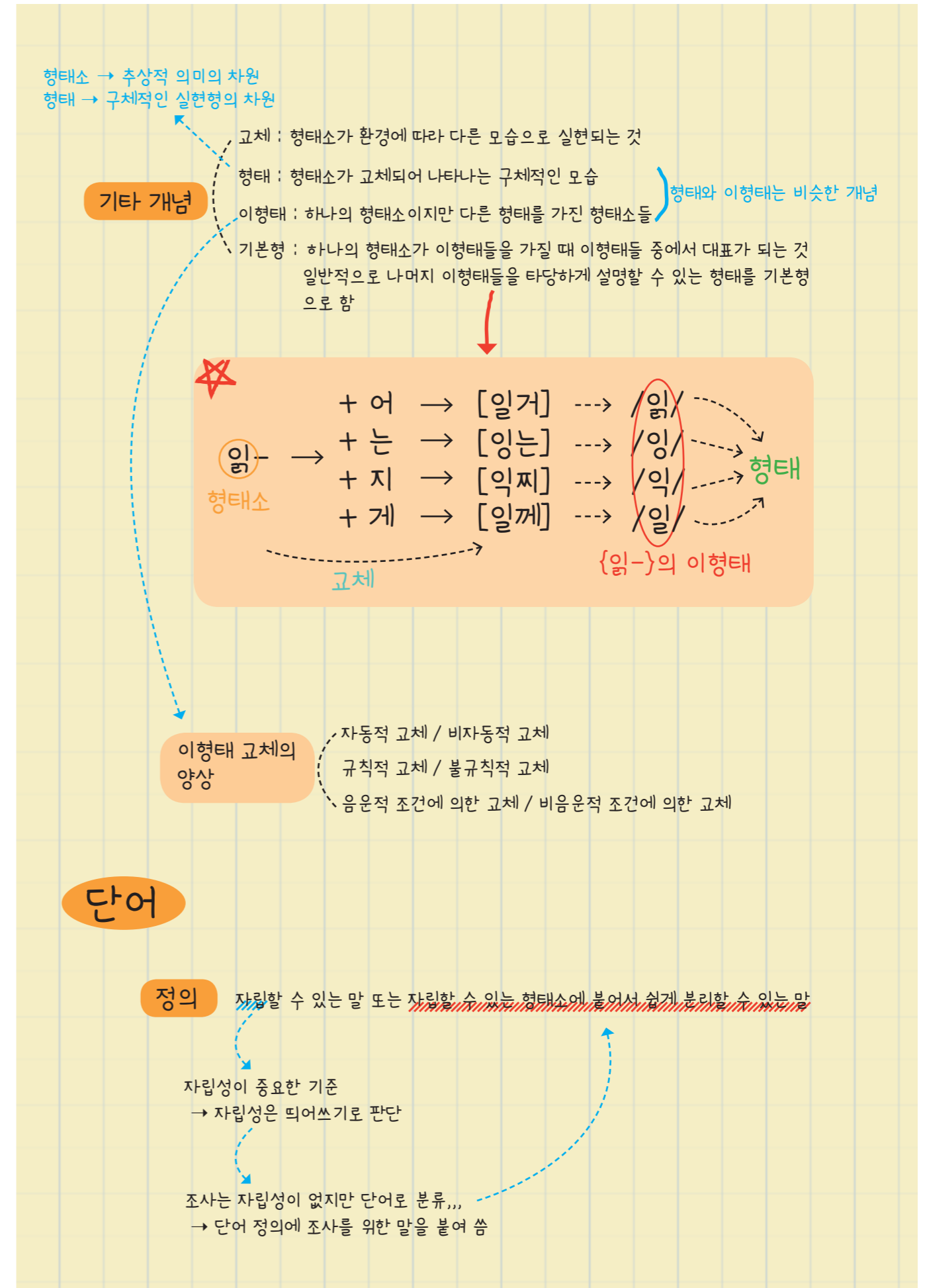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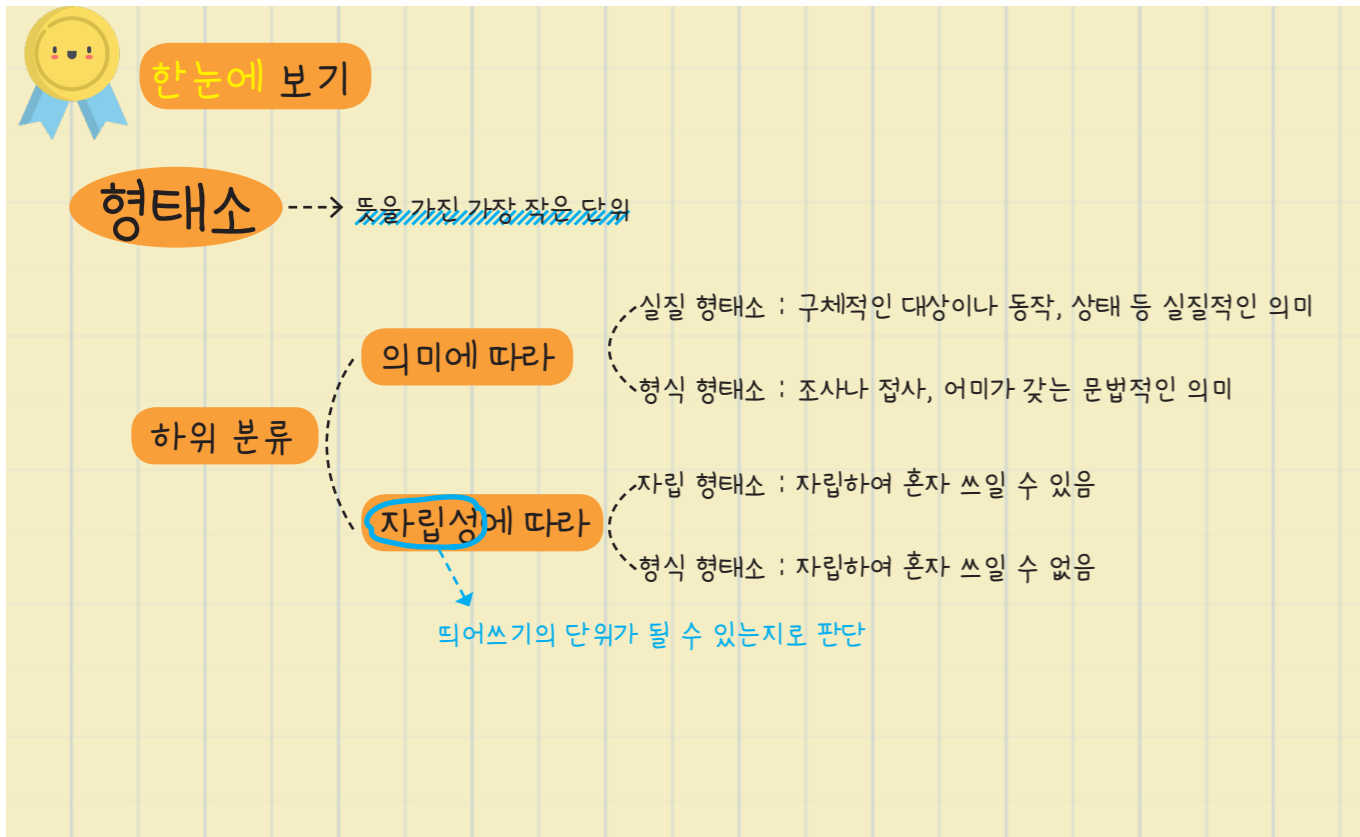
일단 어절로 분석하면 눈에 보이는 데로 띄어서 쓴 단위를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들에', '복숭아꽃이', '가득', '피었다'가 어절이 됩니다.

단어를 분석할 때는 조사를 조심해야겠죠? 자립성이 없지만 단어로 본다고 했으니 '에', '이'는 단어로 분석해야 합니다. '피었다'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본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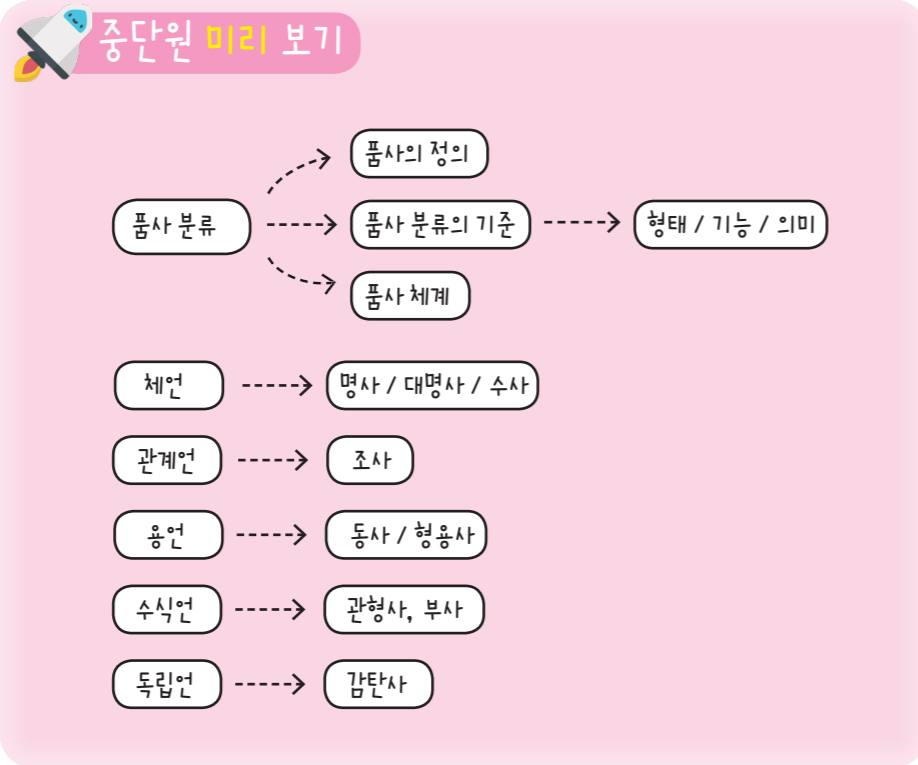
형태소를 분석하면, 일단 '피었다'는 어간 '피-'와 어미 '-었-', '-다-'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는 단어로 보면 어간과 어미들이 합한 것이 하나의 단어로 분석되지만 형태소 분석을 할 때에는 어간과 각각의 어미들이 따로 분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복숭아꽃'을 보면, 자립성은 갖지만 최소 자립 형식은 아닙니다. '복숭아'와 '꽃'으로 나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단어를 엄격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그에 속합니다. '복숭아꽃'과 같은 합성어의 경우 새로운 단어로 형성이 된 것이므로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니 기억해 두세요.

- 어절 : 띄어쓰기의 단위
- 단어 : 최소 자립 단위
- 형태소 : 최소 의미 단위



2. 품사



1) 품사 분류

품사의 정의

품사는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를 말합니다. 단어를 품사로 분류하는 이유는 단어들을 효율적으로 기술하고 활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 표준 국어 대사전

공부하다
동사
 1. 「...을」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다.
 | 학생들이 국어를 공부하다

이와 같이 사전에서는 품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단어의 문법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보는 단어라도 그 단어의 쓰임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죠. 또한 품사 정보를 통해 잘못된 문장을 고치거나 띄어쓰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하죠. 이처럼 품사 분류는 사전 편찬이나 언어 교육, 실생활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품사 분류의 기준

품사 분류의 일반적인 기준에는 **형태, 기능, 의미**가 있습니다.

새 신발이 매우 예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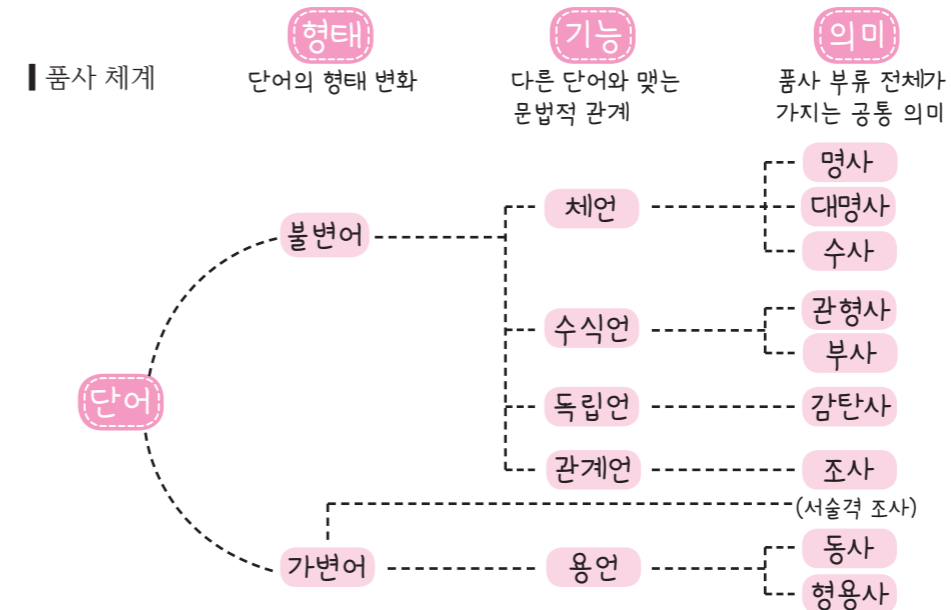
형태는 단어의 형태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단어의 모습이 변화하는지와 관련이 됩니다. 위 문장에서 '새, 신발, 이, 매우'는 그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쁘다'의 경우 어미에 따라 '예쁘다, 예뻐다, 예쁘니, 예뻐서, 예쁘니까' 등으로 그 모양이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단어를 **가변어**, 변하지 않는 단어를 **불변어**라고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가변어에 속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변어에 속합니다.

기능은 단어가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맺는 문법적인 관계를 통해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말합니다. 위 문장에서 '새, 매우'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주며, '신발'은 '깊다'와 관련을 맺으면서 주어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앞에 오는 말의 문장에서의 쓰임을 확실하게 해주고, '예쁘다'는 '신발'의 성질을 서술해 줍니다. 이처럼 단어들은 문장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용언**으로 분류됩니다.

의미는 개별적인 단어의 어휘적인 의미가 아니라 같은 품사로 묶이는 단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추상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 (㉠) 깊이, 깊다
- (㉡) 높이, 높다

단순히 개별적인 단어의 의미를 따져서 보면 '깊이'와 '깊다', '높이'와 '높다'가 같은 부류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품사 분류 차원에서의 의미를 따졌을 때는 '깊이'와 '높이'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묶이고, '깊다'와 '높다'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묶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품사 분류에서 말하는 의미는 개별 단어의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로 분류됩니다.



우리말의 품사를 흔히 9품사라고 하죠? 이는 앞서 봤던 기준에서 의미를 토대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눈여겨 볼 점은 '서술격 조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는 '이다, 이고, 일까, 입니다' 등등 어떤 어미가 오는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 조사를 기본적으로는 조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그림에서처럼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품사 통용

표준 국어 대사전

아니¹ 부사

-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바람이 아니 분다.

아니² 감탄사

-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하는 말
|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통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아니'는 부사와 감탄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품사 통용은 모의고사에서 꽤나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만큼, 대로' 등의 단어가 주로 제시되죠. 이 부분은 뒤에서 조사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품사 통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체언 (명사 / 대명사 / 수사)

(1) 명사

① 정의와 특성

- 정의: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특성
 -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
 - '-들'과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할 수 있음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그 수가 많아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예) 철수가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다.

명사는 위 문장의 '철수'처럼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고, '운동장'처럼 장소를 나타내

기도 하고, '공'처럼 사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명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적인 특성에 주목하여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됩니다.

명사는 '철수가, 빵을'처럼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며**, '학생들'처럼 **'-들'이 붙어서 복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맛있는 빵, 귀여운 고양이'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형어는 품사 관형사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문장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 길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관형어는 관형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귀여운'처럼 동사나 형용사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② 하위분류

-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 유정 명사 / 무정 명사
-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에 따라 : 구체 명사 / 추상 명사
- 대상이 유일한지에 따라 : 고유 명사 / 보통 명사
- 자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 의존 명사 / 자립 명사

명사는 기준에 따라 여러 하위 분류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③ 고유 명사 / 보통 명사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구분 기준

- 고유 명사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 결합하지 않음
ex) *석굴암들이 많다. ; 강가에 돌들이 쌓여있다.
- 고유 명사는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음
ex) *한 철수가 공부한다. ; 한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
- 고유 명사는 수 관형사, 지시 관형사와 결합하지 않음
ex) *도 철수가 저 영희를 좋아한다. ; 도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나타났다.
- 고유 명사는 개체 하나하나를 뜻하는 '마다'와 결합하지 않음
ex) *한강마다 사람들이 봄빈다 ; 강마다 사람들이 봄빈다.

고유 명사는 특정한 대상에 붙여진 이름을 말하고, **보통 명사**는 어떤 속성을 가진 대상들에 붙여진 이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강'은 크고 넓게 흐르는 물줄기를 통칭하는 말이므로 보통 명사입니다. 반면에 '한강'은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강의 이름을 말하기 때문에 고유 명사입니다. 이처럼 고유 명사는 특정한 대상에 붙여진 이름이므로 그 대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존재하는 '석굴암'도 오직 하나뿐이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한결'이라는 저도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유 명사가 지닌 특성을 **'지시 대상의 유일성'**이라고도 합니다.

고유 명사는 위 박스 내용처럼 보통 명사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 대상이 유일하다는 점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 대상이 유일하기 때문에 복수 표현인 '-들'이 붙을 수 없고, 수와 관련된 말과 '마다' 등도 붙을 수 없는 것이죠. 수 관형사와 지시 관형사가 붙기 어려운 것도 고유 명사가 지닌 특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고유 명사에도 예외적으로 수와 관련된 표현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1)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에서 주로 주어로 쓰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주어는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 역할을 한다고 하여 한자 '몸 체(體)'를 써서 체언이라고 한 것이죠. 체언은 주어뿐만 아니라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서술어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볼까요?

(㉞) 우리 반에는 지혜가 세 명있는데, 이 지혜가 가장 키가 커요.

이런 경우에는 고유 명사가 일종의 동음이의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은 제각기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우연히 그 이름이 같을 뿐인 것이죠.

한편 고유 명사가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㉟) 해군사관학교는 많은 이순신들을 배출했다.

여기서 '이순신'은 조선시대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유 명사인 이순신을 비유하여 '용맹하고 헌신적인'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고유 명사를 그런 속성을 가진 보통 명사로 바꾸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뒤에 '-들'이 붙어 있네요.

④의존 명사 / 자립 명사

■ 의존 명사의 특성

- ① 반드시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와야함
ex) *것이 많다. ; 먹을 것이 많다.
- ②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음
ex) 갑자기 비가 {오는, *올, *온, *오던} 바람에 옷이 다 젖었다.
- ③ 서술어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음
ex) 더할 나위가 없었다.
나는 당연히 비가 올 줄 알았다.
- ④ 결합할 수 있는 조사가 한정되기도 함
ex) 집을 나온 지가 한 시간이 지났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을 채로 잠을 잤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을 줬.

3) 여기서의 자립성은 앞에서 자립 형태소이나 의존 형태소이나를 분류할 때의 자립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태소 분류에서 따져 보면 의존 명사는 다른 말과 떨어져서 쓰고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입니다. 일반 명사와 같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립성이 없다'는 것은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립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3)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 하는 자립성이 없는 명사를 말하고, 자립 명사는 혼자서도 쓰일 수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의존 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형어가 와야 하기 때문에 문장의 첫머리에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존 명사는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에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바람'이라는 의존 명사의 경우 앞에 오는 관형어는 '-는'을 어미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것'처럼 별다른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 명사는 뒤에 오는 서술어에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나위'의 경우 주로 '있다, 없다'의 서술어를 갖고, '줄'의 경우에는 주로 '알다, 모르다'의 서술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것'처럼 서술어에 제약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존 명사는 또한 조사에 제약이 있기도 합니다. '지'는 주로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고, '줄'은 목적격 조사 '을'과, '채'는 부사격 조사 '로'와 결합합니다. '대로'에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의존 명사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의존 명사가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성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어떤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 명사**가 있습니다.

(㉡) 사과 두 개, 고양이 한 마리, 책 열 권, 선생님 세 분

단위성 의존 명사 앞에는 수사나 수 관형사 같은 수량 표현이 관형어로 옵니다.

(2)대명사

①정의와 특성

- 정의: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상태 따위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 즉, 명사를 대신함
- 특성
 - ①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
 - ② '-들'과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할 수 있음
 - ③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 ④ 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기도 함

앞에서 본 명사는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라고 했죠? **대명사**는 명사와 달리 이름을 붙이지 않고 대상을 가리켜서 명사를 대신합니다.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

그는 그녀를 만났다.

'철수'라는 사람과 '영희'라는 사람을 말하고자 하면, '철수', '영희'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름같이 명사를 쓰지 않고 그 대상을 가리켜서 표현함으로써 명사가 쓰일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위에서 '철수'와 '영희'는 대상의 이름을 말하지만, 아래의 '그, 그녀'는 그러한 명사를 대신하여 쓰임으로써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명사는 어떤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외에도 사물이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영희는 과자를 가방에 넣었다.

영희는 그것을 가방에 넣었다.

철수는 학교에 갔다.

철수는 그곳에 갔다.

'그것'은 '과자'라는 명사를, '그곳'은 '학교'라는 명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사를 대신하여 쓰인다고 해서 '대명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 대명사의 특성은 명사와 비슷하지만 명사와는 달리 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 '너'의 경우 주격 조사가 붙으면 '내가', '네가'로 나타납니다.

4) 여기서 형태가 변한다고 해서 앞서 살펴본 품사 분류 기준 중 가변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품사 분류에서 말하는 형태 변화는 용언 어간에 어미가 붙으면서 형태가 바뀌는 것을 말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에서 품사의 개별 특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품사의 특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다음 파트에서 다음 문장 성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신 시험에서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대명사의 상황의존성

대명사는 대상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대상을 가리켜서 표현할 뿐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문장을 볼까요?

너는 거기서 무엇을 하니?

여기서 '너', '여기', '무엇'이라는 대명사의 의미는 이 문장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철수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너'는 철수가 되고 '무엇'은 요리가 되겠지만, 영희가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상황에서는 '너'는 영희가 되고 '무엇'은 축구가 될테니까요. 이처럼 어떤 표현이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특성을 '상황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의존성은 반대로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대명사 표현이 사용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나는 여기서 책을 읽어.

처음 문장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나'가 되고 '거기'는 '여기'가 됩니다. 분명 같은 사람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말하는지에 따라 다른 대명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② 하위분류

인칭 대명사	1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나 / 겸사말: 저	예사말: 우리 / 겸사말: 저희		
2인칭	2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너 / 공대말: 자네, 당신	예사말: 너희		
3인칭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이이, 이애, 이분	그, 그이, 그애, 그분	저이, 저애, 저분	
		단수: 자기, 저, 당신 / 복수: 저희			
		재귀칭	누구		
지지 대명사	지지 대명사	사물 표시	이것	그것	저것
		장소 표시	여기	거기	저기

5) 지지 대명사는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명사는 원래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가리킨다는 점에서 지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지 대명사에서만 '지시'를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관습에 따라 그냥 지지 대명사라고 하였습니다.

대명사는 지시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인칭 대명사와 ⁵지시 대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시 작은 하위 부류로 나뉩니다. 처음부터 이 표를 하나하나 정확히 외우려는 부담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표를 여러 차례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테니까요. 여기서는 이 중에서는 다룰 만한 것들만 따로 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칭, 중칭, 원칭

3인칭 대명사나, 지시 대명사처럼 '이, 그, 저'가 포함된 대명사를 '이' 계열은 '근칭', '그' 계열은 '중칭', '저' 계열은 '원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칭은 단순히 거리만 나타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저'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고려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자와 가까운 대상을, '그'는 청자와 가까운 대상을, '저'는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재귀칭

재귀칭 대명사는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같은 문장에서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킨다는 것과 그 대상이 3인칭 유정 명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는 영수도 좋아한다.
-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그리고 자기는 순희도 좋아한다.
- (㉡) 철수는 영희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처럼 재귀 대명사 '자기'는 다른 문장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같은 문장 안에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상은 '철수'처럼 3인칭 유정 명사여야 합니다.

한편 재귀칭 대명사는 '자기, 저, 당신'등으로 쓰입니다.

- (㉢) 철수는 자기 동생을 매우 예뻐한다.
- (㉣) 누구든지 제 자식은 귀여워 한다.
- 영희는 아직 어려서, 직박에 몰라요.
- 애들이 어려서 저희밖에 몰라요.
- (㉤)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책을 소중히 생각하셨다.

'자기'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재귀 대명사입니다. (㉢)에서 '자기'는 '철수'를 의미합니다. (㉣)의 '저'는 '자기'의 낮춤 표현입니다. '제'는 '저의'의 준말로 '제 자식'처럼 쓰입니다. '저희'는 '저'의 복수형입니다. (㉤)에서 '저희'는 '애들'을 가리킵니다. (㉤)의 '당신'은 가리키는 대상이 높여야 하는 대상일 때 사용합니다. (㉤)에서는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당신'이 쓰였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젊은 세대한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미지칭, 부정칭

- (㉦) 저 사람이 누구니?
- (㉧) 죄를 지으면 누군가 벌을 받습니다.
- 나는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 먹고 싶었다.

'누구'는 미지칭이라 불리는 것으로 가리키는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대상의 정보(이름이나 신분 등)를 정확히 모를 때 사용합니다. (㉦)에서 화자는 청자와 함께 누군가를 봤지만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를 얻기 위해 청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입니다.

반면 '누구'는 부정칭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을 때 쓰입니다. (㉧)의 '누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지 않고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의 '누구'는 부정칭 대명사입니다. '무엇'도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입니다. (㉧)의 미지칭 대명사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런 차이가 잘 와닿지 않는다면 아래 문장을 볼까요?

- (㉨) 철수야, 누가(누구가) 왔니?

여기서 '누구'는 미지칭과 부정칭, 두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미지칭으로 쓰였다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방에 있는 화자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간 철수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철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수는 "예, 지금 영희가 놀러왔어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정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쓰일 수 있습니다. 방에 있는 화자는 거실에서 뭔가 말 소리를 들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수에게 **누군가 온지 안 온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수는 실제로 누가 왔다면 '예, 지금 잠깐 영희가 놀러왔어요.'라고 대답하거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면 "아니요, 텔레비전 소리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런 쓰임에 따라 실제 발화에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미지칭으로 쓰일 때는 '누구'가 강세를 받으며 문장 억양은 끝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부정칭으로 쓰일 때는 '누구'는 강세를 받지 않고 문장 억양의 끝이 올라갑니다.

(3) 수사

① 정의와 특성

- 정의: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상태 따위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특성
 - ①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
 - ② '-들'과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음
 - ③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제약이 심함

수사는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죠. 수사 역시 체언의 한 종류로 뒤에 조사가 오거나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등 명사나 대명사와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들'이 결합하기 어렵고**, '*새 하나, *헌 돌'처럼 **관형어의 수식에도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② 하위분류

양수사	고유어계	하나, 둘, 셋, 넷 ... 아흔, 아흔아홉
	한자어계	영, 일, 이, 삼, 사 ...
서수사	고유어계	첫째, 둘째, 셋째 ... 열한째, 열두째 ... 아흔아홉째
	한자어계	제일, 제이, 제삼 ...

수사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로 나뉘고, 이들은 다시 고유어계와 한자어계로 나뉩니다. 고유어계 양수사의 경우 1부터 99까지는 쓰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수에는 쓰일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백'이나 '천'을 '온', '즈믄'으로 사용했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고유어계 서수사는 수 관형사에 '-째'가 붙어서 형성되며 한자어계 서수사는 한자어계 양수사에 '제-'가 붙어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수사는 아닙니다. [수 관형사 + 의존명사 '번' + 째]로 구성된 단위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수사에서 대략적인 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둘, 두셋, 예닐곱'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수사는 부정수라고 합니다. 반대로 수를 확정하여 표현하는 것은 정수라고 하는데 오른쪽 표에 나온 수사들이 그렇습니다.

3) ⁶관계언 (조사)

(1) 정의와 특성

- 정의: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더해 주거나, 둘 이상의 말을 이어주는 말
- 특성
 - ① 주로 체언에 결합하며,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하기도 함
 - ② 생략이 되기도 함
 - ③ 이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음

6) 관계언은 조사가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위 조사의 정의는 조사의 하위 부류인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의 특성을 합쳐 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각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여기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서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 같은 **격조사**를 말합니다. 격조사에서 '격'이라는 말은 자격을 말하는데 격조사는 그 자격을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국어에서 격은 격조사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주격, 목적격, 부사격, 서술격, 관형격, 보격, 호격 등 7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조사가 붙으면 그 말은 일정한 문장 성분이 됩니다. 문장 성분은 다음 파트에서나 나올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문장에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말합니다.

신발의 예쁘다. - 주격

철수의 아버지는 소방관이다. - 관형격, 서술격

나는 아침 일찍 밥을 먹었다. - 목적격

영희가 학생 회장의 되었다. - 보격

동생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 부사격

철수야, 오늘 점심에 축구할래? - 호격

격조사

문장 성분

주격 조사

주어

서술격 조사

서술어

목적격 조사

목적어

보격 조사

→ 보어

관형격 조사

관형어

부사격 조사

부사어

호격 조사

독립어

격조사에 대해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한다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관계언이라는 명칭은 이러한 정의를 특징으로 해서 지어진 명칭이죠. 이런 정의가 자격을 준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말과의 관계는 문법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주어, 부사어, 관형어' 등과 같은 문장 성분은 일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다른 말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은 곧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정의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의미를 전한다는 것은** '은/는, 만, 도'와 같은 **보조사**를 말합니다. 이런 보조사는 격을 표시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때의 의미는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말합니다.

(㉠) 철수가 밥을 먹는다. 영희가 밥을 먹는다.
 (㉡) 철수가 밥을 먹는다. 영희**도** 밥을 먹는다.

(㉠)에서는 단순히 두 개의 문장이 열거되었을 뿐 별다른 의미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다. 그러나 (㉡)에서는 '도'라는 보조사가 들어가서 '포함, 또'라는 문법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말을 연결해 준다는 것은** '와/과'와 같은 **접속 조사**를 말합니다.

(㉢) 나는 축구**와** 농구를 좋아한다.

이 문장에서 '와'는 '축구'와 '농구'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선물'과 같이 여러 개의 조사가 연속해서 결합하기도 하고, '철수가 밥(을) 먹어'처럼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가, 을/를, 으로/로, 아/야, 와/과' 등과 같이 이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이제 조사의 하위분류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②하위분류

조사	격조사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께서
		서술격조사	이다
		목적격 조사	을/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의
		부사격 조사	에서, 에게, 으로/로 등
		호격 조사	아/야, 여/이여, 시여/이시여
	보조사	은/는/L, 만, 도, 조차 등	
	접속 조사	와/과, 하고, (이)랑	

(a)격조사

㉠주격 조사

이/가	개나리가 아름답게 피었다. 도서관에 책이 매우 많다.
에서	학교 에서 교과서를 보냈다.
께서	선생님 께서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주격 조사는 체언에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입니다. 주격 조사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가'로. 모음 뒤에서는 '가'가 자음 뒤에서는 '이'가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에서', '께서'가 있는데, ⁷⁾'에서'는 단체 명사가 주어일 때 쓰이고, '께서'는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씁니다.

7) '에서'는 뒤에서 보시면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데, 주격 조사로 쓰일 때와 그 기능이 다릅니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냈다.'의 경우에는 '보내다'의 주체인 주어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주세요.

㉡서술격 조사

이다	그것은 내 책 이다 . 그것은 내 {책 입니다 / 책 이며 / 책 이고 / 책 이었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문학 갈래는 고전 시가다 .(고전 시가 이다)
----	---

서술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해 주는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는 달리 '이다, 이고, 이며, 입니다, 일까' 등등 다양한 어미가 붙어서 모양이 바뀐다는 점에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가변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는 '고전시가다'와 같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필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8) 서술격 조사가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 형용사와 비슷합니다. 또한 여러 문법적 상황에서 형용사와 함께 묶이기도 합니다.

㉢목적격 조사

을/를	철수가 책을 읽고 있다 . 영희가 새 구두를 샀다 . 그녀는 날 좋아해 .
-----	--

목적격 조사는 체언에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입니다. '을/를'이 대표적인 형태로 모음 뒤에서는 '를'이 자음뒤에서는 '을'이 나타납니다. '날'과 같이 모음 뒤에서 '를'이 '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알아보기 보조사적 용법

주격 조사는 주어를,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입니다.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와는 상관 없이 쓰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래 예를 볼까요?

방이 깨끗하지^ㄱ 않네.
 너는 또 어찌자고 그곳에^를 갔니?
 '가'가 붙은 말은 주어가 아니고 '방이' 주어입니다. 또 '를'이 붙은 말을 보면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입니다. 게다가 체언에 붙은 것이 아니라 조사 '에'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 '를'은 **앞말을 강조하는 의미**를 더해서 마치 보조사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가'나 '를'을 각각 **주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 목적격 조사의 보조사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사는 조사이지만 그 역할이 일반적인 조사와 다른 경우에 편의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문법적 견해에서는 아예 이런 '가'나 '를'에 보조사의 품사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가', '를'은 앞에서 살펴본 품사 통용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㉔보격 조사

이/가	철수가 학생 회장이 되었다. 이것은 종이 ^ㄱ 아니다.
-----	---

보격 조사는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입니다. 보격 조사는 주격 조사 '이/가'와 형태가 같습니다. 다만 보격 조사는 **반드시 '되다'나 '아니다' 앞에 쓰입니다.**

㉕관형격 조사

의	나의 꿈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	-----------------------

관형격 조사는 체언에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의'가 유일한 관형격 조사입니다. 관형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 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 ㉕) 세상 사람들이 너의 어리석음을 비웃지나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너 어리석음을 비웃지나 않을까.

㉔)에서는 '의'가 생략되어도 문제가 없지만 ㉕)에서는 '의'가 생략되면 비문이 됩니다.

한편 '의'는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 ㉖) 동생이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어머니의 사진'은 '어머니를 찍은 사진', '어머니가 소유했던 사진', '어머니가 찍은 사진' 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㉖부사격 조사

장소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적 위치 : 언덕 위에 집을 지었다. ■ 지향점 : 더워서 물^에 들어갔다.
	㉗)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작 위치 :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 출발점 :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상대	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철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유정 명사) ■ 꽃^에 물을 주었다.(무정 명사) ■ 어머니께 이것을 가져다 드려.(높임 명사) ■ 철수한테 사과를 받았다.(구어적 표현)
	에게	
재료/도구/수단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 철수가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 도구 : 나는 문법의 정수로 공부를 한다. ■ 수단 : 영희는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된 비로 강이 넘쳤다.
원인/이유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젯밤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는 지금 학교로 가고 있다.
방향/지향점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수는 우리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갔다. *(으)로서'로 나타나기도 함
자격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음이 물로 변했다.
변화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에 만나자.
시간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단위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수는 영미와 결혼했다.
공동(동반)	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등 비교 : 철수는 영희만큼 키가 크다. ■ 차등 비교 : 철수는 영희보다 키가 크다. ■ 영수는 철수와 성격이 다르다/같다. (차등/동등 비교)
비교	와/과 만큼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인용 : 그가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 간접 인용 : 나는 그녀가 좋다고 고백했다.
인용	라고/고	

㉗) '에서'는 '에'와 달리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위치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부사격 조사는 그것이 붙은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도록 합니다. 다른 격조사에 비해 종류가 많고 의미도 다양합니다. 양이 많지만 이 역시 하나하나 외운다기보다는 천천히 여러 번 보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㉗호격 조사

아/야	철수야, 그것 좀 줄래? 한결 ^아 , 고양이 보러 가자.
여/이여	그대 ^여 , 저를 한 번만 봐 주세요.
시여/이시여	신이 ^{시여} ,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호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체언을 부르는 자리에 놓이게 해서 독립어가 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야'를 사용하는데, 자음 뒤에는 '아' 모음 뒤에는 '야'가 옵니다. 이외에 시나 기도문 등의 문어체에서 쓰이는 '여/이여', '시여/이시여'도 있습니다. '시여/이시여'가 '여/이여'보다 더 높임의 의미를 지닙니다.

(b)보조사

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수는 과학을 잘하고, 영희는 수학을 잘한다. ② 철수가 과학은 잘한다. ■ 화제(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나는 학생이다.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철수가 과학만 잘한다. ■ 수가 적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엄마, 천 원만 주세요.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함이나 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철수가 과학도 잘한다.
마저 까지 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가 잘 기대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⑧ 너까지 나를 못 믿겠니? ⑨ 너조차 가겠다는 것이냐?
그려 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이제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겠네<u>그려</u> ⑪ 이젠 다시 시작해보지<u>그래</u> ■ 감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⑫ 봄이 왔네<u>그려</u> / 봄이 왔구먼<u>그래</u>
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u>마는</u> 시간이 없군.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⑭ 어제는 집에 <u>있었는</u>데요. ⑮ 제가<u>요</u>, 어제<u>요</u>, 학교<u>에</u>요, 갔<u>었어</u>요.

보조사는 접속 조사와 달리 격을 표시하지 않고 **특수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입니다. 보조사는 다른 조사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조사는 여러 위치에 쓰일 수 있습니다.

- (ㄱ) 철수가 밥을 먹고 싶었다.
- (ㄴ) 철수는 밥을 빨리 먹고 싶었다.
철수가 밥은 빨리 먹고 싶었다.
철수가 밥을 빨리는 먹고 싶었다.
철수가 밥을 빨리 먹고는 싶었다.

(ㄱ)에서 주격 조사인 '가'는 주어인 성분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위치할 수 없죠. 그러나 (ㄴ)에서 보조사 '는'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오는 자리에 올 뿐만 아니라 '빨리는', '먹고는 싶었다'와 같이 부사나 연결 어미 뒤에도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사는 여러 위치에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는 생략이 가능하지 않다고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예문을 볼까요?

- (ㄷ) 철수가 과학만을 잘한다.
- (ㄹ) 철수가 과학을 잘한다.

(ㄱ)에서 보조사 '만'이 생략된다고 해서 비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이 생략되면 '만'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사라지면서 본래의 문장과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ㄱ)은 '만'으로 인해서 '철수가 여러 과목 중에서 과학 하나만 잘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만'이 생략되면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보조사가 자기 자신의 특수한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생략될 경우 본래 의도한 문장과 의미가 달라져서 생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표는 대표적인 보조사를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은/는'은 기본적으로 대조를 의미합니다. ①은 철수와 영희가 잘하는 과목이 다르므로써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②는 대조되는 대상이 나오지 않아서 대조의 의미가 ①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이때의 의미는 '철수가 과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못한다'라기보다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과학은 잘한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는'은 ③처럼 주어 자리에 쓰여서 화제나 주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 말하자면'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은 단독(한정)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대상을 제외한 것들을 배제하는 의미를 갖죠. ④는 '철수는 다른 과목은 못하지만 과학은 잘한다.'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이 수량 표현과 결합하게 되면 ⑤처럼 그 수가 적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도'는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⑥은 철수가 국어, 영어, 사회, 과학 등 다른 과목에서도 성적이 좋고, 과학도 성적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 '마저/까지/조차'는 '도'처럼 포함이나 더함을 의미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와는 달리 화자가 잘 기대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일에 쓰이죠. ⑦, ⑧, ⑨는 모두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데 '너'도 그렇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모두 화자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죠.

'그려, 그래'는 문장 끝에 쓰여서 강조나 감탄을 의미합니다.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높은 연령층에서 쓰입니다. '마는'도 '그려, 그래'와 같이 문장 끝에 쓰입니다.

'요'는 높임의 뜻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주로 해요체라고 할 때의 '요'를 말하죠. ⑭에서 '있었는데'와 '있었는데요'를 비교해 보면 높임의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⑮처럼 '요'가 문장 중간중간에 어절 끝마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높임의 의미가 없어 ⑭의 '요'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서는 둘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의 생략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미에 집중해서 생략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표기만 보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9) '마저/조차/까지'를 다시 하나하나 나눠서 정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도'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c)접속 조사

와/과	나는 배와 복숭아를 좋아해.
랑/이랑	철수는 과자 <u>랑</u> 음료수 <u>랑</u> 맛있게 먹었다.
하고	사과 <u>하고</u> 배 <u>하고</u> 가져 올래?
며/이며	웃 <u>이며</u> 신발 <u>이며</u> 너무 더러워졌다.

접속 조사가 표면적으로는 둘 이상의 어떤 단어를 이어주지만 심층적으로는 문장을 이어준다고 보기도 합니다. "나는 배와 복숭아를 좋아해"
→ 나는 배를 좋아해
+
나는 복숭아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죠.

접속 조사는 **둘 이상의 말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와/과'가 있습니다. '랑/이랑', '하고', '며/이며'도 접속 조사인데, '와/과'와는 달리 마지막에 오는 체언 뒤에도 붙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접속 조사 '와/과' vs 부사격 조사 '와/과'

하나의 형태가 여러 품사를 갖는 경우를 품사 통용이라고 했죠? '와/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접속 조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죠. 이 내용은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내용이 모의고사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워낙 까다롭기도 하고, 학자들마다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생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이기때문에, 여기서는 몇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부사격 조사가 가진 의미입니다. 접속 조사 '와/과'는 어떤 의미도 추가하지 않고 다만 둘 이상의 체언을 연결했지만 **부사격 조사 '와/과'는 공동(동반)이나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칭 동사에서의 부사격 조사 vs 접속 조사

대칭 동사라는 것은 '다르다, 닳다, 같다' 등과 같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대상이 필요한 동사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문장에서 대칭 동사가 쓰였다면 그 때의 '와/과'는 부사격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철수는 아버지와 닳았다. ; *철수는 닳았다.
- (㉡) 철수는 시와 소설을 좋아한다. ; 철수는 소설을 좋아한다.

(㉠)의 '닳다'는 반드시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한 대칭 동사입니다. 이 때의 '와'는 둘 이상의 체언을 연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철수'라는 주어와 닳은 대상을 비교하여 제시할 뿐입니다. '비교'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경우에 '와'가 붙은 말이 생략하면 비문이 됩니다. 반면 (㉡)에서 접속 조사가 쓰인 경우에는 대칭 동사가 아닐 뿐더러 '시와'가 생략이 되어도 문장이 성립됩니다.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생략 가능하면 접속 조사라고 외우기보다는 '와/과'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부사격 조사와 접속 조사는 분명 그 역할이 다르니까요.

일반적인 동사에서의 부사격 조사 vs 접속 조사

이번에는 대칭 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살펴볼까요?

- (㉢) 철수가 영희와 집에 갔다.

이 경우에도 부사격 조사의 '와/과'와 접속 조사의 '와/과'가 지닌 기본적인 의미를 적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서 '영희와'는 주어인 철수가 집에 가는 행위를 할 때 함께 행동하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체언을 연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이때는 부사격 조사의 여러 의미 중 '공동(동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희와'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입니다.

- (㉣) 영희와 철수가 집에 갔다.

이 때에는 '와'가 '영희'와 '철수'라는 두 체언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를 접속 조사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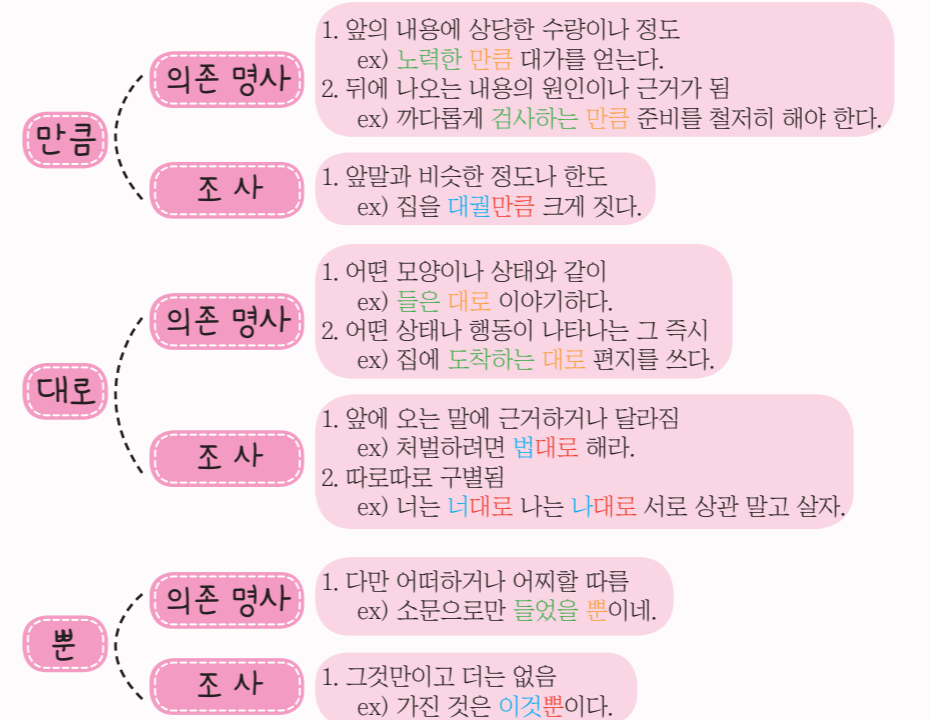
그러면 앞에서 본 대칭 동사인 경우에도 '와'가 붙은 말이 앞으로 오면 접속 조사가 될까요? (㉣)에서 '아버지와 철수는 닳았다'처럼요. 그러나 이때에는 순서가 바뀌어도 부사격 조사임에는 변함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서술어 자체가 의미적으로 어떤 행위의 대상을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이죠. ¹⁰따라서 그 때의 '와/과'는 공동 또는 비교의 부사격 조사로 고정이 됩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 접속 조사로 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문장을 복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접속 조사가 쓰인 문장은 복문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전체 내용을 통틀어서 다룰까 말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도식적으로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면 그게 더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조금씩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의존 명사 vs 조사

여기서 다룰 것도 품사 통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존 명사와 조사로 쓰이는 것인데요. 이 내용은 정말 자주 출제되니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주로 출제되는 단어의 쓰임을 먼저 살펴볼까요?



의존 명사와 조사의 특징이 기억나시나요? 의존 명사는 명사의 한 종류로 띄어쓰기의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합니다. 반면 조사는 단어이지만 특이하게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지 못하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만큼, 대로, 뿐'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모두 앞말과 띄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

10) 정말 특이하게 접속 조사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결혼했다.'라는 문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와'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결혼했다'는 반드시 그 행위의 대상이 필요한 대칭 동사니까요. 그런데 결혼했다의 의미가 철수가 영희와 결혼한 것이 아닌,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으로 본다면 즉, 철수는 수영과 결혼을 하고 영희는 동수와 결혼했다고 보면, 이때의 '와'는 단순히 두 체언을 연결한 접속 조사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정말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와/과'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형어 의존 명사
체언 조사

리고 그 앞에는 모두 관형어가 오죠. 일반적으로 이때 관형어는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옵니다. 예를 들어 '노력한 만큼'에서 '노력한'은 '노력하다'라는 동사의 관형사형이죠. 다른 예들도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편 조사로 쓰이는 경우를 보면 '대궐, 법, 너, 나, 이것'처럼 체언이 옵니다. 이러한 차이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 ① 아는대로 모두 말하여라.
- ② 마음이 약해질대로 약해졌다.
- ③ 모든 것이 자기 생각 대로 되었다.
- ④ 손님들은 먹을 만큼 충분히 먹었다.
- ⑤ 그 사람은 말 만큼은 누구보다 앞선다.

위 선지는 실제 모의고사에서 나온 선지입니다. 여기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①, ②, ④는 '알다, 약해지다, 먹다'의 관형사형인 '아는, 약해질, 먹을'이 왔기 때문에 뒤에 오는 '대로'는 의존 명사가 됩니다. 따라서 모두 띄어서 써야 합니다. ④만 띄어서 썼으므로 ④가 답이 됩니다.

③, ⑤는 '생각, 말'과 같은 체언이 왔으므로 뒤에 오는 '대로'는 조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붙여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띄어서 쓰고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존 명사와 조사가 갖는 기본적인 특징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시킨다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1)동사

①정의와 특성

- 정의: 주어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내는 말
- 특성
 - ① 어미를 취해 활용을 함
 - ②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동사는 주어의 움직임을 표시하되, 그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냅니다.

(가) 철수가 책을 읽는다.

(나) 아침 독서는 매우 좋다.

(가)의 '읽는다'와 (나)의 '독서'는 의미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의 '읽는다'의 경우에는 책을 읽는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수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철수가 책을 펴고 읽어가는 그 과정이 그려지죠. 그런데 '독서'는 책을 읽는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과정적인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명사가 되고 '읽다'는 동사가 되는 것이죠. 동사는 이처럼 '움직임, 과정, 행위, 변화' 등이 중요 키워드가 됩니다.

동사는 여러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가) 먹다, 읽다, 달리다, 주다 ...

(나) 흐르다, 피다, 솟다, 썩다 ...

(다) 알다, 모르다, 믿다, 생각하다 ...

(가)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나)는 움직이미긴 하지만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다)는 정신·심리적인 움직임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¹³(가), (나)와 달리 움직임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지만 동사의 일반적인 문법적 특징을 나타내므로 동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용언에 속하므로 여러 어미와 결합하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리다. / 책을 열심히 읽는다. / 밥을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으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동사 앞에서 부사어 '빨리, 열심히, 맛있게'가 위치하여 동사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¹⁴이런 특징은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용언의 명사형과 파생 명사를 구분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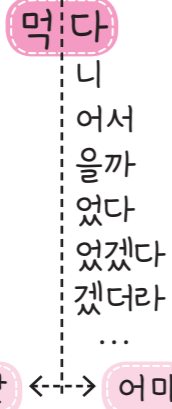
13) (다)를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때 다루겠지만 동사는 '-니/는-'과 결합하는데, (다)도 그러하므로 품사로는 동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 예를 들어 '나는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푼다', '나는 잠이 부족하다'에서 '잠'의 성격을 구분하게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죠. 이때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다는 동사의 특징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11) 용언은 주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4)¹¹용언

본격적으로 용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어간', '어미', '활용'에 대한 것인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나왔었죠?? ㅎㅎ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정확히 정리하고 갑시다.



용언은 품사 분류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먹다'라는 동사는 뒤에 여러 가지 어미가 오면서 그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언에 여러 어미가 오면서 그 형태가 바뀌는 것은 '활용'이라고 합니다.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식물로 비유했을 때 중심이 되는 줄기와 같다고 하여 '줄기 간(幹)'자를 써서 어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¹²'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는 그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나뉘는데 이는 뒤쪽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용언이 다양하게 모습을 바꾼다고 해도 그것이 '먹다'라는 하나의 단어임에는 변함 없습니다. 역시 뒤에서 다루겠지만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런 개념들을 확실히 하고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배워 봅시다!

12) 어미에서 '미'는 '꼬리 미(尾)'자를 씁니다. 용언 끝의 꼬리 쪽에 위치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②하위분류

자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의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음 ex) 나는 웃었다. 철수는 회장이 되었다.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
타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의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가짐 ex) 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동사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뉩니다. 자동사에는 '회장이'처럼 보어나 '회의에'처럼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동사는 자동사와는 달리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2)형용사

①정의와 특성

- 정의: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 특성
 - 어미를 취해 활용을 함
 -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형용사는 **주어로 나타나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 (가) 달이 매우 **밝다**.
- (나) 그는 배가 **고프다**.

위에서 '밝다', '슬프다'는 '달'과 '그'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동사가 움직임을 나타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 (다) 나는 **슬프다**.
- (예) 나는 **슬퍼졌다**.

(다), (예)는 모두 '나'가 '슬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 ¹⁵'슬퍼지다'는 슬퍼지게 되는 과정, 변화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다)의 '슬프다'는 단지 특정 시점에서의 '나'의 상태를 나타낼 뿐이죠. 그래서 (다)의 '슬프다'는 형용사, (예)의 '슬퍼지다'는 동사가 됩니다. 이처럼 형용사는 움직임이나 과정, 변화와는 관련이 없이 특정 시점에서의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형용사도 동사와 같이 어미를 취해 활용을 하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슬퍼지다'는 '슬프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동사로 파생된 것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상태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지만 이들은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이 밝는다', '나무가 쑥쑥 크다'에서 '밝다', '크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하위분류

성상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자의 심리적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다, 고프다, 싫다, 좋다 ... 대상의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겁다, 달다, 거칠다, 시끄럽다' 등의 감각적 속성 '착하다, 아름답다' 등의 대상에 대한 평가 '같다, 다르다, 낫다' 등의 비교
지시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p>ex) 철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영희도 그러하다.</p>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와 ¹⁶**지시 형용사**로 나뉩니다. 성상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형용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형용사가 성상 형용사입니다. 지시 형용사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직접 나타내지 않고 가리키는데, 앞에서 살펴본 대명사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했다면 지시 형용사는 성상 형용사를 대신합니다.

성상 형용사는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시 형용사에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등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16) 동사에도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와 같은 지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를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는 동사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눠서 살펴봤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 알아보기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

동사와 형용사는 같은 용언에 속하지만 그 특성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 둘을 구분하는 변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 내신에 주로 나오는 문제이므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① 의미적으로 동사는 **움직임**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동사나 형용사의 기본적인 정의에서도 알 수 있는 차이죠? '떡다'라고 하면 어떤 행위나 동작이 떠오르지만, '예쁘다, 성실하다, 차갑다'라고 하면 그런 움직임보다는 대상의 성질이나 속성이 떠오릅니다.

②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동사: 밥을 먹는다. / 산을 본다.

형용사: *물이 차갑는다. / *배가 고프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별 기준입니다. 동사는 현재를 나타낼 때 '-ㄴ/는-'이 결합되지만 형용사는 아무런 형태소 없이 기본형으로 현재를 표현합니다. 즉, '물이 차갑다, 배가 고프다'는 그 자체로 현재가 됩니다.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도 동사에만 붙습니다. 형용사에는 '-(으)ㄴ'이 붙죠. 보는 사람 / *예쁜 사람

③ 동사는 의도나 목적을 의미하는 어미 '-려, -려'가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동사: 철수는 책을 사러 서점에 갔다. / 나는 밥을 먹으려 한다.
 형용사: *나는 작하려 봉사활동을 한다. / *영희는 예쁘려 한다.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에 화자의 의지가 개입되어서 이를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동사인 '사다'나 '먹다'는 화자가 의지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특정 시점에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뿐, 화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④ 동사는 **명령문, 청유문**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동사: 철수야, 밥을 먹어라 / 우리 같이 공원에 가자.
 형용사: *영희야, 오늘부터 착해라. / *오늘부터 성실하자.

이것도 ③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청유는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의 주체가 의지를 갖고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는 그러한 주체의 의지가 개입되어 할 수 있는 따위의 일이 아니므로 명령문, 청유문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편 동사의 경우에 ③과 ④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숫다, 흐르다'와 같은 자연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용 동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연물들이 어떤 의지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야 숫아라.', '해야 숫자.'는 모두 비문입니다. 박두진의 시 '해'에서 '해야 숫아라.'라고 하는 것은 시적 표현으로 허용될 뿐이죠.

(3) 용언의 활용

여기서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 살펴볼건데요, 그전에 먼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다면 규칙 활용**입니다. 또한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활용**입니다. 즉, 우리가 음운 파트에서 배운 음운 규칙들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활용이 됩니다. 음운 규칙은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교체의 양상을 일반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자- + {-다, -니, -더라, ...} / ㉢ ㉣ 뒤- + {-다, -니, -더라, ...}
- ㉤ ㉥ 쫓더니[쫓떠니], 놀더래[놀떠라], 있지[인찌] - 음절의 끝소리 규칙
- ㉦ ㉧ 읽지[익찌], 없고[업꼬], 넓다[널따] - 자음군 단순화
- ㉨ ㉩ 잡는[잡는], 먹는[명는], 믿는[민는] - 자음 동화
- ㉪ ㉫ 쓰+어[써], 아프+아[아파], 담그+아[담가] - 'ㅡ' 탈락
- ㉬ ㉭ 놀+시고[노시고], 알+니[아니] - 'ㄹ' 탈락

㉠은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일정한 규칙 활용을 나타냅니다.

㉡의 경우에는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모습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글자가 오면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며 비슷한 환경에 놓인 단어가 어떻게 활용을 할지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에서 'ㄱ, ㄷ, ㅂ'가 비음 앞에서 규칙적으로 비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만 알고 있으면 '닫는, 굳는, 식는' 등의 다른 단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측할 수 있죠. 이렇게 어간, 어미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일관된 설명이 가능하면 그 또한 규칙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등과 같은 음운 규칙들로 설명이 되죠.

한편 용언이 활용을 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바뀌는데, 그것을 음운 규칙으로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 ㉮ 관리를 잘해서 병이 금방 나았다. - 낫다
 밥이 다 떨어져서 밥을 지었다. - 짓다
- ㉯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씻다
 아침 일찍 해가 솟았다. - 솟다

'ㅅ' 받침을 가진 용언 중에서는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서 보면 '낫다, 짓다'는 모두 모음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하여 어간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 놓인 ㉯의 '씻다, 솟다'의 경우에는 'ㅅ'이 탈락하지 않죠.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설명할 음운 규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간이 'ㅅ'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탈락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용언마다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니까요. 이처럼 어간, 어미의 모습이 바뀔 때, 그것을 음운 규칙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으면 불규칙 활용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규칙 활용은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활용이므로 앞서 배운 음운 규칙과 겹쳐서 여기서는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규칙 활용

모습이 변하지 않음
 +
 모습이 변하더라도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가능

불규칙 활용

모습이 변하는데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

일단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제시를 하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① 불규칙 활용

(a) 어간 불규칙

종류	설명	예시
'ㅅ'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 -불규칙 용언: 짓다, 잇다, 짓다, 굶다, 붓다, 낫다, ... -규칙 용언: 벗다, 빚다, 빼앗다, 씻다, 솟다, ... 	낫+아→나아 짓+어→저어 잇+으니→이으니
'ㄷ'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뀐다 -불규칙 용언: 묻다(問), 듣다, 걸다, 깨닫다, 실다, ... -규칙 용언: 묻다(埋), 달다, 돌다, 밎다, 쏘다, 얻다, ... 	묻+어→몰어 듣+으니→들으니 걸+어서→걸어서
'ㅂ'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ㅂ'이 'w'로 바뀐다 -불규칙 용언: 돕다, 늙다, 줍다, 덥다, 춥다, 굶다, ... -규칙 용언: 뽑다, 씹다, 입다, 잡다, 굶다, 줍다, ... 	돕+아→도와 줍+으니→주우니 덥+어서→더워서
'ㄹ'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¹⁷'어/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ㄹ'이 덧생김 -불규칙 용언: 흐르다, 고르다, 나르다, 누르다, ... -규칙 용언: 치르다, 따르다, 들르다, 다다르다, ... 	흐르+어→흘러 나르+아→날라 기르+어→길러
'우'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 -불규칙 용언: 푸다 -규칙 용언: 주다, 부수다 ... 	푸+어서→퍼서 푸+어라→퍼라

17) 'ㄹ' 불규칙을 'ㄹ'이 'ㄹ'로 변한다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둘 다 같은 말입니다.

(b) 어미 불규칙

종류	설명	예시
'여'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로 끝나는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것이 '여'로 바뀐다 	하+어→하여 하+어라→하여라
'러'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것이 '러'로 바뀐다 -불규칙 용언: 푸르다, 이르다(至), ... -규칙 용언: 치르다, ... 	푸르+어→푸르러 이르+어→이르러
'오'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다'에서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대신 '오'가 쓰임 	달+아라→다오

(c) 어간, 어미 불규칙

종류	설명	예시
'ㅎ'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함 -불규칙 용언: 하얗다, 파랗다, 노랗다, 빨갳다, ... -규칙 용언: 좋다 	하얗+아서→하얘서 노랗+아→노래

과거 어미 불규칙에 '거라' 불규칙, '너라' 불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라, -너라' 모두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주는 또 다른 어미로 규정되면서 더이상 불규칙 활용으로 다루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가라, 가거라, 와라, 오너라' 모두 가능한 것이죠.

불규칙 활용 중에서 따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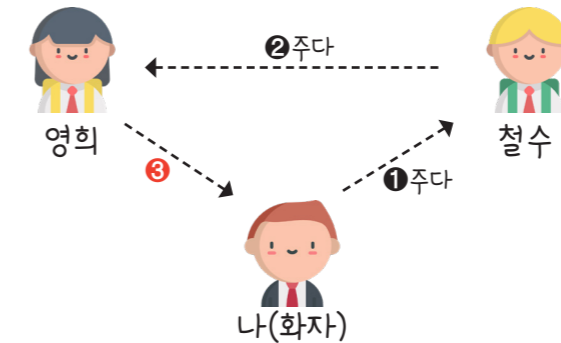
먼저 'ㅂ' 불규칙에서 어간의 'ㅂ'은 모음 어미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뀝니다. '돕 + 아'에서는 'ㅂ'이 'w'로 바뀐 후에 'ㅌ'와 결합하여 '나'가 됩니다. '줍 + 으니'에서는 'ㅂ'이 'w'로 바뀐 후에 '으'와 결합하여 '우'가 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냥 'ㅂ'이 '오우'로 변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 불규칙을 보이는 용언은 '푸다' 하나입니다. '주다'나 '부수다'와 같이 '우'로 끝나는 다른 용언들은 '줘', '부썬'처럼 규칙 활용을 합니다.

'오' 불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다'라는 동사가 언제 쓰이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한다'라는 뜻의 '주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주다'는 다양한 상황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주고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명령문인지 아닌지입니다. 아래 그림을 볼까요?



①은 주어가 1인칭 '나'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건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모든 상대 높임 등급에서 '주다'가 사용됩니다. 상대 높임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으로 우리가 흔히 '해라체, 하십시오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①에서 명령문을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명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요.

②는 주어가 2인칭 '너'가 되어서 제3자에게 건네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모든 상대 높임 등급에서 '주다'가 사용됩니다. 명령형으로 쓰여도 '철수야, 영희한테 책을 주어라(주십시오, 주오, 주게)'처럼 그대로 '주다'가 사용됩니다.

③은 주어가 2인칭 '너'가 되어서 화자인 '나'에게 건네는 상황입니다. 일반 평서문이 라면 '너가 나한테 책을 주었다', '당신이 제게 책을 주셨습니다.'처럼 '주다'가 쓰입니다. 그런데 **명령문**에서는 다릅니다. '주다' 대신 '달다'라는 동사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해라체**에서만 쓰입니다. 오른쪽 표들을 볼까요? '주다'라는 동사가 다양한 상황과 상대 높임 등급에서 쓰이고 있는데 유독 ③과 같은 경우에서, 그것도 해라체 명령형에서만 '달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어미 불규칙이 일어납니다. 해라체는 '어라/아라'가 와야 하는데 이 때 '달다' 뒤에서 '어라/아라' 대신 '-오'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철수야, 책을 나에게 ¹⁸다오'로 쓰이는 것이죠.

① 평서문	
하십시오체	책을 철수에게 주었습니다.
하오체	책을 철수에게 주었오.
하계체	책을 철수에게 주었네.
하라체	책을 철수에게 주었다.

② 평서문	
하십시오체	당신이 책을 철수에게 주었습니다.
하오체	당신이 책을 철수에게 주었오.
하계체	당신이 책을 철수에게 주었네.
하라체	너가 책을 철수에게 주었다.

③ 명령문	
하십시오체	책을 철수에게 주십시오.
하오체	책을 철수에게 주오.
하계체	책을 철수에게 주게.
하라체	책을 철수에게 주어라.

③ 평서문	
하십시오체	당신이 책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오체	당신이 책을 나에게 주었오.
하계체	당신이 책을 나에게 주었네.
하라체	너가 책을 나에게 주었다.

③ 명령문	
하십시오체	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오체	책을 나에게 주오.
하계체	책을 나에게 주게.
하라체	책을 나에게 다오.

③ + 명령문 + 하라체
→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는 상황!!

18) '달- + -오'가 '다오'가 되는 것은 어간 끝 'ㄹ'이 어미 '-오' 앞에서 탈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운 현상을 음운 패턴에서 다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불규칙 활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ㅎ' 불규칙은 어간, 어미가 동시에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ㅎ'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ㅎ'이 탈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좋아[조아]'처럼요. 그런데 'ㅎ' 불규칙 용언

- 살다; 사오
- 날다; 나오
- 좋다; 조오

은 '하얏+아서 → 하에서'처럼 'ㅎ'이 탈락하면서 어간의 'ㅈ'와 어미의 'ㅈ'가 'ㅉ'로 변하는 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음운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어미

①정의와 특성

- 정의: 어간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
- 특성
 - ① 이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음
 - ②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할 수도 있음

어미는 어간에 붙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아래 문장은 어미의 정의와 특성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볼까요?

선생님께서 운동을 하시**었**겠**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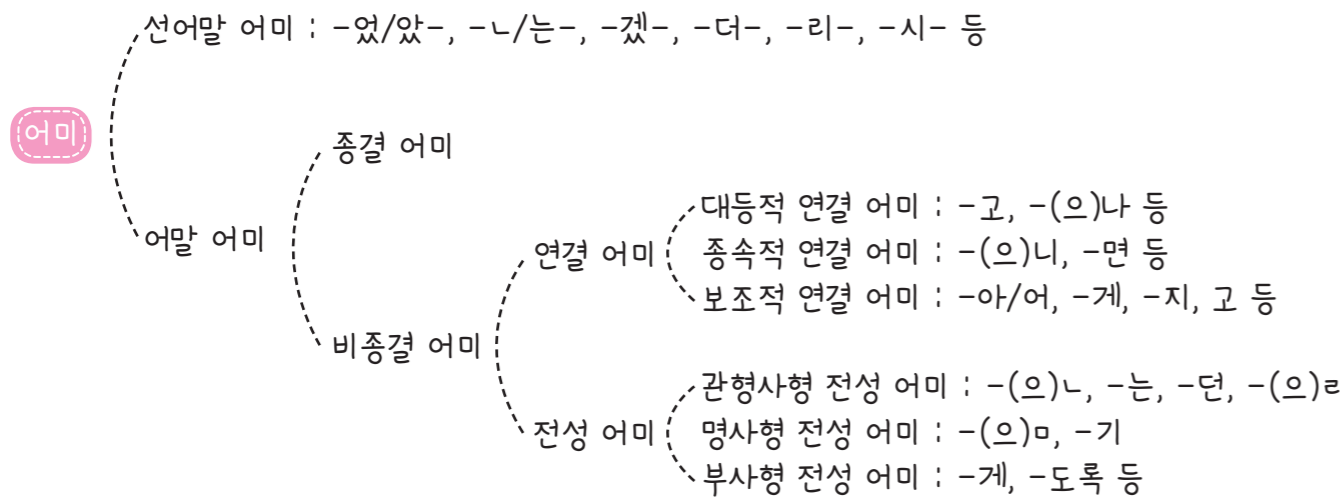
하- + -시- + -었- + -겠- + -더- + -구나
(주체 높임) (과거) (추측) (회상) (문장 유형/상대 높임)

위 문장에서 '하다'라는 동사 뒤에 다양한 어미가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들은 각각 자신이 가진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네요. 이처럼 어미는 어간에 결합하여 주체 높임, 과거, 추측 등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더해 줍니다.

또한 어미는 '-었/았-', '-아라/어라'처럼 이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으며, 여러 개의 어미가 연달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언급하자면, 어미는 단어가 아니며,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야지만 단어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간에 '-다'가 붙은 형태가 기본형으로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었죠.

②하위분류



우리말에서 어미는 왼쪽 그림과 같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어미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어미는 다음 파트인 문장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었/았-', '-ㄴ/는-', '-겠-' 등은 시제에서, 종결 어미는 문장의 유형이나 높임법에서, 연결 어미나 전성 어미는 문장의 확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어미가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어미는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뉩니다. 단어의 끝에 오는 것이 **어말 어미**이고,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가 **선어말 어미**입니다. 왼쪽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을 보면 '-구나'가 단어의 끝에 왔기 때문에 어말 어미이고, 이 앞에 온 다른 어미들은 모두 선어말 어미가 됩니다. 선어말 어미의 경우 앞뒤로 붙임표를 붙여서 '-겠-'처럼 적는데, 이는 앞뒤로 다른 형태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어말 어미는 앞에만 붙임표를 붙여 '-구나'로 적죠.

어말 어미는 다시 그것으로 한 문장이 완전히 끝맺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뉩니다. **종결 어미**는 '-구나'처럼 단어의 끝에 위치하면서 그것으로 한 문장이 끝맺습니다. 반면 **비종결 어미**는 단어의 끝에 위치하지만 그 뒤에 다른 말이 이어서 옵니다.

비종결 어미는 기능에 따라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뉩니다. **연결 어미**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입니다. 이때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적, 종속적, 보조적 연결 어미로 구분됩니다. **전성 어미**는 한 문장을 명사나 관형사, 부사와 같은 자격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친구가 책을 사주다'라는 문장에 전성 어미를 결합하여 다른 문장 속에서 표현하게 되면 '나는 친구가 사준 책을 읽었다'와 같이 문장 속에서 원래 문장 전체가 마치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됩니다.

종결 어미에 대해 다시 살펴보면 종결 어미는 단어의 끝에 위치하는 어말 어미이고, 문장을 끝맺는 어미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종결 어미는 문장의 유형과 상대 높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문장의 유형은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등으로 나뉘고, 상대 높임의 수준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로 나뉩니다. 아래는 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에 대한 설명은 문장 파트에서 다루게 될테니 여기서는 그냥 눈에만 익혀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
평서형	-습니다/ -습니다	-(으)오	-네	-(ㄴ/는)다	-어/아	-어요/아요
의문형	-습니까/ -습니까	-(으)오	-(느)니까	-(느)냐/ -(으)니	-어/아	-어요/아요
명령형	-(으)십시오	-(으)오	-게	-어라/아라	-어/아	-어요/아요
청유형	[-(으)시지요]	-(으)십시오	-세	-자	-어/아	-어요/아요
감탄형	-	-(느)구려	-(느)구먼	-(느)구나	-어/아	-어요/아요

하시**었**겠**더**구**나**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나는 밥을 먹고
집에 갔다
↓
단어의 끝에 위치하지만
뒤에 다른 말이 이어짐

(5)보조 용언

①정의와 특성

- 정의: 본용언과 함께 쓰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 용언
- 특성
 - ① 반드시 앞에 본용언이 와야 함
 - ② 본용언과 하나의 문법 단위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함
 - ③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본용언과 연결됨

용언은 일반적으로는 홀로 쓰이며, 실질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용언 중에서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그 의미도 문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 철수는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를 공책에 적어 두었다.
(㉡) 나는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

위 문장에서 '적다', '기르다'는 '글로 쓰다', '보살펴 키우다'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장에서 아래와 같이 다른 용언의 도움 없이도 홀로 쓰일 수 있죠.

- (㉢) 철수는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를 공책에 적었다.
(㉣) 나는 고양이를 기른다.

그런데 '두다'와 '싶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용언과 성격이 다릅니다. 일단 의미적으로 '두다'는 어떤 행위가 끝나서 그 결과가 유지된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실질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문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다'와 '싶다'는 홀로 쓰일 경우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 *철수는 친구가 말해준 이야기를 공책에 두었다.
(㉥) *나는 고양이를 싶다.

(㉤)는 성립이 되는 것 같지만 '이야기를 두다'라는 말은 비문이고, (㉥) 또한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쓰여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때 보조 용언 앞에 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용언은 본용언이라고 합니다.

보조 용언은 앞의 본용언과 하나의 문법 단위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가 됩니다. 표기상으로는 2개의 용언이 와서 서술어도 2개인 것 같지만,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문법적인 의미만을 더해주기 때문에 '본용언+보조 용언'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는 것이죠. 즉 한 개의 문장입니다. 반대로 '본용언+본용언'은 2개의 서술어로 두 개의 문장이 됩니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결합할 때 보조적 연결 어미로 인해 연결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결 어미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준다고 했었죠? 보조적 연결 어미로 결합된 '본용언 + 보조 용언'이 쓰인 문장은 하나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보조적 연결 어미는 일반적인 연결 어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본용언 + 보조 용언' vs '본용언 + 본용언'

보조 용언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싶다'처럼 보조 용언으로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두다'처럼 본용언으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보조 용언임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데, 여기서는 보조 용언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¹⁹본용언을 삭제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 (㉠) ㉠ 날씨가 점점 추워 온다. ; ㉡ *날씨가 점점 온다.
㉢ 마침내 위기를 이겨 냈다. ; ㉣ *마침내 위기를 냈다.
(㉤) ㉤ 그는 식탁 위의 빵을 집어 먹었다. ; ㉥ *그는 식탁 위의 빵을 먹었다.

(㉠)의 '오다', '내다'는 보조 용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조 용언을 삭제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날씨가 오다', '위기를 내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반면 (㉤)의 '집다', '먹다'는 모두 본용언입니다. 이때에는 앞의 본용언이 삭제되어도 문장이 성립하죠. 이렇게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있는 용언이 문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보조 용언의 경우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의 본용언이 삭제되면 비문이 됩니다. 반면 본용언이 연달아 오는 경우에는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하나가 생략되더라도 비문이 되지 않죠.

그런데 같은 보조 용언이라도 상황에 따라 보조 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 ㉧ *책을 책꽂이에 두었다.
㉨ 나는 그 빵을 먹어 보았다. ; ㉩ *나는 그 빵을 보았다.

위에서 앞의 본용언이 생략되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두다', '보다'가 보조 용언뿐 아니라 본용언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본래 문장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은 책을 일정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게 배치해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용언을 삭제한 (㉧)은 책을 책꽂이에 얹거나 꽂거나 어느 자리에든지 놓이기만 하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명확히 드러나죠. (㉨)은 빵을 먹는다는 의미이지만, (㉩)의 의미를 빵을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이유는 어떤 용언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 본용언의 의미와 보조 용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 용언으로 쓰였을 때의 용언이 본용언으로 쓰이게 되면 본래 문장의 의미를 잃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②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지 여부

- (㉪) ㉪ 그들은 점차로 늘어 갔다. ; ㉫ *그들은 점차로 늘어 학교로 갔다.
(㉬) ㉬ 그들은 점심을 먹고 갔다. ; ㉭ *그들은 점심을 먹고 학교로 갔다.

(㉪)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조로 된 문장입니다. 이때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19)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은 일단 어법상 맞는 문장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보조 용언을 제거했을 때의 의미가 본래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용언+본용언'에서는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할 수 있습니다. (㉤)에서 '그는 빵을 집었다', '그는 빵을 먹었다'처럼요.

두다
-본용언: 일정한 곳에 놓다.
-보조 용언: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끝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

보다
-본용언: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
-보조 용언: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또 다른 구별 방법으로 보조적 연결 어미 '-어/아', '-고'를 각각 '-어서/아서', '-고서'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바뀐 문장이 성립하면 '본용언+본용언' 구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서/아서', '-고서'는 일반적인 연결 어미로 본용언과 본용언을 결합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늠어서 갔다'는 비문이 되지만 '그들은 점심을 먹고서 갔다'는 문장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면 비문이 되거나 원의 문장과는 다른 의미의 문장이 됩니다.

반면 '본용언 + 본용언'은 두 개의 서술어로,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합니다. (예는 그 구조를 분석해보면 '그들은 점심을 먹었다.'와 '그들은 갔다.'가 결합되어 형성된 문장이죠. 따라서 그 중간에 다른 말이 오더라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는' 행위와 학교로 '가는' 행위 모두가 따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용언 + 보조 용언'은 하나의 문장, '본용언 + 본용언'은 두 개의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문장에 대한 부분은 다음 문장 파트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합니다.

③ 반드시 띄어서 써야 하는지 여부

- (예) ㉠ 나는 문을 열어 놓았다. ; ㉡ *나는 문을 열어놓았다.
- (사) ㉢ 나는 동생에게 책을 보고 주었다. ; ㉣ *나는 동생에게 책을 보고주었다.

'본용언 + 본용언'의 구조는 반드시 띄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조는 띄어서 쓰되 붙여서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조 용언이 쓰인 (예)는 붙여서 쓸 수 있지만, 본용언만 쓰인 (사)는 붙여 쓰게 되면 비문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언제든지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니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준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문장을 분석하다보면 금방 이해 하게 될 것입니다.

②하위분류

보조 동사	완료	(-고) 나다	-음악을 듣고 나서, 책을 읽었다.
		(-어/아) 내다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내었다.
		(-어/아) 버리다	-나는 사과를 다 먹어 버렸다.
	진행	(-어/아) 가다	-밥을 다 먹어 간다.
		(-어/아) 오다	-점점 날이 밝아 온다.
		(-고) 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봉사	(-어/아) 주다	-밥을 대신 먹어 주었다.
		(-어/아) 드리다	-어머니의 어깨를 안마해 드렸다.
	시행	(-어/아) 보다	-새 옷을 입어 보았다.
	담위	(-어/아야) 하다	-12시 전에 자야 한다.
		시인	(-기는) 하다
	완결 지속	(-어/아) 두다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어/아) 놓다	-문을 열어 놓았다.
	강제	(-어/아) 대다	-그는 나를 놀려 대었다.
	부정	(-지) 않다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지) 못하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했다.
		(-지) 말다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라.
	피동	²⁰ (-어/아)지다	-이 펜은 글씨가 잘 써진다.
(-게) 되다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사동	(-게) 하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20)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띄어 쓰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지만, '-어지다'의 경우 붙여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동에서 배우게 되는 이 표현은 자칫하면 접사라고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으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보조 형용사	희망	(-고) 싶다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
	추측	(-ㄴ가/는가/나) 보다	-그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는가/나/을까) 싶다	-그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닌가 싶다.
	시인	(-기는) 하다	-그 꽃이 아름답기는 하다.
	상태 지속	(-어/아) 있다	-산에는 꽃이 피어 있다.
	부정	(-지) 않다	-오늘은 날씨가 춥지 않다.
(-지) 못하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못하다.	

위 표는 우리말에 흔히 쓰는 보조 용언들입니다. 양이 꽤 되지만 역시나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번 보면서 눈에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접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확인한다면 더욱 좋겠고요. :)

더 알아보기 '의존 명사 + 하다/싶다' 구성의 보조 용언

우리말에는 의존 명사와 '하다, 싶다'가 결합하여 쓰이기도 합니다.
 넘어질 **뻔하다**. / 자는 **듯했다**. / 비가 올 **성싶다**.
 이런 구성은 '용언 + 관형사형 전성 어미 + 의존 명사 + 하다/싶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한글 맞춤법>에서 '뻔하다, 듯하다, 성싶다' 등을 하나의 보조 용언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뻔하다' 등이 보조 용언이라면 앞에 오는 말은 본용언이고 이를 연결해 주는 어미는 보조적 연결 어미라는 말인데, 그 형태가 일반적인 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와 같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 어미를 그냥 관형사형 어미로 본다고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말은 체언을 수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뻔하다'와 같은 용언을 수식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뻔하다' 등을 보조 용언을 보되,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수식언은 명칭 그대로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5)²¹수식언

(1)관형사

①정의와 특성

- 정의: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말
- 특성
 - ①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 수식을 받는 대상을 필요로 함
 - ②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 주는 말입니다.

- (가) 의 거리에는 새 집이 참 많다.
- (나) 도 청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가), (나)에서 관형사 '의, 새, 두'는 그 뒤의 체언인 '거리, 집, 청년'을 수식하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²²관형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뒤에 다른 말이 와야 합니다. 또한 그 뒤에는 어떠한 조사도 결합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는데, 관형사가 나란히 놓여 있을 때는 앞의 관형사가 뒤의 관형사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 **적** 새 책을 사고 싶다.
 ㉠ **저** 새 책 ...

22) 뒤에 체언이 반드시 와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관형사는 자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존 명사에서와 같이 형태소 분류에서 따져보면 다른 말과 떨어져 쓰고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에 속합니다.

'저'는 이어지는 관형사 '새'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새 책'이라는 한 단위를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사의 궁극적인 수식 대상은 명사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하위분류

성상 관형사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새, 흰, 옛, 순, 구, 주, ...
수 관형사	■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 한, 두, ²³ 세(석, 서), 네(낙, 너), 다섯, 여섯, 일곱, ...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지시 관형사	■ 어떤 대상을 가리킴 -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 - 어느, 무슨, 웬, 어떤, 아무, ...

23) '석, 서', '낙, 너'는 특수한 단어 앞에서 쓰이는 형태입니다.
 좁쌀 석 되 / 금 낙 낭
 쌀 서 말 / 콩 너 말
 따라서 '석, 서', '낙, 너'는 각각 '세, 네'의 이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형사는 **성상 관형사**, **수 관형사**, **지시 관형사**로 나뉩니다. 성상 관형사는 수식하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서 수식을 하는 관형사입니다. 수 관형사는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며, 지시 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킵니다. 지시 관형사에서 '이, 그, 저'는 대명사에서의 설명과 같이 화자와 청자의 거리에 따른 표현을 나타냅니다. '이런, 그런, 저런'은 지시 형용사 '이렇다(이러하다), 그렇다(그러하다), 저렇다(저러하다)'의 관형사형이 관형사로 굳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관형사 '다른'은 '다르다'의 관형사형 '다른'과 형태가 같으나 그 기능이 다르므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 (가) 다른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 관형사
- (나) 철수는 영수와는 다른 학생이다. - 동사 '다르다'의 관형사형

²⁴(나)의 '다른'은 '... 영수와는 다르다'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의 '다른'은 '학생들이 다르다'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의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가)의 '다른'은 '판'을 의미하지만 (나)의 '다른'은 '같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24) 이 내용은 다음 문장 파트의 문장의 확장 부분을 공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일단은 의미 차이에 집중해서 봐주셔도 충분합니다.

더 알아보기 수사와 수 관형사

수 관형사 :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 + 체언
 수사 :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 + 조사

수사와 수 관형사는 수량 표현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말이 오는지에 따라 잘 구분이 됩니다. 위와 같이 수 관형사는 뒤에 체언이 오지만 절대 조사는 올 수 없습니다. 반면 수사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형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다섯 ~ 열'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들에게 수 관형사와 수사의 품사를 모두 주고 있습니다. 품사 통용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다섯 사람'처럼 쓰이면 수 관형사로 볼 수 있고, '사람 다섯이 왔다'처럼 뒤에 조사가 오면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부사

①정의와 특성

- 정의: 용언이나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
- 특성
 - ① 용언뿐만 아니라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함
 - ②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함
 - ③ 위치가 바뀔 수 있음

부사는 용언이나 다른 말 앞에 놓여서 그 말을 꾸며 주는 말입니다.

- (가) 봄에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다.
 (나) 집 앞의 길고양이가 무척 귀엽다.
 (다) 그는 매우 빨리 달렸다.
 (라) 그녀는 아주 새 차를 타고 다닌다.
 (마) 다행히 나는 그 일을 무사히 끝냈다.
 (바) 일을 빨리도 끝냈구나.

부사는 (가)의 '활짝', (나)의 '무척'처럼 용언을 꾸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같은 부사나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합니다.** (라)의 '매우'는 부사 '빨리'를 꾸며 주고, (마)의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바)의 '다행히'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고 있습니다.

부사는 뒤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마)를 보면 '빨리' 뒤에 보조사 '도'가 오고 있습니다. 관형사는 뒤에 어떤 조사도 올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한편 부사는 특이하게 명사를 꾸며 주기도 합니다.

- (사) 바로, 오직, 단지, 다만, 겨우, 아주, 특히
 (아) ㉠ 겨우 셋이 회의에 참석했다.
 ㉡ 특히 철수는 고민이 많다.

기본적으로 (사)의 부사들은 주로 용언을 수식합니다. 그런데 (아)처럼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의 '겨우', '특히'를 관형사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부사로 인정을 하면서 체언 수식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부사는 그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 부사가 수식하는 말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바로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의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②하위분류

성분 부사	성상 부사	-참, 많이, 너무, 특히, 모두, 매우, 잘, ...	
	지시 부사	공간	-이리, 그리, 저리, ...
		시간	-이때, 그때, 절때, 아까, 곧, 이미, 문득, 매일, ...
	부정 부사	-못, 안(아니)	
	의성 부사	-광광, 철썩철썩, 데굴데굴, ...	
의태 부사	-느릿느릿, 사뿐사뿐, ...		
문장 부사	양태 부사	-과연, 분명히, 어찌, 도리어, 게다가, 확실히, ...	
	접속 부사	문장 접속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
단어 접속		-곧, 즉, 및, 또한, 또는, ...	

부사는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을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뉩니다. 그리고 성분 부사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뉘는데, 성상 부사는 뒤에 오는 말의 성질, 상태 등을 한정하여 꾸며 주는 부사이며, 지시 부사는 공간이나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부정 부사는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며, 의성 부사나 의태 부사는 대상의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부사입니다.

문장 부사 중에서 양태 부사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 (가) 가정 - 만일 내가 그 차를 탔더라면 늦지 않았을텐데.
 (나) 추측 - 아마도 그는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다.
 (다) 기원 - 아무쪼록 건강하게 지내소서.
 (라) 의혹 - 설마 내가 그 사람에게 지겠어?
 (마) 필연 - 반드시 그가 여기에 와야 한다.

위와 같이 양태 부사는 화자의 다양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양태 부사는 상대 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 (나) ㉠ 그는 아마도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다.
 ㉡ 그는 지금쯤 아마도 집에 도착했겠다.
 ㉢ 그는 지금쯤 집에 아마도 도착했겠다.
 ㉣ 그는 지금쯤 집에 도착했겠다. 아마도.

양태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나)처럼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나)㉠~㉣처럼 위치가 이동하기도 합니다.

접속 부사에는 앞뒤 문장을 이어 주는 문장 접속 부사와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단어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 (아) 철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학교에 늦게 도착했다.
 (바) 연필 또는 공책 / 소 및 말

이런 접속 부사는 문장이나 단어를 이어 주고 있어, 부사의 일반적 정의인 뒤에 오는 말을 꾸며 준다는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접속 부사를 접속사라고 하여 새로운 품사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위 표대로 부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5) 독립언은 다른 말과 관련이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6) ²⁵독립언 (감탄사)

(1) 정의와 특성

- 정의: 화자의 부름, 대답, 놀람 등을 나타내면서, 다른 말에 비해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
- 특성
 - ①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 ② 문장 안에서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 ③ 감탄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발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감탄사는 문장 내에서 비교적 독립성을 가지며 화자의 부름이나 대답, 놀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감탄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문장 안에서의 자이 이동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글쎄,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글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글쎄.

위에서처럼 감탄사는 큰 의미 차이 없이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탄사는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발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아, 내가 틀렸구나. - 허무함
(㉡) 아, 폭포가 정말 아름답구나. - 감탄
(㉢) 아, 덩구나 - 짜증
(㉣) 아, 광복이라니 - 기쁨

위 문장에서 '아'는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지만, '아'가 어떤 감정을 표출했는지는 '아' 자체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그 상황에 따라 '허무함, 감탄, 짜증, 기쁨'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²⁶하위분류

감정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감정을 표시함 - 기쁨: 오, 와, ... - 슬픔: 아이고, 이런, ... - 놀라움: 이크, 아차, 예구머니,
의지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함 - 상대를 부르거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함 : 이봐, 여보세요, 췌, ... - 상대의 말에 대한 태도를 표현함 : 네, 예, 아니요, 천만에, ...
입버릇 및 더듬거림	-어, 아, 뭐, 예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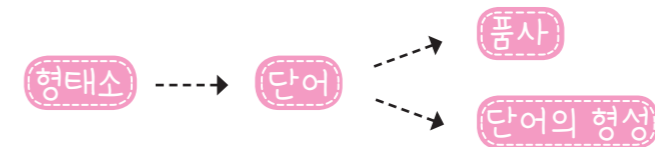
감탄사는 감정 감탄사, 의지 감탄사, 입버릇 및 더듬거림으로 나뉩니다. 감정 감탄사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화자의 감정을 표시하는 감탄사입니다. 반면 의지 감탄사는 상대를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는데, 상대를 부르거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

기도 하고 상대의 말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버릇 및 더듬거림은 특별한 뜻없이 나는 소리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품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형태 파트에서 뭘 배워왔는지 다시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형태 파트에서 중요한 단위인 형태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형태소와 관련된 개념인 교체, 이형태, 형태, 기본형 등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 다음에는 형태소보다 더 큰 단위인 단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한 품사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제부터는 그 단어가 형성되는 방식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는가하면 여러 형태소가 결합한 단어도 있죠. 어근과 접사, 합성어와 파생어 등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니 집중해서 가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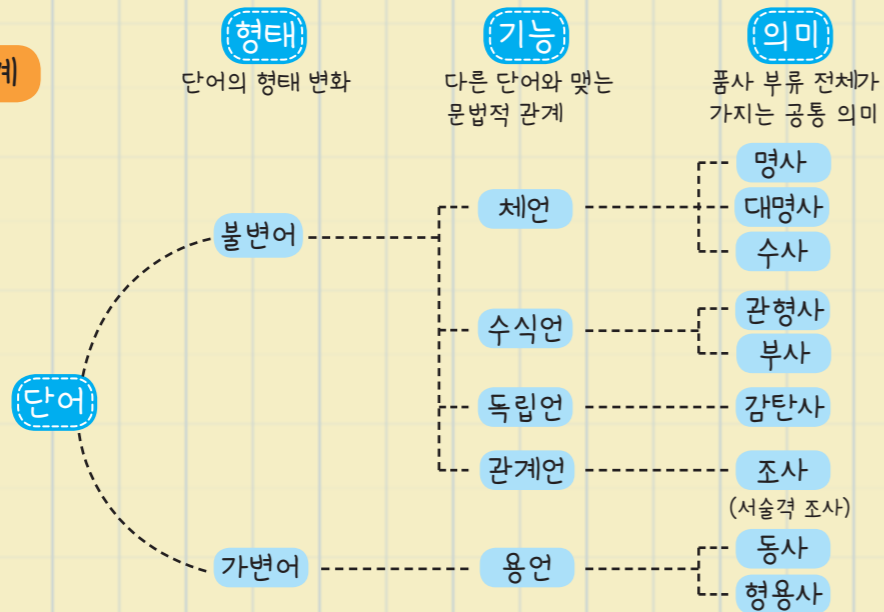


한눈에 보기

품사

----> 단어를 문법적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 나눈 부류

품사 체계



명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특성
 - ①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
 - ② '-들'과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할 수 있음
 - ③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하위분류

-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 유정 명사 / 부정 명사
-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지에 따라 : 구체 명사 / 추상 명사
- 대상이 유일한지에 따라 : 고유 명사 / 보통 명사
- 자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 자립 명사 / 의존 명사

고유 명사/ 보통 명사

지시 대상의 유일성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의 구분 기준

- ① 고유 명사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들'이 결합하지 않음
ex) *석굴암들이 많다. ; 강가에 돌들이 쌓여있다.
- ② 고유 명사는 수와 관련된 말과 결합하지 않음
ex) *한 철수가 공부한다. ; 한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
- ③ 고유 명사는 수 관형사, 지시 관형사와 결합하지 않음
ex) *의 철수가 저 영희를 좋아한다. ; 두 사람은 그 옷을 입고 나타났다.
- ④ 고유 명사는 개체 하나하나를 뜻하는 '마다'와 결합하지 않음
ex) *한강마다 사람들이 봄빈다 ; 강마다 사람들이 봄빈다.

의존 명사/ 자립 명사

의존 명사의 특성

- ① 반드시 의존 명사 앞에 관형어가 와야함
ex) *것이 많다. ; 먹을 것이 많다.
- ② 앞에 오는 관형사형 어미가 제약이 있는 경우도 있음
ex) 갑자기 비가 {오는, *올, *온, *오던} 바람에 옷이 다 젖었다.
- ③ 서술어에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음
ex) 더할 나위가 없었다.
나는 당연히 비가 올 줄 알았다.
- ④ 결합할 수 있는 조사가 한정되기도 함
ex) 집을 나온 지가 한 시간이 지났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너무 피곤해서 옷을 입을 채로 잠을 잤다.
집에 도착하는 대로 연락을 줘.

대명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상태 따위의 이름을 대신하는 말. 즉, 명사를 대신함
- 특성
 - ①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
 - ② '-들'과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할 수 있음
 - ③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 ④ 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가 변하기도 함

+상황 의존성

---->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특성

하위분류

인칭 대명사	1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나 / 겸사말: 저		예사말: 우리 / 겸사말: 저희
	2인칭	단수		복수
		예사말: 너 / 공대말: 자네, 당신		예사말: 너희
	3인칭	근칭	중칭	원칭
		이이, 이애, 이분	그, 그이, 그애, 그분	저이, 저애, 저분
재귀칭	단수: 자기, 저, 당신 / 복수: 저희			
미지칭	누구			
부정칭	누구, 아무			
지시 대명사	사물 표시	이것	그것	저것
	장소 표시	여기	거기	저기

이 / 그 / 저

- '이' 계열 : 화자와 가까운 대상
- '그' 계열 : 청자와 가까운 대상
- '저' 계열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멀리 있는 대상

재귀칭 대명사

-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대명사
- 같은 문장에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킴 + 3인칭 유정 명사

미지칭 대명사

- 가리키는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대상의 정보(이름이나 신분 등)를 정확히 모를 때

부정칭 대명사

- 특정 인물을 가리키지 않을 때

수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건, 상태 따위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 특성
 - 1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
 - 2 '-들'과 결합하여 복수를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음
 - 3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제약이 심함

하위분류

양수사	고유어계	하나, 둘, 셋, 넷 ... 아흔, 아흔아홉
	한자어계	영, 일, 이, 삼, 사 ...
서수사	고유어계	첫째, 둘째, 셋째 ... 열한째, 열두째 ... 아흔아홉째
	한자어계	제일, 제이, 제삼 ...

조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자립성이 있는 말에 붙어 일정한 자격을 가지도록 하거나, → 격조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더해 주거나, → 보조사
둘 이상의 말을 이어주는 말 → 접속 조사
- 특성
 - 1 주로 체언에 결합하며, 여러 개의 조사가 결합하기도 함
 - 2 생략이 되기도 함
 - 3 이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음

하위분류

격조사

이/가	개나리간 아름답게 피었다. 도서관에 책의 매우 많다.
에서	학교에서 교과서를 보냈다.
께서	선생님께서 수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서술격 조사

이다	그것은 내 책이다. 그것은 내 {책입니다 / 책이며 / 책이고 / 책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학 갈래는 고전시가다.(고전시가이다)
----	--

목적격 조사

을/를	철수가 책을 읽고 있다. 영희가 새 구두를 샀다. 그녀는 날 좋아해.
-----	--

보격 조사

이/가	철수가 학생 회장의 되었다. 이것은 종이갑 아니다.
-----	---------------------------------

관형격 조사

의	나의 꿈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	-----------------------

■ 부사격 조사

장소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적 위치 : 언덕 위에 집을 지었다. 지향점 : 더워서 물에 들어갔다.
	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작 위치 :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출발점 :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했다.
상대	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는 철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유정 명사)
	에게 한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꽃에 물을 주었다.(무정 명사) 어머니께 이것을 가져다 드려.(높임 명사) 철수한테 사과를 받았다.(구어적 표현)
재료/도구/수단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 : 철수가 밀가루로 빵을 만든다. 도구 : 나는 문법의 정수로 공부한다. 수단 : 영희는 지하철로 출근을 한다.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된 비로 강이 넘쳤다.
원인/이유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젯밤 비에 꽃잎이 모두 떨어졌다.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는 지금 학교로 가고 있다.
방향/지향점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수는 우리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갔다.
자격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으로서'로 나타나기도 함
변화	(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얼음이 물로 변했다.
시간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시에 만나자.
단위	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과 한 개에 얼마예요?
공동(동반)	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수는 영미와 결혼했다.
비교	와/과 만큼 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등 비교 : 철수는 영희만큼 키가 크다. 차등 비교 : 철수는 영희보다 키가 크다. 영수는 철수와 성격이 다르다/같다. (차등/동등 비교)
	라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인용 : 그가 "기분이 좋다."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 : 나는 그녀가 좋다고 고백했다.

■ 호격 조사

아/야	철수야, 그것 좀 줄래? 한결안, 고양이 보러 가자.
여/이여	그대여, 저를 한 번만 봐 주세요.
시여/이시여	신이시여,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보조사

은/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철수는 과학을 잘하고, 영희는 수학을 잘한다. ② 철수가 과학은 잘한다. 화제(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나는 학생이다.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철수가 과학만 잘한다. 수가 적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엄마, 천 원만 주세요.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이나 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철수가 과학도 잘한다.
마저 까지 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자가 잘 기대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⑦ 너마저 나를 떠나는구나. ⑧ 너까지 나를 못 믿겠니? ⑨ 너조차 가겠다는 것이냐?
그려 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⑩ 이제 나는 고향에 돌아가야겠네<u>그려</u> ⑪ 이전 다시 시작해보지<u>그래</u> 감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⑫ 봄이 왔네<u>그려</u> / 봄이 왔구먼<u>그래</u>
마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마는 시간이 없군.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⑭ 어제는 집에 있었는데요. ⑮ 제가요, 어제요, 학교예요, 갔었어요.

접속 조사

와/과	나는 배와 복숭아를 좋아해.
랑/이랑	철수는 과자랑 음료수랑 맛있게 먹었다.
하고	사과하고 배하고 가져 올래?
며/이며	웃으며 신발이며 너무 더러워졌다.

동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주어의 움직임을 과정적으로 나타내는 말
- 특성
 - ① 어미를 취해 활용을 함
 - ②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자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의 움직임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가지지 않음 ex) 나는 웃었다. 철수는 회장이 되었다. 나도 그 회의에 참석했다.
타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사의 움직임이 주어 이외에 목적어에도 미치는 동사로 목적어를 가짐 ex) 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위분류

형용사

정의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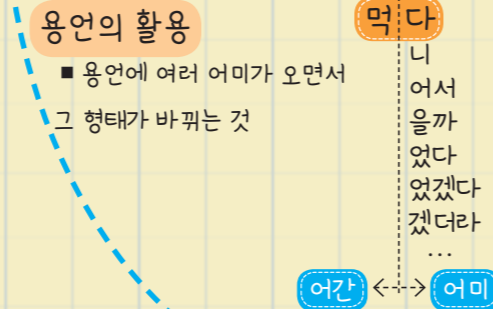
- 정의: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 특성
 - ① 어미를 취해 활용을 함
 - ②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성상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심리적 상태 -아프다, 고프다, 싫다, 좋다 ... ■ 대상의 속성 -'검다, 달다, 거칠다, 시끄럽다' 등의 감각적 속성 -'착하다, 아름답다' 등의 대상에 대한 평가 -'같다, 다르다, 낫다' 등의 비교
지시 형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질이나 상태를 가리킴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 ex) 철수는 지금 배가 고프다. 영희도 그러하다.

하위분류

동사와 형용사 구분

- ① 의미적으로 동사는 움직임을, 형용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 ② 동사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는-'이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 ③ 동사는 의도나 목적을 의미하는 어미 '-러, -려'가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 ④ 동사는 명령문, 청유문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는 불가능합니다.



용언의 활용

규칙 활용

모습이 변하지 않음
+
모습이 변하더라도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가능

불규칙 활용

모습이 변하는데 음운 규칙으로 일관된 설명이 불가능

종류	설명	예시
'ㅅ'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ㅅ'이 탈락 -불규칙 용언: 짓다, 잇다, 젓다, 굶다, 붓다, 낫다, ... -규칙 용언: 벗다, 빚다, 빼앗다, 씻다, 솟다, ... 	낫+아→나아 젓+어→저어 잇+으니→이으니
'ㄴ'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ㄴ'이 'ㄹ'로 바뀜 -불규칙 용언: 묻다(問), 듣다, 걸다, 깨닫다, 실다, ... -규칙 용언: 묻다(埋), 탄다, 돌다, 민다, 쏘다, 얻다, ... 	묻+어→몰어 듣+으니→들으니 걸+어서→걸어서
'ㅂ'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ㅂ'이 'ㅍ'로 바뀜 -불규칙 용언: 돕다, 늙다, 줍다, 덥다, 춥다, 굶다, ... -규칙 용언: 뽑다, 씹다, 입다, 잡다, 굶다, 줍다, ... 	돕+아→도와 줍+으니→주으니 덥+어서→더워서
'ㄹ'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하고 'ㄹ'이 덧생김 -불규칙 용언: 흐르다, 고르다, 나르다, 누르다, ... -규칙 용언: 치르다, 따르다, 들르다, 다다르다, ... 	흐르+어→흘러 나르+아→날라 기르+어→길러
'우'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우'가 탈락 -불규칙 용언: 푸다 -규칙 용언: 주다, 부수다 ... 	푸+어서→퍼서 푸+어라→퍼라

어간 불규칙

종류	설명	예시
'여'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로 끝나는 어간에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것이 '여'로 바뀜 	하+어→하여 하+어라→하여라
'러'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이것이 '러'로 바뀜 -불규칙 용언: 푸르다, 이르다(至), ... -규칙 용언: 치르다, ... 	푸르+어→푸러 이르+어→이러
'너라'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다'에서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대신 '너라'가 쓰임 	오+아라→오너라
'오'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다'에서 명령형 어미 '어라/아라' 대신 '오'가 쓰임 	달+아라→다오

어미 불규칙

종류	설명	예시
'ㅁ' 불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ㅎ'으로 끝나는 어간에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어간의 'ㅎ'이 없어지고 어미도 변함 -불규칙 용언: 하얗다, 파랗다, 노랗다, 빨강다, ... -규칙 용언: 좋다 	하얗+아서→하여서 노랗+아→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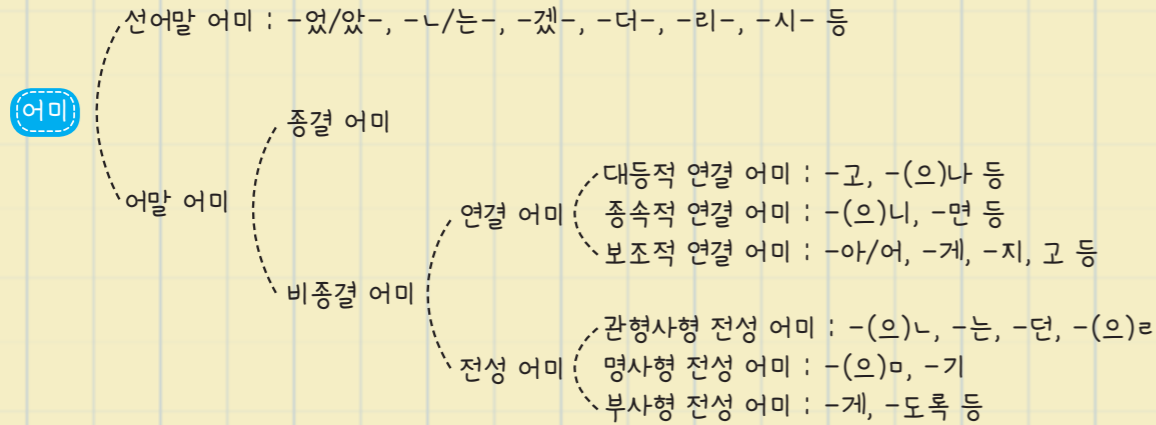
어간, 어미 불규칙

어미

정의와 특성

- 정의: 어간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인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
- 특성
 - ① 이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음
 - ②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할 수도 있음

하위분류



보조 용언

정의와 특성

- 정의: 본용언과 함께 쓰여 문법적인 의미를 더하는 용언
- 특성
 - ① 반드시 앞에 본용언이 와야 함
 - ② 본용언과 하나의 문법 단위로 묶여서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함
 - ③ 보조적 연결 어미로 본용언과 연결됨

'본용언 + 보조 용언' vs '본용언 + 본용언'

	본+보	본+본
① 본용언을 삭제했을 때 문장이 성립하는지 여부	✗	○
②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말이 올 수 있는지 여부	✗	○
③ 반드시 띄어서 써야 하는지 여부	✗	○
+ 연결 어미 '-어서/아서', '-고서'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	✗	○

하위분류

보조 동사	완료	(-고) 나다	-음악을 듣고 나서, 책을 읽었다.	
		(-어/아) 내다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내었다.	
		(-어/아) 버리다	-나는 사과를 다 먹어 버렸다.	
	진행	(-어/아) 가다	-밥을 다 먹어 간다.	
		(-어/아) 오다	-점점 날이 밝아 온다.	
		(-고) 있다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봉사	(-어/아) 주다	-밥을 대신 먹어 주었다.
	(-어/아) 드리다		-어머니의 어깨를 안마해 드렸다.	
	시행	(-어/아) 보다	-새 옷을 입어 보았다.	
	당위	(-어/아야) 하다	-12시 전에 자야 한다.	
	시인	(-기는) 하다	-밤 늦게 게임을 하기는 했었다.	
		완결 지속	(-어/아) 두다	-책을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어/아) 놓다		-문을 열어 놓았다.	
	강제	(-어/아) 대다	-그는 나를 놀려 대었다.	
		부정	(-지) 않다	-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
			(-지) 못하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하지 못했다.
		(-지) 말다	-떠나지 말고 여기 남아라.	
		피동	(-어/아)지다	-이 편은 글씨가 잘 써진다.
(-게) 되다	-나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사동	(-게) 하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		

보조 형용사	희망	(-고) 싶다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
	추측	(-는가/는가/나) 보다	-그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나 보다.
		(-는가/나/을까) 싶다	-그 일은 나의 잘못이 아닌가 싶다.
	시인	(-기는) 하다	-그 꽃이 아름답기는 하다.
	상태 지속	(-어/아) 있다	-산에는 꽃이 피어 있다.
		부정	(-지) 않다
	(-지) 못하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못하다.

관형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체언 앞에 놓여서 체언을 꾸며 주는 말
- 특성
 - ①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받드시 뒤에 수식을 받는 대상을 필요로 함
 - ②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하위분류

성상 관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새, 헌, 옛, 순, 구, 주, ...
수 관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냄 -한, 두, 21세(석, 서), 네(녁, 너), 다섯, 여섯, 일곱, ...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
지시 관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대상을 가리킴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 -어느, 무슨, 웬, 어떤, 아무, ...

부사

정의와 특성

- 정의: 용언이나 다른 말을 꾸며 주는 말
- 특성
 - ① 용언뿐만 아니라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함 (+ 체언도 꾸밈)
 - ② 보조사와 결합하기도 함

하위분류

성분 부사	성상 부사	-참, 많이, 너무, 특히, 모두, 매우, 잘, ...
	지시 부사	공간 -이리, 그리, 저리, ...
		시간 -이때, 그때, 접때, 아까, 곧, 이미, 문득, 매일, ...
	부정 부사	-못, 안(아니)
	의성 부사	-캉캉, 철썩철썩, 데굴데굴, ...
의태 부사	-느릿느릿, 사뿐사뿐, ...	
문장 부사	양태 부사	-과연, 분명히, 어찌, 도리어, 게다가, 확실히, ...
	접속 부사	문장 접속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
		단어 접속 -곧, 즉, 및, 또한, 또는, ...

감탄사

정의와 특성

- 정의: 화자의 부름, 대답, 놀람 등을 나타내면서, 다른 말에 비해 비교적 독립성이 있는 말
- 특성
 - ① 조사와 결합하지 않음
 - ② 문장 안에서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움
 - ③ 감탄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발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하위분류

감정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감정을 표시함 -기쁨: 오, 와, ... -슬픔: 아이고, 이런, ... -놀라움: 이크, 아차, 에구머니,
의지 감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표시함 -상대를 부르거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함 : 이봐, 여보세요, 쏘, ... -상대의 말에 대한 태도를 표현함 : 네, 예, 아니요, 천만에, ...
입버릇 및 더듬거림	-어, 아, 뭐, 에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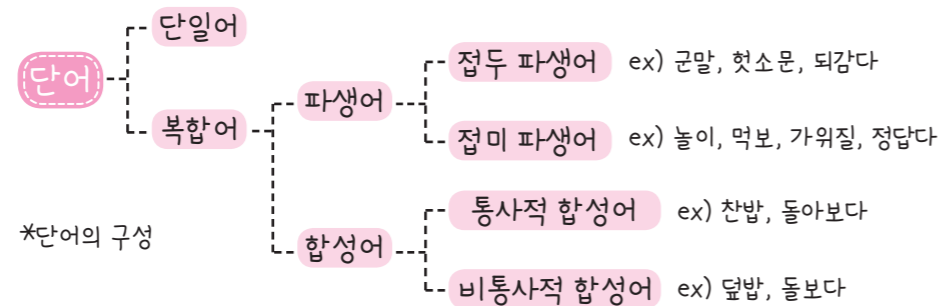
3. 단어의 형성



1) 단어 형성의 기본적 이해

(1) 단어 형성 방식에 따른 단어의 유형

단어는 그 구조가 단일할 수도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의 형태소로 된 것도 있고 둘 이상이 모여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 구조가 단일한 것을 단일어, 둘 이상의 형태소로 되어 구조가 복합적인 것을 복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¹실질 형태소끼리 결합된 것을 합성어라고 하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위 그림은 우리말에서의 단어의 짜임입니다. 여기서 복합어에 대해 하나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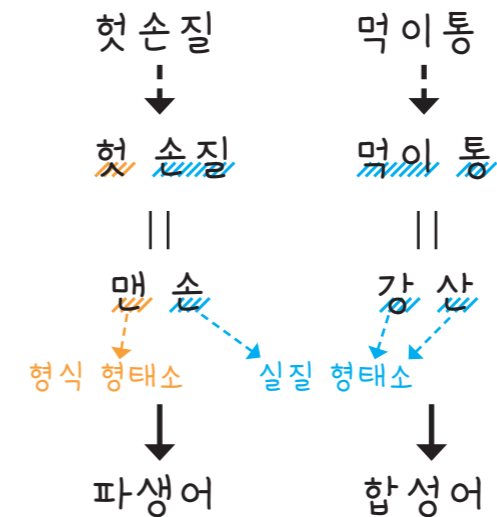
단어들 중에는 형태소가 세 개 이상 결합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용한 개념이 ²직접 구성 요소입니다.

헛손질
먹이통

'헛손질'에서 '헛'과 '질'은 형식 형태소이고, 실질 형태소는 '손'입니다. 반면 '먹이

통'에서 '이'는 형식 형태소이고, '먹', '통'은 실질 형태소입니다. 그러나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사용하면 '헛손질'은 '헛'과 '손질'이 되고, '먹이통'은 '먹이'와 '통'이 됩니다. '손질'과 '먹이'는 형식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헛손질', '먹이통'에서의 역할은 각각 '맨손', '강산'의 실질 형태소 '손', '강'과 같습니다. 따라서 '헛손질'은 '헛'과 '손질'이 결합한 파생어가 되고, '먹이통'은 '먹이'와 '통'이 결합한 합성어가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형식 형태소 역할을 하는 단어이며,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실질 형태소의 자격을 가지는 단어라고 보다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헛손질', '맨손'과 같이 파생어를 만들어내는 단어 형성의 절차를 **파생법**이라 하고, '먹이통', '강산'과 같이 합성어를 만들어 내는 단어 형성의 절차를 **합성법**이라고 합니다.



더 알아보기 직접 구성 요소

직접 구성 요소는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이미 모의고사에 여러차례 나온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16년 9월 고3 모의고사 [11~12]번 지문에 나온 설명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2) 단어 형성의 재료

① 어근과 접사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며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합니다.

어근의 '근(根)'은 '뿌리'라는 한자어입니다. 따라서 단어를 형성하는 데 참여하는 어근과 접사를 나무의 뿌리와 거기서 자라난 가지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꽃- + 사랑 = 꽃사랑 / 옛- + 들- = 옛들다

놀- + -이 = 놀이 / 잡- + -히- = 잡히다

위 단어 '꽃사랑, 옛들다, 놀이, 잡히다'는 모두 복합어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랑, 들-, 놀-, 잡-'입니다. '꽃-', '옛-'는 어근 앞에 붙어서 '미숙한', '몰래'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근 뒤에 붙어서 명사를 만들고 있고, '-히-'는 어근 뒤에 붙어서 피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사는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으로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어는 모두 새로운 단어가 되어서 사전에 등재가 되죠. 형태소 분류로 따져 본다면 어근은 실질 형태소, 접사는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② 접사의 종류

접두사와 접미사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뉩니다. 위의 예에서 '꽃-', '옛-'처럼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를 **접두사**라고 하고, '-음', '-히-'처럼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를 **접미사**라고 합니다.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

접사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³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로 나뉩니다.

한정적 접사는 어휘적 접사라고도 하는데,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을 합니다. 위의 예에서 '꽃-', '옛-'은 어근에 특정 의미를 더하고 있으므로 한정적 접사가 됩니다.

반면 **지배적 접사**는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기능**을 합니다. 위의 예에서 어근 '놀-'은 동사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가 붙어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처럼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잡-'의 경우에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처럼 '주어 + 목적어 + 서술어'의 문장 구조를 보입니다. 그런데 '-히-'가 붙음으로써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처럼 '주어 + 부사어 + 서술어'의 문장 구조를 보입니다.

나는 집에서 고양이와 **놀았다**. - 동사(주어를 서술하고 있음)

나는 고양이와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 명사(뒤에 조사와 결합)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 주어 부사어 + 서술어

더 알아보기 자주 헷갈리는 개념 정리하기

가끔 이러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어간이랑 어근이랑 어떻게 구분하죠~~?"

"어근과 어미, 접사가 너무 헷갈려요ㅠ"

아마 이 교재를 보고 있는 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이것들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이들 개념들은 그 **층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근'과 '접사'가 하나로 묶이고 '어간'과 '어미'가 하나로 묶이죠.

일단 **'어근-접사'**를 보면 바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들 개념은 형태 파트에서 단어의 형성 부분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단어를 만들어나 기존 단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근에 접사가 붙은 말은 사전에 등재되는 새로운 단어가 됩니다.

반면 **'어간-어미'**는 형태 파트에서 품사별 특징을 살펴볼 때, 용언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용언은 여러 어미가 붙으면서 모양이 변하는 활용을 한다고 했죠? 이때에 변하는 부분을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면서 이들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간에 어미가 붙는 것은 단어를 형성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서 아무리 다양한 어미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결국 복합어의 분석에서 '어근-접사'를, 용언의 활용에서 '어간-어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문으로 연습을 해볼까요

어머니께서 책에 종이를 **덧붙이시겠다**구나.

먼저 **'어근-접사'**를 파악해 볼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문장을 봐야 할까요?

"저 단어는 원래 어떤 모양이었을까? 저 단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내가 알고 있는 접사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죠. 그러면 뭔가를 붙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니까 '붙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덧-', '-이-'가 붙어서 '덧붙이다'라는 단어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근은 '붙-', 접사는 '덧-', '-이-'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간-어미'** 파악해 볼까요? 이때에는 단어를 이리저리 바꿔보는 것입니다. "덧붙이다, 덧붙이고, 덧붙일까, 덧붙였습니다. ..." 이렇게 보면 변하지 않는 부분이 '덧붙이-'니까 이것이 어간이 되고, 그 뒤의 '시, 겠, 더, 구나'는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근-접사', '어간-어미'는 층위가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서, 그것들을 분석해 내는 과정에서 하는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들 개념을 체계를 잘 갖춰서 머릿속에 저장해 두어야겠죠? :)

3) 한정적 접사에서 '한정'이라는 말은 어떤 범위를 제한하거나 명확히 한다는 의미입니다. '꽃사랑'에서는 '꽃'이 사랑은 사랑인데, 미숙한 사랑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죠. 이렇게 명칭에서도 그 기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알아보기 접사는 형식 형태소???

앞서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의 단어들의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기 때문입니다.

풋사랑, 군말, 헛일

여기서 '풋-', '군-', '헛-'은 접사로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의미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풋-'은 '미숙한', '군-'은 '쓸데없는', '헛-'은 '보람 없는' 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조사나 어미가 갖는 형식적인 의미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접사 중에서도 특히 접두사가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는 것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접사는 형식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접두사가 비록 형식적 의미와는 다른 의미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과', '웃다' 등과 같은 실질 형태소가 갖는 의미와 같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학교 문법에서는 접사가 어근에 붙어서 단어를 파생하는 문법적인 기능에 주목하여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파생어



여기서는 파생어의 대표적인 접사들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그 중에서도 되도록 생산적인 접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생산적인 접사**란 다양한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들을 말합니다. '놀이'의 '-이', '웃음'의 '-음' 등이 생산적인 접사입니다. 이들 접사는 우리가 단어를 보고 쉽게 파생어라고 인식하고 접사를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생산적인 접사**는 특정 어근과만 결합하고 그렇게 결합한 단어도 많지 않습니다. '지붕, 꼬락서니, 무덤'이 파생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셨나요? 이들 파생어는 '집 + -음', '꿀 + -악서니', '문- + -엄'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악서니'라니,,, ㅎㅎ 이런 접사들은 정말 몇몇 어근에만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하고 있죠. 현행 맞춤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접사가 생산적이어서 여러 어근과 결합하면 그 형태를 밝혀 적을 경우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 점이 있지만, 비생산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굳이 형태를 밝혀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합성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는 접사들과 그 접사들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들의 목록을 제시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종종 개별적인 목록을 제시하고 눈으로 익혀두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뤄야 할 내용은 [더 알아보기]를 통해 제시를 할 거고요, 학생 친구들은 천천히 보면서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개별 접사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요. 정말 혹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다룬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면 알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접두 파생어

접두사는 대부분 한정적 접사로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파생되어 나오는 단어의 품사는 어근의 품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접두 파생법에 의해 형성되는 품사에는 대표적으로 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접사와 단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사 파생 접두사>

말-	■ 말이 -말말, 말머느리, 말아들	홀-	■ 짝이 없이 혼자뿐인 -홀몸, 홀어미, 홀아비
시-	■ 남편의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외-	■ 모계 혈족 관계인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올-	■ 생육 일수가 짧아 빨리 여우는 -올벼, 올밤, 올감자	풋-	■ 처음 나온, 덜 익은 -풋고추, 풋나물, ■ 미숙한, 깊이 않은 -풋사랑, 풋잠
군-	■ 쓸데없는 -군것, 군말, 군살	맨-	■ 다른 것이 없는 -맨눈, 맨몸, 맨손
알-	■ 걸을 뒀어 썩거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알감, 알몸, 알밤 ■ 진짜, 알짜 -알거지, 알부자	민-	■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는 -민얼굴, 민저고리 ■ 그것이 없음, 그것이 없는 것 -민소매, 민우니
한-	■ 큰 -한시름, 한길 ■ 정확한, 한창인 -한가운데, 한겨울, 한낮	암/암ㅎ-	■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 -암노루, 암놈 ; 암컷, 암탉, 암돼지
수/수ㅎ/ 숫-	■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수꽃 ; 수탉, 수캐 ; 숫양, 숫쥐	찰/차/ 찰-	■ 끈기가 있고 차진 -찰밥 ; 찌조 ; 찰쌀
메/멤-	■ 찰기가 없어 메진 -메조, 메벼 ; 멍쌀	해/햇/ 햇-	■ 당해에 난 -해콩 ; 햇곡식 ; 햅쌀

여기서 '암/암ㅎ-', '수/수ㅎ/숫-', '찰/차/찰-', '메/멤-', '해/햇/햇-' 등은 다소 복잡한 이형태를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형태의 분화는 대부분 중세 국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보자면 '암ㅎ-, 수ㅎ-'의 'ㅎ'은 중세 국어에 존재하던 체언 뒤의 'ㅎ'의 흔적입니다. 과거에는 체언 뒤에 'ㅎ'이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체언 뒤에 'ㄱ, ㄷ' 등이 오면 거센소리로 축약이 되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ㅎ'이 탈락되었고 'ㅎ'은 몇몇의 단어에 그 흔적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중세 국어 파트에서 다루게 될테니 기대해 주세요. :)

<용언 파생 접두사>

뒤-	■ 도로 -뒤돌아가다, 뒤돌다 ■ 다시 -뒤새기다, 뒤살리다	뒤-	■ 몹시, 마구, 온통 -뒤끓다, 뒤덮다, 뒤엎다 ■ 반대로, 뒤집어 -뒤바꾸다, 뒤받다, 뒤엎다
들-	■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 -들끓다, 들볶다, 들쭉시다	새/시/ 셋/셋-	■ 매우 질고 선명하게 -새빨갳다 ; 시빨갳다 ; 셋노랗다 ; 셋누랗다
휘/휩-	■ 마구, 매우 심하게 -휘감다, 휘날리다 ; 휩쓸다		

'새/시/셋/싯-'은 어근이 양성 모음인 경우 '새-'나 '셋-'이 오고, 음성 모음인 경우 '시-'나 '싯-'이 오며, 어근의 첫소리가 경음이나 유기음인 경우 '새'나 '시-'가 오고, 나머지 자음인 경우 '셋-'이나 '싯-'이 옵니다.

<명사, 용언 파생 접두사>

덧-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듭된, 거듭, 겹쳐 -덧니, 덧버선 -덧나다, 덧입다 	짓-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구, 함부로, 심한 -짓고생, 짓망신 -짓누르다
늦-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늦은, 늦게 -늦가을, 늦공부 -늦되다, 늦심다 	헛-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보람 없이 -헛걸음, 헛고생 -헛살다, 헛먹다

이 접사들은 명사뿐만 아니라 용언을 파생하기도 하는 접두사들입니다.

(2) 접미 파생어

<명사 파생 접미사>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행위나 상태 -놀이, 해돋이, 머슴살이 사물 -먹이, 책꽂이, 옷걸이, 목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총잡이, 신문팔이 척도 명사 파생 -길이, 넓이, 높이 	-(으)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 파생 -웃음, 울음, 믿음, -기쁨, ⁴부끄러움, 외로움
-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일을 전문적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나무꾼, 잔소리꾼, 노름꾼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구경꾼, 일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 파생 -달리기, 나누기, 던지기 도구, 기구 -녹음기, 주사기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 -소화기, 호흡기
-꾸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잠꾸러기, 말쑥꾸러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것을 하는 행위 -가위질, 톱질, 부채질, 결눈질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겉보, 잠보, 울보 	-개/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일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 -지우개, 집게
-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 -칠장이, 석수장이 	-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수다쟁이, 멧쟁이, 겁쟁이

<동사 파생 접미사>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 파생 -공부하다, 건강하다 -반짝반짝하다, 두근두근하다 -잘하다, 못하다 -구하다, 망하다 	-거리- / -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 -끄덕거리다, 건들거리다 -끄덕대다, 건들대다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 파생 -끄덕이다, 망설이다, 반짝이다 	-뜨리- / -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조 -깨뜨리다, 밀어뜨리다 -깨트리다, 밀어트리다
이히리기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동사 파생 -쌀이다, 잡히다, 밀리다, 안기다, 추출되다 	이히리기 우구추 이우 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동사 파생 -놓이다, 굴히다, 놀리다, 신기다, 비우다, 돌구다, 낫추다, 재우다, 없애다

'-거리-'와 '-대다-', '-뜨리-'와 '-트리-'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바뀌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히/리/기/되-'나 '-이/히/리/기/우/구/추/이우/애-'는 피동사, 사동사를 파생하는 접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외우고 있는 접사죠? 이 중에 '-이우-'가 붙은 파생어의 경우 통시적으로 형성된 단어입니다. 과거 중세 국어 때부터 형성되어, 형태를 변화해 가면서 지금까지 온 단어죠. 먼저 '-이-'가 붙은 후에 다시 '-우-'가 붙어서 형성이 되었는데, 관점에 따라 이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우-'를 하나의 접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접사가 붙은 단어로는 '세우다, 씌우다, 재우다, 채우다, 태우다' 등이 있습니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

-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보배롭다, 새롭다 	-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참되다, 복되다
-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답다, 참답다, 아름답다 ~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 -어른답다, 학생답다, 신사답다 	-스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에 근접함 -어른스럽다, 고집스럽다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용사 파생 -고요하다, 다정하다, 따뜻하다 -미끈미끈하다, 반질반질하다 -가득하다, 못하다 	-다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정도가 꽤 뚜렷함 -굵다랄다, ⁵기다랄다

'-롭-'은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입니다. 그러나 '새롭다'의 경우 '새'가 관형사이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는 통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세 국어에서는 '새'가 명사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롭-'과 결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명사로는 더이상 쓰이지 않게 되면서 현대 국어의 관점에서는 조금 특이한 파생어가 된 것이죠.

더 알아보기 어근의 품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단어를 분석하다 보면 어근은 어근인데 품사가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뜻하다', '아름답다'가 그런 예입니다. '-하-', '-답-'이 접사임에는 틀림 없고, 이들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도 '따뜻', '아름'에서 나오는 것도 분명한데, 어근을 따로 떼어서 보면 그 품사를 뭐라고 하기 참 어렵습니다. 모양은 명사인 것 같은데 뒤에 격 조사가 붙을 수 없고 '-하-', '-답-'처럼 제한된 접사와만 결합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어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쓰임이 제한적이어서 품사를 따로 줄 수 없는 경우에, 이 어근을 ⁶불규칙적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품사가 분명하고 다른 말과도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을 **규칙적 어근**이라고 합니다. '덧신'의 '신', '드높다'의 '높'이 그렇죠.

이 내용을 담은 이유는 규칙적 어근, 불규칙적 어근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한다 기보다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단어 분석 과정에서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어 서였습니다. 그러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5) 이 또한 현대 국어 관점에서는 이 해하기 힘든 형태입니다. '길-'의 '르'이 'ㄷ' 앞에서 탈락했으니까요. 19세기 문헌에서는 '길다랗다'라고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과거에는 합성, 파생 과정에서 '르'이 'ㄷ' 앞에서도 탈락을 했는데 그 영향이 아닐까 하는 추측은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에는 현대의 관점으로 그 형태 변화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중세 국어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여러 형태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죠.

6) '유일 형태소', '특이 형태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부사 파생 접미사>

-이	■ 부사 파생 -같이, 놀이, 같이 -깨끗이, 느긋이, 곳곳이 -나날이, 집집이, 곳곳이 -일찍이, 더욱이	-히	■ 부사 파생 -가만히, 고요히, 조용히
----	---	----	---------------------------

더 알아보기 접미사 '-(으)ㄴ' vs 전성 어미 '-(으)ㄴ'

여기서는 모의고사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접미사와 명사형 전성 어미로 사용되는 '-(으)ㄴ'에 대한 것입니다. 접미사와 전성 어미는 그 기능이 너무나도 달라서 특징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쉽게 틀리므로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먼저 이 내용을 담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 지문의 일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3월 고3 모의고사 11번>

명사형 어미 '-(으)ㄴ'은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이것이 결합된 용언은 서술하는 기능이 유지되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접미사 '-(으)ㄴ'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

<18년 6월 고3 모의고사 [11~12]번>

현대 국어에서 '-(으)ㄴ'이 결합된 단어들 중에는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른 경우가 있다. (...) 이들의 품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명사는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술어로 쓰일 수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다.

반면 동사나 형용사는 명사형이라 하더라도 문장이나 절에서 서술어로 쓰이고,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 ①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
- ②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지 여부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접사와 전성 어미의 기본적인 기능 때문입니다.

명사 파생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며 품사 자체를 명사로 바꿉니다. 따라서 해당 단어의 쓰임이 완전히 달라지죠. 명사와 동사·형용사는 전혀 다른 품사이니까요.

반면 명사형 전성 어미는 단어의 형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지 문장 내에서만 잠시 명사처럼 쓰일 수 있게 합니다. 품사는 당연히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이죠.

그러면 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지 여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경우는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서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서술하는 기능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의 다른 문장 성분을 이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경우는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서술하는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문장 속에서 명사처럼 행동할 수 있을 뿐이죠.

(ㄱ) 나는 충분히 **잠**으로써 피로를 풀었다.

⁶여기서 '잠'은 '나는 충분히 자다'와 같이 문장을 구성하며 주어를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자다'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었습니다. 품사는 그대로 동사이지만 잠시 명사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뒤에 조사 붙었다는 점에서 그렇죠.

(ㄴ) 요즘은 상품을 큰 **묶음**으로 파는 가게가 많다.

'묶음'은 위의 '잠'과 달리 다른 문장 성분을 이끌지 못합니다. 따라서 서술하는 기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묶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서 품사를 명사로 바꾼 것입니다.

②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지 여부

앞에서 품사에 대해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체언인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용언인 동사나 형용사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었죠?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으면 품사가 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게 되고,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형용사이기 때문에 부사어의 수식을 받습니다.

(ㄷ) 날씨가 더워 시원한 **얼음**이 필요하다.

'얼음' 앞에는 '시원한'이라는 관형어가 왔습니다. 따라서 '얼음'은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ㄹ) 수술 뒤 친구가 밝게 **웃음**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였다.

'웃음' 앞에는 '밝게'라는 부사어가 왔습니다. 따라서 '웃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가 온 붙은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시 문장 두 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보람을 찾는 이도 있다.

'도움'은 '어려운 이웃을 돕다'처럼 서술하는 기능이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진심으로 도움으로써'처럼 부사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ㄴ)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픔으로 떨렸다.

여기서 '슬픔'은 '*그의 목소리는 격한 슬프다'처럼 서술하는 기능이 없으며, '격한'처럼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어 명사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가 갖는 품사별 특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 언제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명사 파생 접미사	명사형 전성 어미
서술하는 기능	X	O
관형어의 수식	O	X
부사어의 수식	X	O

6) 서술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를 서술어로 하여 앞에 있는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ㄱ)는 '나는 충분히 자다'처럼 자연스럽게 (ㄴ)는 '*요즘은 상품을 큰 묶다'처럼 비문이 됩니다.

명사형 전성 어미는 다음 문장 파트에서 나오는 문장의 확장고 관련이 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하면 서술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

3) 합성어

(1) 품사별 합성어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어근의 품사와 같습니다. 아래 표들에서 대표적인 합성어를 살펴볼까요?

합성 명사	명사+명사	고무신, 논밭, 창문, 콧물, 바닷가, 봄비, 솔밭을, 아들딸
	명사+파생 명사	말다툼, 몸가짐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건널목, 어린이, 큰형, 뜬소문
	용언의 명사형+명사	갈립길, 볏음밥, 디딤돌
	용언의 ⁸ 연결형+명사	석어찌개, 살아생전
	용언 어간+명사	달밥, 접갈
	관형사+명사	새언니, 새해, 새마을, 첫사랑
	부사 ⁹ 부사성 어근+명사	딱딱새, 보슬비, 얼룩소, 산들바람
	부사+부사	잘못
합성 동사	명사+동사	빛나다, 힘들다, 본받다, 애쓰다, 거울삼다, 앞세우다
	동사 어간+동사 어간	감싸다, 굶주리다, 뛰놀다, 얹매다, 오르내리다, 듣보다
	용언 연결형(-어/아)+동사 어간	갈아입다, 들어가다, 잡아먹다 / ¹⁰ 기뻐하다, 좋아하다
	동사 연결형(-어/아다)+동사 어간	내려다보다, 넘어다보다, 돌아다보다
	동사 연결형(-고)+동사 어간	들고나다, 싸고돌다, 파고들다, 타고나다
	부사+동사 어간	그만두다, 바로잡다, 잘되다
합성 형용사	명사+형용사 어간	낮설다, 남부끄럽다, 남다르다
	명사+동사 어간	힘차다, 맛나다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검푸르다, 희분다, 높푸르다, 굳세다, 검붉다
	용언 연결형(-어/아)+용언 어간	뛰어나다, 깎아지르다, 게을러빠지다
	형용사 연결형(-디, -나)+형용사 어간	검디검다, 희디희다, 쓰디쓰다, 머나멀다, 기나길다
	부사+용언 어간	다시였다, 더하다, 덜하다, 못나다, 잘나다
합성 부사	부사+부사	곧잘, 잘못, 곧바로, 이리저리
	부사 반복	길이길이, 미리미리
	불규칙적 어근 반복	까칠까칠, 두근두근, 꼬불꼬불, 보슬보슬
	명사+명사	밤낮, 어제오늘
	수사 반복	하나하나
	관형사+명사	한층, 어느새, 한바탕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뉘뉘, 이른바

7)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품사별 합성어, 종속·대등·융합 합성어,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8) 연결형이라는 것은 용언에 연결 어미가 온 형태를 말합니다.

9) 부사성 어근은 불규칙적 어근이면서 부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0) 학교 문법에서는 '공부하다'처럼 명사 뒤에 오는 '-하다'는 접사로 보기 때문에 '공부하다'는 파생어가 되고, '기뻐하다, 좋아하다'처럼 연결형 뒤에 오는 '하다'는 어근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은 합성어가 됩니다.

(2) 대등 합성어 / 종속 합성어 / 융합 합성어

합성어는 구성 요소들의 관계에 따라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 융합 합성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⁸⁾¹¹

- 대등 합성어: 두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룸
ex) 논밭, 아들딸, 오르내리다, 듣보다, 높푸르다, 검붉다
- 종속 합성어: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함
ex) 손가락, 돌다리, 칼날, 늙은이, 굵어모오다, 얇보다, 얻어먹다
- 융합 합성어: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림
ex) 밤낮, 춘추, 강산, 날뛰다

대등 합성어는 두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입니다. ¹¹대등 합성어는 합성어의 어근들이 체언인 경우에는 '와/과'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이며, 어근들이 용언인 경우에는 '-고'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논밭'은 '논과 밭', '높푸르다'는 '높고 푸르다'로 볼 수 있죠.

종속 합성어는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합성어입니다.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의 어근들이 체언인 경우에는 '-의'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이며, 어근들이 용언인 경우에는 '-어서, -게'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칼날'은 '칼의 날', '굵어모오다'는 '굵어서 모오다'로 볼 수 있죠. 단순히 의미 관계를 따져 보아도, '돌다리'는 다리는 다리이지만 돌로 만든 다리를 말하기 때문에 앞의 '돌'이 '다리'를 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늙은이'도 사람을 뜻하는 '이'를 '늙다'의 관형사형이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융합 합성어는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합성어입니다. '밤낮'은 '항상, 늘'이라는 의미를, '춘추'는 '나이'를, '강산'은 '자연'을 '날뛰다'는 '함부로 덤비거나 거칠게 행동하다'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들 단어가 개별 어근의 기본적인 의미가 유지되어서 대등 합성어나 종속 합성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낮'이 대등 합성어로 쓰이면 '밤과 낮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 되죠.

- (㉠) 밤낮 : 밤 + 낮 → 항상, 늘
- (㉡) 춘추 : 춘(봄) + 추(가을) → 나이
- (㉢) 강산 : 강(江) + 산(山) → 자연
- (㉣) 날뛰다 : 날다 + 뛰다 → 함부로 덤비거나 거칠게 행동하다

11) 여기서 '~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한 것은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12) 엄밀히 따지면 '문장'과 '통사'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¹² 문법 교재나 문제집을 보면,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다룰 '문장 파트'를 '통사론'이라고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통사론'에서는 단어들이 결합하여 구, 절, 문장을 형성하는 여러 원리들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성분들을 시작으로 문장이 이어진 관계, 문장의 유형 등을 배우게 되죠. 따라서 '통사'라고 했을 때 '문장, 문장 성분들 간의 관계, 문장 구성, 문장의 형성' 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통사론'의 시각에서 보면 통사적 합성어에서 '통사적'라는 것은 우리말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배열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비통사적'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배열과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를 토대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이 결합한 방식이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된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과 같음)

비통사적 합성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이 결합한 방식이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결합된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과 다름)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일반적 문장 배열의 예
체언+체언	쌀밥, 땅콩, 이것저것	우리 학교, 철수 친구
관형사+체언	첫눈, 새해	첫 월급, 새 신발
용언의 관형사형+체언	젊은이, 길짐승	예쁜 옷, 젊은 사람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들어가다, 파고들다	(밥을) 먹어 보다, (집을) 보고 갔다
¹³ 체언+용언 어간	빛나다, 힘들다, 애쓰다	키 크다, 밥 먹다, 책 보다

위 표에서 문장 배열의 예는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배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처럼 체언과 체언이 연달아 오는 것은 일반적인 배열 방식입니다. 꼭 관형격 조사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체언 앞에 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이 오는 것도 일반적인 배열 방식입니다. 용언이 연달아 오기 위해서는 앞 용언에 연결 어미가 와야 합니다. 용언의 연결형은 이러한 연결 어미가 온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언 어간 앞에 체언이 오는 것도 일반적인 배열 방식에 속하죠. 따라서 이러한 배열로 구성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13) '체언+용언 어간'의 배열은 조사가 생략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 크다'는 '키가 크다', '밥 먹다'는 '밥을 먹다', '책 보다'는 '책을 보다'가 되죠. 합성어도 이와 비슷합니다. '빛나다'는 '빛이 나다', '힘들다'는 '힘이 들다', '애쓰다'는 '애를 쓰다'로 볼 수 있죠.

또한 한자어 합성어에서도 '지진, 일몰, 예방' 등의 합성어는 '땅이 떨리다, 해가 지다, 미리 막다'의 의미이므로 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일반적 문장 배열의 예
용언 어간+체언	¹⁴ 늦벼, 꺾쇠	용언의 관형사형+체언 ex) 늦은 사람
부사(부사성 어근)+체언	부슬비, 산들바람	부사+용언 ex)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용언 어간+용언 어간	높푸르다, 검푸르다, 우짚다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ex) 높고 푸르다

14) '늦'을 여기서는 어근으로 보았지만 관점에 따라 접두사로 보기도 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위의 표에서 제시한 것처럼 형성됩니다.

용언과 체언이 결합할 때는 용언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야 합니다. '늦은 사람'처럼요. 그러나 '늦벼', '꺾쇠'는 '늦은벼', '꺾은쇠'처럼 관형사형 어미가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사는 체언을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슬비', '산들바람'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또한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 연결 어미가 들어가야 합니다.

- (㉠) 높고 푸르다 → 높푸르다
- (㉡) 검고 푸르다 → 검푸르다
- (㉢) 울고 짚다 → 우짚다

그런데 위와 같이 '높푸르다, 검푸르다, 우짚다'에는 연결 어미가 실현되지 않고 용언 어간 뒤에 바로 용언 어간이 결합되었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한편 한자어 합성어에서 '독서, 하산' 등의 합성어는 '읽다 책을, 내려오다 산에서'의 의미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형태 파트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어떤가요? 쉬웠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웠나요? ㅎㅎ

형태 파트는 뭐랄까, 조금은 공부를 잘 안하게 되는 파트인 것 같아요. 품사에 대한 내용도 이미 익숙한 내용이고, 합성어나 파생어에서도 그 목록들을 보면 뭘 공부해야 할지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형태 파트도 충분한 학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형태 파트는 형태 파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장 파트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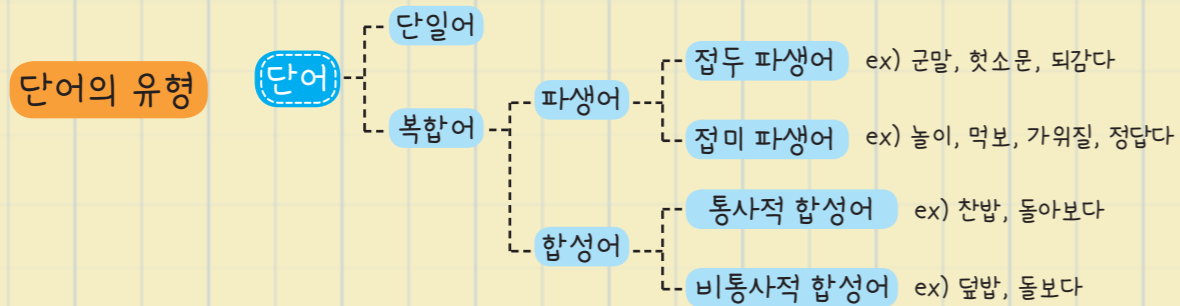
품사별 내용을 익숙히 알고 있더라도 다시 보면서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형성은 어근, 접사, 접사의 종류, 합성어 유형 등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한 후에 개별 접사나 단어들의 목록을 천천히 보면서 눈에 익혀주세요.

그럼 다음 문장 파트에서 만나요!!!



한눈에 보기

단어의 형성



직접 구성 요소: 어떤 말을 층위를 두고 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진 두 요소
단어 분석에 도움을 주는 개념

단어 형성의 재료

뜻- + 사랑 = 뜻사랑 / 엇- + 들- = 엇듣다
 놀- + -이 = 놀이 / 잡- + -히- = 잡히다

- 어근:**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
- 접사:** 어근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며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부분

접사의 종류

위치에 따라

접두사 :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

접미사 :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

기능에 따라

한정적 접사 : 어근에 특정한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

제한적 접사 :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접사

파생어

접두 파생어

말-	■ 말이 -말팔, 말머느리, 말아들	홀-	■ 짝이 없이 혼자뿐인 -홀몸, 홀어미, 홀아비
시-	■ 남편의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외-	■ 모계 혈족 관계인 -외할머니, 외삼촌, 외숙모
올-	■ 생육 일수가 짧아 빨리 여무는 -올벼, 올밤, 올감자	뜻-	■ 처음 나온, 덜 익은 -뜻고추, 뜻나물, ■ 미숙한, 깊이 않은 -뜻사랑, 뜻잡
군-	■ 쓸데없는 -군것, 군말, 군살	맨-	■ 다른 것이 없는 -맨눈, 맨몸, 맨손
알-	■ 길을 덮어 싹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알감, 알몸, 알밤 ■ 진짜, 알짜 -알거지, 알부자	민-	■ 꾸미거나 딸린 것이 없는 -민얼굴, 민저고리 ■ 그것이 없음, 그것이 없는 것 -민소매, 민무늬
한-	■ 큰 -한시름, 한길 ■ 정확한, 한창인 -한가운데, 한겨울, 한낮	암/암ㅎ-	■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 -암노루, 암놈 ; 암컷, 암탉, 암돼지
수/수ㅎ/ 숫-	■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 -수꽃 ; 수탉, 수캐 ; 숫양, 숫쥐	찰/차/잡-	■ 끈기가 있고 차진 -찰밥 ; 차조 ; 찹쌀
메/멤-	■ 찰기가 없이 메진 -메조, 메벼 ; 맷쌀	해/햇/햐-	■ 당해에 난 -해콩 ; 햇곡식 ; 햐쌀

명사 파생

되-	■ 도로 -되돌아가다, 되풀다 ■ 다시 -되새기다, 되살리다	뒤-	■ 몹시, 마구, 온통 -뒤꿍다, 뒤뚱다, 뒤엎다 ■ 반대로, 뒤집어 -뒤바꾸다, 뒤발다, 뒤엎다
들-	■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 -들꿍다, 들볶다, 들썩시다	새/시/셋/ 싯-	■ 매우 질고 선명하게 -새빨강다 ; 시뻔정다 ; 셋노랑다 ; 싯누렇다
휘/휩-	■ 마구, 매우 심하게 -휘감다, 휘날리다 ; 휩쓸다		

용언 파생

덧-	■ 거듭된, 거듭, 겹쳐 -덧니, 덧버선 -덧나다, 덧입다	짓-	■ 마구, 함부로, 심한 -짓고생, 짓망신 -짓누르다
늦-	■ 늦은, 늦게 -늦가을, 늦공부 -늦되다, 늦심다	헛-	■ 이유 없는, 보람 없는, 보람 없이 -헛걸음, 헛고생 -헛살다, 헛먹다

명사, 용언 파생

접미 파생어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행위나 상태 -놀이, 해돋이, 머슴살이 사물 -먹이, 책꽂이, 옷걸이, 목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총잡이, 신문팔이 척도 명사 파생 -길이, 넓이, 높이 	-(으)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 파생 -웃음, 울음, 믿음, -기쁨, 부끄러움, 외로움
-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일을 전문적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나무꾼, 잔소리꾼, 노름꾼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구경꾼, 일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사 파생 -달리기, 나누기, 던지기 도구, 기구 -녹음기, 주사기 그러한 활동을 하는 기관 -소화기, 호흡기
-꾸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잠꾸러기, 말썽꾸러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것을 하는 행위 -가위질, 톱질, 부채질, 걸논질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겉보, 잠보, 울보 	-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일을 하는 수단이 되는 도구 -지우개, 집계
-장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 -철장이, 석수장이 	-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 -수다쟁이, 멧쟁이, 겁쟁이

명사 파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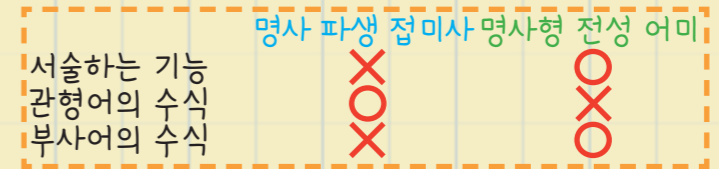
동사 파생

형용사 파생

부사 파생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 파생 -공부하다, 건강하다 -반짝반짝하다, 두근두근하다 -잘하다, 못하다 -구하다, 망하다 	-거리- / -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런 상태가 잇따라 계속됨 -끄덕거리다, 건들거리다 -끄덕대다, 건들대다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사 파생 -끄덕이다, 망설이다, 반짝이다 	-뜨리- / -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조 -깨뜨리다, 밀어뜨리다 -깨트리다, 밀어트리다
이히리기 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동사 파생 -쌓이다, 잡하다, 밀리다, 안기다, 추출되다 	이히리기 우구추 이우 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동사 파생 -높이다, 굳히다, 늘리다, 신기다, 비우다, 돋구다, 낮추다, 재우다, 없애다
-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보배롭다, 새롭다 	-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참되다, 복되다
-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이 풍부히 있음 -정답다, 참답다, 아름답다 ~의 자격의 갖추고 있음 -어른답다, 학생답다, 신사답다 	-스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근의 속성에 근접함 -어른스럽다, 고집스럽다
-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용사 파생 -고요하다, 다정하다, 따뜻하다 -미끈미끈하다, 반질반질하다 -가득하다, 못하다 	-다랗-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정도가 꽤 뚜렷함 -굵다랗다, 기다랗다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사 파생 -길이, 높이, 같이 -깨끗이, 느긋이, 곳곳이 -나날이, 집집이, 곳곳이 -일찍이, 더욱이 	-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사 파생 -가만히, 고요히, 조용히

접미사 '-(으)ㅁ' vs 전성 어미 '-(으)ㅁ'



합성어

품사별 합성어

합성 명사	명사+명사	고무신, 논밭, 창문, 콧물, 바닷가, 봄비, 솔방울, 아들딸
	명사+파생 명사	말다툼, 몸가짐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건넌목, 어린이, 큰형, 뜬소문
	용언의 명사형+명사	갈림길, 볏음밥, 디딤돌
	용언의 연결형+명사	섞어찌개, 살아생전
	용언 어간+명사	덮밥, 접칼
	관형사+명사	새언니, 새해, 새마을, 첫사랑
	부사(부사성 어근)+명사	딱딱새, 보슬비, 얼룩소, 산들바람
합성 동사	부사+부사	잘못
	명사+동사	빛나다, 힘들다, 본받다, 애쓰다, 거울삼다, 앞세우다
	동사 어간+동사 어간	감싸다, 굶주리다, 뛰놀다, 엮매다, 오르내리다, 듣보다
	동사 연결형(-어/아)+동사 어간	갈아입다, 알아보다, 들어가다, 잡아먹다
	동사 연결형(-어/아다)+동사 어간	내려다보다, 넘어다보다, 돌아다보다
	동사 연결형(-고)+동사 어간	들고나다, 싸고돌다, 파고들다, 타고나다
합성 형용사	부사+동사 어간	그만두다, 바로잡다, 잘되다
	명사+형용사 어간	낮설다, 남부끄럽다, 남다르다
	명사+동사 어간	힘차다, 맛나다
	형용사 어간+형용사 어간	검푸르다, 희붉다, 높푸르다, 굳세다, 검붉다
	용언 연결형(-어/아)+용언 어간	뛰어나다, 깎아지르다, 게을러빠지다
	형용사 연결형(-디, -나)+형용사 어간	검디검다, 희디희다, 쓰디쓰다, 머나멀다, 기나길다
합성 부사	부사+용언 어간	다시없다, 더하다, 덜하다, 못나다, 잘나다
	부사+부사	곧잘, 잘못, 곧바로, 이리저리
	부사 반복	길이길이, 미리미리
	불규칙적 어근 반복	까칠까칠, 두근두근, 꼬불꼬불, 보슬보슬
	명사+명사	밤낮, 어제오늘
	수사 반복	하나하나
관형사+명사	한층, 어느새, 한바탕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된통, 이른바	

대등/
종속/
융합
합성어

- 대등 합성어 : 두 성분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합성어 ex) 논밭, 높푸르다
- 종속 합성어 : 앞의 성분이 뒤의 성분을 수식하는 합성어 ex) 칼날, 늙은이
- 융합 합성어 : 구성 요소 각각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합성어 ex) 밤낮, 춘추, 날뛰다

★
통사적/
비통사적
합성어

■ 통사적 합성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이 결합한 방식이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된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과 같음)

	통사적 합성어	일반적 문장 배열의 예
체언+체언	쌀밥, 땅콩, 이것저것,	우리 학교, 철수 친구
관형사+체언	첫눈, 새해	첫 월급, 새 신발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	젊은이, 길짐승	예쁜 옷, 젊은 사람
용언의 연결형 +용언 어간	들어가다, 파고들다	(밥을) 먹어 보다, (집을) 보고 갔다
체언+용언 어간	빛나다, 힘들다, 애쓰다	키 크다, 밥 먹다, 책 보다

■ 비통사적 합성어: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이 결합한 방식이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들이 결합하는 방식과 동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결합된 합성어 (우리말의 일반적인 배열과 다름)

	비통사적 합성어	일반적 문장 배열의 예
용언 어간+체언	늦벼, 꺾쇠	용언의 관형사형+체언 ex) 늦은 사람
부사(부사성 어근)+ 체언	부슬비, 산들바람	부사+용언 ex)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용언 어간+ 용언 어간	높푸르다, 검푸르다, 우짚다	용언의 연결형+용언 어간 ex) 높고 푸르다

4. 기출 문제 확인하기

18년 9월 고3 1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그런데 실제로 단어의 품사를 분류할 때에는 분류가 쉽지 않은 것들도 있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이 대표적인데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사물의 작용의 일종인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일부 동사**는 의미상 매우 밀접하여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가령 '햇살이 밝다'에서의 '밝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날이 밝는다'에서의 '밝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이다.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활용 양상을 내세우기도 한다. 동사와 달리 형용사는 원칙적으로 선어말 어미 '-ㄴ/는-', 관형사형 어미 '-는', 명령형·청유형 종결 어미,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등과 결합하여 쓰이지 않는다. 다만, '있다'의 경우는 품사를 분류할 때 더욱 주의해야 한다. '존재', '소유'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있다'는 형용사로, '한 장소에 머물'의 의미인 '있다'는 동사로 분류되는데, 동사 '있다'뿐만 아니라 형용사의 '있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기 때문이다. 형용사 '없다'의 경우도 반의어인 형용사 '있다'와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여준다.

<보기>

- (d) 나에게는 돈이 있다. / 돈이 있는 사람
나에게는 돈이 없다. / 돈이 없는 사람
(e) 나무가 크다. / 나무가 쑥쑥 크다.
머리카락이 길다. / 머리카락이 잘 길다.

이 문제는 지문과 보기가 중요해서 실었습니다. 위 지문에서 '작용'은 사물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동사는 지문 내용대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형용사는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기 (e)에서 앞에 오는 '크다, 길다'는 특정 시점에서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되고, 뒤에 오는 '크다, 길다'는 상태 변화를 나타내서 동사가 됩니다. 그 증거로 뒤에 오는 동사에는 선어말 어미 '-ㄴ/는-'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있다', '없다'는 품사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없다'는 '*없는다, *없어라, *없자'처럼 형용사에 가까운 활용을 보여서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는 형용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있다'는 의미에 따라 품사가 달라집니다. '소유'를 의미할 때에는 형용사가 됩니다. (d)의 '있다'는 소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나에게는 돈이 있다.'는 비문이 되죠. 그러나 '한 장소에 머물'의 의미일 때는 동사가 됩니다. '그는 쉬는 날이라 하루종일 집에 있다.'처럼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ㄴ/는-'이 올 수 있죠.

그런데 동사로 쓰이든지 형용사로 쓰이든지 관형사형으로 쓰일 때에는 '-는'이 옵니다. 원래대로라면 형용사에는 '-는'이 올 수 없는데 말이죠.

사실 '있다'의 품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개론서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9월 모의고사라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된 내용이니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년 3월 고3 13번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한 탐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모둠별로 <그림>의 대상을 지칭하는 새말을 만드는 활동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새말들의 단어 구조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 오이칼, 껌질칼
㉡ 감작감작칼, 사각사각칼
㉢ 까개, 깎개
㉣ 굽도구, 밀도구
㉤ 박박이, 쓱쓱이

- ① ㉠은 명사 어근들을 결합하여 만든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② ㉡은 부사 어근과 명사 어근을 결합하여 만든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③ ㉢은 동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④ ㉣은 명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⑤ ㉤은 부사 어근에 접사를 결합하여 만든 파생어입니다.

이 문제는 합성어와 파생어, 그리고 통사적·비통사적 합성어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은 '명사+명사'로 일반적인 문장 배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 '감작감작, 사각사각'은 의성·의태 부사네요. 부사 뒤에 바로 명사가 왔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 배열을 보이네요. ㉢은 접사 '-개'가 붙은 파생어네요. 앞에서 '개'는 도구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까거나, 깎는' 어떤 도구라는 의미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나 보군요. 이렇게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문제를 풀 때 기본 배경 지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17년 4월 고3 12번

(가)는 학생의 메모이고, (나)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 (가)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

유형	특징
본용언+본용언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다. -반드시 띄어 쓴다.
본용언+보조 용언	-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합성 동사	-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반드시 붙여 쓴다.

(나)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

<p>표준국어대사전 검색</p> <p>·'집어먹다'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1건)</p> <p>집어-먹다 「동사」 【…을】</p> <p>「1」 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것으로 만든다.</p> <p>「2」 겁, 두려움 따위를 가지게 되다.</p>
<p>·'잇어먹다'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0건)</p>

<보기>

-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집어먹었다.
○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잇어 먹었다.
○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집어먹었다.
○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집어 먹었다.
○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잇어먹었다.

- ① ㉠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② ㉡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③ ㉢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진 '그는'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
④ ㉣은 두 용언 사이에 '허겁지겁'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
⑤ ㉤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허용한 것이겠군.

우리는 앞에서 '본용언+본용언'과 '본용언+보조 용언'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거기에 더해 '합성 동사'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합성 동사'는 말 그대로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로 새롭게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붙여 써야 하고 사전에도 등재가 됩니다.

붙여 쓴 경우에는 합성 동사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습니다. 한편 띄어서 쓴 경우에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죠.

㉠의 '집어먹었다'는 합성 동사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용언+보조 용언'은 아닙니다. '본용언+보조 용언'이든지 '본용언+본용언'이든지 일단 앞의 본용언으로 문장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청년들이 겁을 집었다'처럼 비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사전에서 나와 있는 2번 의미로 쓰인 합성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잇어 먹었다'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용언+본용언'은 아닙니다. 앞의 용언을 삭제한 '*나는 잠자는 것도 먹었다'가 비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었다'는 앞 용언의 의미를 강조하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본용언+보조 용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 '집어먹었다'는 합성 동사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용언+보조 용언'은 아닙니다. ㉠처럼 본용언으로 문장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는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집었다'는 원래 문장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미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1번 의미로 쓰인 합성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 '집어 먹었다'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본용언+보조 용언'은 아닙니다. '그는 빵을 먹었다'처럼 앞의 용언을 삭제해도 문장이 성립하기 때문이죠.

용언 사이에 다른 말을 넣은 '그는 빵을 집어서 허겁지겁 먹었다'가 성립하므로 '본용언+본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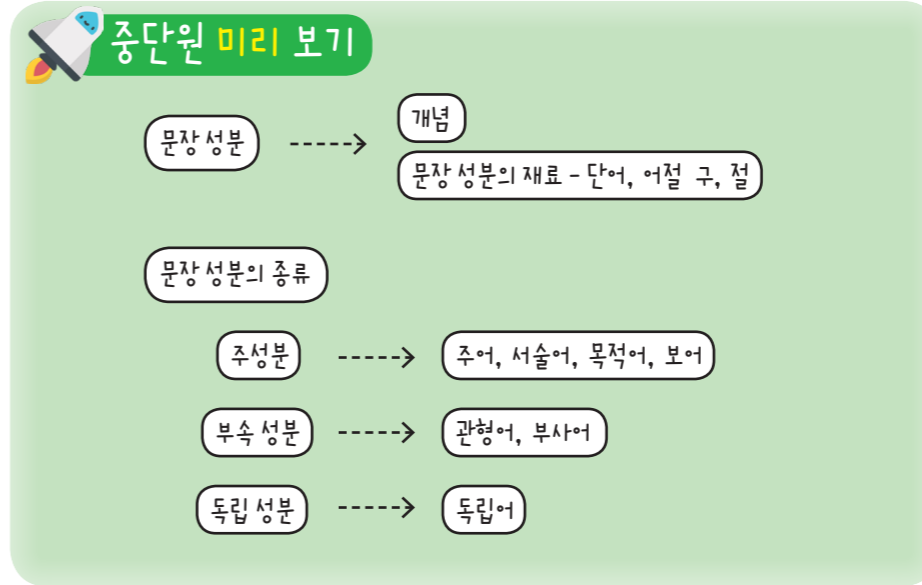
㉤의 '잇어먹었다'는 합성 동사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합성 동사는 아닙니다. 사전 검색 결과를 보면 그러한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용언+보조 용언'이 되는데 그 증거로 본용언을 삭제한 '*그들은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먹었다'가 비문이 됩니다.

PART 3 문장

1. 문장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2. 문장의 유형
3. 문장의 구성
4. 높임 표현
5. 시간 표현과 동작상
6. 부정 표현
7.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8. 기출 문제 확인하기

이제 문장 파트 시작입니다!! 이전에는 음운, 형태, 단어 등의 단위에 대한 문법적 개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큰 단위인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문장 파트의 기본이 되는 문장 성분에 대해 살펴보고 문장의 유형과 구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문장 차원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법 요소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부정 표현, 피동/사동 표현 등이 있습니다. 양도 많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문장 파트도 금새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ㅎㅎ

1. 문장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문장 성분



문장 성분에 대해서는 형태 파트에서 격조사를 다룰 때 살짝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은 품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따라서 여기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내용을 덧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 성분의 개념

우리는 생각을 표현할 때 형태소나 단어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단위인 문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1) 문장**이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한의 형식**입니다. 이러한 문장이 우리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아래는 그러한 형태 중 일부를 예로 든 것입니다. 한 번 볼까요?

(가) 고양이가 잔다.

(나) 선생님이 책을 만든다.

위 문장들은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는 '잔다'라는 동사와 그 동사에 대한 주체를 나타내는 '고양이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가)에서 나타난 요소 외에 '책을'이라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요소가 더 들어가 있군요.

이렇게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 성분들은 문장 내에

1) 문장의 개념은 단어와 마찬가지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문장의 정의에 대해 복잡하게 다루는 문제도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자습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토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교 문법에서 문장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7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이들 성분들은 **주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뉩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지게 되면 문장은 비문이 됩니다.

(㉠) 철수가 밥을 먹었다 - 철수가 먹었다/밥을 먹었다/철수가 밥을

(㉡) 나는 축구 선수가 되었다. - 나는 되었다/축구 선수가 되었다/나는 축구 선수가

(㉠)에서 '먹다'라는 동사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가 빠지게 되면 비문이 됩니다. 물론 서술어가 없더라도 비문이 되죠. (㉡)는 보어가 필요한 구문인데 역시나 주어나, 보어, 서술어 중 어떤 성분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비문이 됩니다.

²**부속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 아니라 **부속적인 성분으로 주성분에 달려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습니다.

(㉢) 전 물은 매우 차갑다.

(㉢)에서 '저'와 '매우'는 각각 '물'과 '차갑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성분이 빠지더라도 '물은 차갑다'처럼 온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립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성분**으로 **독립어**가 있습니다. 주성분이나 부속 성분들은 다른 성분들과 문법적으로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의 주체가 되는 성분이고 관형어는 그 뒤의 성분을 수식해주는 성분이지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은 다른 말과의 관계를 통해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독립 성분은 다른 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 철수야, 내일 학교 같이 가자.

(㉤) 아아! 시간이 참 빠르구나.

위에서 '철수야', '아아'는 어떤 문장 성분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분을 독립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의 재료

문장 성분의 재료가 될 수 있는 말의 단위에는 단어, 어절, 구, 절 등이 있습니다.

단어는 뒤에 조사가 붙어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로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 고양이가 매우 빠르다

'고양이'라는 단어는 주격 조사 '가'가 붙어서 '고양이가'라는 주어가 되었습니다. '매우', '빠르다'는 하나의 단어 그 자체로 각각 부사어, 서술어가 됩니다.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라고 배웠었죠? 하나의 어절은 보통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고양이가', '매우', '빠르다'라는 3개의 어절은 모두 각각 문장 성분이 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어절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기도 합니다.

(㉧) **둥근 달**이 밝다.

(㉨) **전구**가 밝다.

여기서 '둥근 달'이라는 2개의 어절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치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둥근 달'이 '전구'라는 일반 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죠. '둥근 달'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 단위**를 '구'라고 합니다.³어떤 구가 명사처럼 기능하면 명사구가 되고 관형사처럼 기능하면 관형사구가 됩니다. 이러한 구에는 명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사구> 저 학생이 공부를 한다.

<관형사구> 헌책방에서 아주 새 책을 샀다.

<부사구> 시간이 무척 빨리 간다.

<동사구> 책을 열심히 읽는다.

<형용사구> 물이 매우 차갑다.

위의 구들은 문장에서 각각 주어, 관형어, 부사어, 서술어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물론 구를 다시 나눠서 '저 학생'에는 관형어 '저'가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절도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⁴'절'이란 구와 같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한 품사처럼 기능하지만 그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절은 독립적인 문장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 철수는 **친구가 사준** 옷을 입고 나갔다.

(㉪) 철수는 **새** 옷을 입고 나갔다.

여기서 '친구가 사준'은 '새'와 같은 일반적인 관형사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관형

3) 구는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단어가 달려 있는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옆의 문장을 보면 '학생', '새', '빨리', '읽는다', '차갑다'가 중심이 되어 다른 단어가 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이 되는 단어의 품사에 따라 구가 명사구가 되기도 하고 관형사구가 되기도 합니다.

4) 절이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구와 구분되는 특징입니다.

2) '부속'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달려 붙은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정의를 생각하면 '부속 성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와 비슷하지만 그 안에는 '친구가'라는 주어와 '사주다'라는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를 절이라고 하고 절에는 명사절, 서술절, 관형사절,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 <명사절> A**학교가 우수 학교로 선정되었음**이 발표되었다.
- <서술절> 기린이 **목이 길다**.
- <관형사절> **비가 많이 내린**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
- <부사절> 흰 눈이 **밤이 새도록** 내렸다.

각각의 절에 대해서는 뒤에서 나올 문장의 짜임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어

- 정의: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나타남
 - ② 주어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주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함
 - ③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④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함

주어는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은 동사나 형용사로 나타나죠? 즉 주어는 서술어로 쓰이는 말들의 주체가 됩니다.

주어는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 (가) 날씨가 좋다
- (나) 학교에서 책을 보내 왔다.
- (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계신다.
- (라) 새 옷이 매우 깨끗하다.
- (마) 귀여운 고양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 (바) 철수가 대학 면접에 합격했음이 확실하다.

(가), (나), (다)는 체언에 각각 주격 조사 '가, 에서, 게서'가 붙어서 주어가 되었습니다. (라), (마)는 '새 옷', '귀여운 고양이'라는 구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었고, (바)에서는 '철수가 대학 면접에 합격했음'이라는 절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되었습니다.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는 생략이 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주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 (사) 너 어디 가니?
- (아) 꿈은 이루어진다.
- (야) 철수만의 운동하고 있다.

(사)에서는 주격 조사가 들어가서 '네가 어디 가니?'로 쓰일 수도 있지만 주격 조사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주로 구어체에서 쓰이죠. 또한 (아)처럼 '꿈이 이루어진다' 대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여 주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처럼 주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하죠.

주어는 필수 성분이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 철수는 아기 고양이의 울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기 고양이를 찾아 내었다.
- (아) 선생님께서 어디 가셨어요? / 운동장으로 가셨어요.

주어가 생략될 때에는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때입니다. (사)에서 뒤의 문장은 앞의 문장을 통해 '철수가'가 주어임을 알 수 있고, (아)에서는 앞의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께서'가 주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 문장에서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 (야) 코끼리는 코가 길다.

(야)에서 '코끼리는'과 '코가'가 모두 주어처럼 보입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서술절로 설명합니다. 즉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코끼리는'이고 '코가 길다'는 서술절로서 서술어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술절 안에서 다시 '코가'가 '길다'의 주어가 되죠. 이러한 서술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 서술어

- 정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동사, 형용사, '체언+이다'의 형태로 나타남
 - ②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기도 함
 - ③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④ 서술어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몇몇 문장 성분을 요구함 -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서술어는 **동사, 형용사, '체언+이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가) 새가 난다.
- (나) 고양이가 밥을 먹는다.
- (다) 물이 차갑다.
- (라) 밥은 보약이다.

(가), (나)는 동사로 서술어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는 자동사, (나)는 타동사가 서술어가 되었습니다. (다)는 형용사가, (라)는 ⁵⁾'체언+이다'가 서술어가 되었네요.

서술어는 **하나의 용언이나 '체언+이다' 이외에 두 개의 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형태 파트에서 배웠던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조일 때를 말합니다. '본용언+보조 용언'은 하나의 서술어로 취급하며 보조 용언은 본용언에 붙어서 문법적인 의미를 더한다고 했었죠?

서술어는 필수 성분이지만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 철수는 바다에, 영화는 산에 갔다.
- (아) 고양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 마당에 (있어)

5) '체언+이다' 형태의 서술어에는 간혹 체언 이외의 것이 오기도 합니다. -서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온 것은 그가 보고싶어서였다. 위 문장처럼 체언에 조사가 붙은 말이 오기도 하거나 용언의 연결형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구나 절이 올 수도 있겠죠?

이제 각각의 문장 성분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 문장 성분은 형태 파트에서 배운 품사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중간 중간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다시 되돌아가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격 조사

이/가, 에서, 게서

㉞는 문장이 이어질 때 같은 서술어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의 서술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㉞는 문맥에서 서술어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는 경우로 이때에도 서술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술어는 **그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른데,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어떤 서술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면 한 자리 서술어라고 하며, 이런 식으로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아래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한 자리 서술어	자동사	물이 끓는다. 비가 내린다.
	형용사	꽃이 아름답다. 물이 차갑다.
두 자리 서술어	자동사	물이 얼음으로 변한다. 철수가 선생님이 되었다.
	형용사	저 그림이 실물과 같다. 나는 손가락이 아프다.
	타동사	나는 밥을 먹었다. 철수는 꽃을 샀다.
세 자리 서술어	타동사	나는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사장님은 철수를 제자로 삼았다.

한 자리 서술어인 '끓다, 내리다, 아름답다, 차갑다' 등의 자동사나 형용사는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동사나 형용사여도 주어 외에 다른 성분을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도 있습니다. '변하다'는 '얼음으로'와 같은 부사어를, '되었다'는 '선생님이'와 같은 보어를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한 자리 서술어이지만 '같다, 아프다' 등의 형용사는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같다'는 '실물과'라는 같은 대상을 제시해주어야 하며, '아프다'는 그냥 '나는 아프다'라고 하면 머리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두 자리 서술어에 속합니다. 그런데 타동사 중에서도 '주었다, 삼았다'와 같이 세 자리 서술어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술어의 자릿수는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니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더 알아보기 같은 서술어이지만 자릿수가 다른 경우

같은 용언이라고 해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용언도 서술어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예를 볼까요?

- ㉠ ㉠ 눈물이 그쳤다.
- ㉡ ㉡ 엄마가 아기의 눈물을 그쳤다.
- ㉢ ㉢ 버스가 멈추었다.
- ㉣ ㉣ 경찰이 버스를 멈추었다.
- ㉤ ㉤ 종이 울렸다.
- ㉥ ㉥ 철수가 종을 울렸다.

위의 '그치다, 멈추다, 울리다'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쓰이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쓰이는 상황에 따라 한 자리 서술어도 되고 두 자리 서술어도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모의고사 자료인데 '놓다'와 같이 같은 타동사에서 자릿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어의 자릿수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문제에 나온다면 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고3 모의고사 12번〉

	의미	예문
살다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	바람 때문에 불씨가 다시 살았다. → 한 자리
	본래 가지고 있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난다.	이 한 구절로 글이 살았다. → 한 자리
	어떤 직분이나 신분의 생활을 하다.	그는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벼슬을 살았다. → 두 자리
놓다	계속해 오던 일을 그만두고 하지 아니하다.	그는 잠시 일손을 놓았다. → 두 자리
	잡거나 쥐고 있던 물체를 일정한 곳에 두다.	형은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 세 자리

사전을 찾아보면 서술어의 자릿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한번 사전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4)목적어

■ 정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나타남
- ② 목적어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함
- ③ 목적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함

목적격 조사

을/를(리)

목적어는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요구되는 문장 성분으로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 ㉞ 나는 밥을 먹는다.
- ㉟ 철수가 물을 끓인다.

위 문장에서 '밥을', '물은'은 각각 '먹는다', '끓인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됩니다.

목적어는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 ㉠ 그는 시원한 수박을 좋아한다.
- ㉡ 선생님은 축제가 연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㉞에서는 '시원한 수박'이라는 구에, ㉟에서는 '축제가 연기되었음'이라는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목적어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 ㉢ 고기가 없어서 밥 먹기가 싫다.
- ㉣ 고양이는 캔만 좋아한다.
- ㉤ 나는 너만을 좋아해.

㉞에서는 '밥'이 목적격 조사 없이 목적어가 되었습니다. ㉟에서는 보조사가 쓰였고

(ㄷ)는 보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함께 쓰였습니다.

간혹 문장에서 **목적어는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 (ㄹ) 철수는 영수를 허리를 잡았다.
- (ㄷ) 과녁을 한가운데를 맞혔다.
- (ㄷ) 나는 꽃을 장미꽃을 샀다.
- (ㄷ) 어머니는 사과를 두 상자를 들고 오셨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두 개 이상 겹쳐 나오는 경우에는 두 번째 나오는 목적어가 첫 번째 목적어의 한 부분이거나, 그것의 한 종류, 또는 그것의 수량을 나타내는 것일 때가 보통입니다. 즉 '전체-부분', '대상-종류', '대상-수량'의 관계를 보입니다.

(ㄹ), (ㄷ)는 '허리', '한가운데'가 '영수', '과녁'의 부분이며, (ㄷ)는 '장미꽃'이 '꽃'의 한 종류이고, (ㄷ)는 '두 상자'가 '사과'의 수량입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무조건 목적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목적어가 두 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목적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학교 문법에서는 목적어가 붙으면 목적어로 본다고 했지만 목적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 나는 학교를 갔다.
- ㉡ 나는 학교에 갔다.

㉠의 '학교를'은 ㉡처럼 본래 부사격 조사가 붙어야 하는 말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경우입니다. '가다'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인데, ㉠과 같이 쓰게 되면, 자동사임에도 목적어가 온다고 하거나 타동사로 쓰였다고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모두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이렇게 목적어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을/를'을 보조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형태 파트에서 목적격 조사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 다뤘었죠?

- ㉢ 빨리를 가거라.
- ㉣ 우선 먹어를 봐.

여기서 '빨리', '먹어'는 '을/를'이 붙었지만 결코 목적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목적격 조사가 보조사처럼 쓰였다고 보기도 한다고 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의 경우도 '을/를'이 목적격 조사가 아닌 보조사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5)보어

- 정의: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문장 성분
- 특성
 - ①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나타남
 - ② 보어에 결합하는 보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보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함

보어는 '되다/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은 문장 성분을 말합니다.

- (ㄱ) 물이 얼음이 되었다 / *물이 되었다.
- (ㄴ) 그는 학생이 아니다 / *그는 아니다.

보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그 형태가 같지만 '되다/아니다' 앞에서 오는 성분만이 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어는 필수 성분인데 다른 필수 성분과 마찬가지로 생략될 경우 비문이 됩니다.

보어는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나타납니다.

- (ㄷ) 그 기록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었다.
- (ㄹ) 철수의 목표는 반에서 1등을 하기가 아니다.

보어에 결합하는 보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보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합니다.

- (ㄱ) 오늘 총 구매량이 100만원 안 된다.
- (ㄴ) 그는 경찰도 아니다.
- (ㄷ)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만의 아니다.

6)관형어

- 정의: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 ② 관형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음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관형어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ㄱ) 관형사 :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 (ㄴ)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 고양이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 (ㄷ) 체언 : 동생은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 (ㄹ) 용언의 관형사형 : 내가 어제 먹은 빵이 식탁 위에 있다.

일단 관형사는 언제나 관형어가 됩니다. 그리고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6)체언은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ㄷ)에서 '시골'은 '풍경' 앞에서 관형어가 되어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형어는 용언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관형사절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어제 먹은'이라는 관형어는 '내가 어제 빵을 먹었다'와 같은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해 다른 문장 안에 들어가 있

사실 보어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정의는 학교 문법의 정의인데, 이러한 정의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여기서는 학교 문법 수준에서만 간단하게 보어를 다루겠습니다.

보격 조사

이/가

6) '시골'은 품사로만 따지면 명사이지만 문장 내의 문법적 기능을 따지는 문장 성분으로 분석하면 관형어가 됩니다. 이렇게 품사와 문장 성분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품사와 문장 성분을 혼동해서 알고 계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품사는 개별적인 단어가 갖는 성격을 말하는 것이고, 문장 성분은 다른 성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품사가 키나 몸무게, 성격과 같은 것이라면 문장 성분은 모자나 옷, 신발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기 때문에 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형사절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관형어는 수의적 성분이기 때문에 관형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㉔)처럼 관형어가 생략되면 어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의존 명사 앞에 오는 관형어는 절대 생략될 수 없습니다.

7)부사어

- 정의: 용언이나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 ② 부사어 중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도 있음 - 필수적 부사어

부사어는 용언이나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주로 용언을 꾸미지만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부사어도 관형어처럼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㉔) 부사 :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 (㉕) 체언 + 부사격 조사 : 나는 **찰흙**으로 성을 만들었다.
- (㉖) 관형어 + 의존 명사 + 부사격 조사 : 철수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다.
- (㉗) 용언의 부사형 : 창문을 **바깥이 잘 보이도록** 열어 주세요.

(㉔)처럼 부사는 단독으로 부사어가 됩니다. 그리고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하죠. (㉕)는 '관형어 + 의존 명사 + 부사격 조사'의 구성이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이때 부사격 조사가 없이 '옷을 입은 채'처럼 쓰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먼저 관형사절로 이루어진 관형어가 의존 명사를 수식하고 다시 이 전체 구성이 부사어가 되어 서술어를 수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관형어와 함께 부사어를 이루는 의존 명사에는 '김, 대로, 줄, 채, 만큼' 등이 있습니다.

철수는 옷을 입은 채로 누웠다.

(㉖)처럼 용언에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합니다. '바깥이 잘 보이도록'이라는 부사절이 부사어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부사어는 수의적 성분이지만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든 (㉔)~(㉖)는 부사어가 없더라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 (㉘) 선생님은 철수를 **제자로** 삼았다. / *선생님은 철수를 삼았다.
- (㉙) 아기 고양이는 **어미 고양이와** 닮았다. / *아기 고양이는 닮았다.
- (㉚) 학생들이 **시끄럽게** 굴고 있다. / *학생들이 굴고 있다.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사어가 빠지게 되면 비문이 됩니다. 이러한 부사어를 흔히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사어들은 앞에서 배운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와 반대되는 부사어를 수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부사는 그대로 부사어가 됩니다. 따라서 부사어는 부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구분되었듯이 부사어도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로 구분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모두 형태 파트에서 다뤘었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거나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는 관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8)독립어

- 정의: 어느 성분과도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감탄사나 '체언 + 호격 조사'의 형태로 나타남

독립어는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입니다.

독립어는 **감탄사나 '체언 + 호격 조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 (㉛) 아이고! 골을 못 넣었네.
- (㉜) 철수야, 농구하러 가자.

(㉛)는 감탄사가, (㉜)는 '체언 + 호격 조사'의 형태가 독립어가 되었습니다.

호격 조사

아/야, 여/이여, 시여/이시여



한눈에 보기

문장 성분

개념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로 문장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함

문장 성분의 재료 단어, 어절, 구, 절 →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한 품사처럼 기능하지만 그 안에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단위 + 독립적인 문장으로 쓰이지 않음
→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진 단위

주성분

- 정의: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일반적으로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주격 조사가 붙어서 나타남
 - ② 주어에 결합하는 주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주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함
 - ③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④ 주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함

주어

- 정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동사, 형용사, '체언+이다'의 형태로 나타남
 - ② 두 개의 용언이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기도 함
 - ③ 서술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 ④ 서술어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몇몇 문장 성분을 요구함 - 서술어의 자리수

↓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

서술어

- 정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나타남
 - ② 목적어에 결합하는 목적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목적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함
 - ③ 목적어가 둘 이상 나타나기도 함

목적어

- 정의: 주어를 제외하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이/가'가 붙은 문장 성분
- 특성
 - ① 체언이나 체언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보격 조사 '이/가'가 붙어서 나타남
 - ② 보어에 결합하는 보격 조사는 생략되기도 하고 보조사가 대신 쓰이기도 하며 보격 조사와 보조사가 함께 쓰이기도 함

보어

부속 성분

관형어

- 정의: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 ② 관형어가 없어도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음

〈관형사〉 새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체언 + 관형격 조사 '의'〉 고양이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체언〉 동생은 시골 풍경을 좋아한다.
〈용언의 관형사형〉 내가 어제 먹은 빵이 식탁 위에 있다.

부사어

- 정의: 용언이나 다른 말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
 - ② 부사어 중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사어도 있음 - 필수적 부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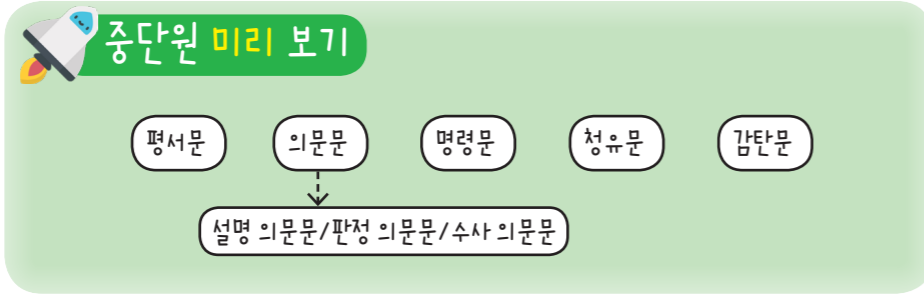
〈부사〉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체언 + 부사격 조사〉 나는 **찰흙**으로 성을 만들었다.
〈관형어 + 의존 명사 + 부사격 조사〉 철수는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웠다.
〈용언의 부사형〉 창문을 **바깥이 잘 보이도록** 열어 주세요.

독립 성분

독립어

- 정의: 어느 성분과도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 특성
 - ① 감탄사나 '체언 + 호격 조사'의 형태로 나타남

2. 문장의 유형



우리말의 문장은 종결 어미나 억양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으로 나뉩니다. 아래 종결 어미표를 다시 실어놓을테니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문장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	해체	해요체
평서형	-습니다/ -습니다	-(으)오	-네	-(ㄴ/는)다	-어/아	-어요/아요
의문형	-니까/ -습니까	-(으)오	-(느)냐가	-(느)냐/ -(으)니	-어/아	-어요/아요
명령형	-(으)시오	-(으)오	-게	-어라/아라	-어/아	-어요/아요
청유형	[-(으)시지요]	-(으)십시오	-세	-자	-어/아	-어요/아요
감탄형	-	-(는)구려	-(는)구먼	-(는)구나	-어/아	-어요/아요

1) 평서문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위 표에는 없지만 '-(으)마'가 쓰여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도 평서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 오늘은 내가 고양이 밥을 주마.

2) 의문문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1) 의문문 종류

① 설명 의문문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가 포함되어 그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 ㉠ 누가 경기에서 이겼나요?
- ㉡ 이 고양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 ㉢ 야야 나를 왜 부른거야?

⁸위 문장에서 '누구', '무엇', '왜'가 의문사입니다. 설명 의문문은 이러한 의문사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죠. 예를 들어 위 문장에 대해 '철수가 이겼어요.', '고양이 이름은 토토라고 해.', '뭐 좀 물어보려고.'와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문문에서는 의문사에 강세가 들어가고 문장 끝의 억양이 내려갑니다.

- 8) 의문사에는 다양한 품사가 있습니다.
- 대명사: 무엇, 누구, 얼마, 언제
 - 관형사: 무슨, 어느, 몇
 - 부사: 왜, 언제
 - 동사: 어찌하다
 - 명용사: 어떠하다

② 판정 의문문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 없이 '예/아니오'의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 ㉠ 이 작고 귀여운 고양이가 토토야?
- ㉡ 문법의 정수라는 책 알아?

판정 의문문에서는 위와 같이 의문사가 쓰이지 않으며 단지 물어보는 것의 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따라 '예/아니오'의 대답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판정 의문문은 문장 끝의 억양이 올라갑니다.

③ 선택 의문문

선택 의문문은 둘 이상의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의문문입니다.

- ㉠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④ 수사 의문문

수사 의문문은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감탄이나 반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문문입니다.

- ㉠ 그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 ㉡ 내가 너한테 과자 하나 못 사주겠니?

㉠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한 감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에서도 역시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질문 내용과 반대되는 '물건을 사 줄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 9) 수사 의문문이 책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그것들을 종합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3)명령문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자동적으로 청자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명령문이 모든 상황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경우를 볼까요?

어떤 책에서는 '모르다'가 명령문이 불가능한 것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명령문에서는 결국 명령을 듣는 청자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르다'의 경우는 사람이 아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로 의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문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긴 우리가 '너 그 사실을 지금부터 몰라라'라고 하지는 않으니깐요. 반대로 '알다'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ㅎㅎ

명령문의 제약

①형용사, 서술격 조사

형태 파트에서 배웠듯이 **형용사**에서는 명령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령문은 그 명령을 듣는 청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용사는 그렇게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따위의 것이 아닙니다. **서술격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 (㉠) *철수야, 너는 좀 착해라.
- (㉡) *철수야, 학생이어라.

그런데 형용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명령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와 같은 기원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 (㉢) 오늘은 날씨가 제발 따뜻해라.
- (㉣) 집이 좀 넓어라.

②작용 동사

자연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작용 동사**에서도 명령문은 불가능합니다. 작용 동사의 주어는 대부분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무정물들이 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것들에게 명령을 할 수는 없겠죠.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들이 문학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 (㉤) *물아 흘러라.
- (㉥) *해야 솟아라.

③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

명령문에는 '-었-, -더-, -겠-' 등과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 (㉦) 밥을 빨리 *{먹었어라/먹더어라/먹겠어라}.

간접 명령문

길을 다니다가 플래카드에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 (㉧) 구청은 00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이러한 명령은 플래카드나 신문 등의 매체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명령문이 쓰입니다. 어미도 '-아라/어라'가 아닌 '-라'가 쓰입니다. 이러한 명령문을 **간접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청자에게 직접 명령을 하는 명령문은 직접 명령문이 됩니다. 간접 명령문은 대화 상황에서 청자에 대한 높임 등급을 드러낸 것이 아니므로 높임의 등급을 굳이 따질 수 없습니다.

4)청유문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청유문도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상 명령문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핀 명령문의 제약이 청유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청유문에서는 자동적으로 주어가 화자와 청자가 되므로 굳이 주어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청유문은 주어와 청자가 어떤 행동을 같이 할 때 쓰입니다. 그런데 **화자만 행동을 하거나 청자만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청유문이 쓰이기도 합니다.

- (㉨) (같은 반 친구에게) 수업 시작하겠다. 빨리 가자.
- (㉩) (혼잡한 버스에서) 좀 내립시다.
- (㉪) (자습시간에 시끄러운 교실에서) 좀 조용히 하자.

(㉨)는 화자와 청자가 함께 행동을 하는 일반적인 청유문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버스에서 내리려는 화자의 행동에 청유문이 쓰였습니다. 승객들에게 다 같이 내리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는 떠돌고 있는 학생들의 행동에 청유문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조금 특이한 청유문이 쓰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 경우에 화자가 내리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조금씩 비켜서서 공간을 내주어야 합니다. 같은 행동은 아니지만 어떤 목적을 위해 청자가 협조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청유문이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 경우를 보면, 화자는 이미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히 해!'라고 하면 친구들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으니, 자신도 그 행위에 포함되는 청유문으로 표현을 해서 친구들이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5)감탄문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앞에 실은 어미 체계표에는 없지만 '-구나' 외에도 '-군, -어라/아라, -네' 등도 감탄문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어미들은 놀람이나 감탄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것에 대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 (㉫)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구나.
- (㉬) 철수는 드디어 영희에게 고백을 했군.
- (㉭) 아! 추워라.
- (㉮) 날씨가 어느새 추워졌네.



한눈에 보기

문장의 유형

평서문 ■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의문문 ■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의문문 종류

- ① 설명 의문문 : 의문사가 포함되어 그 의문사가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 ② 판정 의문문 : 의문사 없이 '예/아니오'의 긍정과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 ③ 선택 의문문 : 둘 이상의 선택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 대답하기를 요구하는 의문문
- ④ 수사 의문문 :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감탄이나 반어의 의미를 드러내는 의문문

명령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명령문의 제약

- ①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음
- ② 작용 동사는 명령문을 만들 수 없음
- ③ 명령문에 시간 표현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없음

간접 명령문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상황에서 쓰이는 명령문 '-라'가 어미로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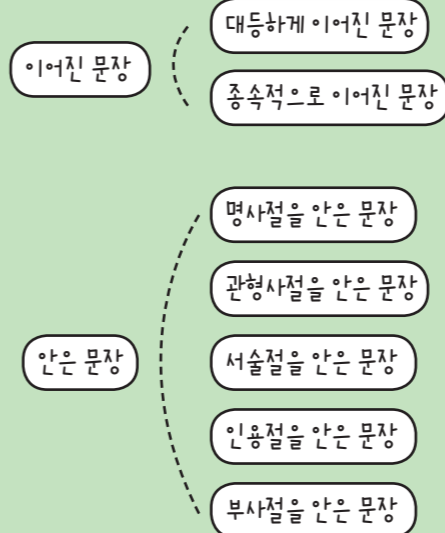
청유문 ■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 제안하는 문장

- 명령문의 제약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화자 혼자만의 행동이나 청자의 행동만을 제안하는 경우에 쓰이기도 함

감탄문 ■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인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3. 문장의 구성

중단원 미리 보기



이번에는 문장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장은 **출문장**과 **접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문장**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고 **접문장**은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 (가) 고양이가 잔다.
- (나) 이웃 아주머니께서는 매일 산책을 나가셨다.
- (다) 우리 동생이 집에서 숙제를 한다.
- (데) 중세에 연극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교회의 주관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되었다.

문장을 출문장과 접문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문장의 길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주어-서술어 관계**가 몇 번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위 문장은 모두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나온 출문장입니다. (데)는 여러 부속 성분들이 붙으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졌지만 '연극은~공연되었다'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나오고 있어 출문장이 됩니다.

- (미) 철수는 국어를 좋아하지만, 영희는 수학을 좋아한다.
- (미) 혜지는 연필을 놓고 모니터를 주시했다.
- (미) 밥을 먹던 나는 비가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1) 주어-서술어 관계가 몇 번 이루어지는가는 문장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수를 세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에서 '먹던'은 '먹다'라는 서술어가 관형사처럼 쓰인 것이고, '있음'은 '있다'라는 서술어가 명사처럼 쓰였습니다. 문장이 합쳐지면서 형태가 바뀐 것이므로 이런 형태의 서술어들도 세야 합니다. :)

2) 겹문장에서는 동일한 성분이 있을 경우 생략될 수 있는데 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¹한편 위 (㉠), (㉡), (㉢) 문장에는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 '철수는~좋아하지만', '영희는~좋아한다'의 두 번, (㉡)는 '해지는~놓고', ²(해지는)~주시했다'의 두 번, (㉢)은 '나는~깨달았다', '(나는)~먹다', '비가~오고 있다'의 세 번의 주어-서술어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 (㉡), (㉢)은 겹문장이 됩니다.

겹문장 중에는 (㉠), (㉡)처럼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것도 있고, (㉢)처럼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 안긴 것도 있습니다. 전자를 **이어진 문장**, 후자를 **안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고양이와 상자를 각각 **출문장**이라고 본다면 고양이가 상자 밖으로 나와 상자 옆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구조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가 상자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와 같은 구조는 **안은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연결 어미**를 통해, 안긴 문장은 **전성 어미**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럼 먼저 이어진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어진 문장

겹문장 중에는 **둘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 때 앞에 오는 문장을 **선행절**, 뒤에 오는 문장을 **후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이어진 의미적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뉩니다.

(1)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 정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며,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가 나타남
- 특성
 - ①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음
 - ②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없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의미 관계가 대등하다는 것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빵을 먹었다.

위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은 대등하게 별개의 절로 독립해 있습니다. 철수가 밥

을 먹은 것과 영희가 빵을 먹은 것에는 문법적으로 연관이 없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 (㉠) 나열 : 형은 학교에 가고, 동생은 학원에 간다.
- (㉡) 대조 : 서울은 추운데, 부산은 덥다.
- (㉢) 선택 : 밥을 먹거나 면을 먹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 부산은 더운데, 서울은 춥다

(㉡)문장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었지만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은 후행절 속으로 위치 이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동생은, 형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간다.

(㉢)문장에서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키면 비문이 됩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대등적 연결 어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열	-고 -(으)며 -요	철수가 책을 읽고, 영희는 떡을 썰었다. 강물은 깊으며 맑다 이것은 말이요, 저것은 소다.
대조	-는데/(으)는데 -지만	철수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선택	-든지, -든가 -거나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자.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신다.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정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며, '이유, 원인, 목적, 의도' 등 다양한 의미 관계가 나타남
- 특성
 - ①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어색해짐
 - ②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없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속'**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a국가는 b국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a국가의 경제권이 b국가에게 의존적이라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에 문법적으로 의존적이고 이끌리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나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 지각했다.

위 문장에서 선행절인 '나는 배가 아프다'는 후행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다는 선행절이 학교에 지각했다는 후행절에 대한 이유가 되고 있죠. 이처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이 후행절에 종속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이유, 원인, 목적, 가정, 양보' 등 다양한 의미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어색해 집니다.**

(ㄴ)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
(ㄴ)' 길이 미끄러워서 비가 왔다.

(ㄴ)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그 의미가 굉장히 어색해 집니다. 그 이유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선행절이 후행절에 달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ㄴ) 길이 비가 와서 미끄러웠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달리 (ㄴ)에서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해도 의미가 달라지거나 어색해지지 않았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종속적 연결 어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 원인	-아서/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밤이 늦었으니까 빨리 집에 가야 해. 철수는 공부를 하느라고 늦게 잤다. 비가 오므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조건, 가정	-(으)면 -거든 -아야/어야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혹시 길이 미끄럽거든 지하철을 이용해라. 먹어 보아야 맛을 알지
목적, 의도	-(으)러 -(으)려고(고) -고자	밥을 먹으러 집에 간다. 운동을 하려고 운동복을 샀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 왔다.
배경, 상황 설명	-는데/(으)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동생이 왔다.
동시적 사건	-(으)면서/(으)며	철수가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
시간적 선후 관계	-고(서) -아서/어서 -자	그는 나에게 눈짓을 하고서 나갔다.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대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사건의 전환	-다가	아이는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들었다.
양보	-아도/어도 -(으)리더라도 -더라도 -(으)든	이 유리판은 얇아도 잘 깨지지 않는다. 설명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할 것이다. 경기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이 맑은들 낚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위의 어미들은 학교 문법에서 대개 종속적 연결 어미로 처리되었던 것들입니다. 모든 어미들은 실어 놓은 것은 아니기에 이런 식으로 여러 의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가지는 것은 선행절이 후행절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납니다.

양보란 선행절의 사태로 인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상황이 후행절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후행절에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할 것이다.'에서 비가 오면

출발을 하지 않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행절에서는 출발할 것이라고 하여 예상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문들도 이러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하나의 어미가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모두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같은 '-고'가 쓰였지만 ㉠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독립적이며, 둘의 위치를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하죠. 반대로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를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둘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이상해 집니다. 그리고 ㉡은 '-고' 대신에 '-고서'가 쓰일 수 있지만 ㉡은 '-고서'가 쓰일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같은 형태가 다른 기능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문장의 의미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더 알아보기 '와/과'에 의해 이어진 문장

우리가 접속 조사로 배운 '와/과'는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ㄱ)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원한다.

→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ㄱ)는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와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는 두 개의 출문장이 '와/과'에 의해 이어져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미 16년 3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와/과'의 이러한 기능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안은 문장

3) 여기서는 안겨 있는 문장은 '안긴 절', 안고 있는 문장을 '안은절'이라고 하겠습니다.

³안은 문장은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으로, 안겨 있는 문장을 안긴 문장,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전체 문장을 안은 문장이라고 합니다. 안긴 문장은 절의 형식으로 안기게 되는데, 안은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의 일부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안긴절에는 명사절, 관형사절, 서술절, 인용절, 부사절이 있으며, 이러한 절들은 대개 연결 어미 중에서도 전성 어미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제 각각의 안긴절에 대해 살펴볼까요?

전성 어미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1)명사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으)ㄴ, -기
- 특성
 - ① 뒤에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되어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기능함
 - ② '-(으)ㄴ'과 '-기'의 의미 차이가 드러나기도 함

명사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절을 말합니다.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 '-기'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그 명칭처럼 뒤에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되어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 (ㄱ) 철수가 돈이 많음이 분명하다.
- (나) 우리는 영희가 아팠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 (ㄷ) 이 일은 내가 그 사람을 잡음으로써 끝이 났다.

(ㄱ), (나), (ㄷ) 모두 명사절이 쓰였으며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 + 농부들은 그것을 기다렸다.
 ↓ + -기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다.

두 개의 문장을 결합할 때 우선 앞의 문장에서 어미를 명사형 전성 어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명사절을 뒤의 문장의 '그것' 대신에 넣습니다. '비가 오기'가 '그것'의 위치를 대신한다는 것으로도 명사처럼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⁴명사형 전성 어미로는 '-(으)ㄴ'과 '-기'가 있는데 그 의미 차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 (ㄱ) -(으)ㄴ : 이미 일어난 일(완료)
 - 철수는 자신이 합격했음을 깨달았다.
 -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 (나) -기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미완료)
 - 열심히 노력한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하기를 기대했다.
 -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의미 차이에 따라 서술어도 '-(으)ㄴ'의 경우에는 '알다, 깨달다' 등의 지각이

4) 이러한 의미적 차이에 대한 쓰임이 모든 상황에서 예외없이 쓰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경향성을 보인다는 의미이니 이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나 인식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잘 어울리고, '-기'는 '기대하다, 바라다' 등의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잘 어울립니다.

더 알아보기 '관형사절 + 것'

나는 철수가 합격한 것을 알고 있다.

위 문장에서 '철수가 합격한 것'은 마치 명사절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며, 명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는 '관형사절 + 것'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명사절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형 전성 어미로 '-(으)ㄴ', '-기'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관형사절 + 것'을 명사절로 보지 않고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로 처리하겠습니다.

(2)⁵관형사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으)ㄴ, -는, -던, -(으)ㄹ
- 특성
 - ① 다른 체언을 수식함
 - ② 관형사절 내부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함

관형사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절을 말합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는, -던, -(으)ㄹ'이 결합되어 형성되며 관형사처럼 다른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죠.

관형사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철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 철수가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 + -는
 → (고양이를 좋아하는) 철수가 동물 보호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우선 관형사절로 형성하려는 문장에서 그 절이 수식하게 될 문장 성분과 동일한 성분을 삭제합니다. 위에서는 '철수는'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삭제한 문장에 적절한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붙이고 그렇게 형성된 관형사절을 수식하려는 성분 앞으로 이동시키면 됩니다. 간단하죠? ㅎㅎ

이렇게 관형사절이 형성될 때 관형사절의 내부의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하는데, 위와 같이 주어가 생략될 수도 있지만, 목적어나 부사어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영희가 ~~신발~~을 사주었다. + 철수는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 + -(으)ㄴ
 → 철수는 (영희가 사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갔다.

5) '관형사절'을 '관형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품사의 명칭에 맞게 '관형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

'푸른 바다가 아름답다.'에서 '푸른'은 관형사절입니다. 그런데 한 어절로 너무 짧은 나머지 관형사절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바다가 푸르다 + 바다가 아름답다'에서 주어진 바다가 생략되어서 짧게 나타난 것이지 분명한 관형사절입니다.

<부사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나는 어제 ~~서점~~에 갔다. + ~~서점~~은 우리 동네에서 하나뿐이다.

↓ + -(으)ㄴ
(내가 어제 ~~간~~ 서점은 우리 동네에서 하나뿐이다.)

이렇게 관형사절에는 수식하는 성분과 동일한 문장 성분이 관형사절 내부에서 생략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형사절이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관형사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관형사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까요?

관형사절의 종류

관계 관형사절	수식하는 성분과 동일한 요소가 절 내부에서 생략됨	
동격 관형사절	절 내부의 특정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음	
	긴 동격절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한 문장 형식임
	짧은 동격절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아님

6) 어떤 책에서는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의 차이점으로 생략 가능성을 들기도 합니다. 관계 관형사절은 생략이 가능하나 동격 관형사절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니다. :)

⁶관형사절은 크게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계 관형사절은 위에서 다룬 관형사절처럼 **절이 수식하는 성분과 동일한 요소가 절 내부에서 생략되는 관형사절**을 말합니다. 반면 **동격 관형사절**은 **생략되는 성분 없이 한 문장의 모든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관형사절**을 말합니다.

(가) 나는 토토가 드디어 새끼 고양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그는 철수가 시험에 합격한 사실을 모른다.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관형사절입니다. 이 절을 따로 빼서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토토가 드디어 새끼 고양이를 출산했다.
(나)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

보면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격 관형사절은 관계 관형사절과는 달리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격'이라는 말처럼 **관형사절의 의미가 그것이 수식하는 말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에서 보면 토토가 새끼 고양이를 출산한 것이 곧 소식의 내용이 되죠.

이러한 동격 관형사절은 다시 긴 동격절과 짧은 동격절로 나뉩니다.

⁷**긴 동격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한 문장 형식**이 오고, **짧은 동격절**은 **관형사형 어미 앞에 완전하지 않은 문장 형식**이 옵니다. 위의 예에서 (가)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 앞에 '출산했다'라는 완전한 형식이 왔기 때문에 긴 동격절이 됩니다. 반면 (나)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앞에 '합격하-'라는 불완전한 형식이 왔기 때문에 짧은 동격절이 됩니다.

7) (가)의 긴 동격절에서 '출산했다는'이라는 표현은 사실 '출산했다고 하는'에서 '-고 하-'가 줄어든 표현입니다.

(3) 서술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없음
- 특성
 - ① 두 개의 주어가 특정한 의미 관계를 보이기도 함
 - ② 절을 만들어 주는 문법적인 표지가 없음

서술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처럼 기능하는 절**을 말합니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주어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앞에 나오는 주어를 제외한 부분이 서술절이 됩니다.

(가) 토끼는 앞발이 짧다. → 토끼는 [앞발이 짧다].
(나) 의자가 다리가 있다. → 의자가 [다리가 있다].

서술절을 안은 문장은 위와 같이 분석이 됩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는 '토끼는', '의자가'가 되고, 그것의 서술어는 '앞발이 짧다', '다리가 있다'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술절에서 '앞발이', '다리가'가 주어가 되고, 그것의 서술어는 '짧다', '있다'가 되죠.

서술절을 안은 문장에서 두 개의 주어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의미 관계**를 보입니다.

- <전체-부분> 토끼는 앞발이 짧다.
- <전체-수량> 학생이 하나가 왔다.
- <유형-사례> 생선은 도미가 최고이다.
- <장소> 저 산이 나무가 많다.
- <도구> 이 붓이 글씨가 잘 써진다.

한편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절을 만들어 주는 문법적인 표지가 없습니다.** 앞에서 배운 명사절이나 관형사절을 보면 전성 어미를 통해서 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술절은 그러한 문법적인 표지가 없이 절이 되어 서술어로 기능합니다.

(4) 인용절

- 정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인용하여 절 형식으로 안긴 절
- 표지: 라고, 고
- 특성
 - ① 다른 절과는 달리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 '고'를 통해 형성됨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인용하여 절 형식으로 안긴 절**을 말합니다. ⁹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 '고'**를 통해 형성됩니다.

인용절은 인용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인용절과 간접 인용절로 나뉘기도 합니다.

8) 서술절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서술절이라고 보겠습니다.

9) 다른 절들이 전성 어미를 통해 형성되는 것과는 달리 인용절은 조사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용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학교 문법에 따라 인용절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용절의 종류

1 직접 인용절

10) 생각을 인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간접 인용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직접 인용도 가능은 합니다.

¹⁰직접 인용절은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그대로 따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인용절에는 '라고'가 붙어서 형성되는데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가 앞뒤로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이 문장을 따 왔으면 큰따옴표를 쓰고 단어나 구절 혹은 생각을 따 왔으면 작은따옴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철수가 선생님께 "제 꿈은 드라마 pd입니다."라고 말했다.
- (㉡) 그 상자에는 '사물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 (㉢) 나는 속으로 '날씨가 너무 추워.'라고 생각했다.

11) '하고'가 직접 인용절을 형성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하고'를 조사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인용절은 아래와 같이 ¹¹'하고'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의성어나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흉내 내어 전달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하고'를 통해 인용할 경우 말의 억양까지 거의 그대로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 (㉣) 철수가 "빨리 돌아가!"하고 소리 질렀다.
- (㉤)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쿵!'하고 났다.

위의 문장을 말할 때 우리는 인용되는 부분을 마치 실제처럼 흉내 내려고 하죠? '하고'에 의한 인용절이 갖는 특성 때문입니다.

2 간접 인용절

간접 인용절은 인용할 내용을 그대로 따서 인용하지 않고 화자의 입장에 따라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어서 인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쓰입니다.

- (㉦)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는 철수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인용한 직접 인용절이 쓰였습니다. 이것을 간접 인용절로 바꿔 볼까요?

우선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고'를 써야겠죠? 그리고 철수 입장에서는 '너를'이 되지만 간접 인용절에서는 '나'가 화자가 되기 때문에 '너를'을 '나'의 입장에 따라 바꾸면 '나를'이 됩니다. 그리고 종결 표현도 '좋아해'에서 '좋아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게 되면 여러 요소가 바뀌게 됩니다. 아래에서 이것들을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

1 높임 표현

뒤에서 배우겠지만 종결 어미에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높임 표현이 실현됩니다. 이를 **상대 높임**이라고 하죠. ¹²간접 인용의 경우 어떤 말을 화자의 관점에 따라 바꿔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 높임법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단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어미 선택이 달라질 뿐이죠. 아래는 이러한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12) 상대 높임은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높이고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간접 인용은 그러한 발화가 안건절로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상대 높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발화의 내용이 중요할 뿐이죠. 따라서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상대 높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 고
평서형	-다 "밥을 먹었어."	-다 "물이 차갑습니다."	-라 "나는 학생이야."	
의문형	-(느)냐 "체육복 있어?"	-(으)냐 "시험 문제 어려웠어?"	-냐 "이게 문법의 정수야?"	
명령형	-(으)라 "빨리 가세요."			
청유형	-자 "학교 같이 가자."			
감탄형		¹³ -다 "책이 참 좋구나."		

13) 감탄문의 경우 간접 인용될 때 모두 '-다'의 평서문 형태로 바뀝니다.

위 표는 문장 종류에 따라 종결 어미가 간접 인용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칸 안에는 간단한 문장을 예시로 적었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그 답은 바로 아래에 실어 놓았습니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 고
평서형	철수가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물이 차갑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기는 학생이라고 말했다.	
의문형	영희가 체육복 있냐고 물었다.	친구가 시험 문제 어려웠냐고 물어봤다.	동생이 이게 문법의 정수냐고 물었다.	
명령형	그가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청유형	친구가 학교 같이 가자고 부탁했다.			
감탄형		철수가 책이 참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니까 종결 어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이해가 되죠? ㅎㅎ 일상 생활에는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것들이니 직접 입으로 말해 가면서 공부하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체 높임이나 객체 높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상황1
- 철수가 할아버지에게 한 말을 할아버지가 간접 인용하는 경우
"할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오십니다.**"
→ "철수야, 방금 네가 아빤이 내일 **온다고** 했니?"
- 상황2
- 아들이 자신에게 한 말을 자기가 간접 인용하는 경우
"아빠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
→ 아들이 제게 내일 사무실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 상황3
- 철수(1학년)가 영희(2학년)한테 한 말을 교사인 내가 간접 인용하는 경우
"자료를 영수 선배님께(3학년) **드렸어요.**"
→ 철수가 그때 영희한테 자료를 영수에게 **줬다고** 말했다.

상황1에서는 주체 높임이 달라졌습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높여서 표현해야 하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높일 필요가 없어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빠졌습니다.

상황2에서도 주체 높임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하지만, 아버지 자신이 화자가 될 때에는 자기를 높이는 표현은 어색하기 때문에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황3에서는 객체 높임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인 화자 입장에서는 객체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다'를 사용했죠.

위 문장들이 다소 작위적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높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로 나오게 된다면 높임 표현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②대명사

간접 인용절에서는 대명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앞에서 든 예로 확인해 볼까요?

- (㉠) 그녀는 "나는 학생이야."라고 말했습니다.
- (㉡) 그녀는 자기가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 (㉢)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너를 좋아해."라고 말했다.
- (㉣) 철수가 나에게 영희가 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에서는 '나'라고 표현된 대명사가 (㉡)에서는 '자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의 '너'는 (㉣)에서 '나'로 바뀌었죠. 형태 파트에서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거나 같은 대상에 대해 다른 형태가 쓰이는 상황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간접 인용절에서 화자의 입장으로 바뀔 때 대명사도 함께 바뀌는 것입니다.

③시간 표현

시간 표현도 대명사와 같이 상황 의존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어제의 '내일'은 오늘의 '지금'이 되는 것처럼요. 아래 문장을 볼까요??

- (㉠) 나는 어제 철수에게 "내일 학교 같이 가자."라고 말했다.

여기서 '나'가 (㉠)문장을 말했던 때를 2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를 기준으로 '내일'은 '나'가 이 발화를 하고 있는 오늘,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간접 인용절로 바꾸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 (㉡) 나는 어제 철수에게 오늘 학교 같이 가자고 말했다.

(5)부사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부사어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이, -게, -도록 등
- 특성
 - 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도 부사절로 볼 수 있음

부사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부사어처럼 기능하는 절을 말합니다. 부사절은 '-이', '-게', '-도록' 등의 어미로 형성되며 절 전체가 서술어를 수식합니다.

부사절이 형성되는 과정을 볼까요?

발에 땀이 나다. + 철수는 그렇게 뛰었다.
 + -도록
 → 철수는(발에 땀이 나도록)뛰었다.

부사절로 형성하고자 하는 문장에 부사형 전성 어미를 결합시킵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그렇게'의 자리에 놓습니다. '발에 땀이 나도록'이 '그렇게'의 기능과 같이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사처럼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사절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¹⁴그것은 앞에서 배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곧 부사절을 안은 문장과 같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종속적 연결 어미는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되죠**. 앞에서 살펴 봤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볼까요?

- (㉠)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웠다.
- (㉡) 길이 비가 와서 미끄러웠다.

이어진 문장은 둘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놓여서 연결되어 있는 겹문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와 같이 놓고 보면 마치 부사절처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이나 부사절이 위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고 특히 서술어 앞에서 수식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따라서 앞에서 표로 정리한 종속적 연결 어미가 부사형 전성 어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4)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 완전히 같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러한 관점에 따라 설명을 했습니다. :)

더 알아보기 부사형 전성 어미 '-이'

왼쪽에서 부사절을 형성하는 어미로 '-이'가 있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형태 파트에서 우리는 '-이'를 부사 파생 접사로 배웠으니까요.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그때의 '-이'와 여기서의 '-이'를 다른 형태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사절을 형성하는 '-이'는 '없다, 다르다, 같다'에 붙어 제한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 (㉠) 비가 소리로 없이 내린다.
- (㉡) 철수가 영희와 달리 국어를 좋아한다.
- (㉢)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어미와 접사의 차이가 기억나시나요? ¹⁵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것으로 품사가 바뀌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사 파생 접미사라면 동사나 형용사의 성격을 잃게 됩니다. 반면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위 문장을 볼까요? '-이'가 붙은 '없이, 달리, 같이'를 보면 '소리가 없다', '철수가 영희와 다르다', '세월이 흐르는 것이 물과 같다'처럼 다른 문장 성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때의 '-이'는 접사로 보기 어렵고, '-이'가 붙은 부분을 부사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래는 '-이'가 접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 (㉠) 새가 높이 난다.
- (㉡) 나는 빵을 많이 먹었다.

여기서 '높이, 많이'는 (㉠), (㉡), (㉢)와는 다르게 서술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단지 단독으로 부사가 되어서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을 뿐이죠.

이런 점에서 보아 (㉠), (㉡), (㉢)에 쓰인 '-이'와 (㉠), (㉡)의 '-이'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5) 잘 기억이 안나면 135p에서 명사형 전성 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를 비교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9일>



철수와 내일 학교 같이 가자~

<20일>



내가 어제 철수한테 오늘 학교 같이 가자고 했었지~!



한눈에 보기

문장의 구성

● **홀문장** :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
 ● **겹문장** : 주어-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이어진 문장

- 둘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문장
- 연결 어미로 형성



- 정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며, '나열, 대조, 선택' 등의 의미 관계가 나타남
- 특성
 - 1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의미 차이가 생기지 않음
 - 2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없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나열	-고 -(으)며 -요	철수가 책을 읽고, 영희는 떡을 썰었다. 강물은 깊으며 맑다. 이것은 말이요, 저것은 소다.
대조	-는데/(으)는데 -지만	철수가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선택	-든지, -든가 -거나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하자. 오늘은 어머니가 오시거나 아버지가 오신다.

- 정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며, '이유, 원인, 목적, 의도' 등 다양한 의미 관계가 나타남
- 특성
 - 1 선행절과 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고 어색해짐
 - 2 선행절을 후행절 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유, 원인	-아서/어서 -(으)니까 -느라(고) -(으)므로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만나야 해. 철수는 공부를 하느라 늦게 잤다. 비가 오므로 밖에 나가지 않았다.
조건, 가정	-(으)면 -거든 -아야/어야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혹시 길이 미끄럽거든 지하철을 이용하라. 먹어 보아야 맛을 알지
목적, 의도	-(으)러 -(으)러(고) -고자	밥을 먹으러 집에 간다. 운동을 하려고 운동복을 샀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 왔다.
배경, 상황 설명	-는데/(으)는데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동생이 왔다.
동시적 사건	-(으)면서/(으)며	철수가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다.
계기적 사건	-고(서) -아(서)/어(서) -자	그는 나에게 눈짓을 하고서 나갔다. 고기를 잡아서 구워 먹었다. 대문을 나서자 빗방울이 떨어졌다.
사건의 전환	-다가	아이는 공부를 하다가 잠에 들었다.
양보	-아도/어도 -(으)더라도 -더라도 -(으)더라도	이 유리판은 얇아도 잘 깨지지 않는다. 설명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어김없이 출발한다.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이 많은들 낚시에 무슨 도움이 될까?



안은 문장

-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절의 형식으로 안고 있는 문장
- 전성 어미로 형성

명사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으)ㅁ, -기
- 특성
 - 1 뒤에 다양한 격조사가 결합되어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기능함
 - 2 '-(으)ㅁ'과 '-기'의 의미 차이가 드러나기도 함

관형사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관형사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으)ㄴ, -는, -던, -(으)ㄹ
- 특성
 - 1 다른 체언을 수식함
 - 2 문장 내부에 문장 성분이 생략되기도 함

관형사절의 종류

관계 관형사절	수식하는 성분과 동일한 요소가 절 내부에서 생략됨	
동격 관형사절	긴 동격절	관형사형 어미 앞이 완전한 문장 형식임
	짧은 동격절	관형사형 어미 앞이 완전한 문장 형식이 아님

서술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서술어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없음
- 특성
 - 1 두 개의 주어가 특정한 의미 관계를 보이기도 함
 - 2 절을 만들어 주는 문법적인 표지가 없음

〈전체-부분〉 토끼는 앞발이 짧다.
 〈전체-수량〉 학생이 하나가 왔다.
 〈유형-사례〉 생선은 도미가 최고이다.
 〈장소〉 저 산이 나무가 많다.
 〈도구〉 이 붓이 글씨가 잘 써진다.

인용절

- 정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인용하여 절 형식으로 안긴 절
- 표지: 라고, 고
- 특성
 - 1 다른 절과는 달리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 '고'를 통해 형성됨

인용절의 종류

직접 인용절	말이나 글, 생각 따위를 그대로 따서 옮기는 것
간접 인용절	인용할 내용을 그대로 따서 인용하지 않고 화자의 입장에 따라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어서 인용을 하는 것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할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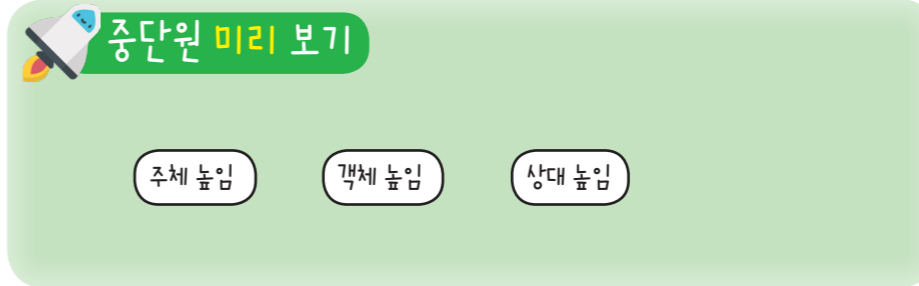
1. 높임 표현
2. 대명사
3. 시간 표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 고
평서형	-다	-다	-라	
의문형	-(느)냐	-(으)냐	-냐	
명령형	-(으)라			
청유형	-자			
감탄형		-다		

부사절

- 정의: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절 전체가 문장 내에서 부사어처럼 기능하는 절
- 표지: '-이, -게, -도록' 등
- 특성
 - 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선행절도 부사절로 볼 수 있음

4. 높임 표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 안에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인물들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다 제각각입니다. 화자는 이를 고려하여 어떤 인물을 높여서 표현하거나 낮춰서 표현합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높임 표현은 문장의 종결 어미나, 선어말 어미, 조사, 특수한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되며, 높이고 낮추는 대상이 누구이냐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뉩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발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말을 하는 화자와 이를 듣는 청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화자의 말 속에는 주체와 객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주체**는 어떤 문장이 기술하는 행위나 상태 등의 주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객체**는 어떤 문장이 기술하는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진기로 영희를 찍어." 라고 한다면, 철수는 사진을 찍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고, 영희는 그러한 행위가 미치는 대상인 객체가 됩니다.

주체 높임은 화자가 주체를, 객체 높임은 화자가 객체를, 상대 높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는 높임 표현입니다.

주체는 보통 문장에서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되고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됩니다.

이제 각각의 높임 표현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주체와 주어

주체 높임에서 주체와 주어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를 정리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주어는 앞에서 배운 문장 성분 차원의 개념을 말하고, 주체는 문장의 어떤 행위나 상태의 주가 되는 존재라는 개념을 말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체는 주어라 되기 때문에 많은 서적에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바로 뒤이어 배우겠지만 '-시-'는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위 문장들에서는 이러한 '-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종의 서술절을 안은 문장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얼핏 보면 '-시-'가 그 서술절의 주어인 '귀'를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를 사용한 것은 '귀'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되는 '할머니'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즉 귀가 밝은 상태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 높여야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죠. 따라서 위 문장에서 '할머니'는 전체 문장의 주어와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귀'는 서술절의 주어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체는 될 수 없습니다.

위 문장은 간접 높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간접 높임일 때 주체와 주어의 구분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문법 개론서들을 살펴본 결과 높임 표현에서 주체와 주어를 적극적으로 따져가며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와 주체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기도 했고 아예 주체를 '주어의 지시 대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 (나) 문장과 같은 간접 높임에서도 위에서 한 설명과 달리 '귀', '말씀'을 주체로 설명한 책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검토를 해 가면서 제가 한 생각은 '주어'와 '주체'라는 개념이 물론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높임 표현에서 굳이 이를 엄밀하게 따져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수준에서 보는 개론서들에서도 주어와 주체를 엄밀하게 따져서 살펴보지 않는데, 중고등학교 수준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살펴본 모의고사들에서도 이를 구분하게 하거나 이들 개념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거나, 이들 개념의 구분이 필요한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이러한 설명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저자의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공부하면서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위에서 한 설명으로 어느 정도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뒤이어 높임 표현에 대해 설명을 할텐데 주체와 주어를 그냥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주체 높임

- 정의: 문장의 주체(일반적으로 주어라 됨)를 높이는 것
- 상황: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 실현 방법
 -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 ② 주격 조사 '께서'
 - ③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것으로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사용됩니다.

주체 높임은 화자와 주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화자가 생각했을 때 주체가 자신보다 상위자라고 여기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체 높임은 기본적으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주격 조사 '께서'**가 쓰이기도 하죠.

- 화자 : 아들
 - (가) 아버지가 오신다.
 - (나) 아버지께서 오신다.

화자는 아들이고 주체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¹(가)에서는 '-시-'를 통해 아버지를 높이고 있고, (나)에서는 '-시-'와 함께 '께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체 높임은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주체 높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를 ²특수 어휘에 의한 높임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휘로는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편찮으시다'** 등이 있습니다.

- (나) 아버지가 방에서 주무신다.
- (나) 동생이 방에서 잔다.

- (나) 할아버지께서 저녁을 잡수신다.
- (나) 철수가 저녁을 먹는다.

(가), (나)는 모두 주체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서술어에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체 높임이 필요없는 (가), (나)와 비교해보면 특수 어휘가 주체 높임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접 높임

주체 높임법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지만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대상인 '신체 부분, 생활의 필수적 조건이 되는 사물, 가족, 생각' 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 (가) 할아버지는 흰머리가 많으시다.
- (나) 아버지는 귀가 크시다.

여기서 '흰머리', '귀'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장의 전체 주체인 '할아버지',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가 사용되었습니다.

1) 주체 높임에서 '-시-'는 필수적으로 여겨집니다. '께서'는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딱듯이 높여야 할 대상이라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2) 이들 특수 어휘는 선어말 어미 '-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를 따로 분석하지는 않고 하나의 단어로 굳어졌다고 봅니다.

2) '-세요'는 해요체의 '-어요'에 '-시-'가 붙은 말입니다.

이러한 간접 높임이 일상 생활에서 과도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 ㉡ 화장실은 이쪽이세요.

아마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사용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위 문장에서 '커피'나 '화장실'은 높임의 대상인 고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고객을 대우한다는 생각에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표현의 의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과도한 간접 높임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의 쓰임이 되기에, 높여야 할 대상을 잘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서술어로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할아버지가 허리가 편찮으시다.
- ㉣ 할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

간접 높임일 때에는 '편찮으시다'가 아닌 '아프시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청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주체 높임

주체 높임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주체를 고려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나 화자와 주체 이외에 청자가 개입되어서 높임 표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체 높임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체가 화자보다 상위자여서 분명 주체 높임을 써야 하는 상황이지만 청자가 주체보다 상위자일 때는 주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화자(아들) < 주체(아버지) < 청자(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직 안 왔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여 '아버지께서', '안 오셨습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자인 할아버지는 주체인 아버지보다도 높은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를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압존법은 서열이 분명한 군대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압존법을 지키지 않고 화자인 자신보다 높다면 청자와 관련없이 '-시-'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용한 경우

압존법과는 반대로 주체 높임 표현을 쓰지 않아야 하지만 청자를 고려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자(A의 아들) < 화자(A의 친한 직장 동료) < 주체(A)

아버지 집에 들어오셨니?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와 화자는 친한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자가 A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체 높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청자인 A의 아들을 존중해서 A의 아들 입장에서는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높여서 표현한 것으로 동시에 A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각별한 관심과 아끼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2) 객체 높임

- 정의: 문장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
- 상황: 객체가 화자나 주체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 실현 방법
 - ① 특수 어휘 '드리다, 모시다, 뵙다' 등
 - ② 조사 '께'

객체 높임은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문장의 객체가 화자나 주체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사용됩니다.

주체 높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화자와 주체만을 고려하면 되기에 복잡하지는 않지만 객체 높임의 경우 화자, 객체, 주체를 고려해야 해서 조금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객체/주체

①	2	3	1	동생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렸다.
②	2	3	2	친구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다.
③	2	3	3	아버지의 친구분이 {아버지께/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렸다/주셨다}.
④	2	3	4	할아버지가 {아버지께/아버지에게} 선물을 {드렸다/주셨다}.

위의 숫자는 높고 낮음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밝혔지만 객체 높임은 본래 객체가 화자나 주체보다 상위자여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①, ②는 객체 높임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③, ④의 경우는 원칙대로라면 객체 높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화자 자신을 기준으로 주체와 객체가 모두 상위자라면 그냥 객체 높임을 사용한 문장도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입니다. 따라서 ③, ④에서 객체 높임이 사용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언어 변화의 한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압존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드리다, 뵙다' 등의 특수 어휘를 통해 드러납니다. 또한

3) 바로 옆에서 다른 [더 알아보기]의 내용이나 여기서 다루고 있는 객체 높임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와 같은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객체 높임에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질 필요 없이 간단한 관계의 객체 높임이 나올 확률이 높죠. 여기서는 혹시나 학생분들이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헛갈려 할까봐 미리 따져 볼만한 경우의 수를 제시를 했습니다. :)

부사격 조사 '께'가 사용되기도 하죠.

- (㉠)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데리고} 학교에 갔다.
- (㉡)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주었다}.
- (㉢) 나는 선생님을 {뵈고/*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는 목적어로 나타난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는 부사어로 나타난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드리다'라는 특수 어휘와 조사 '께'를 사용했습니다. (㉢)는 목적어로 나타난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3)상대 높임

- 정의: 청자를 높이는 것
- 실현 방법
 - ①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

상대 높임은 말을 듣는 상대, 곧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데, 어떤 종결 어미가 결합되느냐에 따라 상대 높임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종결 어미는 앞에서 다뤘었죠? 그 표를 다시 볼까요?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오체 (예사 높임)	하계체 (예사 낮춤)	해라체 (아주 낮춤)	해체 (두루 낮춤)	해요체 (두루 높임)
평서형	-습니다/ -습니다	-(으)오	-네	-(ㄴ/는)다	-어/아	-어요/아요
의문형	-습니까/ -습니까	-(으)오	-(느)ㄴ가	-(느)냐/ -(으)니	-어/아	-어요/아요
명령형	-(으)십시오	-(으)오	-게	-어라/아라	-어/아	-어요/아요
청유형	[-(으)시지요]	-(으)십시오	-세	-자	-어/아	-어요/아요
감탄형	-	-(는)구려	-(는)구먼	-(는)구나	-어/아	-어요/아요

4)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혼합하여 높임 단계를 설정하면 '하십시오체 > 하오체 > 하계체 > 해체 > 해라체'가 됩니다. ⁴높임의 등급은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격식체는 '하십시오체~해라체'로 공식적이고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비격식체는 '해체, 해요체'로 사적이고 청자와 가까운 상황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이제 각 등급에 대해 살펴볼까요?

해라체는 가장 낮은 등급의 상대 높임으로 청자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일 때 쓰입니다.

- (㉠) 너 지금 뭐 먹니?
- (㉡) 철수야, 빨리 집에 가자.

해라체 평서문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이때 해라체가 독자를 낮추기 위해 쓰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상대 높임 등급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계체는 청자가 자기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일 때 쓰이지만, 그 사람을 어느정도 존중하고 대우해주는 등급의 상대 높임입니다. 하계체는 과거에 친구들 사이에도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말투를 보기 어렵습니다. 교수가 제자에게 혹은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말할 때나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계체는 화자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그 쓰임이 자연스럽습니다. 40대 이하의 사람들이 하계체를 쓰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죠.

하오체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존중하는 등급이지만 하계체보다 좀 더 상대방을 높이 대우하면서 말하거나 격식적 예의를 지키며 말할 때 쓰입니다. 하오체도 하계체와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하오체가 쓰일 자리에 해요체가 쓰이게 되었죠.

하오체 청유형 어미로 '-(으)십시오'를 설정했는데, 이는 형태만 봐서는 하십시오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 하십시오체의 청자가 아니라 하오체의 청자에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선생님, 산책이나 갑시다.
- (㉡) 여보, 우리 산책이나 갑시다.

(㉠)처럼 말하는 학생 친구는 없겠죠? ㅎㅎ 이런 모습에서 '-(으)십시오'가 하십시오체가 아니라 하오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체는 청자를 가장 높이는 등급으로, 청자가 자신보다 상위자일 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십시오체에서는 청유형으로 '-(으)시지요'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하십시오체의 어미와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점에서 []괄호를 표시했습니다.

하십시오체는 아래와 같이 연설문이나, TV, 라디오 등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보다 더 격식을 차려 학생을 대하고자 할 때도 하십시오체가 쓰일 수 있습니다.

- (㉠)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개학날입니다.
- (㉡) 이번 달부터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 (㉢) 자 그럼 지금부터 10페이지를 볼까요?
- (㉣) 자 그럼 지금부터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해체는 반말체라고도 불리는데 상대를 두루 낮추는 데 쓰이는 등급입니다. 비격식적 상황에서 쓰이므로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상위자에게 쓰기도 합니다.

해요체는 해체에 '요'를 붙인 것으로 상대를 두루 높이는 데 쓰이는 등급입니다. 해체와 마찬가지로 상대에게 거리를 두지 않고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대할 때 쓰입니다.

해체와 해요체의 어미는 형태가 같은데, 억양에 따라 문장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시-'가 결합되면 '-셔', '-셔요, -세요'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높임 표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높임 표현은 나이나 지위 등에 따라 높이거나 낮춰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규범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높임 표현이 그러한 조건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가 작용하거나 화자와 대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와 지위가 비슷함에도 친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거리를 두고 싶을 때 높임 표현을 깎듯하게 쓰기도 하고 반대로 나이와 지위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친분이 두터우면 높임 표현을 쓰지 않기도 하죠. 이처럼 높임 표현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한눈에 보기

높임 표현

주체 높임

- 정의: 문장의 주체(일반적으로 주어가 됨)를 높이는 것
- 상황: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 실현 방법
 - 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 ② 주격 조사 '께서'
 - ③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

간접 높임

높임의 대상은 아니지만 높임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대상인 '신체 부분, 생활의 필수적 조건이 되는 사물, 가족, 생각' 등을 높여서 결과적으로는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객체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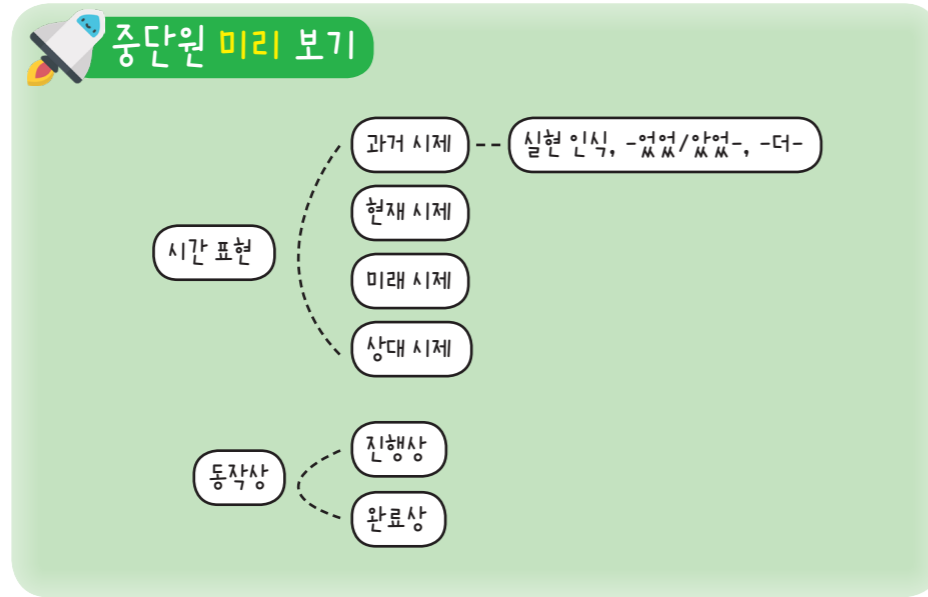
- 정의: 문장의 객체(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것
- 상황: 객체가 화자나 주체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을 때
- 실현 방법
 - ① 특수 어휘 '드리다, 모시다, 뵙다' 등
 - ② 조사 '께'

상대 높임

- 정의: 청자를 높이는 것
- 실현 방법
 - ①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오체 (여사 높임)	하계체 (여사 낮춤)	하라체 (아주 낮춤)	해체 (두루 낮춤)	해요체 (두루 높임)
평서형	-받니다/ -습니다	-(으)오	-네	-(ㄴ/는)다	-어/아	-어요/아요
의문형	-받니까/ -습니까	-(으)오	-(느)는가	-(느)냐/ -(으)니	-어/아	-어요/아요
명령형	-(으)십시오	-(으)오	-계	-어라/아라	-어/아	-어요/아요
청유형	[-(으)시지요]	-(으)비시다	-세	-자	-어/아	-어요/아요
감탄형	-	-(는)구려	-(는)구먼	-(는)구나	-어/아	-어요/아요

5. 시간 표현과 동작상



1) 시간 표현

(1) 시간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란 연속적인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죠. 다만 사람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구분하여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표현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눠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제**라고 합니다.

시간 표현에 있어서 발화시와 사건시라는 개념을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발화시는 어떤 문장을 화자가 말한 시점입니다. 흔히 발화시를 **1현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입 밖으로 문장을 내뱉는 그 순간은 현재가 될 수 밖에 없죠.

한편 문장은 서술어를 통해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 상태 등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을 **사건시**라고 합니다.

발화시와 사건시를 예문을 통해 확인해볼까요?

철수는 어제 영화와 만났습니다.

이 문장을 누가 발화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철수와 영희가 만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화시는 이 문장을 말했다 당시의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사건시

가 일어난 시간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제'라는 표현을 통해 발화시보다 전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에는 발화시와 사건시와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언제 위치하느냐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위 문장과 같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제를 말합니다.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후행하는 시제를 말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를 보세요. 선행하는지, 일치하는지 아니면 후행하는지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제입니다. 주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았-'을 통해 실현됩니다.

(가) 철수는 어제 공원에 갔다.

철수가 공원에 간 사건이 과거의 일임을 '-었/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라는 표현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네요.

관형사형 어미 '-(으)ㄴ', ²'-던', '-었던'으로도 과거가 나타나는데, 형용사의 경우 '-(으)ㄴ'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냅니다.

실현 인식

'-었/았-'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지만, 특이한 경우 과거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나) (숙제를 하나도 안 한 친구에게) 너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났다.

여기서 '혼났다'에는 '-았/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한테 혼나는 사

2) '-던'은 동사에 쓰이면 과거에 진행되던 일이 완료되지 않고 중단되었다는 미완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가) 어제 먹은 빵이 어디 있니?

(나) 어제 먹던 빵이 어디 있니?

'-(으)ㄴ'이 쓰이면 동작이 다 끝났다는 완료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가)에서는 이미 남아 있는 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반면 (나)에서는 조금 먹다가 남아 있는 빵이 있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2) 실현 인식을 다르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발화시를 현재에 두지 말고 시간이 더 지난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이동시키면 혼나는 사건은 과거의 일이 되어 '-었/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그 사건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넌 분명 혼나게 될 거야."라는 심리로 인해서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미래 시점에서 봤을 때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3) '-었/았-'에서 드러나는 단절감이나 상황 변화가 (㉠), (㉡), (㉢)처럼 시간적으로 발화시와 멀리 떨어진 과거 사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단절감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제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와 같은 문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미래 시제를 써야 하는 상황에 '-았/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었/았-'의 쓰임은 화자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할 때 쓰입니다. 위 문장에서 화자는 친구가 숙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날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았/었-'의 쓰임을 ²'**실현 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 -었/았-

과거를 표현할 때 '**-었/았-**'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과거의 의미 외에도 **현재와 과거 사건과의 단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절감'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현재와 확연하게 떨어져 있는 과거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 과거의 일이구나~!'하는 심리적 태도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떤 사건이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³아래 문장을 볼까요?

- (㉠) 작년에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었었다.
- (㉡) 중학생 때 내 꿈은 과학자였었다.
- (㉢) 할아버지는 5년 전에 무척 건강하셨었다.

위에는 모두 '-었/았-'이 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의 의미도 드러나지만 각각의 사건과 현재의 상황이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함축하기도 합니다. 현재와 과거가 다를 때 과거의 사건에 대해 단절감이 더 잘 느껴지기 때문이죠. 즉, (㉠)에서는 작년에는 가뭄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에서는 이제는 꿈이 과학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었고, (㉢)에서는 현재 할아버지는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가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었/았-'이 언제나 이러한 상황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 (㉣) 어제 우리 집에 친구가 왔었다.
→ 지금은 친구가 집에 없다.
→ 지금도 친구가 집에 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었/았-'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냥 단절감을 드러내고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장에 '-었/았-'을 굳이 썼다는 점에서 '지금은 집에 없다.'라는 상황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었/았-'은 **과거 사건과의 단절감** 그리고 **상황 변화**를 의미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입니다.

I -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더-**'를 듣기도 합니다. 흔히 **회상의 선어말 어미**라고 하죠. 왜 회상의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지 살펴 볼까요?

- (㉤) 어제 보니까 철수가 열심히 공부하더라.

위 문장의 화자를 영수라고 해 봅시다. 영수는 어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매번 놀기만 하던 철수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영수는 자신의 경험을 회

상하여 지금 말하는 상황에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더-'를 회상의 선어말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자가 직접 경험하여 지각한 일**을 회상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지각한 일은 대부분 **화자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더-'는 **화자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회상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를 보면 뭔가 하나 더 있죠? 경험시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화자가 어떠한 일을 경험한 시간, 즉 문장에서 말하는 새로 알게 된 내용을 지각하게 된 시간을 말합니다. 위 문장에서는 철수가 공부하는 것을 본 시간을 말하죠.

'-더-'가 사용된 문장을 경험시와 사건시, 발화시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와 '-었-'이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경험했을 당시의 과거의 일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당을 나가 봤을 때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이미 떨어져 땅에 굴러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죠.

경험 당시의 현재는 처음에 살펴본 '철수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라'에 해당됩니다. 위의 '-었-'이 함께 쓰인 문장과는 차이가 있죠.

이처럼 '-더-'는 과거에 인식한 일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사건이 과거의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 당시의 현재라고는 해도 어찌되었든 발화하는 현재보다는 과거의 일이니까요. 그런데 '-더-'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일기 예보를 본 것은 분명 과거입니다. 그런데 문장에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은 미래입니다. '내일'이라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미래의 일에 대해서도 '-더-'가 쓰일 수 있는 것은 '-더-'가 표현하는 과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위치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화자가 인식한 시간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그런 그림을 보면 사건시는 위치가 조금씩 다르지만 경험시는 모두 과거라

'-더-'는 비교적 최근에도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8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되었죠. 주로 제약과 관련된 내용을 물었지만 앞에서 본 '경험 당시의 미래'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제 부분에서는 '-었/었'과 '-더-'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쪽 부분을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

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더-'가 가지고 있는 제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화자가 경험한 것이어야 함

'-더-'는 원칙적으로 화자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겨울의 동해 바다는 참 아름답더라.

위 문장은 겨울에 동해 바다를 가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 동해 바다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봤다면 '-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두 눈으로 지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가 사용되었습니다.

(㉡) 지구는 둥글더라.

② 기본적으로 1인칭 주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더-'는 화자가 경험하여 새롭게 인식한 일에 대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1인칭 주어에는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일을 관찰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 내가 어제 학교에 갔더라.

위와 같이 1인칭 주어가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가 1인칭이라도 자신 객관화시켜 제 3자의 행동처럼 관찰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꿈에서 보니까, 내가 공부를 다 하더라?

여기서는 꿈 속에서의 일을 말하는 데,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자기의 심리나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리나 감각은 자신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

(㉥) *철수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더라.

(㉤)처럼 자신의 심리에 대해 '-더-'를 쓰는 것은 가능하나 (㉥)처럼 다른 사람의 심리에 대해 '-더-'를 쓰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3)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말합니다. 주로 '-는/ㄴ-'으로 실현됩니다.

(㉦) 나는 지금 문법의 정수로 공부를 한다.

(㉧) 오늘은 하늘이 매우 푸르다.

(㉨) 철수는 우리 반 국어 반장이다.

동사의 경우 (㉦)처럼 '-는/ㄴ-'이 쓰여 현재를 표현합니다. ⁴그러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의 경우 아무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음으로써 현재를 표현합니다.

4) 관점에 따라 영형태소로 실현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즉 어떤 형태소가 영형태소는 없지만 의미는 있는 상태로 실현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 내기도 하죠. 여기서 영형태소보다는 그냥 실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겠습니다.

한편 '-는/ㄴ-'이 쓰였지만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 나는 내일 출발한다.

(㉪) 지구는 태양을 돈다.

(㉩)의 경우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는 데 '-는/ㄴ-'이 사용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라기보다는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는 시제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때에도 '-는/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는'으로 현재가 나타나며, 형용사의 경우 '-(으)ㄴ-'이 현재를 나타냅니다.

(4)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후행하는 시제를 말합니다. ⁵주로 '-겠-'으로 실현됩니다.

(㉫)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 다음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으)ㄴ'이라는 구성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 다음주에 다시 올 것입니다.

⁶'-겠-'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지만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합니다.

(㉯) 추측 : 내일이면 고양이가 놀러 오겠다.

(㉺) 의지 : 나는 꼭 과학자가 되겠다.

(㉻) 가능성 : 그 정도 무게는 나도 들겠다.

위와 같이 '-겠-'은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화자의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겠-'이 미래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어제는 참 재미있었겠다.

(㉽) 지금쯤 도로에는 차가 참 많겠다.

여기서 '-겠-'은 과거와 현재의 사건에 쓰였습니다. 이때는 '-겠-'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측'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래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ㄴ'이 있습니다.

(5)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

시제는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나누기도 합니다. 절대 시제는 위에서 다룬 것처럼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 시제를 말합니다. 반면에 **상대 시제**는 이어진 문장이나 안은 문장에서 선행절이나 안긴절의 시제를 이야기 할 때 유용한 개념으로 **주문장(이어진 문장의 후행절, 안은 문장의 안은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제**를 말합니다.

(㉾) 나는 빵을 먹는 사람을 본다.

5) '-리-'를 통해 미래 시제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어미와만 결합하고 다소 옛스러운 표현으로 현대 국어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6) 미래 시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표현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추측이나 의지, 가능성 등의 의미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겠-'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미래 시제의 의미와 주관적 태도가 함께 드러나죠. 물론 '곧 교장 선생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와 같이 순수하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시제와 주관적 태도의 두 가지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리-', '-(으)ㄴ'도 마찬가지입니다.

(ㄷ) 나는 빵을 먹는 사람을 보았다.

위 문장은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입니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인 '보다'의 시제를 보면 (ㄷ)는 현재, (ㄷ)는 과거가 됩니다. 즉 절대 시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관형사절의 시제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 시제로 보면 (ㄷ)는 현재 그 시점에 빵을 먹는 사람을 보는 것이므로 현재가 됩니다. (ㄷ)는 과거에 빵을 먹는 사람을 본 것이므로 과거가 됩니다.

상대 시제로 보면 어떨까요? 상대 시제는 주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ㄷ)에서 누군가를 보고 있는 사건은 빵을 먹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므로 상대 시제 현재를 나타냅니다. (ㄷ)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누군가를 보고 빵을 먹는 사건이 발화시를 기준으로 과거에 일어났을 뿐이죠.

★ 선행절이나 안긴절의 사건시
★ 주절의 사건시



(ㄷ)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ㅎㅎ 또 다른 예를 살펴볼까요??

나는 어제 이미 사과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았다.

절대 시제로 보면 주절의 사건시나 안긴절의 사건시 모두 과거입니다. 상대 시제로 보면 사과를 보는 시점에서 사과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긴절은 상대 시제 과거가 됩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상대 시제는 절대 시제와 그 기준이 다르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동작상

시간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시간 표현과 더불어 **동작상**이 있습니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시간 표현은 단순히 어떤 사건의 한 순간을, 기본적으로는 발생 시점을 발화시와의 비교로 과거, 현재, 미래를 따졌다면 동작상은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따져 봅니다. 동작이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작이 어느 순간 시작되어서 끝났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죠. 아래 문장을 볼까요?

(ㄱ) 철수가 의자에 앉고 있다.
(ㄴ) 철수가 의자에 앉아 있다.

(ㄱ)에서는 철수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물론 '앉다'와 같이 동작이 금방 끝나는 동사가 오면 동작의 진행이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다리를 다친 철수가 힘겹게 의자에 앉고 있다.'라고 하면 동작의 진행이 잘 드러납니다.

반면 (ㄴ)에서는 이러한 모습보다는 이미 앉은 동작을 마치고 앉아서 편하게 쉬고 있는 철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ㄱ)처럼 **동작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진행상**이라고 하고 (ㄴ)처럼 **동작의 끝났거나 그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는 모습을 완료상**이라고 합니다. 실제 문장을 보니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이러한 동작상은 주로 보조 용언과 연결 어미로 드러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행상	보조 용언	-고 있다	-철수가 밥을 먹고 있다.
		-아/어 오다	-날이 밝아 오다.
		-아/어 가다	-그디어 문법의 정수를 다 읽어 간다.
	연결 어미	-(으)면서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완료상	보조 용언	-어/아 버리다	-철수가 밥을 다 먹어 버렸다.
		-어/아 내다	-조현우 선수는 독일의 공격을 다 막아 내었다.
		-어/아 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연결 어미	-고서	-나는 아침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앞에서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것처럼 위 문장들도 하나씩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으)면서'가 쓰인 문장을 보면 선행절의 동작이 진행되면서 대답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반면 '-고서'가 쓰인 문장을 보면 선행절의 동작이 다 끝난 이후에 학교에 가는 모습이 그려지죠.

한편 같은 형태가 진행상과 완료상 모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ㄷ) 영희는 청바지를 입고 있다.
 ① 영희는 청바지를 입은 중이다. (진행)
 ② 영희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고 있다. (완료)

'-고 있다'는 위에서처럼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영희가 지금 청바지에 다리를 넣으면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반면 완료상의 경우에는 그러한 입는 동작이 다 끝나고 청바지를 완전히 입은 상태에서 돌아 다니는 모습이 드러나죠.

7) '앉아 있다'의 경우 앉은 동작이 끝난 후 철수가 계속 의자에 앉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완료상에서는 이렇게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는 중이다'와 같은 의존 명사가 쓰인 구성도 진행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시제와 동작상

시제와 동작상은 시간과 관련된 문법 범주라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료상은 그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진행상은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은 동작상의 측면에서 보면 진행상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ㄱ) 철수가 밥을 먹는다.

위 문장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금 철수가 밥을 먹고 있다는 진행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ㄴ) 영희는 벌써 학교에 갔다.

(ㄴ)은 시제로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동작의 모습으로는 완료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제와 동작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었/았-'의 사용 양상을 몇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엄마를 닮았다.

㉡사과가 빨갭게 익었다.

위 문장들에서는 '-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들이 과거를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엄마를 닮은 것은 지금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사과가 빨갭게 익었다는 것은 지금 눈 앞의 사과가 빨갭게 익어 있는 것이니까요. "와! 사과가 참 빨갭게 잘 익었다!"라고 할 때 과거에 사과가 익었다는 의미로 말을 하지는 않죠. 이러한 문장들은 현재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었/았-'은 시제보다는 완료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엄마를 닮거나 빨갭게 익는 어떤 사건이 완료된 이후에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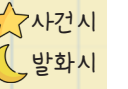


한눈에 보기

시간 표현

- **시제**: 시간을 인위적으로 나눠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
- **발화시**: 어떤 문장을 화자가 말한 시점, 곧 현재
- **사건시**: 문장에서 말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과거 시제 ■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제



실현 인식 화자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할 때 쓰임
ex) 너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혼났다.

-었었/았었- 과거 사건과의 단절감 + 상황 변화
ex) 작년에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었었다.

-더- 화자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회상하여 전달하는 기능
ex) 작년에 전국적으로 큰 가뭄이 들었었다.

제약

① 원칙적으로 화자가 경험한 것이어야 함

-그러나 실제 두 눈으로 지각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가 사용될 수 있음
ex) 지구는 둥글더라

② 기본적으로 1인칭 주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그러나 주어가 1인칭이라도 자신 객관화시켜 제3자의 행동처럼 관찰하여 표현하는 경우에는 1인칭 주어가 사용될 수 있음
ex) 꿈에서 보니까, 내가 공부를 다 하더라?
-자기의 심리나 감각을 나타내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1인칭 주어만 사용될 수 있음
ex) 잠을 푹 자고 일어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더라.

'-더-'가 표현하는 과거는 화자가 인식한 시간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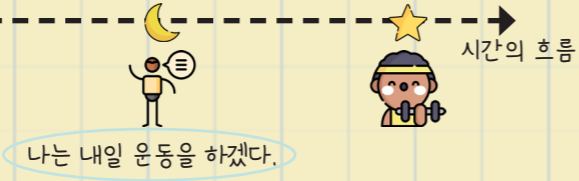
현재 시제 ■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
■ 가까운 미래나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할 때 '-는/--'이 쓰이기도 함



미래 시제

- 사건시와 발화시보다 후행하는 시제
- 화자의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함
ex) 내일이면 고양이가 놀러 오겠다.(추측)
나는 꼭 과학자가 되겠다.(의지)
그 정도 무게는 나도 들겠다.(가능성)

미래 시제



상대 시제

- 이어진 문장이나 안은 문장에서 선행절이나 안긴절의 시제를 이야기 할 때 유용한 개념으로 주문장(이어진 문장의 후행절, 안은 문장의 안은절)의 사건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제

동작상

-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

진행상

- 동작이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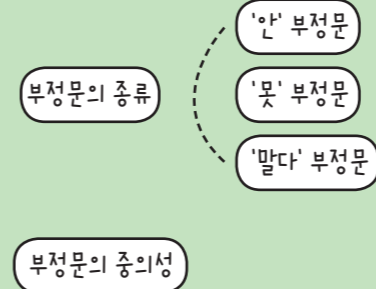
완료상

- 동작이 끝났거나 그 동작의 결과가 지속되는 모습

진행상	보조 용언	-고 있다	-철수가 밥을 먹고 있다.
		-아/어 오다	-날이 밝아 오다.
		-아/어 가다	-그디어 문법의 정수를 다 읽어 간다.
	연결 어미	-(으)면서	-그녀는 얼굴에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하였다.
완료상	보조 용언	-어/아 버리다	-철수가 밥을 다 먹어 버렸다.
		-어/아 내다	-조현우 선수는 독일의 공격을 다 막아 내었다.
		-어/아 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연결 어미	-고서	-나는 아침을 먹고서 학교에 갔다.

6. 부정 표현

중단원 미리 보기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ㅎㅎ 힘들겠지만 이제 문장 파트도 거의 끝나갑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부정 표현입니다. 높임 표현이나 시간 표현 못지 않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바로 부정 표현이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가볼까요?

1) 부정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정 표현은 부정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부정문**이란 **부정 요소**를 사용하여 문장이 서술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문장입니다.

부정 요소에는 부정 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않다(아니하다)', '못하다', '말다'가 있습니다.

철수는 학교에 갔다.



철수는 학교에 **안** 갔다. /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철수는 학교에 **못** 갔다. / 철수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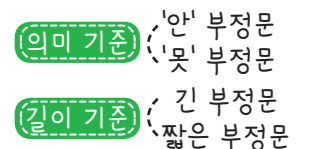
철수야, 학교에 가지 **마**라.

위에서는 '철수가 학교에 갔다'라는 문장을 부정하기 위해 다양한 부정 요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문은 기준에 따라 하위 부류로 나뉘기도 합니다.

먼저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안'과 '못'으로 만들어진 부정문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한편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긴 부정문**과 **짧은 부정문**으로 나뉩니다. 긴 부정문은 부정 용언 '않다', '못하다', '말다'를 통해 형성되는 부정문을 말합니다. 반대로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 '안', '못'을 통해 형성되는 부정문입니다. 각각의 부정 요소로 이



루어진 부정문을 보면 상대적으로 부정 용언으로 형성된 부정문의 형식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하위 부류인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그리고 다소 제한된 환경에서 나타나는 '말다' 부정문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부정문의 범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없다, 모르다' 등과 같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부정문이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부정문을 '안', '못', '없다', '못하다', '말다'가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문은 형식적으로 앞서 말한 부정 요소가 사용되어 형성되는 문법 범주를 말하는데, '없다, 모르다'의 경우에는 학교 문법에서 부정 요소로 취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용된 문장을 부정 표현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부정문이라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非)-, 불(不)-' 등과 같은 접두사가 쓰인 단어들로 형성된 문장도 부정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없다, 모르다'의 경우 부정문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 문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알아두세요. 혹시라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

2) 부정문의 종류

(1)'안' 부정문

'안' 부정문은 동작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의지 부정과 의지나 의도와는 관련없이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실을 부정하는 단순 부정이 있습니다.

(㉞) 나는 밥을 안 먹었다.

위 문장은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 둘 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지 부정으로 해석해 볼까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내가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고기 반찬은 하나도 없고 콩밥에, 나물들에 죄다 싫어하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맛도 떨어지고 밥이 먹기가 너무 싫어서 밥을 먹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동작 주체인 '나'는 자신의 의지대로 밥을 먹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안' 부정문을 의지 부정이라고 합니다. 위 상황에 공감이 되시나요? ㅎㅎ

반면 이러한 의지나 의도 없이 그냥 단순히 밥을 먹는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만 말한다고 볼까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먹든 먹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밥을 먹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밥을 먹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장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것을 단순 부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을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 나눠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정문 - 안/않다(아니하다)	
	의지 부정	단순 부정
동사	가능	가능
형용사	불가능 -*그림이 안 예쁘다.	가능

동사는 주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철수는 밥을 안 먹는다.'처럼 하나의 문장이 의지 부정과 단순 부정 모두로 해석될 수 있죠.

반면 형용사는 의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지 부정은 불가능합니다. 단순 부정만 가능하죠. '그림이 안 예쁘다.'는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 부정문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러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I '안' 부정문의 제약

①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서술어가 동사라고 할지라도 주어가 의도나 의지를 가질 수 없는 무정물이라면 의지 부정은 불가능하고 단순 부정만 가능합니다.

- (㉞) 못이 벽에 들어가지 않는다.
- (㉞) 비가 오지 않는다.

'못'이나 '비'는 무정물로 의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부정으로만 해석됩니다.

② 인지 동사 -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등

인지나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안' 부정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동사들은 동작 주체의 의도나 의지가 아니라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㉞) 나는 그 사실을 *{안 알아/알지 않아}.

이렇게 '안' 부정문을 쓰면 비문이 됩니다. 의지 부정뿐 아니라 단순 부정도 어색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 동사들은 뒤에서 배울 '못' 부정문으로는 문장이 성립됩니다. 능력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을 수는 없고 다만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㉞)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이와 비슷한 이유로 '견디다'도 '안' 부정문이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화자의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 (㉞) *나는 그것을 견디지 않아.
- (㉞) 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1) 서술격 조사가 쓰인 '체언+이다'의 경우 '안' 부정문뿐만 아니라 '못' 부정문도 만들 수 없으므로 여기서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대신 '아니다'를 통해서 문장을 부정합니다.

(2)'못' 부정문

2) 능력의 경우는 동작 주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에서처럼 외부 상황에 의한 것은 능력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부 상황에 의한 것도 능력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못' 부정문은 동작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거나 ²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합니다.

- (㉠) 나는 철봉에 오래 못 매달린다..
- (㉡) 철수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림을 다 그리지 못했다.

(㉠)의 경우는 '나'가 근력이 부족해서 철봉에 오래 매달릴 수 없고, (㉡)에서는 시간이 부족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그림을 다 그릴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못' 부정문은 능력의 부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능력 부정**이라고 합니다.

'못' 부정문도 '안' 부정문처럼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나뉘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못' 부정문 - 못/못하다	
능력 부정	
동사	가능
형용사	불가능 -*길이 못 넓다. --> 다만 긴 부정문으로 쓰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란 의미로 성립가능

동사에서는 '못' 부정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용사일 때는 '못' 부정문이 불가능합니다. 형용사가 나타내는 성질이나 상태는 능력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3) 이렇게 긴 부정문 형식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는 보통 '넉넉하다, 우수하다, 만족하다, 풍부하다, 넓다, 크다, 좋다' 등의 상대적으로 긍정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³그런데 긴 부정문으로 나타내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능력 부정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 공사를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막상 와 보니 길이 넓지 못하네.

이렇게 어떤 바람직한 상황을 기대했는데 그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못하다'를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다른 제약을 살펴보겠습니다.

I '못' 부정문의 제약

①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주어가 능력을 가질 수 없는 무정물의 경우에는 '못' 부정문이 불가능합니다.

- (㉣) 돌이 *{못 움직인다/움직이지 못한다}.

② 실패하다, 후회하다, 망하다, 걱정하다, 굶주리다, 고민하다 등

능력 부정의 경우 보통 동작 주체가 어떤 동작을 하려는 의도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줄을 넘지 못했다'라고 하면 줄을 넘으려는 의지, 의도는 가지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 여건으로 인해 못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못' 부정문에서 동작 주체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행위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⁴이런 이유로 인해 서술어에 바랄 만한 성질의 일이 아니면 '못' 부정문이 쓰일 수 없습니다.

- (㉤) *나는 그 사업에 실패하지 못했다.

4) 이를 '능력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패하고 후회하고 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능력만 되면 언제든 피하고 싶은 상황이니깐요.

위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가 사업에서 일부로 실패하려고 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고 억지로 맥락을 조성할 때만 가능하죠. 함께 제시된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바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서술어로 쓰였을 때 '못' 부정문을 쓰면 의미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③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못' 부정문은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인 '-려고, -고자, -싶다' 등의 말에는 쓰일 수 없습니다. 의도를 나타낼 때에는 그런 의도를 부정하는 '안' 부정문을 써야 하죠.

- (㉥) *철수는 집에 가지 못하려 한다 / 철수는 집에 가지 않으려 한다.
- (㉦) *영희는 밥을 먹지 못하고자 했다. / 영희는 밥을 먹지 않고자 했다.
- (㉧) *나는 공원에 못 놀러가고 싶다. / 나는 공원에 안 놀러가고 싶다.

④ 심리적 상태

화자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서술어는 화자의 능력이나 의도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못' 부정문은 불가능합니다.

- (㉨) 이제는 그 사진을 봐도 가슴이 *{못 두근거린다/두근거리지 못한다}.
- (㉩) 나는 그 일이 *{못 내킨다/내키지 못한다}.

앞에서 '안' 부정문에는 따로 설명은 안 했지만 심리적 상태의 경우도 '안' 부정문에서 쓰이면 의지 부정은 불가능하고 단순 부정만 가능하겠죠?

- (㉪) 이제는 그 사진을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
- (㉫) 나는 그 일이 내키지 않는다.

⑤ 완곡한 거절이나 강한 거부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에서 더 나아가 완곡한 거절이나 강한 거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제약과 관련되는 예는 아니지만 여기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 철수야, 내일 같이 가자. /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같이 못 갈 것 같아.

기본적으로는 '못' 부정문이 갖는 능력 부정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능력이나 외부 상황과는 별개로 일종의 사교적 표현으로 위와 같이 '못'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철수는 내일 시간도 여유가 있고,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지만 그저 내일은 쉬고 싶은 마음에 저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못'을 쓰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강한 거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 (㉭) 나 내일 너랑 절대 못 가.

위 문장에서는 능력 부정에서 더 나아가 강한 거부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의지 부정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5) '말-'에 '-아라'가 결합하면 '마라/말아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말아라'가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2015년 이후로 표준어로 인정받았습니다.

(3)'말다' 부정문

'말다' 부정문은 **긴 부정문 형식으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쓰입니다.**

- (가) 그 빵은 먹지 마라(말아라).
- (나) 오늘은 운동을 하지 말자.

'말다' 부정문은 그 사용 환경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말다' 부정문이 사용되는 예외적인 상황

① 평서문에서도 사용되는 경우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평서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이나 기원**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쓰인 평서문에서는 '말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가) 나는 네가 시험에 떨어지지 말기를 바란다.

서술어의 종결 어미만 보면 평서문입니다. 그런데도 '말다'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말다'가 전체 문장의 서술어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안긴절의 서술어로 사용되었긴 하지만요.

② 형용사에서도 사용되는 경우

앞에서도 다뤘었지만 형용사는 그 특성상 명령문과 청유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명령문과 청유문에서 사용되는 '말다'는 당연히 형용사에 사용될 수 없죠. 그러나 형용사가 사용된 경우에도 '말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가) 오늘 춤지만 말아라.

이 경우에도 명령이나 청유가 아니라 **희망이나 기원**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정문의 중의성

부정문은 부정 요소가 부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중의성을 띄기도 합니다.

- 영희가 철수에게 연필을 주지 않았다.

위 문장은 '않다'가 어떤 문장 성분을 부정하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 (가) '영희가'를 부정
철수에게 연필을 준 것은 영희가 아니었다. → 지혜가 철수에게 주었다.
- (나) '철수에게'를 부정
영희가 연필을 준 사람은 철수가 아니었다. → 영수한테 주었다.
- (다) '연필을'을 부정
영희가 철수에게 준 것은 연필이 아니었다. → 필통을 주었다.
- (라) '주다'를 부정

- 영희가 철수에게 연필로 한 것은 주는 게 아니었다. → 연필을 주지 않고 연필을 던졌다.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 '은/는'**을 부정하고자 하는 문장 성분에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문장 성분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 영희가 철수에게는 연필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위의 (라)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정하고자 하는 문장 성분을 **강제**를 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자로 적힌 글을 보는 상황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정문에 대해 살펴 봤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조금 어려워져 놀랐나요? 아니면 그냥 할 만했나요? ㅎㅎ

앞에서 여러 예외 상황들을 살펴 봤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의미적인 부분을 따져야 해서 조금 까다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단어마다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견디다'의 경우에는 인지 동사와 비슷하게 능력과 관련이 되어서 '안' 부정문이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비슷한 의미를 갖는 '참다'의 경우에는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이 모두 가능합니다.

난 이제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못 참아'라고 하면 참을 의도는 있지만 자기 성격상 그렇게 참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고, '안 참아'라고 하면 참을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참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문에서 예외적인 부분을 따지는 것은 다소 복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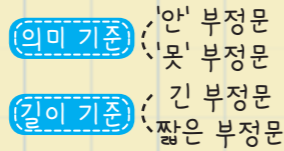
그러나 큰 걱정은 필요 없을 듯합니다~! 2020년 4월 고3 모의고사에 부정문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보다는 축소되어 나와서 아마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지문에서 참고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문법 개론서뿐 아니라 다른 개론서들을 종합해서 다룰 만한 것들을 실은 것이기에 때문에 이 정도로 다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이외의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한 범위 내일 것이고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천천히 추가적인 내용을 그 위에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눈에 보기

부정 표현

- **부정문**: 부정 요소를 사용하여 문장이 서술하는 내용을 부정하는 문장
- **부정문의 종류**



'안' 부정문

- **의지 부정**: 동작 주체의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부정
- **단순 부정**: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실을 부정

	'안' 부정문 - 안/않다(아니하다)	
	의지 부정	단순 부정
동사	가능	가능
형용사	불가능 - *그림이 안 예쁘다.	가능

'안' 부정문의 제약

- 1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 2 인지 동사 - 알다, 깨닫다, 인식하다 등

'못' 부정문

- **능력 부정**: 동작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능력이 없거나 다른 외부의 원인 때문에 그 행위를 실행할 수 없는 것

	'못' 부정문 - 못/못하다	
	능력 부정	
동사	가능	
형용사	불가능 - *길이 못 넓다. --> '기대에 미치지 못함'이란 의미로 성립가능	다만 긴 부정문으로 쓰이면

'못' 부정문의 제약

- 1 주어가 무정물인 경우
- 2 실패하다, 후회하다, 망하다, 걱정하다, 굶주리다, 고민하다 등
- 3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 - '-려고, -고자, -싶다'
- 4 심리적 상태
- 5 완곡한 거절이나 강한 거부를 나타내기도 함

'말다' 부정문

- 명령형, 청유문에서 사용되는 부정문

'말다' 부정문이 사용되는 예외적인 상황

- 1 평서문에서도 사용되는 경우
 - 2 형용사에서도 사용되는 경우
- 희망이나 기원의 의미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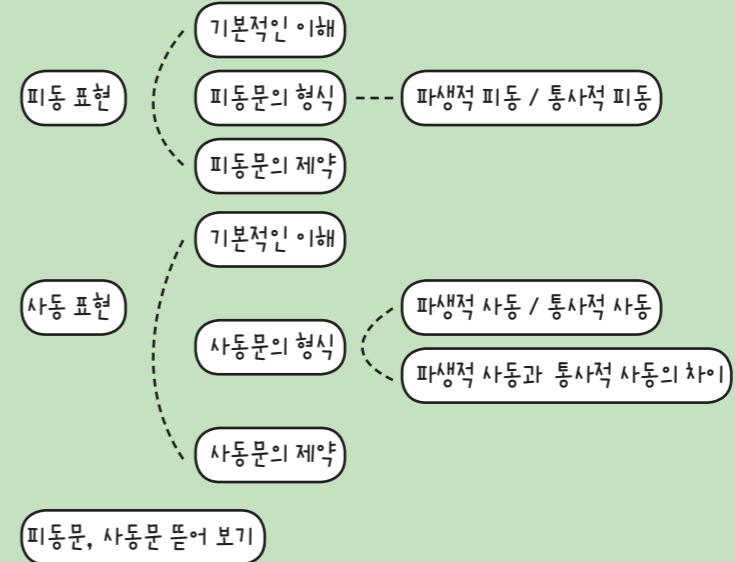
부정문의 증의성

- 부정 요소가 부정하는 범위에 따라 증의성 발생
- 해소 방법: 보조사 '은/는', 강세

7.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중단원 미리 보기



드디어 문장 파트의 마지막 피동 표현, 사동 표현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학생 친구들이 어려워 하는 영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19년에는 비록 수능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4월, 6월, 7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을 만큼 주요 출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을 분석해 보면 역시나 문장을 분석하여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부분을 물어볼 만도 하지 않나 싶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목적어 없으면 피동, '-게 하다'가 붙으면 사동"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쉽게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문장을 세세히 들여다 보면서 분석을 하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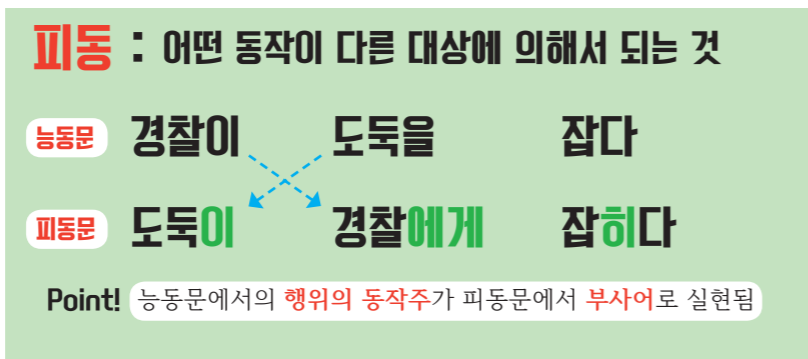
그리고 제가 이 영역을 학생 친구들이 어렵하다고 했는데, 정작 모의고사에서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틀린 선지는 또 쉽게 분석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피동, 사동 뭐 별거 있나~!!"라는 생각으로 완전 정복하러 가봅시다. :)

1)피동 표현

(1)피동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

피동은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 의해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은 능동이라고 하죠. 피동은 피동문으로, 능동은 능동문으로 실현됩니다.

피동문과 능동문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물론 모든 피동문이 능동문과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능동문에서 문법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피동문으로 형성됩니다.



위 그림을 볼까요?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는 주어인 경찰이 행위를 하고 있는 능동문입니다. 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를 보면 먼저 주어인 '경찰이'에 부사격 조사 '에게'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 '도둑을'은 주격 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됩니다. 또한 '잡다'라는 능동사가 '잡히다'라는 피동사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문법적인 변화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능동문 피동문

1. 주어 → 부사어
2. 목적어 → 주어
3. 능동사 → 피동사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이와 같이 능동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문법적인 변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동문의 '동작주인 주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작주에 의한 동작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작주가 문장 내에서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동문에서처럼 동작주가 부사어로 바뀌게 되면 그러한 동작성이 약화됩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문장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고 하면 경찰이 긴박하게 도둑을 잡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반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라고 하면 이미 잡히 도둑이 수갑을 차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죠. 이렇게 다소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피동문에서는 동작성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동문에서 부사어는 '에게(한테), 에, 에 의해(서)'가 붙어서 형성됩니다. 능동문의 주어에 유정 명사이면 '에게'나 '한테'가 붙고 무정 명사이면 '에'가 붙습니다.

'에 의해(서)'는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에 두루 쓰일 수 있으며 주로 피동문의 서술어가 '-어지다'로 형성된 경우일 때 자연스럽게 쓰입니다. 또한 능동문에 이미 '에게', '에'가 붙은 부사어가 있는 경우에도 '에 의해(서)'가 쓰입니다.

더 알아보기 능동문과 피동문의 차이

능동문과 피동문이 의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문장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나 결국은 '경찰이 도둑을 잡은 사건'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동작주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싶다면 '경찰'을 주어로 하여 능동문으로 표현을 하고, 피동작주 '도둑'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싶다면 '도둑'을 주어로 하여 피동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문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초점이 놓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피동작주에 초점을 맞춰서 피동문으로 표현을 하면 능동문보다는 동작성이 약화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실제 문장이 발화되는 상황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화자가 물컵을 깨고 엄마에게 말하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 엄마, 제가 물컵을 깬어요.

㉡ 물컵이 깨졌어요.

㉠에서는 능동문으로 표현을 하여 동작주인 '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컵을 깬 내가 부각이 됩니다. 반면 ㉡에서는 피동작주인 '물컵'이 주어에 되어 초점을 받고 있으며, 동작주인 '나'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컵을 깬 '나'가 부각되지 않으므로 화자가 자신의 실수를 회피하여 곤란한 상황을 넘어가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ㅎㅎ

또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저는 대학 입시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 입시의 전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는 능동문으로 동작주가 주어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는 피동문으로 동작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일지라도 마치 여러 사람의 일반적인 의견처럼 보이게 되어 객관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비쳐집니다. 이런 피동문은 주로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는 문장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 자체는 변함없지만 그 문장을 발화하는 상황 맥락 속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능동문과 피동문의 의미가 아예 다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았다.

㉥ 물고기 한 마리가 두 사람에게 잡혔다.

㉤는 능동문인데 '물고기 한 마리를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잡았다.'는 의미와 '두 사람이 각각 한 마리씩 총 두 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중의성을 가집니다. 반면 ㉥는 '물고기 한 마리를 두 사람이 힘을 모아 잡았다.'는 의미로만 해석되어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죠? '천재교육'의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아예 '피동 표현의 사용 효과'라고 해서 '동작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동작의 주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자 할 때/객관성을 높여 표현하려고 할 때/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네요. ㅎㅎ

1) 일반적으로 능동문에서 주어는 행위의 주체로 동작주가 되고 목적어는 이러한 행위의 입는 대상이라고 하여 피동작주가 됩니다.

(2) 피동문의 형식

피동문의 기본적인 특성을 살펴봤으니 이제는 피동문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동문은 피동사로 파생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파생적 피동과 '-어지다', '-게 되다'로 이루어지는 ²통사적 피동으로 나뉩니다.

① 파생적 피동

피동사는 능동사에 '-이-, -히-, -리-, -기-'가 붙어 파생됩니다. 우리가 흔히 피동 접사는 '이히리기', 사동 접사는 '이히리기우구추'라고 외우죠? ㅎㅎ

³피동 접미사가 붙어 피동사가 되는 능동사는 대부분이 타동사입니다. 그러나 타동사임에도 불구하고 피동사로 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접사라는 것이 모든 단어에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동사 파생에서도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주다'나 '얼다', '배우다', '바라다' 등의 단어들은 피동사 파생이 불가능하죠. 이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타동사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되다'가 붙어서 피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 (㉠) 경찰이 범죄자를 구속했다.
- (㉡) 범죄자가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 (㉢) 많은 학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연구한다.
- (㉣) 재생 에너지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다.

'-되다'가 붙은 피동사도 일반적인 피동문처럼 문법적인 변화를 거치고 있는데요. '-하다/-되다'가 능동과 피동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목적어 있는 피동문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면 피동사는 자동사가 됩니다. 능동문에 있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는 부사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피동문에도 목적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영희가 철수에게 **다리를** 잡혔다.

이 문장은 '잡히다'라는 피동사가 쓰인 피동문입니다. 그런데 '다리를'이라는 목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위 문장을 능동문으로 바꿔볼까요?

(㉡) 철수가 **영희를** **다리를** 잡았다.

능동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목적어가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죠? 그 때의 목적어들은 '전체-부분', '대상-종류', '대상-수량'의 관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로 위 문장도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희-다리'가 '전체-부분'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영희'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고 동작주인 '철수가'가 부사어가 되며, '다리를'은 피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와 같이 피동문이지만 목적어가 있는 것이죠.

"피동문에는 목적어가 없지~"라고만 단순하게 외우면 이런 예를 만났을 때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도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분석해야 합니다.

② 통사적 피동

통사적 피동은 ⁴'-어지다', '-게 되다'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먼저 '-어지다'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나는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 (㉡) 책이 철수에게 주어졌다.
- (㉢) 연구원들은 새로운 의자를 만들었다.
- (㉣) 새로운 의자가 연구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어지다'는 파생적 피동과 같이 타동사에 붙어 쓰입니다. ⁵'-어지다'의 경우 피동사 파생과는 달리 제약이 많지 않아 피동사 파생이 어려운 경우에도 결합하여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동을 찾을 때 '-어지다'를 붙여 보기도 하죠. ㅎㅎ

한편 '-어지다'는 ⁶자동사나 형용사에 쓰이기도 합니다.

- (㉠) 요즘은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 (㉡)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슬퍼졌다.
- (㉢) 몸이 따뜻해졌다.
- (㉣) 방안이 환해졌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피동문은 일반적으로 타동사에서 쓰입니다. 그러나 '-어지다'는 자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피동문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는 비록 어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자동사에 붙은 경우입니다. (㉡), (㉢), (㉣)는 형용사에 쓰인 경우인데 형용사에서는 활발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런 예들이 진짜 피동문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피동문에서 보이는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뒤에 '-어지다'가 붙어서 피동문이 될 뿐입니다. 또한 그 의미도 피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특히 형용사의 경우에는 피동의 의미라기보다는 '-어지다'에 의해 형용사가 동사화하여 **상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동문과 능동문이 관련이 된다고 할 때 형용사로 쓰인 '몸이 따뜻해졌다'와 같은 문장을 능동문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없습니다.

통사적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에는 '-게 되다'도 있습니다. '-어지다'와 마찬가지로 자동사, 타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에도 붙어 피동문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역시나 일반적인 피동문에서 보이는 문법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뒤에 '-게 되다'가 붙어 피동문을 형성합니다. '-어지다'는 그래도 타동사에 붙을 때는 문법적인 변화가 있지만 '-게 되다'는 모든 경우에 있어 그러한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 나는 철수에게 책을 주게 되었다.
- (㉡)' 연구원들은 새로운 의자를 만들게 되었다.
- (㉢)' 몸이 따뜻하게 되었다.

또한 '-게 되다'의 의미가 피동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 '-게 되다'를 피동문으로 만드는 문법 요소로 볼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교과서를 보면 '-게 되다'를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모의고사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게 되다'는 참고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어지다'는 '연결 어미+보조 용언'의 구성이지만 관습적으로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5) 그러나 피동사로 피동문이 형성되는 경우 '-어지다'로 피동문을 만들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아졌다'라고 하면 좀 어색한 감이 있죠? 피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지다'를 잘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자동사나 형용사에서 피동문이 된 문장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보통 타동사가 피동문으로 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의 차이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은 **의도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 **굴뚝이 저절로 막혔다.**

(㉡) **굴뚝이 저절로 막아졌다.**

대체적으로 파생적 피동문은 의도성이 없고, 통사적 피동문은 의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파생적 피동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아래처럼 의도성이 있는 경우에는 통사적 피동문이 더 자연스럽죠.

(㉢)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막혔다.**

(㉣) **굴뚝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막아졌다.**

(3) 피동문의 제약

피동문과 능동문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피동문을 못 만드는 경우나 피동문은 있지만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문이 형성되기 어려운 능동문

먼저 **능동문에서의 목적어가 무정 명사인 경우**에는 피동문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철수가 칭찬을 들었다.
- (㉡) *칭찬이 철수에게 들렸다.
- (㉢) 영희가 손잡이를 잡았다.
- (㉣) *손잡이가 영희에게 잡혔다.
- (㉤) 영수가 책을 읽었다.
- (㉥) *책이 영수에게 읽혔다.

'칭찬', '손잡이'와 같이 무정 명사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는 경우라면 피동문이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 명사라고 해서 피동문이 다 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러 책에서 피동문이 불가능하다고 든 예인 (㉣)문장이 "오늘은 책이 잘 읽히는데?"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그러하다라기보다는 능동문과 피동문이 기계적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되는 능동문 설정이 어려운 피동문

위와는 반대로 피동문은 있지만 대응되는 능동문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 (㉠) 날씨가 풀렸다.
- (㉡) ⁷못이 손에 박혔다.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꾸려면 일단 행위의 동작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위 문장들에서는 그러한 동작주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날씨가 풀린 게 누구 때문일

7) 여기서 '손에'는 동작주가 아닙니다. '손이 못을 박았다'라고 해보면 동작주가 아님을 알 수 있죠. '박다'라는 동사 자체가 '-을 ~에'라는 문장 성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에'는 그러한 필수적인 부사어이지 동작주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문장으로 확인해 보면
-인부가 못을 벽에 박았다.
-못이 벽에 박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손에'가 있다고 해서 동작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

까요? 조물주에 의해? 신에 의해? 조화왕에 의해? ㅎㅎ 그렇지 않죠? (㉡)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못을 박다가 내 실수에 의해 그렇게 되었을 뿐이지 어떤 동작주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동작주를 의식하며 말하지도 않고, 그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할 뿐입니다. 피동문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탈행동성/탈동작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동문에서 **동작주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것들은 그 표현 자체가 하나의 관용구처럼 쓰입니다.

기가 막히다. 눈이 뒤집히다. 눈이 감기다. 말이 안 먹히다. 일이 밀리다. 차가 밀리다. 먹은 것이 없히다. 속이 보이다. 맥이 풀리다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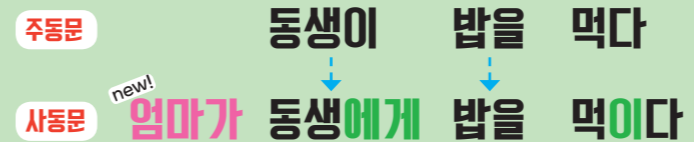
2)사동 표현

(1)사동 표현의 기본적인 이해

사동은 주어로 나타난 대상이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주어가 동작을 스스로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합니다. 사동은 사동문으로 주동은 주동문으로 실현됩니다.

피동문이 능동문과 관령성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사동문도 주동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주동문에서 **문법적 변화**가 나타나면서 사동문이 형성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사동 :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



Point!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에 없던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남

사동문은 자동사, 형용사, 타동사 등에도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타동사에서 사동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동문은 정의에서도 드러나지만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동문에는 주동문에는 없던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존 주동문의 주어는 '에게'가 붙어 부사어가 되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동사는 사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동문에는 없는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동문에서는 동작주 주어가 부사어가 되는 것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동문은 주동문의 서술어가 뭐냐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므로 자동사, 형용사일 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능동문과 주동문의 차이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능동문이라는 것은 피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주동문은 반대로 사동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니까요. :)

8) 사동문에서 새로 나타난 주어를 사동주라고 하고 기존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나 목적어로 바뀐 것을 피사동주라고 합니다.

<자동사> 아이가 잔다.

 엄마가 아이를 재운다.

<형용사> 길이 넓다.

 사람들이 길을 넓힌다.

9) 주동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엄밀히 따지면 주동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동문에 대응되는 된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과 함께 주동문으로 묶어서 다루는 것이죠.

10) 물론 여기서 '-게 하다'를 쓰면 주동문의 주어가 그대로 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사나 형용사에서도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는 것은 같습니다.⁹ 그러나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¹⁰ 목적어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동사나 형용사일 때는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그대로 목적어가 되어서 사동문은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동문을 판별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죠.

한편 주동문의 주어가 그대로 주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게 하다'가 결합될 때 그렇습니다.

 동생이 밥을 먹다.

 엄마가 동생이 밥을 먹게 한다.

따라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면 주동문에서 사동문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 문법적인 변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동문 **사동문**

1. - →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남
2. 주어 → 부사어/목적어/주어
3. 주동사 → 사동사

(2)사동문의 형식

사동문의 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동문은 사동사로 파생된 단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파생적 사동과 '-게 하다'로 이루어지는 통사적 사동으로 나뉩니다.

①파생적 사동

사동사는 능동사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가 붙어 파생됩니다. 이때 타동사, 자동사, 형용사에서 모두 사동사를 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피동사처럼 모든 단어에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우-'가 붙어서 사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가 붙은 후에 다시 '-우-'가 붙어서 형성되었지만 공식적 관점으로 그냥 '-이우-'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세우다, 태우다, 채우다, 재우다, 띄우다, 씌우다, 킷우다 등
- ㉡ 철수가 차에 타다.
- ㉢ '엄마가 철수를 차에 태우다.

한편 '-시키-'가 사동사를 파생하기도 합니다.

- ㉣ 기계가 정지했다.
- ㉤ '직원이 기계를 정지시켰다.

여기서도 일반적인 사동문과 같은 문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다/-시키다'가 주동과 사동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키-'의 경우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다'라고 하면 될 것을 '-시키-'를 써서 사동문으로 표현을 하곤 하죠.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경우가 '소개시켜줘'입니다. '소개하다'라는 단어에는 'A가 b에게 c를 소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철수가 나한테 네 여자 친구를 소개해줘', '나 요즘 외로운데 남자 친구 좀 소개해주면 안돼?'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 굳이 '소개시켜줘'라고 할 필요가 없죠. ㅎㅎ

②통사적 사동

통사적 사동은 '-게 하다'로 나타납니다. '-게 하다'는 자동사, 형용사, 타동사 모두에 결합하는데, 사동사 파생이 가능한 경우는 물론이고 사동사 파생이 어려운 경우에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통사적 사동문에서는 주동문의 주어가 **부사어**, **목적어**, **주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철수가 옷을 입었다.
- ㉡ '엄마가 철수에게 옷을 입게 했다.
엄마가 철수를 옷을 입게 했다.
엄마가 철수가 옷을 입게 했다.

'철수가'처럼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게 하다'가 붙은 문장을 일종의 안은 문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를 학교 문법에서는 보조 용언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시키다, 명령하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본용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게 하다'는 서술어가 2개 쓰인 겹문장, 그 중에서도 안은 문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긴절의 주어로 '철수가'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즉 '입게'의 주어는 '철수가'로 '했다'의 주어는 '엄마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철수가 옷을 입게] 했다.

뒤에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에 대해 배울 테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다'를 단순히 보조 용언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③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 간에는 여러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들을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직접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의 행위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 사동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할 뿐 자신이 직접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생적 사동은 주로 직접 사동으로 해석되지만 간접 사동으로 해석될 수도 있긴 합니다. 통사적 사동은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됩니다.

- (㉠)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 (㉡)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

(㉠)는 엄마가 손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옆에서 잔소리를 해서 아이가 밥을 먹게 하는 모습이 떠오르죠. 물론 (㉠)을 간접 사동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합니다.

그런데 단어에 따라서는 파생적 사동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사동으로만 해석되기도 합니다. '읽히다, 웃기다, 울리다' 등이 그렇습니다.

- (㉢) 선생님은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 (㉣) 나는 영희를 웃겼다.

'읽다'의 경우 책을 읽는 사람이 눈동자를 움직여 가면서 머릿속으로 글자를 입력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에 어떤 누군가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웃다, 울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웃는 행위나 우는 행위는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문장 구조의 차이

파생적 사동문은 하나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사적 사동문은 '하다'를 본용언으로 볼 경우 두 개의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사적 사동문에는 피사동주의 행위와 사동주의 행위가 따로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부사의 수식 범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엄마는 철수에게 옷을 **빨리 입혔다**.
- (㉥) 엄마는 철수에게 옷을 **빨리 입게** 했다.

(㉤)에서는 '빨리'가 '입혔다'를 수식하여 엄마의 행위가 빠르다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엄마가 빨리 움직이면서 아이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반면 (㉥)는 '빨리'가 '입게'를 수식하는 데 이는 피사동주인 철수의 행위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는 철수가 서두르면서 옷을 입는 장면이 떠오르죠.

또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의 쓰임**에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히**시**었다.
- (㉧)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시**었다.
영희가 선생님께 책을 읽으**시**게 했다.

국어 선생님께서 수학 선생님께 책을 읽으**시**게 하**시**었다.

파생적 사동문에서는 '-시-'가 한 번만 쓰여서 사동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통사적 사동문에서는 '-시-'가 '하다'에 쓰여 사동주의 행위를 높이거나, '-게'가 붙은 말에 쓰여 피사동주를 높이거나, 둘 다에 쓰여 사동주와 피사동주 모두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이 통사적 사동문이 겹문장의 형식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사동문의 제약

피동문과 마찬가지로 사동문에서도 나타나는 제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동문이 형성되기 어려운 주동문

관용구를 포함한 문장은 사동문 형성이 어렵습니다.

- (㉨) 철수가 합격한 소문이 돈다.
- (㉩) *영희가 철수가 합격한 소문을 돌리다.
- (㉪) 그녀는 더위를 먹었다.
- (㉫) *우리가 그녀에게 더위를 먹였다.

대응되는 주동문 설정이 어려운 사동문

피사동주가 부정 명사나 추상 명사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주동문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철수가 책을 책상 위에 올리다. / ?책이 책상 위에 오르다.
- (㉭) 범인이 진실을 숨겼다. / ?진실이 숨었다.

사동문은 주동문의 어떤 행위를 다른 누군가가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 문장은 피사동주가 부정 명사나 추상 명사여서 어떤 행위를 하는 주동문 자체가 설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동문에서는 특정 표현들이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동문과 비슷한 모습이죠.

- (㉮) 철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낯을 붉혔다**.(낯을 붉히다)
- (㉯) 그는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었다**.(돈을 굴리다)
- (㉺) 이제야 **숨을 돌리겠다**.(숨을 돌리다)
- (㉻) 그는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다**.(바람을 피우다)

통사적 사동이 어려운 경우

피사동주가 부정 명사인 경우에는 파생적 피동은 가능하지만 통사적 사동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유산을 {남겼다/남게 했다}.
- (㉽) 네 동생 먹을 것만 {남기고/남게 하고} 다 먹어라.

3)피동문, 사동문 뜯어 보기

지금까지 중단원이 끝나면 [한눈에 보기]를 통해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했는데 요. 여기서는 [한눈에 보기]대신에 실제 피동문과 사동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볼까 합니다. 실제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말이죠.

먼저 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장 형태를 가능한 모두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피동문과 사동문을 분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피동문의 형식

<타동사에서 형성되는 경우>

-동작주가 유정 명사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 도둑이 ^①경찰에게 잡혔다.

-동작주가 부정 명사

흰 눈이 들판을 덮었다. → 들판이 ^②흰 눈에 덮였다.

불길이 건물을 휩쌌다. → 건물이 ^③불길에 휩싸였다.

-부사어가 이미 있음

철수가 짐을 트럭에 실었다. → 짐이 ^④철수에 의해 트럭에 실렸다.

-목적어가 두 개

개가 철수를 발을 물었다. → 철수가 ^⑤개에게 발을 물렸다.

<형용사에서 형성되는 경우>

길이 넓다. → 길이 ^⑥넓어졌다.

나는 슬프다 → 나는 슬퍼졌다.

<능동문이 없는 경우>

X → 날씨가 풀렸다.

옷에 못이 걸렸다.

피동문에서는 주로 위와 같은 형태의 문장이 나타납니다.

모의고사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유형은 타동사에서 형성되는 ①~④입니다.

형용사의 경우 피동사 파생은 불가능하고 '-어지다'가 붙어야 하는데, '-어지다'가 붙은 문장은 잘 나오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사에서 피동문은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장조차 다소 어색한 감이 있어서 여기서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⑥은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입니다. ①~④와 달리 동작주 부사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①~④에서도 동작주 부사어가 생략되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형식에서 목적어가 있는 경우는 ④ 하나 뿐입니다. 따라서 피동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없는 형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동문의 형식

<타동사에서 형성>

-피사동주가 유정 명사

철수가 밥을 먹다. → ^①엄마가 철수에게(한테) 밥을 먹이다.

^②엄마가 철수를 밥을 먹이다.

^③엄마가 철수가 밥을 먹게 하다

-피사동주가 부정 명사

^④아이 입이 사탕을 물었다. → ^④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자동사에서 형성>

동생이 운다. → ^⑤철수가 동생을 울렸다.

^⑥철수가 동생이 울게 했다.

<형용사에서 형성>

길이 넓다. → 사람들이 ^⑦길을 넓힌다.

^⑧사람들이 길이 넓게 한다.

<주동문이 없는 경우>

X → 철수가 ^⑨책을 책상 위에 올렸다.

철수는 ^⑩낮을 불렀다.

사동문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타동사의 경우 유정 명사와 부정 명사로 나뉘 볼 수 있습니다. 유정 명사의 경우 '에게(한테)'가 붙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②와 같이 '를'이 붙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이 형식은 잘 나오지 않죠. 10) '-게 하다'는 거의 모든 부분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고 다만 '-게 하다'가 붙을 때 형식이 달라지는 경우만 실었습니다. ③에서처럼 '게 하다'가 붙을 때는 피사동주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④는 피사동주가 부정 명사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주어로 부정 명사가 오면 어색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문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④는 모의고사에 나온 예문인데 주동문이 좀 어색하긴 하죠?

⑤~⑧처럼 자동사나 형용사에서 피사동주가 목적어로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서도 '-게 하다'가 붙으면 주어로 나타날 수 있죠.

⑨는 주동문을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동사와는 달리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자동사나 형용사에서 '-게 하다'가 붙어서 주어가 되는 경우만 제외하고는 목적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동문에서는 목적어가 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10)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경우만 따로 구분해서 실었습니다~!

피동문, 사동문 분석하기

다양한 피동문과 사동문을 살펴본 결과 일단 크게 **목적어의 유무**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피동문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능동문에서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가 특이하게 목적어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일단 목적어가 없다면 피동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동문인 경우에도 목적어가 없는 경우는 있었죠? ㉔, ㉕이 목적어가 없는 사동문인데, 뒤에 '-게 하다'가 오기 때문에 사동문임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없으면 피동문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목적어의 유무와 함께 피동문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동작주 부사어**가 있습니다. 피동문에서 동작주 부사어를 찾거나 **'에 의해(서)'**로 말을 만들어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할 수 있다면 피동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㉑형식이 부사어를 생략하고 '도둑이 잡혔다.'라고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도둑이 경찰에 의해 잡혔다."라고 동작주 부사어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동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목적어의 유무에서 이미 피동문이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요. ㉑는 목적어의 유무로는 사동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에게(개에 의해)'라는 동작주 부사어가 있으므로 피동문이 됩니다.

이렇게 피동문은 목적어의 유무, 동작주 부사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피동문을 **대응되는 능동문으로 바꿔서** 정말 피동문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특수한 경우도 존재함은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는 목적어의 유무로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는 '-어지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 살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동문은 목적어가 존재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㉔, ㉕이 목적어가 비록 없지만 '-게 하다'로 사동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동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에는 ¹²**주어를 제외하고 문장이 성립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동문은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동문이라면 주어를 제외하고도 문장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㉑는 '철수가 밥을 먹다.'로 ㉑는 '길이 넓다.'로 주어를 제외하고 문장이 성립되므로 사동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를 제외하고 문장을 만들 때는 서술어로 쓰인 단어가 어떤 문형으로 나타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누나는 붓에 먹물을 문혔다.

위 문장은 '붓이 먹물을 문다.'가 아니죠? ㅎㅎ '먹물이 붓에 문다.'입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들이 있는 경우 간혹 헛갈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술어를 잘 고려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이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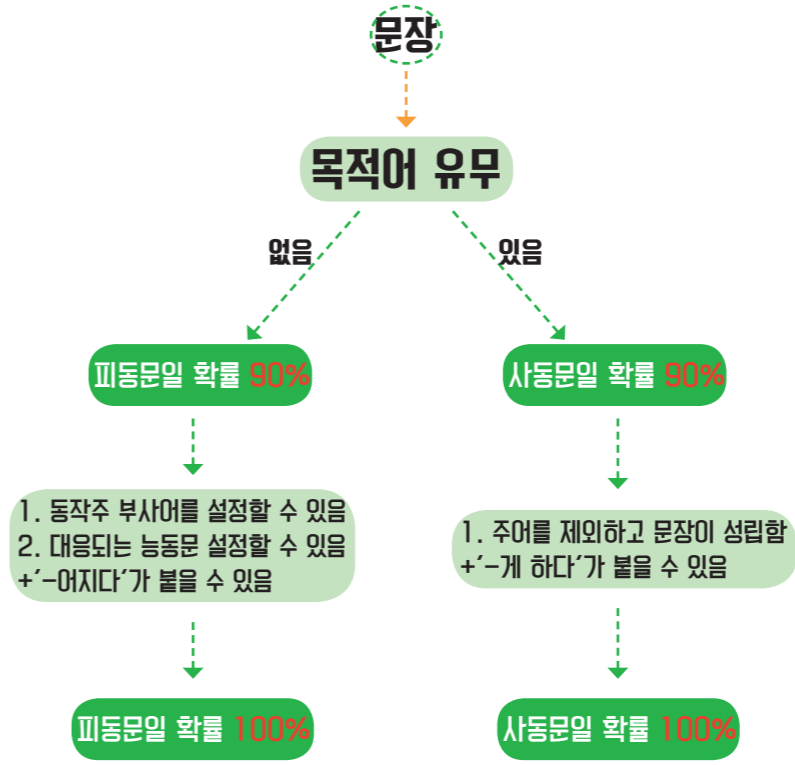
주동문이 없는 경우에는 주어를 제외하고 문장을 만들면 어색하지만, 목적어의 유무로 이미 사동문임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 하다'를 붙여서 확인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런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판별이 되기도 하고 '-게 하다'를 붙였을 때 어색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피동문에서 '-어지다'를 붙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지막에 '-

게 하다'를 붙여서 확인해 볼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피동문, 사동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것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피동문, 사동문이 갖는 의미**입니다. 피동문은 무언가를 당하는 것, 사동문은 무언가를 시키는 것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여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아 다 귀찮고, 목적어만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위 절차만 암기해서 기계처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동문과 사동문의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이해가 바탕이 이루어진 후에야 위 그림을 적용해서 올바르게 정답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 하나를 여기서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ㅎㅎ

<2016년 수능 15번>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목적어의 유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아주 빠르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실제로 푼다고 생각하고 사고 과정을 써 보도록 할게요.

①㉠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제외하고 '동생이 울다'가 가능하네요. 사동문입니다.

①㉡도 목적어가 있고 주어를 제외하고 '지구본이 돌다'가 가능하니 사동문입니다.

②㉠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¹³'마음이 놓아지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목적어가 없지만 동작주 부사어 설정이 어려워서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하고 사동문 판별 기준을 적용하여 주어를 제외해 보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동문입니다.

②㉡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어를 제외하면 '용돈이 남았다'가 가능하니 사동문입니다.

③㉠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가방에 의해'라는 동작주 부사어가 있네요. 피동문입니다.

③㉡도 목적어가 없습니다. ¹⁴'(옷이) 못에 걸려, 옷이 찢겼다.'로 볼 수 있겠네요. ¹⁵조금 어색하지만 '못에 의해 옷이 찢겼다'로 설정할 수 있고, '옷이 찢어졌다'가 가능하네요. 피동문입니다.

④㉠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어를 제외한 '동생이 숨다'가 가능하니 사동문입니다.

④㉡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눈이 감겼다'라는 문장인데 동작주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감아졌다'도 어색하긴 하지만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으로 보입니다. 사동문의 판별 방식인 주어를 제외해 보면 비문이 되므로 피동문이 맞습니다.

⑤㉠은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어를 제외해 보면 '종이비행기가 날다'가 가능하니 사동문입니다.

⑤㉡도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어를 제외해 보면 '소년이 임무를 맡다'가 가능하니 사동문입니다.

목적어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고 그 후에 부가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목적어의 유무로 다 분석이 되고 있긴 하네요. 그래도 확신을 갖기 위해서 뒤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그리고 그 부가적인 기준들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 조금 헛갈린다면 그 반대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동이 아니라면 피동일 테고, 피동이 아니면 사동일 테니까요.

위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동, 사동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방법을 적용하려 하면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살피고 분석하다 보면 나중에는 문장만 보면 바로바로 분석이 될 것입니다. :)

13) 이렇게 '-어지다'가 만능은 아닙니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14) 분석할 때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거나 문장 배열을 보기 편하게 하여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15) 부정물이 타동사의 주어로 오면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못이 옷을 찢었다'로 본다면 조금 어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탈동작성의 피동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8. 기출 문제 확인하기

16년 3월 고3 14번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 (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 ~ [C]는 안긴 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주어, ㉡목적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누나는 털실로 짠 잠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이 문제는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형사절에서 생략된 성분이 어떤 문장 성분인지는 찾는 문제였습니다. 20년 3월 고3 모의고사 12번이 이와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이처럼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의 경우 언제든지 생략된 성분과 관련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생략된 성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뿐만 아니라 안은 문장 자체가 출제 빈도가 문장 파트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안은 문장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16년 9월 고3 14번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영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간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직접 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간접 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①	오늘	있으라고	자기의	남기라고
②	어제	계시라고	자기의	남겨라고
③	오늘	있으라고	나의	남겨라고
④	오늘	계시라고	자기의	남겨라고
⑤	어제	계시라고	나의	남기라고

이 문제는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직접 인용절을 간접 인용절로 바꿀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요소를 배웠었죠?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실어 봤습니다. 이 내용 역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접 인용절이 직접 인용절을 화자의 관점에 따라 바꾼 것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19년 4월 고3 13번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오늘은 사동문과 피동문의 서술어 자릿수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주동문이 사동문으로 바뀔 때나,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때는 서술어 자릿수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문장들을 살펴봅시다.

㉠ 얼음이 매우 빠르게 녹았다.
㉡ 아이들이 얼음을 빠르게 녹였다.
㉢ 사람들은 산을 멀리서 보았다.
㉣ 그 산이 잘 보였다.

- ①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②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③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 ④ ㉣은 피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같다.
- ⑤ ㉣은 사동문이며, ㉡과 서술어 자릿수가 서로 다르다.

이 문제는 피동문과 사동문을 자릿수의 관점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사동문의 경우 새로운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릿수가 하나 늘어납니다. 피동문의 경우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는데 이때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라면 서술어 자릿수가 줄어듭니다.

㉠과 ㉡, ㉢과 ㉣이 각각 주동과 사동, 능동과 피동으로 짝이 어져 있는데,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녹이다'는 사동사로 주동문인 ㉠에 비해 주어가 새로 등장하면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었습니다. '보이다'의 경우에는 '~에 의해'라는 부사어 성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서술어의 자릿수가 하나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동문과 사동문을 서술어의 자릿수 차원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9년 6월 고3 15번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의 설명]

여러분, '쓰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쓰이다'는 피동사이기도 하고 사동사이기도 하므로 이를 구별해야겠죠? 또한 '쓰다'는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이므로 그 의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단어를 이해할 때, 이

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그럼 이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해 볼까요?

[학습 활동]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제시된 단어의 의미에 유의하여 각각의 피동사와 사동사가 포함된 예를 들어 보자.

갈다¹ ㉠[...을...으로] ㉡어떤 직책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다.
깎다 ㉢[...을] ㉣값이나 금액을 낮추어서 줄이다.
묻다¹ ㉤[...에]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
묻다² ㉤[...을]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끼운 상태로 상처가 날 만큼 세게 누르다.
쓸다² ㉤[...을] ㉠비로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데 모아서 버리다.

피동문	사동문
㉠	㉡

- ① ㉠: 학생회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 ② ㉠: 용돈이 이달에 만 원이나 깎였다.
㉡: 나는 저번 실수로 점수를 깎였다.
- ③ ㉠: 내 친구는 가래떡에 풀만 묻혔다.
㉡: 누나는 붓에 먹물을 듬뿍 묻혔다.
- ④ ㉠: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 큰형이 동네 개에게 발을 물렸다.
- ⑤ ㉠: 큰 마당의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이 문제에서는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우선 피동문과 사동문을 고르는데, 그 의미는 문제에서 주어진 의미와 대응되어야 합니다. ㉠은 피동과 사동으로 짝이 맞지만 ㉠이 주어진 '갈다¹'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내용을 잘 읽고 푸셔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나는 점수를 깎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깎이다'라는 피동사는 '~이 깎이다'라는 문형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능동문이 목적어가 둘 이상 나오는 문장이었어서 목적어가 남아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처럼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가 딱 대응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보면 당연히 피동이겠지만 다소 복잡하게 짜여진 문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석을 할 때는 큰 어려움이 있네요.

㉤㉣은 '만'을 '이'로 바꾸면 피동문으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선지입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다른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동문과 사동문은 항상 잘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PART 4

중세 국어

1. 중세 국어의 기초
2. 음운

나머지 내용 계획중

중세 국어의 경우 내용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문제가 출제되면 보통 긴 지문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아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 친구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공부를 해둔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중세 국어를 완전 정복해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잠시 주목!

중세 국어는 1~2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비중이 정말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실제로 많은 학생 친구들이 부담스러워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세 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역대 기출 문제를 보여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아래 표는 최근 5년 동안의 고3 모의고사와 수능의 모든 중세 국어 문제를 모아놓은 표입니다.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16년	-	-	11~12번 -용언의 활용 -'빙', '△'의 변화	16번 -여러 특징 분석 : 관형격·주격 조사, 음곤, '△', '·', 모음조화	15번 -여러 특징 분석 : 관형격·주격 조사, '-술-', 의문형 어미	11~12번 -어두자음곤, 'ㅎ'중성 체언	13번 -자동사, 타동사
17년	14~15번 -모음 조화의 변화 -'·'의 변화	14~15번 -높임 표현	15번 -서술격 조사	15번 -여러 특징 분석(훈민정음) : 조사, 어미, 구개음화	14번 -여러 특징 분석 : 설명·판정 의문문, 모음 조화, 호격 조사, 어미 결합 순서, 높임 표현	15번 -사동 표현	11~12번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 과정, 의문 보조사
18년	15번 -격조사	14~15번 -안은 문장, 이어진 문장	11~12번 -품사 통용	11~12번 -동사적·비동사적 합성어	14번 -객체 높임	14~15번 -높임 표현	12~13번 -현대 국어의 합성어 분석 : 관형격 조사 '시', 유음 탈락
19년	11~12번 -'ㅎ' 중성 체언	11~12번 -부사격 조사	13번 -의문문	13~14번 -불규칙 활용	11~12번 -'에, 에서'의 쓰임	12~13번 -관형절, 관형사형 어미	15번 -주격 조사
20년	14~15번 -시간 표현	11~12번 -부정 표현	13번 -관형격 조사	12~13번 -관형어 형성 방식	15번 -여러 특징 분석(훈민정음) : 주격 조사, '하다', 방점, 피동·사동 표현, '뜨다'	11~12번 -사동 표현	15번 -이중 모음 'ㅞ', 'ㅟ' 탐구

일단 중세 국어에서 가장 큰 특징은 2문제로 묶여 긴 지문과 함께 나온다는 점입니다. 위 표에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현대 국어와 관련지어 나오고 있죠. 이렇게 긴 지문과 함께 나오는 문제의 경우 긴 지문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 유형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한편 문제를 모의고사와 수능으로 나눠서 보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모의고사**부터 볼까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으로 나눠봤을 때, 음운론에서는 **개별 음운**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국어가 주로 음운 현상을 다룬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론에서는 **격조사**가 문장론에서는 **의문문과 높임 표현**의 출제 빈도가 높았습니다.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내용들로,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18년 6월에 출제된 문제가 다른 문제에 비해 수준이 조금 높은 내용이 출제가 되었죠.

그렇다면 **수능**에서는 어땠을까요??

수능을 보면 모의고사들과는 달리 예상 범위를 조금 넘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17년 수능이나 18년 수능의 경우,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미리 접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20년 수능의 경우에는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오답률도 높지는 않았지만 탐구 형식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문제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능의 경우에는 모의고사와는 달리 보다 더 수준이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능에서도 다룰 수 있을 만한 다소 생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도 탄탄하게 다져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성은 문법의 정수가 지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초, 기본을 중시하면서도 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뤄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 말이죠.

놓칠 수 있는 부분이나,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담으려고 하되, 그게 너무 과해서 다른 길로 새지 않게 주의하며, 기본을 탄탄하게 갖추고 중세 국어를 재밌게 이해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중세 국어의 기초

중단원 미리 보기

중세 국어의 시기 구분

제자 원리와 28자

훈민정음 해례본

표기법

동국정운식 한자음

성조와 방점



중세 국어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음운론, 형태론, 문장론으로 크게 나뉘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먼저 중세 국어에 대해 알아야 할 기초적인 지식부터 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세 국어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

1) 중세 국어의 시기 구분

'중세 국어'라고 할 때, 이 중세가 말하는 시기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대 구분을 할 때의 기준은 우리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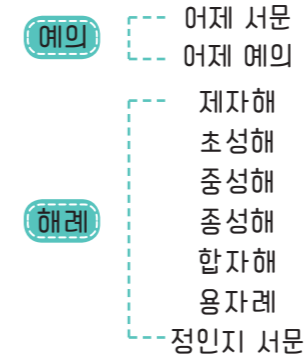
고대 국어	: 삼국 시대 ~ 통일 신라 멸망
전기 중세 국어	: 10c초 ~ 14c말
후기 중세 국어	: 15c초 ~ 16c말
근대 국어	: 17c초 ~ 19c말
현대 국어	: 20c초 ~ 현재

위에 나와 있듯이 중세 국어는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사실 우리가 배우는 '중세 국어'는 엄밀히 따지면 후기 중세 국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창제가 1443년으로 15c초이니 중세 국어라고 했을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을 시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훈민정음 해례본

1443년, 세종은 집현전 학자들과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1446년, 그러한 글자에 대해 해설한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의 이름 또한 『훈민정음』입니다. ¹⁾따라서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과 그 글자를 설명한 해설서의 이름 두 가지로 쓰입니다.

『훈민정음』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의는 세종이 직접 쓴 부분으로 '어제(임금이 지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어제 서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나랏말싸미"로 시작하는 부분을 말하고 '어제 예의'는 새로운 글자의 음가와 운용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²⁾훈민정음 언해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이는 '예의' 부분을 따로 떼어서 한글로 적은 것을 말합니다.

해례는 정인지, 신숙주 등 집현전의 학자들이 지은 부분으로 새로운 글자들의 제자 원리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는 게 증명될 수 있었던 것도 이 해례에 담긴 내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례가 발견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만 해도 예의 부분만 남아 있어서 한글의 비밀을 밝혀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해례 부분까지 담긴 책이 1940년 발견이 되는데, 이 책을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혹은 '훈민정음 원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3) 동국정운식 한자음

중세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여기서 이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음은 실제 중국의 한자음과 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4c 수나라 때 받아들인 한자음을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한자음은 13c를 전후로 하여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기 위해 1447년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만들게 됩니다. 이 책에서 쓰인 한자음 표기하는 방법을 바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한자를 적을 때 그 옆에 한자음을 함께 표시해 두기도 했는데 이때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실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한자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한자음과도 완전히 같지도 않았습

1) 훈민정음이 글자 이름을 가리킬 때는 '훈민정음'으로, 책 이름을 가리킬 때는 『훈민정음』으로 표기하겠습니다.

2) 당시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한자로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예의' 부분만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였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었습니다.

니다. 따라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이상적인 한자음이라고도 하죠.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널리 쓰이지 못하고 1485년 이후로는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1 우리말에는 잘 쓰지 않는 글자를 단어의 첫머리에 사용

우리말 표기에는 'ㄱ, ㄷ, ㅃ, ㅈ, ㅊ, ㅌ, ㅍ'과 같은 글자를 단어의 첫머리에 쓰지 않지만 동국정운식 표기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2 종성이 없는 한자음에 음가 없는 'ㅇ'이나 'ㅁ'을 종성에 채워 넣음

종성이 없는 한자음일 때 그 자리를 'ㅇ', 'ㅁ'을 통해 채워넣었습니다.

3 종성 발음이 'ㄹ'인 한자어인 경우 'ㅎ'을 'ㄹ'옆에 적음

국어에서 'ㄹ'로 발음되는 한자음의 경우 실제 중국음은 'ㄷ' 받침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기 위해 'ㄹ'뒤에 'ㅎ'을 적었습니다.

학부생 시절에 중세 국어 수업을 중국인 유학생분들과 함께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ㄹ(아니 불)'을 유학생분에게 발음하도록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와는 달리 발음을 /ㅃ/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분명 우리와는 달리 'ㄹ' 소리가 나지 않고 빠르게 끝나는 소리가 나서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4)제자 원리와 28자

《훈민정음 언해본》

身制二十八字 (신제이십팔자)
새로 스물여덟 종률 밍?노니

위 문장은 『훈민정음 언해본』에 실린 구절로 세종이 새롭게 만든 글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이 이 새로운 28개의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는 2가지가 있는데, '상형'과 '가획'입니다. '상형'은 어떤 대상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것을 말하고, '가획'은 소리가 세어짐에 따라 획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자음과 모음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자음은 먼저 '상형'의 원리에 따라 'ㄱ, ㄴ, ㄷ, ㅌ, ㅍ, ㅇ'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예》

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아음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설음 ㄴ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

脣音 ㅁ 象口形 (상구형)
순음 ㅁ은 입 모양을 본떴다.

齒音 ㅌ 象形齒 (상지형)
치음 ㅌ은 이 모양을 본떴다.

喉音 ㅇ 象喉形 (상후형)
후음 ㅇ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를 말합니다.

이렇게 각 조음 위치에 따라 각각 기본자 'ㄱ, ㄴ, ㄷ, ㅌ, ㅍ, ㅇ'을 만들고, 그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다른 글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예》

ㄱ比 ㄷ 聲出稍厲 故加畫 (ㄱ비 ㄷ 성출초려 고가획)
ㄱ은 ㄷ에 비해 소리가 조금 세므로 획을 더했다.

ㄴ而ㄷ, ㄷ而ㅌ / ㄷ而ㅍ, ㅌ而ㅍ / ㅌ而ㅍ, ㅍ而ㅍ / ㅇ而ㅎ, ㅎ而ㅎ
ㄴ에서 ㄷ, ㄷ에서 ㅌ ...

여기서 획을 더하는 것은 소리가 더 세어짐을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것의 소리가 더 세어졌을 때는 이를 글자에 반영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훈민정음에는 그 글자가 소리나는 조음 위치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더 세어졌다는 성질까지 담아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자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자음에는 이외에도 다른 글자가 존재하는데요, 흔히 '이체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예》

無加畫之義焉 (무가획지의언)
획을 더한 뜻이 없다.

4)이체자에는 아음인 'ㅇ', 반설음인 'ㄹ', 반치음인 'ㅍ'가 있습니다. 이체자에 대해서는 가획자인지 아닌지 하는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위의 '무가획지의언'을 말 그대로 가획을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면 가획자가 아니지만, 이를 가획은 했지만 소리가 세어진다는 가획의 뜻이 없다고 의역하여 해석하면 가획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은 그냥 자음 글자를 기본자(상형),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ㄱ'은 연구개음으로 혀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게 되는데, 세종은 이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으로 인식한 것 같네요. 얼추 모양이 그럴듯 하죠? :)

조음 위치	기본자 (상형)	1차 가획	2차 가획	이체자
아음	ㄱ	ㅋ		ㅇ
설음	ㄴ	ㄷ	ㄸ	ㄹ
순음	ㅁ	ㅂ	ㅃ	
치음	ㅌ	ㅍ	ㅑ	ㅒ
후음	ㅇ	ㅎ	ㅈ	

4)'반설음, 반치음'은 각각 '설음, 치음'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음

모음은 먼저 '상형'의 원리에 따라 '·, —, |'를 만들었습니다. 자음이 구체적인 조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면,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形之圓 象乎天也 (행지원 상호천야)
·는 (···) 그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 (···) 形之平 象乎地也 (행지평 상호지야)
—는 (···) 그 모양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 (···) 形之立 象乎人也 (행지립 상호인야)
|는 (···) 그 모양이 서 있는 것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5 그리고 이렇게 만든 기본자 '·, —, |'를 합성하여 다른 글자를 만들었는데 합성은 제자 원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ㄱ (···) 其形則 · 與 — 合而成 (기형즉 · 여 — 합이성)
ㄱ는 그 모양이 · 와 — 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ㅋ (···) 其形則 | 與 · 合而成 (기형즉 | 여 · 합이성)
ㅋ는 그 모양이 | 와 · 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ㆁ (···) 其形則 — 與 · 合而成 (기형즉 — 여 · 합이성)
ㆁ는 그 모양이 — 와 · 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ㆁ (···) 其形則 · 與 | 合而成 (기형즉 · 여 | 합이성)
ㆁ는 그 모양이 · 와 | 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ㄱ, ㅋ, ㆁ, ㄷ'는 'ㄱ, ㅋ, ㆁ, ㄷ'와 같지만 'ㅣ'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이들 글자가 현대 국어로 치면 y계 이중 모음의 소리값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ㄱ 與 | 同而起於 ㅣ (고여고동이기어ㅣ)
ㄱ는 ㄱ와 동일하나 ㅣ의 소리에서 시작된다.

훈민정음에서는 'ㄱ, ㅋ, ㆁ, ㄷ'를 '·, —, |'를 합성하여 처음에 생겨났다고 하는 뜻으로 초출자라고 하고, 'ㄱ, ㅋ, ㆁ, ㄷ'가 'ㅣ'소리를 가지고 다시 생겨났다고 하는 뜻으로 재출자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초출자에는 '·'를 하나로 표시했고, 재출자에는 '·'를 두개로 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자음에서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를 합해서 17자를 만들었고, 모음에서는 기본자, 초출자, 재출자를 합해서 11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종이 처음에 말했던 총 28자가 되는 것이죠.

기본자 (상형)	초출	재출
·		
—	ㄱ ㅋ ㆁ ㄷ	ㄱ ㅋ ㆁ ㄷ

28자 이외의 글자들

앞의 28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글자는 더 있는데 그럼 그런 글자들은 뭘까?"라고요. 지금부터 다룰 글자들은 앞의 28자를 2차적으로 운용하여 만든 글자들로 28자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이 글자들을 만드는 방식에는 '병서, 연서, 합용, |상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글자들의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 1 병서
 - 각자병서 : ㄱ, ㅋ, ㆁ, ㄷ, ...
 - 합용병서 : ㅅ, ㅆ, ㅈ, ㅊ, ...

병서는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으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쓴 각자병서와,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쓴 합용병서가 있습니다.

- 2 연서
 - ㅁ, ㅂ, ㅍ, ㅅ

연서는 'ㅇ'을 'ㅁ, ㅂ, ㅍ, ㅅ' 아래에 이어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순경음이라고 하며 우리말을 적는 데에는 'ㅇ'만 쓰였습니다.

- 3 합용
 - 과, ㅊ, ㄱ, ㅊ

6 합용은 초출자와 재출자 중에서 양성, 음성에 따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끼리 합하여 사용했습니다.

6) 'ㄱ, ㅋ'는 양성 모음, 'ㄷ, ㅌ'는 음성 모음입니다.

- 4 |상합
 - 모음 11자 + | :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 ㅢ (ㅣ모음은 제외)
 - 합용자 + | : ㅝ, ㅞ, ㅟ, ㅠ

'ㅣ'를 다른 글자 뒤에 적게 되는데 이때 'ㅣ'는 반모음 y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 오는 하향 이중 모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28자 이외의 글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글자들은 만들어지긴 했지만 모든 글자가 다 활발하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사용하는 데 활용되거나 아예 쓰이지 않은 글자도 있죠.

5) 표기법

- 표음주의 표기법(음소적 표기법) : 소리나는 대로 표기
- 표의주의 표기법(형태음소적 표기법) : 실제 발음이 아닌 원래 형태의 모습을 표기에 반영하여 적음

중세 국어의 표기법은 주로 표음주의 표기법을 보이는데요, 중세 국어의 종성 표기는 흔히 '8종성법'이라고 하여 이러한 표음주의 표기법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훈민정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終聲復用初聲 (종성부용초성)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사용한다.

ㄱ ㅎ ㄷ ㄴ ㅂ ㅍ ㅅ ㄹ 八字可足用 (8자가족용)
(종성은) ㄱ ㅎ ㄷ ㄴ ㅂ ㅍ ㅅ ㄹ의 여덟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어제 예의의 '종성부용초성'이라는 말을 토대로 보면 초성에 쓰이는 여러 글자들이 종성에서도 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성해에 나오는 '8자가족용'을 통해 이들 글자 중에서도 실제 소리나는 대로 적어 8자로 표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발>반, 높고>높고, 빛>빛곳

위 예시의 '발, 빛곳'에서도 나오듯이 당시의 특이한 점은 받침에서 'ㅅ'과 'ㄷ'이 구분되었다는 것입니다. 'ㅅ'이 받침에 쓰였다는 것은 그대로 소리가 났다는 것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ㅅ'이 'ㄷ'으로 발음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런 8종성법이 모든 문헌에서 예외없이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문헌에서 예외적으로 표의주의 표기법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중세 국어의 대표적인 종성 표기 방법은 8종성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 종성을 다음 음절 초성에 적었는데 이를 '**연철(이어적기)**'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발음이 되는 대로 적는 것이기 때문에 표음주의 표기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부롬+애>부루매, 심+이>시미, 깊+은>기픈

그런데 일부 문헌에서는 종성을 본래 자리에 적어 형태를 밝혀 적는 '분철(끊어적기)'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역시 당시의 주된 표기 방법은 연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성조와 방점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데, 7중세 국어 당시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성조가 존재했습니다. 성조는 '평성, 거성, 상성'이 있었습니다.

- 평성 : 낮은 소리
- 거성 : 높은 소리
- 상성 :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이러한 성조에 따라 글자 왼쪽에 점을 찍었는데, 이를 **방점**이라고 합니다. 『훈민정음』에서 이러한 방점을 찍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점을 찍지 않으면 **평성**, 점을 하나 찍으면 **거성**, 점을 두 개 찍으면 **상성**이 됩니다.

한편 **입성**이라는 것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입성은 소리의 높낮이라기보다는 받침 발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절 종성에 오는 8종성 중에서 불청불탁음을 제외한 다른 자음이 오면 소리가 촉급하고 빨리 끝나는 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쉽게 생각해서 현대 국어에서 'ㄱ, ㄷ, ㄴ'등이 종성이 왔을 때 개방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실현되는 소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다른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 'ㄹ'로 끝난 한자음이 중국음에서는 'ㄷ' 정도의 발음으로 실현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입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입성을 표시해주기 위해 'ㅎ'를 더하여 적었죠.

7) 이는 당시 성조가 비분절 음운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비분절 음운은 장단이 유일하죠. 현대 국어에서 성조는 경상도나 함경도 방언에서나 약하게 남아 있는 정도입니다.

2. 음운

중단원 미리 보기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음운 현상

1)자음 체계

중세 국어의 자음 체계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구분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을 나누는 데에는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말소리 학문인 성운학을 참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음 어금닛소리	설음 혓소리	순음 입술소리	치음 잇소리	후음 목청소리	반설음	반치음
전청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ㅆ	ㅎ		
차청 거센소리	ㅋ	ㅌ	ㅍ	ㅊ	ㆁ		
전탁 된소리	ㄲ	ㄸ	ㅃ	ㅈ ㅉ	㆏		
불청불탁 유성음	ㅇ	ㄴ	ㄹ		ㅇ	ㄹ	ㄷ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을 풀이하면 각각 '어금닛소리, 혓소리, 입술소리, 잇소리, 목청소리'인데 이는 조음 위치를 말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제자해〉

以聲音清濁而言之(이성음청탁이인지)
말소리는 청탁에 따라 나뉜다.

ㄱㄷㅂㅅㅆㅎ爲全清(위전청) ㅋㅌㅍㅊㅎ爲次清(위차청)
ㄱㄷㅂㅅㅆㅎ는 전청, ㅋㅌㅍㅊㅎ는 차청

ㄲㅃㅆㅈㅉ爲全濁(위전탁) ㄴㄹㅇㄷㄸ爲不清不濁(불청불탁)
ㄲㅃㅆㅈㅉ는 전탁, ㄴㄹㅇㄷㄸ는 불청불탁이다.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은' 각각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유성음'인데 이는 조음 방법을 말합니다.

8) 'ㅎ'은 그 쓰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8위에서 『훈민정음』에 나온 글자에 우리말 표기에 쓰였던 '빙'을 추가하여 자음을 현대 국어의 자음 체계 방식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순음	치음	치조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ㅃ	ㄱ
		유기음	ㅍ		ㅑ	ㅋ
		경음	ㅍ		ㅑ	ㄱ
	파찰음	평음		ㅅ		
		유기음		ㅆ		
		경음		ㅆ		
	마찰음	평음		ㅅ		
		유기음	빙	ㅅ		ㅇ
		경음				ㅎ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위 표를 보면 현대 국어와 다른 점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일단 경구개음이 존재하지 않으며, 치음이 존재합니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기존 체계에서 아음은 연구개음, 설음은 치조음, 순음은 양순음, 후음은 그대로 후음이 됩니다. 그러면 치음이 남는데, 치음도 치조음과 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와 치조음보다 조금 앞쪽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치음을 따로 떼어서 분류했지만 치음도 치조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현대 국어와 달리 '빙, ㅅ, ㅇ'와 같은 유성 마찰음이 존재했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장애음의 경우 성대의 울림이 없는 무성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는 장애음에서도 성대의 울림이 있는 유성음이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음 중에서 다룰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룰 것입니다. 맨 처음 기출 문제 분석에서도 확인했듯이 중세 국어의 음운 파트에서 문제는 웬만하면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현대 국어가 아니라 중세 국어인 만큼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따져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① ㅅ
- ② ㅅ
- ③ ㅇ
- ④ 병서
- 각자병서
- 합용병서
- ⑤ ㅅㅅㅅ
- ⑥ ㅇ
- ⑦ ㅎ

ㅅ

'ㅅ'은 치조 유성 마찰음으로 /z/ 정도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9분포 환경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로 체언이나 부사 내부에서 나타나기도 했고,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가) 겨술, 구술, 무술 / 겨식
겨울 가을 마을 겨의

(나) 굿+어 → 그서, 낫+어 → 니서, 짓+어 → 지서
(선을)굿다 (선을)낫다 (글을)짓다

10'ㅅ'은 시간이 흐르며 탈락하는 변화를 보이는데 16c 중반 무렵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마) 무슴>무음, 수시>수이, 여스>여우

이러한 'ㅅ'의 변화는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나)처럼 어간말 'ㅅ'은 모음 어미가 올 때 유성음 사이에서 'ㅅ'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모든 용언이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ㅅ'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죠. ¹¹즉,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구분한다면 'ㅅ'이 그대로 쓰인 것이 규칙 활용, 'ㅅ'으로 바뀐 것을 불규칙 활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어	-으니	-어	-으니
규칙	(옷을) 벗다	벗어	벗스니	벗어	벗으니
	(손을) 씻다	씻어	씻스니	씻어	씻으니
불규칙	(선을) 굿다	그서	그스니	그어	그으니
	(선을) 낫다	니서	니스니	이어	이으니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ㅅ'이 'ㅅ'변하는 용언의 경우에는 'ㅅ'이 탈락하게 되면서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 용언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ㅅ

'ㅅ'은 양순 유성 마찰음으로 /β/ 정도의 음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분포 환경은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로 체언이나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났습니다.

(가) 사뵈, 글뵈, 서뵈, ¹²더뵈
새우 글뵈 서뵈 더뵈

(나) 뵈 + 어 → 도뵈, 늪 + 어 → 누뵈

'ㅅ'도 시간이 흐르며 변화를 겪게 됩니다. 15c 중반을 지나며 모음 앞에서 반모음 W로 바뀌게 됩니다.

(마) 글뵈>글뵈, 서뵈>서우

이러한 변화 역시 현대 국어의 'ㅅ' 불규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음 앞에서

9) 'ㅅ'는 사잇소리를 표기하는 기능도 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 드물게 'ㅅ'으로 변한 경우도 있고, 방언에서는 'ㅅ'으로 변한 경우도 있으나 그 수는 적습니다.

11) 규칙 활용은 활용시에 어간이나 어미의 모습이 일정하거나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이고, 불규칙 활용은 그것이 일정하지도 않고,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2) '더뵈'는 '뵈다'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당시에는 특이하게 '-의'라는 명사 파생 접미사도 존재했죠. '더뵈'는 '-의'가 'ㅅ'에 의해 원순성을 갖게 되어 '위'가 된 것입니다.

뵈 + 의 > 더뵈 > 더뵈 > 더우

'브'이 '빙'으로 바뀌는 용언은 현대 국어의 '브' 불규칙 활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어/아	-으니/으니	-어/아	-으니
규칙	(줄을) 잡다	자바	자브니	잡아	잡으니
	(풀을) 뽑다	쏘바	쏘브니	뽑아	뽑으니
불규칙	(남을) 돕다	도바	도부니	도와	도우니
	(방에) 놀다	누뵤	누브니	누워	누우니

| ㅅ

'ㅅ'은 먼저 음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 (가) 아버지, 어엿비
아버지 불쌍히
- (나) 文字 문장(문자)

(가)의 'ㅅ'은 어두나 어중에 쓰였는데, 아무런 음가가 없는 형식적인 표기입니다. 현대 국어에서 모음 앞에 쓰이는 '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배운 동국 정운식 한자음으로 역시 아무런 음가가 없습니다.

반면 'ㅅ'이 음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후두 유성 마찰음으로 [s] 정도의 음가를 갖습니다. 다른 유성 마찰음처럼 유성음 사이에 놓이는데 분포 환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 '르, 반모음 y, △, 서술격 조사, -리-' 등 뒤에서 나타납니다. 체언이나 용언의 활용형, '체언+조사'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 물애, 궁애, 깃위, 벌애
모래 가위 지렁이 벌레
- (라) ¹³알 + 거늘 → 알어늘, 여희 + 거늘 → 여희어늘
여의다
- (마) 물 + 과 → 물와
물

위의 예시에서 'ㅅ'이 음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가지 근거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① 종성이 연결되지 않음

중세 국어는 표음주의 표기법을 보이기 때문에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면 앞말 종성이 연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물애'에서 보듯이 '모래'가 아니라 '물애'로 적고 있습니다. 이는 'ㅅ'이 단순히 형식적인 표기가 아니라 그 음가를 지닌 글자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②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지 않음

중세 국어에서는 'ㅣ, 반모음 y' 뒤에 모음이 올 경우 반모음 첨가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따라서 '여희어늘'에서 일반적이라면 '여희여늘'이 되어야 하지만 그냥 '여희어늘'로 나타납니다. 이는 역시 'ㅅ'이 음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 (라), (마)에서 보면 'ㄱ'이 음가를 지닌 'ㅇ'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ㄱ약화), 이 음운 현상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¹⁴이러한 'ㅇ'은 16c 중반 이후 탈락하는 변화를 보입니다. '물애'가 '모래'가 되는 것도 이러한 탈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14) '벌애>벌레'처럼 '르'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르ㅇ'연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 ㅅ, ㅇ'를 다뤘는데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따져보자면, '△, ㅅ'이 이미 문제로도 다뤄졌던 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중세 국어에서 보통 현대 국어와 관련지어 문제를 출제하는데 '△, ㅅ'는 현대 국어와 함께 불규칙 활용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ㅇ'의 경우에는 아직 문제로 다루지지는 않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ㅇ'의 핵심은 여기서 다룬 'ㅇ'이 음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와 뒤에서 배우게 될 'ㄱ 약화'입니다. 이 내용들을 주의 깊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병서

병서에는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는데, 먼저 각자병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병서** 글자는 **된소리**를 나타냈는데 우리말 표기에 활발히 쓰이지는 못했습니다.

- (가) 흥실 찻기, 흘 꼳
- (나) 들썩고(뿔+ㅅ+고), 녀썩고(녕+ㅅ+고), 연썩고(연+ㅅ+고)
뿔다 녀다 연다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데 (가)에서처럼 각자병서 글자로 된소리를 적었습니다. (나)는 뒤에서 배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ㅅ, ㅅ'이 된소리가 나는 것을 각자병서 글자로 적은 것입니다.

각자병서 글자 중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ㅎ, ㅇ, ㅌ'이 있습니다.

- (다) ㅅ, 도르ㅅ, ㅅ다
ㅅ 도리어 ㅅ다
- (라) ¹⁵히ㅅ(ㅎ+ㅅ+어)
하게 하다
- (마) ㅅ 그티 옷니 머리에 ¹⁶다ㅌ니라
혀의 끝이 윗니의 머리에 닿느니라

'ㅎ'은 반모음 y 앞에서만 실현이 되는데, 된소리를 나타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사용되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ㅇ'은 된소리가 아니며, 반모음 y를 조금 더 긴장된 음으로 발음하라는 표시입니다. 피사동 접미사가 쓰일 때 사용되며, 반모음 y 뒤에 나타납니다.

'ㅌ'도 된소리가 아니며 'ㄴ'을 길게 발음하라는 표시입니다.

15) '-어-'는 사동 접미사로 '하다' 동사와 결합한 후 뒤의 어미 '-어'에 반모음 y를 첨가시키고 있습니다.

16) '다'의 'ㅎ'이 'ㅌ'으로 평파열 음화된 후 비음화되어 'ㄴ'되었습니다.

합용병서는 글자 배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① 'ㅅ-'계 합용병서
ex) 쏜(또), 쟀리다(꺼리다), 쟀르다(빠르다)
- ② '브-'계 합용병서
ex) 뽑(썰), 뽑(뚫), 뽑다(쓸다), 빠(쓰다)
- ③ 'ㅅㅌ-'계 합용병서
ex) 썩(썩), 빠(떼), 빠리다(떼리다)

¹⁷'ㅅ-'계 합용병서는 **된소리**를 나타냅니다. 즉, 글자는 두 개지만 소리는 하나의 된소리를 표시하죠.

'브-'계 합용병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음이 모두 그 음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 중세 국어에서 된소리는 각자병서와 'ㅅ-'계 합용병서로 나타났습니다.

즉 'ㅅ-'계 합용병서와는 달리 두 개의 글자가 두 개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ㅂ'이 음가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현대 국어의 단어에 남아 있는 중세 국어의 흔적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벼삐	볍씨
조밭	좁쌀
휘뜰다	휩쓸다

현대 국어의 '볍씨'는 중세 국어에서 '벼'와 '삐'가 결합한 형태였습니다. 이 결합형이 현대 국어에서는 '볍씨'가 되는데 갑자기 'ㅂ'이 생겨났습니다. 이 'ㅂ'은 '삐'의 'ㅂ'이 앞말 종성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후에 '삐'는 '씨'로 바뀌었지만 'ㅂ'은 화석처럼 그 흔적이 남아서 '볍씨'로 굳어져 쓰인 것입니다. **만약 'ㅂ'이 음가가 없는 글자였다면 'ㅂ'이 'ㅅ'과 분리되어 앞말 종성에 내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ㅂ-'계 합용병서는 두 글자가 각각 음가를 지니고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ㅃ-'계 합용병서는 'ㅂ+ㅅ계 합용병서'로 'ㅂ+된소리'였습니다. 즉, 3개의 글자였지만 2개의 소리를 나타낸 것이죠. 이 또한 현대 국어의 단어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중세 국어	현대 국어
훈뻘	함께

위에서 했던 증명 방법을 토대로 했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현대 국어의 음운 현상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아마 눈치챈을 수도 있을텐데, 그것은 바로 앞말 종성의 'ㄴ'이 'ㅂ'에 의해 조음 위치 동화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조음 위치 동화는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선행 음절의 종성에 놓인 자음이 후행 음절의 초성에 놓인 자음의 조음 위치에 닮아가는 현상입니다. 'ㄴ'의 경우 'ㅂ' 앞에서 양순음 'ㅁ'으로 동화되죠. '산불[삼불]'처럼요. 위의 '함께'에서 'ㄴ'은 '훈뻘'의 'ㄴ'이 'ㅂ'에 의해 'ㅁ'으로 조음 위치 동화를 겪은 흔적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ㅂ'이 음가를 지니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조음 위치 동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ㅃ-'계 합용병서에서 'ㅂ'이 음가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더 알아보기 어두 자음군

합용병서에 대해 다룰 때 '어두 자음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음군은 두 개 이상의 자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음군을 단순히 표기상으로 따질 수도 있고, 실제 소리의 관점에서 따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기의 관점에서 보면 'ㅅ-'계, 'ㅂ-'계, 'ㅃ-'계 모두 자음군입니다. 그러나 소리의 관점에서 보면 둘 이상의 소리가 나타나야 자음군이 되니, 'ㅂ-'계와 'ㅃ-'계만 자음군이 됩니다. 그리고 '어두'는 단어의 첫머리에 놓이는 것을 말합니다.

'ㅂ'이 음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은 이미 모의고사 문제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다룬 'ㄹ', 'ㄷ'과 함께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니 꼭 잘 알아두세요 :)

지금부터 다룰 'ㅅ, ㅆ, ㅈ, ㅊ, ㅎ, ㅎ, ㅎ'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낮으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ㅅ, ㅆ, ㅈ

'ㅅ, ㅆ, ㅈ'은 중세 국어에서는 치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개음화가 일어났던 17c를 전후로 해서 경구개음으로 바뀌었습니다. 'ㄷ, ㅌ, ㅍ'가 'ㅅ, ㅆ, ㅈ'로 바뀌는 구개음화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ㅅ, ㅆ, ㅈ'가 일단 먼저 구개음이어야 하니까요.

'ㅅ, ㅆ, ㅈ'가 치음이었던 덕분에 당시에는 이들 자음 뒤에 반모음 y가 올 수 있었습니다. 'ㅅ, ㅆ, ㅈ'이 경구개음이라면 반모음 y와 조음 위치가 비슷해서 반모음이 올 수 없지만 치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예) 초(초불), 적다(少), 창(노래)

ㅎ(옛이음)

흔히 옛이음이라고 하는 'ㅎ'은 현대 국어에서 음절 종성에 쓰이는 'ㅇ'과 그 음가가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들며 'ㅎ'이 현대 국어와 달리 음절 초성에서도 발음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 바울(방울), 이어(잉어), 보오리(봉우리)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며, 'ㅎ'을 단순히 연철한 것뿐이지 실제로 초성에서 발음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ㅎ

'ㅎ'은 그 쓰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① 동국정운식 한자음
ex) 不 불(불), 八 밭(밭) / 音 품(음), 依 핑(의)
- ② 된소리 부호
ex) 니르고져 훔 배(~훔 빼), 돌아오실 제(~돌아오실 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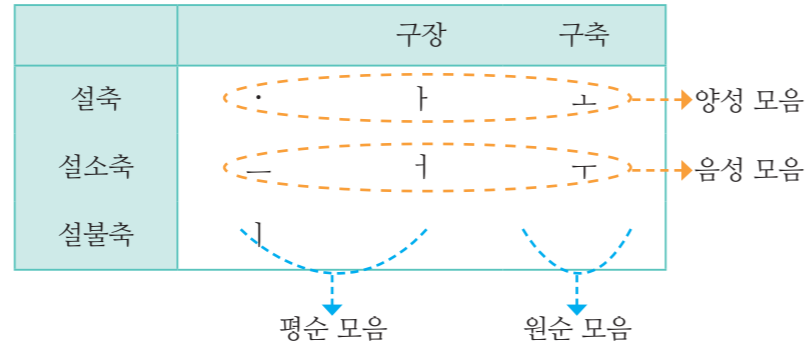
①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 사용된 모습입니다. 'ㄹ' 받침 뒤에 입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두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②는 된소리 표기로 사용된 모습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ㄹ'과 함께 쓰였습니다. 'ㅎ'이 쓰이지 않을 때 된소리로도 적힌 것을 보면 'ㅎ'이 된소리 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ㅎ'은 이러한 제한적인 쓰임으로 인해 1465년에 간행된 『원각경언해』에서부터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2)모음 체계

『훈민정음』에서는 모음을 혀의 오르림 정도를 말하는 '축'과 입의 모양인 '구장, 구장'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축'은 혀가 움츠러들어서 나는 소리, '설소축'은 혀가 조금 움츠러들어서 나는 소리, '설불축'은 혀가 움츠러들지 않으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축'에 따라 그 음상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설축에 속하는 모음은 양성 모음이 되고 설소축에 속하는 모음은 음성 모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ㅣ'은 중성 모음이 되죠. 중세 국어에서는 이러한 '축'에 속하는 계열들끼리 함께 쓰이면서 규칙적인 모음 조화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¹⁸한편 '구장'은 입이 벌어지면서 나는 소리, '구축'은 입이 오므러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각각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음도 자음과 마찬가지로 따로 다룰만한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ㅣ (아래 아)

'ㅣ'는 후설 저모음으로 'ㅏ'와 'ㅓ'의 중간 정도의 음가를 가집니다.

'ㅣ'도 시간이 흐르며 변화를 겪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합니다.

	변화	예시
16c	둘째 음절 이하에서 · > ㅡ	누물>누물 기루다>기르다
18c	첫째 음절에서 · > ㅏ	놀다>날다 무루다>무르다>마르다

두 번의 변화를 거치는데, 먼저 16c에 둘째 음절 이하에서 '· > ㅡ'의 변화를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모음 조화가 깨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누물>누물'을 보면 양성 모음인 'ㅣ'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모음 조화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ㅣ'가 'ㅡ'로 바뀌면서 '양성-음성'의 배열을 띠게 되어 모음 조화가 깨졌습니다.

이후 18c에는 첫째 음절에서 '· > ㅏ'의 변화를 보입니다.

'ㅣ'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이미 모의고사에 모음 조화와 함께 문제로 다뤄진 적이 있으니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ㅣ ㅐ, ㅑ, ㅒ, ㅓ

'ㅐ, ㅑ, ㅒ, ㅓ'는 'ㅣ'상합'의 방법으로 형성된 글자로 현대 국어와 달리 하향 이중 모음이었습니다. 이후 근대 국어 시기에 단모음화가 되면서 전설 모음을 이루게 됩니다.

'ㅐ, ㅑ, ㅒ, ㅓ'가 단모음이 되었다는 것은 'ㅣ' 모음 역행 동화 현상으로 인해 증명됩니다. 현대 국어의 음운 파트에서도 다뤘었지만, 'ㅣ' 모음 역행 동화는 후설 모음이 그에 대응하는 전설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모음 체계에 전설 모음이 있어야 합니다. 15c만 해도 전설 모음은 'ㅣ'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c에 'ㅣ' 모음 역행 동화가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 이 무렵 'ㅐ, ㅑ, ㅒ, ㅓ'가 전설 모음으로 단모음화되었다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추가적으로 'ㅑ, ㅑ, ㅑ, ㅑ'도 현대 국어와 그 음가가 달랐습니다. 이 글자 역시 'ㅑ, ㅑ, ㅑ, ㅑ' 뒤에 'ㅣ'가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모음+단모음+반모음'의 구조를 갖는 삼중 모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ㅑ, ㅑ'가 단모음화 되면서 이들도 이중 모음이 되었죠.

3)음운 현상



중세 국어에서도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만 이 부분이 문제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지난 5년간 '구디>구지'의 구개음화가 5개 선지 중에 하나로 정말 가볍게 나온 것이 유일합니다. 또한 문법 개론서들을 살펴봐도 이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할까 하려다가 중세 국어 예문을 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실게 되었습니다. 음운 현상 전부를 실지는 않았으며, 그 내용을 정말 간단하고 빠르게 다룰 것이니 여러분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

(1)음절의 끝소리 규칙

¹⁹앞에서 다룬 '8종성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합니다.

(가) 낚과>납과, 밑과>민과, 놓는>논는>논는, 꽃도>꿏도, 좇디>좇디

일반적으로 조음 위치가 같은 계열의 전철로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ㅎ'의 경우 후음에서는 8종성에 전철 글자가 포함되지 않아 'ㄷ'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모음 조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에 의한 대립에 의해 모음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러한 모음들이 규칙적으로 같은 계열들끼리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중세 국어에는 '-아/어'뿐만 아니라 '-으/으, -오/우'로 시작하는 모음들이 있어서 더 폭넓게 적용되었습니다.

19) '앗이, 붓아'처럼 음절 종성에 'ㅏ'이 오는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아/어	-으니/으니	-음/음
붙다	붙아	붙으니	붙음
벗다	벗어	벗으니	벗음

(3) 반모음화 / 반모음 첨가

현대 국어처럼 'ㅣ'나 'ㅜ/ㅠ'가 모음 앞에서 반모음화되거나 반모음이 첨가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ㅜ/ㅠ'의 경우 현대 국어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ㅣ' 모음에 해당하는 경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 티 + 어도 → 티도, 티 + 음 + 이 → 튜미
- (나) 지 + 어 → 지여, 지 + 음 → 지음

위 예시처럼 '-아/어'뿐 아니라 '-오/우'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도 반모음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같은 환경에서 반모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세 국어에는 하향 이중 모음이 많다고 했었죠? 그래서 'ㅣ' 모음이 다른 모음 뒤에서 반모음화하기도 합니다.

- (나) 부터 + ㅣ (서술격 조사) → 부테, 자퍼 + 잇고 → 자펏고,
와 + 이시 + 며 → 웨시며

중세 국어 문헌을 보면 위 예시처럼 특이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ㅣ'가 다른 모음 뒤에서 반모음화하여 결합된 결과입니다. 문헌을 분석하거나 읽을 때 하향 이중 모음이 나오면 그게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나눠가면서 읽어보세요. :)

(4) 20 'ㄱ' 약화

앞에서 후두 유성 마찰음 'ㅇ'에 대해 다룰 때 'ㄱ' 약화로 인해 'ㅇ'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가) 알 + 고 → 알오, 울 + 거늘 → 울어늘
- (나) 드외+거늘 → 드외어늘, 세 + 고 → 세오
- (다) 눈 + 이(서술격 조사) + 고 → 누니오
- (라) 흥 + 리 + 거늘 → 흥리어늘

위에서처럼 'ㄹ', 반모음 y, 서술격 조사, 리' 등 뒤에서 'ㄱ'이 'ㅇ'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철이나 반모음 첨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ㅇ'이 음가가 있다고 한 것이고요.

체언 뒤에 조사가 올 때도 'ㄱ' 약화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ㄹ'과 모든 모음 뒤에서도 'ㄱ'이 나타나지 않아 그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 (라) 나 + 곳(보조사) → 나웃, 물 + 과 → 물와

(5) 유음 탈락

유음 탈락은 현대 국어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그 적용 환경이 더 넓었습니다. 'ㄴ, ㅅ'뿐 아니라 'ㄷ, ㅈ, ㅊ'에서도 유음 탈락이 일어났습니다.

- (가) 살 + 누 + 니 → 사누니, 알 + 터 + 니 → 아터니, 살 + 저 → 사저,
알 + 습 + 고 → 아습고
- (나) 굶 + 는 → 글는, 앓 + 는 → 알는

예외적으로 (나)처럼 'ㄹ'로 시작하는 자음군의 경우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ㄹ'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ㄴ' 앞에서 유음 탈락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유음 탈락과 순행적 유음화의 관계

유음 탈락은 15c에 이미 존재하여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6c에 들어와서야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미 유음 탈락을 겪는 형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나려면 동화주인 'ㄹ'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탈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위의 (나)처럼 'ㄹ'로 시작하는 자음군의 경우 'ㄹ'이 'ㄴ' 앞에서도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순행적 유음화를 일으키는 동화주인 'ㄹ'이 존재하므로 순행적 유음화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살 + 누 + 니 → 사누니
굶 + 는 → 글는

이러한 활용 형태가 현대 국어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현대 국어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날 때에는 'ㄹ'로 시작하는 자음군에서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ㄱ' 약화는 중세 국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만약 시험이 조금 생소한 부분을 건드리고 싶다면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19) 이 현상을 약화가 아니라 'ㄱ'이 탈락한다고 보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참고 문헌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2007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국어, 교육과학기술부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방민호 외(2018),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이관규 외(2018),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민현식 외(2018),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김정인(2019), 「사이시옷 개재 명사의 형성에 관한 몇 문제」, 《국어교육》 165, 한국어교육학회
 이동석(2000), 「르탈락 현상의 적용 환경과 발생 및 소멸 시기에 대하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김하수 외(2014), 『남과 북의 맞춤법』,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진호(2016), 『국어 음운론 강의』 (개정판), 삼경문화사
 이문규(2016),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개정판), 한국문화사
 구분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구분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I』, 집문당
 고영근(2015),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남기심 외(2019), 『표준 국어 문법론』 (개정판), 한국문화사
 고영근 외(2018), 『우리말 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이관규(2017), 『국어 교육을 위한 국어 문법론』 (개정판), 역락
 이익섭 외(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나찬연(2009), 『현대 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임지룡 외(2020),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최형기 외(2020), 『국어 문법 교육 강의』 (개정판), 태학사
 신승용 외(2020), 『문법 하고 싶은 문법』, 역락
 유현경 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이미지 자료



〈icons made by Freepik from www.flaticon.com〉

※책의 오타나 오류, 개선할 점 등 여러분의 소중한 다양한 의견을 블로그 댓글로 적어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교재 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문법의 정수^{4.0}

2021년 2월 15일 4.0 업데이트

저 자 이한결

e-mail sol8250@naver.com

블 로 그 <https://blog.naver.com/sol8250>

